

2021

오픈 작품집  
단막 상

구소연, 김진아, 박경화, 백진영  
송순화, 신희선, 왕두리



**o'p**

---

2021

오픈 작품집  
단막 상

오픈(O'PEN)은 작가(pen)를 꿈꾸는 이들에게 열려 있는(open) 창작공간과 기회(opportunity)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CJ ENM이 드라마 제작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과 함께 <sup>(1)</sup>신인 창작자 발굴 <sup>(2)</sup>콘텐츠 기획 개발 <sup>(3)</sup>제작/편성 <sup>(4)</sup>비즈매칭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신인 창작자 발굴—육성 사업입니다.

<b>1 작가모집</b>	대본 심사, 인터뷰를 거쳐 신인 작가 선발
<b>2 특강/세미나</b>	스토리 기획, 구성, 캐릭터, 콘텐츠 트렌드에 대한 이론 및 실습
<b>3 워크숍 (세션1)</b>	시리즈 창작 (개인 창작, 공동 창작)
<b>4 워크숍 (세션2)</b>	시리즈 창작 (개인 창작)
<b>5 제작/편성</b>	tvN <드라마 스테이지 2022> 방영 (22년 4월~)
<b>6 작품집 제작</b>	<오픈 작품집> 단막/숏폼 당선작 도서 및 e-book 제작
<b>7 비즈매칭</b>	제작사 등과 집필 계약 지원
<b>워크숍 멘토 (세션1)</b>	류보라 작가 <너를 닮은 사람>, <좋아하면 울리는> 시즌1,2 류용재 작가 <종이의 집>, <사이코패스 다이어리> 명수현 작가 <월간 집>, <혼술남녀> 임예진 작가 <녹두전>, <구르미 그린 달빛> 이태곤 감독 <이 구역의 미친X>, <청춘시대> 이향희 작가 <영혼수선공>, <동네 변호사 조들호> 황은경 작가 <시티헌터>, <뉴하트>
<b>워크숍 멘토 (세션2)</b>	김윤주 작가 <유미의 세포들>, <그 남자의 기억법> 류용재 작가 <종이의 집>, <사이코패스 다이어리> 박재범 작가 <빈센조>, <열혈사제> 이정아 작가 <여신강림> 크리에이터, <커피 프린스 1호점> 정윤정 작가 <아이돌 : THE COUP>, <미생> 진수완 작가 <킬미 힐미>, <해를 품은 달>

<b>세미나/특강</b>	· 콘텐츠 기획: 티빙이 원하는 콘텐츠 -TVING 황혜정 국장 · 콘텐츠 기획: 스튜디오 드래곤이 원하는 콘텐츠 -스튜디오 드래곤 김영규 대표 · 캐릭터라이징 -백승재 작가 <공공의 적> · 기획과 캐릭터 -백미경 작가 <마인>, <힘센여자 도봉순> · 기획과 플롯 -오기환 감독 <패션왕>, <작업의 정석> · 매체, 콘텐츠 트렌드 분석 -CJ ENM 트렌드리서치팀 · 소비자 트렌드 분석 -최지혜 교수 <트렌드코리아 2021> 공저자 · 오픈 선배와의 대화 -신하은 작가 (오픈 1기) <갯마을 차차차> · 계약서 쓰기에 대한 이해
<b>현장 취재 /인터뷰</b>	산부인과 전문의 전승주, 성지현 교수 정신과 전문의 주수현 교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최영식 원장 CJ ENM 파주 스튜디오 견학 tvN <드라마 스테이지 2022> 제작 현장 견학

11	향숙전	구소연
69	청춘 아바타	김진아
119	스톡 오브 하이스쿨	박경화
175	대필편지 김해경	백진영
241	신입사원 연수원	송순화
297	보너스 타임	신희선
345	채광이 좋아서	왕두리



## 기획의도

작자·연대 미상의 실존 고전소설 <숙향전(淑香傳)>. 그걸 쓴 작가가 천민이었다면, 심지어 글을 익히는 것조차 터부시되던 여자였다면 어떨까? 이 드라마는 그런 발칙한 상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세상에서 서책 읽는 게 제일 좋고, 남몰래 이야기를 지어 책을 꾸리는 게 유일한 낙인 여종 향숙. 남들 눈엔 그저 한양 사대부가의 초라한 몸종일 뿐이지만 그녀의 머릿속엔 무궁무진한 세계와 꿈들이 가득하다. 모시는 아씨 초희의 심부름으로 서찰을 전하러 찾아간 날. 향숙은 양반가 자제 홍달에게 한눈에 반해버린다. 가장 보수적이었던 시대와 장소, 조선시대 한양. 향숙은 과연 신분을 넘어선 꿈과 사랑을 모두 쟁취할 수 있을까?

## 등장인물

### 향숙(17세, 여)

초희의 몸종. 피란길에 부모를 모두 잃고 간신히 목숨만 건져 서씨 가문의 여종이 되었다. 워낙 어릴 적 있던 일이라 자신의 가문도 출신성분도 잘 모른다. 그저 희미하게나마 기억하는 건, 강 속으로 깊이깊이 빠지던 몸을 건져주던 단단한 손길 하나. 상황이 어쩔건 씩씩하고 활발하다. 할 말은 한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이다. 시 짓는 걸 좋아하고 서책 읽는 걸 즐기는 초희의 곁에서 때론 여동생처럼, 벗처럼 살며 자연스럽게 글을 익히고 가까이하며 살았다. 소설을 읽는 건 고단한 집안일도, 천민이라는 신분의 설움도 모두 잊을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이었다. 초희가 읽다 물려 던져둔 책들은 새벽이슬이 내리는 사이만큼은 모두 향숙의 차지였다. 등불 하나 없이 달빛에, 별빛에 의지해 몰래 읽던 책이 어느덧 향숙의 키를 훌쩍 넘겼다. 자꾸만 읽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새로운 이야길 생각하게 되었다. 마루를 걸레로 훑치다가, 초희의 저고리를 다리다가, 마당에 쌓인 눈을 비질하다가도 수시로 몽상에 빠졌다. 상상 속에서선 향숙도 더는 부모 잃은 가여운 여종이 아닐 수 있었다. 세상을 누비는 자유롭고 씩씩한 주인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만나게 되고야 만 것이다. 상상 속에서만 그토록 그리던 꿈의 '남'을.



### 홍달(22세, 남)

빠어난 문필의 시인. 조정을 주름잡는 명문가 자제지만, 서얼이라는 출신성분 탓에 벼슬길은 꿈도 꾸지 못한다. 단지 어머니가 천민이란 이유만으로 뛰어난 기량을 세상에 펼칠 기회를 가져보지도 못했다. 양반으로 살며 배를 곯은 적도, 어디 가서 깔보는 눈빛 한 번 받아본 적 없지만 속은 굶을 대로 굶어 있다. 일찍이 큰 야망 같은 건 버리고 시에 골몰하며 살았다. 중국 유수의 한시들은 모조리 꿰고 있으며, 문필을 좋아하는 또래 벗들과 무리 지어 다니며 산수에 묻혀 시를 짓고 읊으며 지내길 가장 좋아한다. 남들 앞에선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가벼이 장난스럽게 굴며 속내를 드러내질 않는다. 시를 짓는 것만큼은 조선팔도 최고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만큼 지나가며 던지는 농 한마디에도 뼈가 있다. 얼핏 그저 장난기 많은 한량처럼 보이지만, 언중유골이다. 유들거리는데도 안에 숨겨진 진짜 성격은 무척 섬세하며 현명하다. 서운과는 가장 오래된 죽마고우이다. 윤의 누이동생 초희의 서찰을 전하러 온 향숙과 만나던 날,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한다.

### 서초희(20세, 여)

조정 최고의 권력자이자 동인의 영수인 서인의 막내딸. 아리따운 얼굴, 고운 태도는 만나는 이마다 하늘에서 서씨가문에 월궁항아님을 내려줬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다. 단순호치. 절세가인. 걸음마를 막 땀 적부터 오라버니 윤에게서 글자부터 배웠다. 여인이라 학문을 게을리하는 건 모두 낡은 생각이라며 오라비 윤과 아버 인이 안겨다 준 책들을 읽고 자연스레 학식도 풍부한 규수가 되었다. 조선 땅 최고 권력가의 더할 나위 없는 아씨. 그것이 초희의 삶이고 인생이었다. 부족함 없이 자란 삶은 구김살 없고 여유로운 태도를 주었지만, 동시에 구겨진 적 없던 도도한 자존심도 선물했다. 한 번도 누구에게 밀리거나 저본 적 없기에, 본인도 자각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강한 질투심과 시샘을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다.

### 서운(23세, 남)

홍달의 죽마고우이자 초희의 오라비. 필명으로 여러 권의 소설을 낸 조선팔도 최고의 인기 작가다.

### 서인(40세, 남)

초희와 윤의 아버지. 좌의정. 종들에게도 후한 대접을 하는 호인.

### 그 외

점주, 선비1·2·3, 돌쇠, 초희 모, 여종1, 홍달 부, 홍달 모, 종사관, 포졸1·2·3·4, 백성1·2 등

## 줄거리

### 향숙, 연서를 전하다 연인을 만나다

향숙은 서좌상택 아씨인 초희의 몸종이다. 오라비의 벗인 홍달을 흠모하던 초희는 향숙을 통해 홍달에게 연서를 전한다. 장난기 많은 홍달 때문에 물에 빠지게 되는 향숙. 향숙은 하나뿐인 아씨의 짝으로 홍달이 영 마음에 들질 않는데, 연서를 전해주며 마냥 가벼워만 보이던 홍달의 새로운 면모를 자꾸만 발견하게 되며 정이 쌓인다.

### 배움에 신분이 있더이까

초희의 심부름으로 패관소설을 빌리러 세책점을 자주 드나들던 향숙. 향숙은 주인의 눈을 피해 몰래 책을 보다 도둑질로 오해를 사 포도청에 끌려갈 위험에 처하게 된다. 글도 못 읽는 천민 주제에 책을 훔쳐다 팔아왔다는 누명을 쓰게 된 향숙. 평소에 초희에게 책을 읽어주고, 홍달에게 보낼 편지도 대신 써오던 향숙이라 억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신의 비밀을 제대로 밝힐 수도 없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데, 다행히 홍달의 도움으로 향숙은 무사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홍달은 향숙을 질책하기보다는 사정이 있었으리라 이해를 해주고 두 사람은 그간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속내를 서로에게 털어놓으며 인간적인 교감을 하게 된다.

### 운명의 장난

향숙은 어린 시절 피란을 가던 중 물에서 구해줬던 소년이 홍달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홍달을 향해 점점 깊어만 가는 마음을 거둘 수가 없다. 그렇지만 친연니처럼

늘 다정한 초희를 배신할 수 없어 괴로움에 빠진다. 향숙의 그런 마음과는 상관없이, 집안 간의 혼담으로 홍달과 초희의 혼인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된다. 향숙은 홍달에 대한 마음을 감추고 두 사람을 축복하고자 결심하지만, 다정한 홍달 앞에서 사랑을 접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

### 불행은 겹쳐서 온다 하였으니

홍달과 초희의 혼례식 날, 향숙은 차마 두 사람의 혼례를 지켜볼 자신이 없어 초희의 방에 홀로 남아 집을 정리하게 되는데. 갑작스레 들이닥쳐 향숙을 붙잡아 가는 포졸들. 향숙은 나라에서 금한 패관소설과 잡서를 사들였다는 이유로 포도청에 끌려가게 된다.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차마 자신의 책이 아니라 초희의 것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향숙. 향숙은 과연 위기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을까. 홍달과 초희의 혼례는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까.

## 향숙전 구소연

### #1. 산길(낮)

울창한 나무, 짙푸른 초록 풀들이 우거진 여름 산속.

바스락. 바스락... 분주히 걸어가며 나뭇가지들 헤치는 자그마한 두 손.

쇠아— 시원한 바람 불어오면, 필력은 무명 치맛자락과 연분홍빛 웃고름.

초희(NAR) 삼각산 중턱,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다는 계곡가의 너른 바위를 찾거라.

바람 소리에 섞여 어디선가 계곡물 흐르는 소리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하다.

바삐 걸음을 옮기며 연신 두리번거리는 향숙의 뒷모습.

바람 몇자, 거짓말처럼 물소리도 사라지고 적막 흐른다. 향숙, 고개 가웃하는데

홍달(E) 맑은 강물 한 굽이 마을을 안고 흐르니

멈칫! 걸음 멈추고 뛰느라 가빠진 숨까지 덩달아 흠 멈추곤

소리 나는 쪽 돌아본다.

초희(NAR) 귀를 기울이면, 물소리 너머 사내들의 시 읊는 소리가 들릴 것이야.

저기구나, 향숙 얼굴 환해지며 신나 뽀박질하다 돌부리에 툭, 걸리고 마는 발.

어어— 이리저리 손 휘젓다 어린 소나무 가지 간신히 붙잡는데

우지곤! 나뭇가지 부러지며 환히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 부러진 가지 너머

맑은 물 쿵쿵 흘러내리는 계곡가 넓은 바위 보이고. 그림처럼 앉고, 서고,

나무에 등 기대고 있는 도포 입은 선비들의 모습. 쪽빛 두루마기에 갓 쓰고

나무에 등 기대어 서 있는 홍달의 희고 깨끗한 옆얼굴.

홍달 긴긴 여름 이 강마을은...

향숙, 휘청~ 휘청~ 하다가 중심 잃고 깽! 비명 지르자,  
홍달 시 읊다 말고 돌아본다.

홍달 일마다 그윽...하구나...?

향숙과 홍달의 눈 정면으로 마주친다.

초희(NAR) 개중 낮빛이 가장 옥같이 희고 자태가 달 같은 분을 찾아 이 서찰을  
전해다오.

놀라 커다래지는 홍달의 눈.

홍달 보며 풀썩! 바닥으로 넘어져 데굴데굴 구르는 향숙.

화면 멀어지며 산맥, 계곡, 선비들, 홍달, 향숙의 모습 산수화처럼 멈추고.

붓글씨로 화면 위에 힘차게 써지는 타이틀. <향숙전>

지잉! 징 소리 우렁차게 울린다.

## #2. 계곡(낮)

선비들 근처에 우두커니 혼자 서 있는 향숙. 치마 천방지축 흙투성이다.

선비들 향숙 의식하며 저마다 책 들여다보고, 계곡물에 손 담그고,

슬쩍 서로에게 눈짓하며 딴청 피운다.

나무에 비스듬히 기대선 홍달만이 향숙을 흥미로운 눈길로 지켜본다.

향숙, 찬찬히 선비들 얼굴 하나씩 살핀다.

향숙(NAR) (보라색 도포 입은 선비1 얼굴 보고) 보라색... 얼굴이 너무 검구.  
(분홍색 도포 입은 선비2 계곡물에 손 씻는 모습 훑곤) 분홍색은  
자태가 너무 경박하구나. (책 들여다보는 선비3 보고) 저자는  
아씨보다 키가 작으니 아니다.

마지막으로 홍달 보곤 향숙 꿀꺽, 마른침 삼키고 품에서 서찰 꺼내어 든다.

향숙 나리의 함자가 흥 자, 달 자 되십니까.

홍달 (짐짓) 내가 너에게 그걸 왜 알려주어야 하느냐.

향숙 (맞구나 싶은, 새침하게) 중히 전할 서찰이 있어 그러니 아량을  
베풀어주시지요.

홍달 누가 보낸 서찰인데?

향숙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홍달 (절레절레) 허, 그렇다면 나도 알려줄 수가 없겠구나. 저잣거리에서  
떡 하날 얻을래도 엽전부터 내밀어야 하는 법.  
(약 올리듯) 그런 세상의 이치조차 모르느냐?

향숙 (또랑또랑) 멋대로 왔다 멋대로 가기는 마루 위의 제비요, 서로 친하고  
가깝기는 물에 노는 갈매기라. 나리께서 읊으신 시의 뒷구절입니다.  
엽전을 드렸으니, 떡을 주시지요.

홍달 (호오...) 거 말 한번 푹푹히 하는구나. (팔짱 끼며) 허나 내가 달라던  
엽전이 아니질 않느냐. 영특한 머리로 네 직접 맞추어보거라. 우리 중  
누가 홍달이란 자일 것 같으냐.

향숙 (기세에 지지 않고 똑바로 보며 즉답) 나리일 것 같습니다만.

홍달 그으래?

순간, 찻사게 나무에 기댄 몸 일으켜 향숙의 손에서 서찰 낚아채는 홍달.

향숙 (당황, 까치발 들고 서찰 빼앗으려 허둥대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홍달 (팔 하늘로 뻗어 향숙 손길 피하며) 네 입으로 내가 이 서찰의  
주인이라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니 내가 읽겠다는데 왜?

향숙 (발끈) 아이참, 내놓으십시오!

향숙 까치발로 안 되니 폴짝폴짝 제자리에서 뛰어 서찰 빼앗으려 하는데  
휘익 휘파람 불며 요리조리 알뜰게 쓱쓱 피하며 뒷걸음질치는 홍달.  
두 사람 지켜보던 선비들 못 참고 왁 웃음 터지고

선비1 (웃으며 가볍게) 거 녀석 짓궂긴, 적당히 해라.

선비들 웃음소리에 분해서 얼굴 시뻘겋게 익는 향숙. 앙다물고 홍달 쪽으로  
두두두 달려가 서찰로 손 뺐으며 위로 풀썩 뛰어오르는데 홍달이 삭 날래게  
옆으로 빙그르 돌며 피하자 풍덩! 깊은 계곡물에 빠지는 향숙.

웃다 말고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선비들.

향숙, 물속에서 팔다리 정신없이 휘저으며 허우적댄다.

홍달, 서찰 내던지고 망설임 없이 계곡으로 바로 뛰어든다.

향숙, 물속에서 차츰차츰 더 깊이 가라앉으며 고통스레 눈 질끈 감는데

INSERT

물속. 어린 향숙(5세). 허우적대며 눈 질끈 감은 채 몸에 힘 빠지는데.

수면에서부터 향숙 향해 헤엄쳐오는 어린 소년의 실루엣.

향숙, 희미하게 눈 뜨자, 물속 부연 시야에서 향숙을 향해 뻗어지는 두 손.

푸하! 향숙(현재)을 수면 위로 건져 올리는 홍달.

홍달, 바위 위로 향숙을 옮기면,

맥없이 늘어진 몸으로 주저앉아 콜록콜록 물 토해내고 간신히 눈 뜨는 향숙.

홍달 (당혹) 관찮으냐? 미안하구나. 내 그러려던 것이 아니라 그저...

향숙, 자신의 어깨 잡으려는 홍달의 손길 피하며 홍달의 몸 거칠게 팍  
밀쳐낸다.

그때 양손에 수박 들고 나타난 서운. 물에 젖은 향숙 발견하고 눈 커다래진다.

서운 향숙아? 네가 여긴 어찌...

향숙, 입술 꼭 깨물고 씩씩대며 홍달 매섭게 노려보다, 팍 돌아서 가버린다.

### #3. 초희 집(해 질 녘)

카메라 담장 따라 쪽 도는데 끝날 줄 모르고, 담장 너머로 들어서면

널찍한 마당에 나무며 꽃 풍성하게 심어져 있고 곁엔 수십 개의 장독 보인다.  
비질하고 음식들 나르는 등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노비들.

그 뒤로 보이는 조선 최고 규모의 으리으리한 40칸짜리 기와집 전경.

### #4. 초희 방(밤)

금침에 다소곳이 앉은 하안 속곳 차림의 초희.

곁에 쓰그리고 앉아 초희의 길게 푼 머리칼 빗질해주고 있는 향숙.

향숙 (울상) 앞으론 다른 아이 시키십 안 돼요?

초희 (쿡쿡 웃으며) 그분이 좀 짓궂긴 하였구나.

향숙 (입 땃 발 나와서) 아썩 그런 사내가 뭐가 좋으세요?

초희 (대답 없이 빙긋 미소) ...

향숙 양반가 도련님이 베풀할 생각도 앓구! 순 한량같이. (떠올리다  
진저리) 얼굴은 허여멀거니 뻘지르~해서는. (하다 아차, 합 입 다물고  
슬그머니 초희 눈치 살피는)

초희 (머리 빗겨주던 향숙 손 잡고 토닥이며 다정히) 향숙이 네가 고생이  
많았지?

향숙 (맘 사르르 풀려 표정 누그러지며) 아니이, 별루 고생은 아니구요.  
(혼잣말 중얼) 하긴 나 아님 누가 아씨 비밀을 지켜...

초희 (자리에 누우며) 저번에 어디까지 읽었지?

향숙 (책 읽는 것 좋아 얼굴 환해져 덮여 있던 <별주부전> 꺾싸게 펼치곤  
흠흠! 목 가다듬고 낭랑히) 신희한 것이 오직 한 가지 있사오니 토끼  
생간이라, 그 간을 얻어 더운 김에 진어하시면 효험을 보시리이다.  
(하다 문득) 참, 근데 요즈음 나라님께서 소설을 금한다면서요?

대답 없어 돌아보면 색색 곤히 잠들어 있는 초희.

## #5. 저잣거리(밤)

가게들 쪽 이어져 있는 번잡한 거리.

장사 정리하는 분주한 상인들과 물건을 사고 들어가는 손님들로 붐빈다.

뒷짐 지고 채 덜 마른 차림새로 홀로 걸어가는 흥달.

기생1 어맛, 도련님!

흥달 (반갑게) 매월이가 아니냐.

기생1 어째 요샌 통 안 오셔서 서운하어요.

흥달 그래그래. 내 조만간 벗들과 함께 들르마.

기생1 (흥달 차림새 훑곤) 헌데 어찌다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되셨습니까?

흥달 아, 웬 화 많은 참새 한 마릴 구하느라.

기생1 (어리둥절) 예?

흥달 (기생1 등지고 성큼 걸어가며 즐거운 목소리로) 그런 일이 있다.

흥달, 휘적휘적 걸어가며 새삼 자기 차림새 살피곤 향숙 떠올라 피식 웃는다.

싱글벙글 가벼이 웃으며 걷는데, 담벼락 앞에 웅성대며 모여선 양반들 보인다.

흥달, 걸음 멈춰 서고 보면, 과거시험의 일정을 알리는 벽보다.

가벼이 웃던 얼굴 굳어 어두워지는 흥달.

## #6. 초희 집 마당(낮)

새 지저귀는 소리 들려오는 아침.

향숙, 콧노래 흥얼대며 부지런히 마당 비질해 쓸고 있다.

방문 안에서 열리고 앉은 채 내다보는 고운 차림새의 초희.

초희 향숙아.

향숙 (활기차게 뛰어가며) 네 아씨!

초희, 품에서 슬쩍 엽전 꺼내어 향숙의 손에 쥐어주곤 눈짓하면,

향숙, 비장하게 고개 끄덕인다.

## #7. 세책점<sup>†</sup>(낮)

양반이며 천민들까지 손님들로 북벼 발 디딜 틈 없다.

파는 학문 서책들은 밖에 진열되어 있고,

소설 세책<sup>‡</sup>들은 무쇠 자물쇠로 잠긴 커다란 나무함 안에 있다.

슬쩍 들어와 점주(남자 노인)에게 엽전 건네고 귀엣말을 하는 향숙.

고개 끄덕이더니 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책을 꺼내어 오는 점주.

표지에 한글로 ‘홍길동전’이라고 적혀 있다.

향숙, 책 받아들어 얼른 품에 감추려는데,

턱! 뒤에서 어깨를 잡는 누군가의 손길.

기겁해 비명도 못 지르고 펄쩍 뛰어 놀라는 향숙.

겉에 질러 돌아보면, 싱글벙글 웃고 있는 흥달이다.

향숙 (안도의 한숨 내쉬곤, 껍 성질) 정મા알...! 또 나리십니까? 그만 좀 놀리십쇼! (품에 책 쑤셔 넣곤 나가버리는)

흥달 (얼른 향숙 쫓아 나가며) 잠깐만.

## #8. 거리(낮)

새침한 얼굴로 걸음 재촉하며 총총 걸어가는 향숙.

긴 다리로 휘적휘적 향숙의 뒤를 쫓아 걸어오는 흥달.

향숙 (못 참겠다, 껍 돌아보곤 앙칼지게) 쫓아오지 마시라구요!

흥달 (여유롭게) 네가 아니라 네가 모시는 분께 불일이 있어 그런다.

(소매에서 잘 접힌 서찰 꺼내어 향숙에게 내미는) 응.

<sup>†</sup> 조선시대에 베껴 쓴 책을 돈 받고 빌려주던 가게.

<sup>‡</sup> 베껴 쓴, 대여용 소설책.

향숙 (성질낸 게 머쓱, 혼잣말) 흥... 아씬 이런 분이 뭐가 좋다구.  
 흥달 뭐라구?  
 향숙 (서찰 얼른 낚아채 흘기며) 아닙니다.  
 흥달 (흥미로운) 서책도 읽느냐.  
 향숙 아씨 겁니다.  
 흥달 저번에 시 읊던 걸 보아하니 너도 읽을 수 있지 않니.  
 향숙 (머뭇하다 시무룩) ...종년이 글을 알아봐야 뭐하냐고 비웃으시려는 겁니까.  
 흥달 (진지) 배움에 신분이 중하더냐.  
 향숙 (의외다, 물끄러미 보는) ...  
 흥달 (향숙이 든 책 보고) 소설을 읽나 보지? 뼈꾸기 노릇 한다고 고생이 많으니, 내 담에 더 귀한 책을 빌려주마.  
 향숙 글에도 귀천이 있습니까?  
 흥달 그럼. 소설이란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작을 소에 이야기 설. 그저 백성들이 재미로 즐기는 이야기일 뿐이지.  
 향숙 허면, 귀한 글은 무엇인데요?  
 흥달 시다. 말씀 언에 절 사 자를 붙여, 시라는 글자가 되었으니 뿌리부터 귀하지.  
 향숙 그것 참 앞뒤 안 맞고 우스운 말씀이네요.  
 흥달 (귀를 의심) 뭐라고?  
 향숙 나리께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신다구요.  
 흥달 허. 내가 뭘 모르는데?  
 향숙 지체 높은 양반 나리들이 짓고 읊는 시는 귀하고, 백성들의 회로애락을 달래주는 소설은 천합니까?  
 흥달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향숙 궤변입니다. 배움에 신분이 없단 거, 진정 나리의 가슴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니지요? 그저 그런 말을 하는 스스로가 근사해 보여 좋으신 것 아닙니까?  
 흥달 (말문이 막히는데) ...  
 향숙 (흥) 다행입니다. 찰나였지만 하마터면 나리를 달리 볼 뻔하였지 뵈니까.

베죽이곤 짝 가버리는 향숙의 뒷모습을 멍하니 보는 흥달.  
 뒤통수 한 대 맞은 기분이다.

## #9. 흥달 집 마당(밤)

대문 열리고 귀가하는 흥달.  
 아우(E) 학이시습지면 불역열호아라...  
 흥달, 소리 나는 쪽 보면,  
 불 켜진 창호지 문 너머로 앉아 열심히 글 외고 있는 그림자 보인다.  
 돌쇠 (가마니 옮기며 흐뭇하게) 과거가 얼마 안 남아 그런가  
 둘째 도련님이 글공부에 부쩍 더 열심이시네.  
 종1 둘째 도련님이 대감마님 유일한 희망이지 뭐.  
 (절레) 아무래도 첫째 도련님이 그러시니까...  
 (하다 흥달과 눈 마주치고 히익!) 도, 도련님...  
 흥달 (쓴웃음) 밤늦도록 수고들이 많구나.  
 흥달,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서서 간다.  
 실수했다 싶어 올상 짓고 눈빛 주고받더니 얼른 들어가버리는 돌쇠와 종1.  
 흥달, 지친 한숨 길게 내뿜으며 신발 벗다가 멈칫.  
 향숙(E) 궤변입니다. 배움에 신분이 없단 거,  
 진정 나리의 가슴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니지요?  
 향숙의 말을 곱씹으며 진지한 얼굴로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 흥달.

## #10. 초희 방(낮)

초희, 책상 앞에 앉아 밝은 얼굴로 서찰 읽고 있다.

건성으로 바닥에 걸레질하며, 궁금해 초희 근처를 기웃기웃거리는 향숙.

초희, 그런 향숙 맘 눈치채고 빙그레 웃으며 부러

책상 위에 서찰 툇 내려놓고 탄청.

걸레 쪽 밀고 다가가 짹새게 서찰 눈으로 훑는 향숙.

홍달(E) 하늘의 색이 옅어 잎사귀의 빛깔이 짙어지는 계절. 그대의 고운 문장을 머금은 나의 마음도 기쁨이 깊어지나니.

향숙 치... 주제에 글은 제법 짓네.

초희 (서찰 접어 깊숙이 넣으며 미소) 조선팔도 최고의 시인이시란다. (서랍에서 얼른 버루와 종이를 꺼내곤) 향숙아 이리 온.

향숙 (초희 곁으로 공손히 다가서며) 예 아씨.

초희 (붓 건네며) 자.

향숙 (얼결에 붓 받아들고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 아씨?

초희 네 글씨가 나보다 예쁘질 않니.

향숙 (붓 먹물에 찍고도 머뭇대는) ...

초희 (향숙의 손 꼭 잡고) 어서. (다소곳이) 찌는 더위에 지치진 않으셨는지요.

향숙 (에라이, 받아 적으려다 말고) 지난한 더위가 낫지 않을까요?

초희 (미소) 응. 그게 좋겠구나.

다정히 머리를 맞대고 편지를 적어 내려가는 두 사람.

CUT TO

서찰을 쥐고 나서려는 향숙에게 은밀하게 엮전 건네는 초희.

초희 (향숙 귀에 대고 뭐라뭐라 귀엣말하곤) 요즘 감시가 삼엄해졌다니 조심하구.

향숙 (비장하게 끄덕) ...

방을 나서는 향숙.

## #11. 세책점(낮)

점주, 쭈그리고 앉아 찢렁대며 커다란 나무함의

무식 자물쇠 한참 따는 사이

향숙, 눈 데굴데굴 굴리며 안절부절 선반이며 책장들 살펴본다.

점주 (일어나며) 아이구, 없나... 잠깐만 기다리쇼.

점주, 미달이문 열고 창고로 들어가더니 가게에서 사라진다.

향숙, 열려 있는 나무함 안에 <숙향전> 세책을 발견하고 눈치 본다.

아직 점주 들어올 기미 없고, 적막한 내부.

향숙, 함에 얼른 손 넣어서 <숙향전>을 꺼내 몰래 마지막 페이지 펼쳐본다.

귀퉁이에 빼곡하게 붓글씨로 남겨져 있는 독자들의 댓글<sup>†</sup>을 보는 향숙.

댓글1(E) 궁금해서 잠이 오질 않소. 여기서 끊으면 어찌란 말인가.

댓글2(E) 당장 <숙향전> 작가를 찾아 가둬두고 글만 쓰게 하시오.

댓글3(E) 하권이 언제 나오는지 기별이라도 달라.

댓글들을 보는 향숙의 얼굴로 빙그레 저도 모르게 웃음 번지는데,

그런 향숙의 손을 툇! 붙드는 점주의 쭈글쭈글한 손.

점주 (눈 부라리면서) 이 도둑년!

향숙 (당황해 손 빼내려 안간힘 쓰며) 그게 아니라...

점주 (고래고래) 근래 없어진 세책이 한둘이 아니라 내 단단히 버르고 있었지. (향숙 귀 콧 쥐어 잡고 당기며) 당장 포도청으로 가자!

†) 조선시대 세책을 빌려본 이들이 귀퉁이 여백에 감상 글귀를 적어두는 문화가 존재했다.

## #12. 세책점 앞(낮)

점주에게 귀 틀어잡힌 채 질질 끌려 나오는 향숙.  
아파서 발버둥치는데 힘이 달린다.  
<속향전 上> 세책과 함께 흙바닥에 내동댕이쳐진다.

향숙 (억울) 흠치려 한 게 아니라두요, 잠깐만 보고 도로 넣어두려  
하였습니다...!  
점주 (비웃는) 글도 모르는 천것이 보긴 무얼 봐. 책패인 척 갖다 팔았겠지.  
향숙 (귀도 아프고 속상하고 후회되는, 눈물 찔끔) 저도 글 압니다!  
독자들의 말을 작가에게 전하려고...  
점주 니가? 지나던 개가 다 웃겠네.  
여보쇼들, 이 종년이 지금 글을 안답니다.

향숙, 설움에 얼굴 일그러지고 발버둥치던 몸에 기운이 쭉 빠져 끌려가는데,  
점주의 손을 거칠게 쳐내고 향숙을 제 뒤에 숨기는 사내. 흥달이다.

흥달 (얼굴 딱딱히 굳은) 뭐 하는 것이오.  
점주 양반 나린 상관 마쇼. (향숙에게 샷대질) 저년이 책을 훔쳤소이다.  
도둑년이니 포도청에 넘겨 당장 주리를 틀어야 하오!  
흥달 (엽전 꾸러미 통째로 가슴팍에 툅!) 이 값이면 책을 산 셈 쳐도 되겠소?  
점주 (누그러져서) 귀하신 분이 뭐 하러 상것 편을 드시오. 글도 모르고  
도둑질이나 하는 천한 종년을.  
흥달 (싸늘하게 내려다보는) 배움에 신분이 있더이까.

창피하고 서러워 입술 시뻘게지도록 꼭 깨물고 있는 향숙.  
향숙을 일으켜 책 쥐여주곤, 데리고 가는 흥달.

## #13. 개천변 들판(해 질 녘)

인적 없이 매미 소리만 청량히 울리는 개천변 들판.  
바람에 살랑대는 연둣빛 풀들.  
물가에 주저앉아 양 무릎 끌어안고 얼굴 묻고 훌쩍이고 있는 향숙.  
흥달, 손바닥만 한 표주박에 떠온 맑은 물 건네면  
향숙, 저고리 소매로 눈가 아무렇게나 훔쳐내곤 애써 울음 삼키며 받아 마신다.  
털썩 향숙 옆 흙바닥에 나란히 앉아 개천 흐르는 것 말없이 바라보는 흥달.

향숙 (변명하듯) 제가 도둑질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흥달 (흐르는 개천 바라보며)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누구나 말 못 할 비밀  
한두 개쯤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향숙 (훌쩍 눈물 훔쳐낸다) ...  
흥달 저번엔 내 생각이 짧았다.  
향숙 (본다) ...  
흥달 네 말이 옳다. 글에도 귀천이 없지. 백성들의 살아가는 슬픔과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작은 건 소설이 아니라, 내  
그릇이었다.  
향숙 ...저 같은 천것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흥달 그리 말하지 말거라. 내 어머니도 너처럼 여종이었어. 잘난 체  
다니지만 실은 나도 글을 익혀봐야 관직에도 못 오르는 서얼이다.  
향숙 그래도 전 나리가 부럽습니다.  
흥달 ...?  
향숙 어릴 때 피란길에 아버지 밑 전부 잃구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전 진짜 이름도 몰라요. 아무렇게나 지은 이름잡니다.

생각하다, 나뭇가지 주위 흙바닥에 ‘響淑’이라 적는 흥달.  
향숙, 의아하게 본다.

향숙 이게 무슨 잡니까?  
흥달 울림 향에 맑을 숙.



향숙 (의아하게 본다) ...

홍달 네 말이 나에게 맑은 울림을 주었다.  
하니, 이제 막 지은 이름자가 아니야.

감동이다. 홍달이 적어준 자기 이름자를 한참 곱씹듯 보는 향숙.  
검지로 어설피게 흙바닥에 따라 써본다.  
홍달, 향숙이 번 순서를 틀리자, 향숙의 손을 감싸 쥐고 다시 고쳐 써준다.

홍달 종이에 적어줄까?

향숙 벌써 마음에 적어 외웠습니다.

홍달 (미소) 역시 머리가 좋구나.

향숙 나리께서 서얼이셔도, 글을 아는 게 쓸모없지 않습니다.

홍달 응?

향숙 이리 제 이름도 지어주시고. 적어도 제겐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홍달, 향숙을 물끄러미 응시한다.  
향숙, 뺨어놓고 보니 부끄럽다. 으쌰! 일어나 엉덩이에 묻은 흙 탁탁 털어낸다.

향숙 (앞서가며 툭) 배움에 신분이 있더이까.

앞서 총총 가는 향숙의 뒷바퀴가 빨갈게 물들었다.

홍달 (웃음 번지며) 기다려. 같이 가자 향숙아—

## #14. 장터(낮)

인파로 활기차게 북적이는 장터.  
반보쯤 앞서 걸어가며 이 가게 저 가게 밝은 표정으로 구경하는 홍달,  
새침한 척 쫓아가면서도 눈 반짝이며 물건들 구경하는 향숙.  
상인과 농을 하다 맑게 웃음 터뜨리는 홍달을 흘끔 흘끔 쳐본다.

홍달, 떡집에서 고치에 졸졸이 끼워진 경단 두 개 사서 향숙에게 하나 건넨다.  
오물오물 맛있게 먹으며 걸어가는 두 사람.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향숙과 홍달.  
초희의 서찰 펼쳐 눈으로 읽는 홍달.

홍달 (미소) 지난한 여름이라. 내 오늘 딱 그 생각을 하였거늘, 신기하구나.

향숙 (들떠서) 정말입니까? 생각이 딱 통하는 이를 만나기란 어려운데요!

홍달 (귀여워 큼 웃는) 어찌 네가 그리 신났어.

향숙 (퍼뜩 정신 들어) 나, 나리와 아씨가 천생연분 같아서...

홍달 요샌 무슨 책이 재밌더냐.

향숙 <별주부전>을 읽고 있습니다.

홍달 그래? 난 <숙향전>을 읽는 중이다.

향숙 (떡 먹다 놀라 킁! 사례들려서 한참 킁킁 기침하는)

홍달 (놀라 얼굴 들여다보며) 괜찮으나?

향숙 (눈물 대충 훔쳐내곤 신 목소리로) 전 그거 별로...

홍달 (눈 동그래져서) <숙향전>이 말이나?

향숙 (어색하게 눈 피하며 끄덕) ...

홍달 그래? 흥미진진해 눈을 땔 수가 없고 문장까지 향기롭던데. 내 다른 소설은 몰라도 그건 일품이다 싶었다. 쓴 이를 한 번만 만나보면 좋겠는데 말야.

향숙 (합! 한입에 떡 입에 넣고 우물우물) ...

문방구 앞을 지나는 두 사람.  
가던 걸음 멈추곤 붓들 유심히 살피더니 품에서 엽전 꺼내어 내미는 홍달.

홍달 (주인에게 붓 하나 가리키며) 저것 주시오. (받아서 향숙에게 건네는)

향숙 (얼결에 받아들곤 두근두근) 이것이 무엇입니까...?

홍달 붓이다. 쓰는 거 좋아하지 않나.

향숙 (놀라 보는) 그걸 어찌...

홍달 (웃음) 서찰을 보면 알지. 약소하니 부담 갖지 마시라 말씀 잘 전해 드리거라.

향숙, 착각한 것이 창피하고 실망스럽다. 제자리에 우뚝 멈춰 선다.

홍달 (기분 좋게 앞서 걸어가다 걸음 멈추고 돌아보곤) 참, 근데 <숙향전> 하권은 언제 나온다 하더냐. 뒤가 궁금하던데.

### #15. 영춘당 인근(밤)

들길을 나란히 걸어가는 향숙, 홍달.  
찌르르 찌르르... 풀벌레 소리.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정적이 흐른다.  
질은 달빛. 영춘당의 열린 문 안에 섬들을 따라 피어 있는 꽃들.

홍달 영춘당이구나.

향숙 (보는)

홍달 매해 봄이면 저 섬돌 위엔 약조한 것처럼 꽃이 참 곱게도 핀다.

이어지는 대사와 함께, 풍경 위에 붓글씨로 쓰여지는,  
홍달과 향숙이 짓는 시구.

홍달 작년 영춘당에서 봄을 맞이하며 저 옥계의 꽃이 더디 취함을  
비웃더니, 금년에 또 영춘당에서 봄을 만나니 저 옥계의 꽃이 다시  
만남을 반겨 웃는도다.

향숙 꽃은 반가움을 이기지 못해 웃되, 나는 옛일이 새로이 떠올라 마음이  
절로 슬퍼지는구나.

주거니 받거니 시 짓고 친근해진 미소로 서로를 보는 두 사람.  
향숙, 영춘당 담 옆에 핀 꽃송이 하나 꺾는다.

향숙 (불쑥 내밀며) 오늘 신세 많이 졌습니다. 나중에 은혜 꼭 갚을게요.

홍달 (웃음) 별말씀을.

하면서도 기분 좋게 꽃 받아드는 홍달.

향숙, 부끄러움에 홍달 얼굴은 차마 못 보고 꽃 받아드는

홍달의 손만 응시한다.

소맷자락 아래로 보이는 홍달의 손목 안쪽에 붉은 반점 보이고.

향숙, 어라... 하는 순간 팻! 하고 넘어가는 기억.

### #16. 과거. 강가(낮)

추적추적 내리는 빗줄기. 강줄기를 따라 붓짐 둘러메고

죽 이어져 있는 피란 행렬.

얼굴에 흠먼지 잔뜩 뒤집어쓴 어린 향숙(5세)

양손에 향숙 부, 향숙 모의 손 꼭 붙잡고 행렬을 따라 걷고 있다.

핑! 굉음 울리곤 뒤쪽에서 나타난 수백 명의 왜구들.

사방에서 쏟아져 날아오는 화살.

여기저기서 터지는 백성들의 날카로운 비명소리.

향숙 부, 등에 화살 맞아 향숙의 손 놓치고

입에서 주룩 피 흘리며 풀썩 쓰러진다.

향숙 모 (울부짖는) 서방님!

그때 향숙을 향해 정통으로 날아오는 화살.

향숙 모,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대신 맞고 쓰러진다.

향숙, 영문을 모르고 눈 커다래져서 “어무니... 아버지...” 붙들고 혼드는데  
도망치는 어른들 인파에 휩쓸려 열걸에 강변 진흙길로 간다.

돌아가려 인파 거스르려 해도 자그마한 체구가 당해내질 못하는데

핑! 더 크게 굉음 울리고 비명 지르며 도망치는 사람들.

정신없는 와중 중년 사내가 도망치다 무심결에 어깨로 향숙을 거세게 밀치고,  
가우뚱 중심 잃은 향숙 풍덩! 강에 빠진다.

향숙, 흠탕물 속에서 미친 듯 발버둥치며 올라가려 용쓰는데

자꾸만 더 가라앉고...

꿀떡꿀떡 물 삼키며 점차 숨이 막히고 서서히 의식 잃어가며 몸에 힘이 빠지는데  
퐁딩! 물보라 일으키며 물속에 뛰어들어 향숙을 향해 헤엄쳐 들어오는 소년.  
향숙을 구하는 소년의 두 손.  
가물대는 향숙의 시선으로 보이는 소년의 손목 안쪽의 붉은 반점.

홍달(E) 향숙아.

## #17. 초희 집 앞(밤)

홍달(E) 향숙아.

향숙, 퍼뜩 정신 들어서 보면, 이상하다는 듯 뻘뻘 보고 있는 홍달의 얼굴.  
어느새 초희 집 앞이다.

향숙 (긴가민가) 나리, 흑시... 어릴 적 강에서 어린 소녀 하날 구하신 적...  
하는데, 대문 열리고 나오던 여중1, 향숙과 홍달을 보곤 눈을 동그랗게 뜬다.

여중1 향숙이 너 종일 어딜 갔다 온 게야. 늦는다구 아씨께서 얼마나 찾으셨는데.

홍달 그럼 조심해서 들어가거라.

돌아서서 멀어지는 홍달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바라보는 향숙.

## #18. 초희 방(밤)

초희 늦어서 걱정했어. 부탁한 일은 잘했니?

향숙, 끄덕이곤 품에 안고 온 책들 꺼내어 놓는다.

초희 (책들 추려 들여다보며) 요새 조정에서 소설을 금할 거란 풍문이 돌아 걱정이네. 당분간 그만해야 할까...

향숙 (못 듣고 멍한) ...

초희 향숙아. (반응 없자 재차) 향숙아?

향숙 (퍼뜩) 예? 예. (일어서며 흑 촛불 불어 끄곤) 편히 주무세요, 아씨.

향숙, 먹다 만 다과들 놓인 상 챙겨 나가는데

홍달이 초희에게 선물한 붓이 눈에 밟혀 멈칫.

## #19. 초희 집 뒷마루(밤)

고요하다. 디딤돌에 암전히 놓여 있는 향숙의 낡은 신발 한 켤레.

향숙, 뒷마루에 편히 엎드려 환한 달빛에 의지해 책을 꺼낸다.

몇 줄 들여다보는데, 책이 눈에 안 들어온다.

이내 땅이 꺼져라 한숨 내쉬는 향숙.

손가락으로 밤하늘에 ‘響淑’ 홍달이 지어준 이름을 써본다.

홍달(E) 울림 향에 맑을 숙. 네 말이 나에게 맑은 울림을 주었다.  
허니, 이제 막 지은 이름자가 아니야.

허공에 든 향숙의 손에 홍달의 손이 환상처럼 겹쳐져 감싼다.

겹쳐진 손으로 ‘소설’, ‘사랑’ 밤하늘에 써보다가

동실 떠 있는 달 옆에, 무심코 ‘홍달’ 써보곤... 이내 화들짝 놀란다.

향숙 아이참 하필 이름은 또 왜 달이람!

홍달의 이름을 지우려는 것처럼 허공에 손 마구 휘젓곤

밤하늘에 뜬 달에게 제 마음을 감추려는 듯 빨개진 얼굴을

마룻바닥에 푹 묻는다.

## #20. 흥달 방(밤)

책꽂이에 향숙이 꺾어주었던 꽃을 고이 잘 두는 흥달.  
꽃송이 뒤에 꽃힌, <숙향전> 보인다.

## #21. 장터(낮)

위압적인 기세로 줄지어 걸어오는 포졸들.  
활기차게 떠들며 장사하던 장사치들과 행인들 조용해지며 눈치 살피는데  
일사불란하게 흩어져 벽마다 방 붙인다.  
포졸들 사라지면 웅성웅성 모여 방의 내용을 읽는 사람들.

임금(E) 앞으로 백성들을 미혹케 하는 패관소설과 잡서를 보는 자, 읽는 자,  
파는 자는 모조리 잡아들여 그 죄를 엄중히 물어 중형에 처하리라.

흠흠 콧노래 흥얼대며 가던 점주,  
방 보곤 어이쿠 잔걸음으로 세책점으로 향한다.

## #22. 세책점(낮)

다급히 가게로 들어오는 점주.  
나무함 자물쇠 열어 세책들 꺼내 허겁지겁 안쪽 창고로 옮겨놓는데  
벌컥 거칠게 가게 문 열리는 소리 들리고. 점주 돌아보는데.

## #23. 냇가(낮)

다다다닥— 방망이질하는 소리 울린다.  
향숙, 물가에 홀로 쭈그러 앉아 빨래하고 있다.  
이마의 땀 흘리며 무심코 냇물 건너편 보는데 다리 위 지나는 흥달 보인다.  
반가운 맘에 저도 모르게 활짝 웃으며 손 번쩍 들고 부르려는데,  
흥달 뒤로 서운, 선비1:2:3 줄지어 오는 모습 보인다.  
화들짝 놀라 자기 행동 자각하고 고개 푹 숙이는 향숙.  
울적한 얼굴로 방망이질만 열심히 하다가 슬그머니 다시 고개 들고 보는데,  
선비들과 흥달 보이지 않는다.  
잠깐 사이에 가버렸나 싶어 향숙 열심히 두리번대는데

흥달 뭘 그리 찾느냐?

향숙, 깽! 비명 지르며 놀라 방망이 놓친다.  
흥달, 향숙 곁에 쭈그러 앉아 향숙 대신 방망이 주워든다.  
너무 가까이 있는 흥달 얼굴에 두근... 두근...! 빠르게 뛰는 향숙의 심장.

흥달 내가 곰곰 생각을 해보았는데 말이다... 숙향전.

향숙 네?! (어색) 그것이 왜요?

흥달 흑시...

향숙 (마른 침 꿀꺽 삼키고 긴장해 보는) ...

흥달 ...초희 남자가 쓴 것 아니냐? (확신에 차서 향숙에게 방망이 척  
가리키며) 맞지? 내 궁금해 숙향전 원본을 구해다 보았는데, 초희  
남자의 서찰과 필체가 꼭 같지 뭐냐.

향숙 (입만 벅긋대며 차마 대답 못 하는) ...

흥달 저번에 세책방에서도 네가 그 책의 지은이를 안다 했잖느냐. 어서  
대답해보거라. 맞냐, 아니냐. 내 짚이는 게 한두 개가 아니어서 그런다.

향숙 (안절부절) 그것이...

흥달 (다 안다는 듯 싱글) 아니다. 대답하기 곤란하겠지. 내 너의 입장을  
생각지 못했구나. 됐다. 대답 안 해도 안다.

향숙 (울상 되는) ...  
 홍달 니가 고생이 많구나. (홀가분하게 일어서며) 마침 남자를 뵈러 가던 길이니 함께 가자구나.

## #24. 꽃밭(낮)

쏟아지는 맑은 햇살. 나란히 산책하는 홍달과 초희.  
 두어 걸음 뒤쳐져 따르며 물끄러미 보는 향숙.  
 홍달이 뭐라뭐라 농을 던지면 초희가 수줍게 미소 짓는다.  
 다정한 두 사람을 지켜보는 향숙, 비참하다. 가슴이 아프고 슬프다.  
 향숙을 돌아보는 초희.

초희 향숙아 어찌 그리 늦니. 어서 이리 온.  
 향숙 (애써 밝은 낯으로 뛰어가며) 예 아씨! (중얼) 죄송해요...

향숙, 초희의 곁에 서서 일산을 펼쳐 다가온 별을 가려준다.  
 초희, 다정하게 향숙의 팔짱을 끼 곁으로 가까이 당긴다.  
 슬피 웃는 향숙.

## #25. 초희 집 사랑방(낮)

서인, 초희 모 나란히 앉아 있고 그 앞에 다소곳이 앉아 있는 초희.

초희 모 (골치 아파 관자놀이 꼭꼭 누르며) 아무리 귀한 집 자제라 하여도 홍달 그자는 얼자가 아니냐. 초희 년 조선 최고의 신붓감이야. 아버지가 마음만 먹으시면 세자빈 간택 단자도 넣을 수 있었던 것을! (가만있는 서인 옆구리 찌르며) 당신도 가만 계시지 말구 뭐라 말 좀 해보세요.  
 서인 정녕 그자와 혼인하려 마음을 먹은 게냐.  
 초희 예. 홍씨 가문은 조선에서 알아주는 집안이 아납니까. 집안끼리

우애도 좋을뿐더러 그분의 학식과 인품은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이미 아시구요.

초희 모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질 않니!  
 초희 벼슬을 못 하면 좀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선 어릴 적부터 여인이어도 글공부를 멀리하지 말라 하셨지요. 타고난 것은 그리 중한 것이 아니라구요. 그렇다면 서얼인 것보단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쭙잖은 양반가 사내들보다 전 그분이 마음에 듭니다.  
 서인 ...네 뜻이 그러하다면 그리 하자.  
 초희 모 (경악) 여보!!!  
 초희 (활짝) 감사합니다 아버지.  
 서인 내 그 덕 대감께 혼담을 넣어보지.

## #26. 초희 집 마당(낮)

빨래 산더미같이 쌓인 등나무 바구니 들고 뒤통뒤통 걸어오는 향숙.  
 초희, 사랑채에서 뛰어나오다 향숙 발견하곤 활짝 웃음 번지며

초희 (달려가 향숙 얼싸안으며) 향숙아!  
 향숙 (놀라) 아이구, 아씨! (균형 잡으려 킁킁대며) 잠시만요, 빨래 얹어요.  
 (하면서도 매달리는 초희 토닥여주는) 왜 안 하던 짓을 하신대...  
 초희 (향숙 얼싸안고 낭랑히) 나 도련님이랑 혼인해!  
 향숙 (빨래 놓칠까 안간힘 쓰며 바로 못 알아듣고) 예?  
 초희 (잔뜩 들뜬) 아버지께 홍달 도련님이랑 혼담 승낙 받았다고. 이제 혼례식만 올리면 된단니까!

특. 향숙 들고 있던 빨래 바구니 놓쳐 바닥 나뒹군다.  
 좋아서 폴짝대는 초희와 멍하니 굳어 있는 향숙.

## #27. 향숙 방(밤)

초라하고 좁은 방 안.

슬픈 얼굴로 우두커니 앉아 있는 향숙.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홍달이 사준 <속향전 上> 세책(#12).

사람들의 손때를 타 닳고 닳은 표지를 애뜻하게 살펴보는 향숙.

향숙 그분과의 기억이 이리 많은데. 내 마음이 이다지도 번잡한데. 남은 것은 고작 이것 하나구나... 그때 그냥 이름이라도 적어달라 할걸...

쓸쓸하게 책을 펼쳐보는데, 익숙한 홍달의 필체가 보인다.

한 귀퉁이에 달필로 남겨둔, 홍달의 감상 댓글.

홍달(E) 향기로운 문장들이오. 덕분에 읽는 동안 간만에 즐거웠소.

홍달의 글씨를 보는 향숙의 눈빛이 흔들린다. 가슴이 옥신대며 아프다.

입술을 꼭 깨물어봐도, 끝내 참지 못한 눈물이 후두둑... 뺨을 타고 흐른다.

향숙 (흐느낀다) 울어서 어찌자구... 단 한순간도 내 것이었던 적도 없는데... 애초에 폼어선 안 되는 분이었는데... 마음이란 어찌 이리 제멋대로야...

향숙, 누가 들을까 숨죽여 끄끙 서러운 울음을 토해낸다.

## #28. 계곡(낮)

책 펼쳐 들고, 이리저리 흠어져 앉아 있는 홍달, 서윤, 선비1:2:3.

선비1 (능청) 에이 윤이 누이는 내가 노렸건만. (홍달 보며) 네놈에게 뺏겼구나.

선비2 (타박) 에라이, 이놈아. 서초희라 하면 재색을 겸비한 조선 최고의 신붓감 아니냐. 그런 여인이 왜 너에게 시집을 와.

선비1 (킷 하곤 장난스레) 그럼 이제 윤이가 달이의 매형이 되는 거구나. 형님— 하고 불러보거라.

서윤 (기분 좋은 웃음) 거 우리 흥 서방 그만 놀려라.

선비3 허, 벌써 자기 식구라고 편드는 게냐. 이 몸들이 형님 벗들이니 우리에게도 형님— 해야겠다. (홍달 목 팔로 장난스레 감싸고) 어서 말해보래두.

홍달에게 달려들어 목, 어깨 두르고 거칠게 장난치며 괴롭히는 선비1:2:3.

못 말린다는 듯 절레절레하면서도 웃으며 지켜보는 서윤.

홍달, 마지못해 장단 맞춰주면서도 마냥 밝지만은 못한 표정.

#2에서 향숙이 떨어졌던 너른 바위 눈에 보이고, 표정 굳는다.

## #29. 부엌(낮)

가마솥에 밥 안치고 나물 무치고 생선과 고기 구우며 부지런히 일하는 여종들.

기름 두르고 불 앞에 쪼그리고 앉아 전 부치고 있는 향숙.

손에 나무 뒤집개 들고 벽에 멍한 시선 던진 채 얼빠져 있다.

전에서 부엌에 올라오는 연기.

여종1 웬 연기야. (두리번거리다 뜨악) 애, 향숙아!

향숙 (퍼뜩 정신 차려서 보면 새까매진 호박전 보고) 에구머니나!

여종1 (뒤집개 빼앗아 얼른 접시로 옮기고 절레) 애가 안 하던 짓을 하네. 정신을 어따 팔아먹구. 혼례식에두 그럼 너 진짜 주인마님께 혼난다?

## #30. 초희 방(낮)

고운 옷차림으로 비단 손수건에 수놓고 있는 초희.

곁에 앉아 어두운 얼굴로 <별주부전> 낭독하고 있는 향숙.

향숙 또한 노래로 화답하니 하였으되 한 조각 붉은 마음...을 품음이여...  
얼마나 분주히 청산에 다녔던고 이 몸이 수고를 아끼지 아님이여...  
창랑을 박차고 갔다 돌아오도다. 간사한 토끼를 얻어...

목메어 차마 더 읽지 못하고 책 읽는 소리 멈추는 향숙.  
침묵 흐르는데, 수놓는 데 집중해서 눈치 못 채는 초희.  
마지막 한 땀 뜨고 매듭짓고 얼굴 환해져 향숙 보면  
눈물 똑똑 떨어지며 울고 있다.

초희 (깜짝 놀라 손수건 땀개치고 얼른 다가가) 향숙아. 어찌 그리 우니. 왜  
그래. 내가 혼례 하는 것 때문에 그래?

향숙 (대꾸 못 하고 자꾸 눈물만 똑똑 떨어지는) ...

초희 (향숙 등 감싸 안고 토닥) 슬퍼 말거라. 내가 혼인한다구 널 버리고  
가겠니? 너도 데리구 갈게. (글썩) 아님 나 시집가지 말까? 네가 가지  
말라면 안 갈게. 울지 마아.

향숙 (죄책감에 얼굴 떨구고 흐느끼며) 아씨...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초희 (목메는) 뭐가 죄송하던 거야. 왜 그래 정말...  
(종이, 베투 꺼내 달래듯) 그만 울고 도련님께 보낼 마지막 서찰을  
써다오. 너 글 쓰는 거 좋아하잖아. 응?

소매로 눈물 거칠게 훔쳐내곤 훌쩍이며 붓 쥐는 향숙.

### #31. 영춘당 인근(낮)

서찰 들고 비틀비틀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 향숙.  
홍달과 함께 봤었던 영춘당 담장 옆 꽃들 아직 잔뜩 피어 있는 모습 보인다.  
다가가 마냥 물끄러미 바라보다 한 송이 꺾는다.  
봉투 벌려 넣으려다, 접혀 있던 서찰을 꺼내어 펼친다.

품에서 먹물 묻어 있는 붓 꺼내어 나무 뚜껑 열고 한 줄 더 써넣는다.

향숙(E) 도련님과 함께 보낸 꿈같은 시간, 소녀 영영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서찰 정성스레 접어 꺾은 들꽃과 함께 봉투에 도로 집어넣곤  
잊자, 결심하고 단단한 표정 짓고 힘차게 걸어가는 향숙.

### #32. 홍달 집 마당(낮)

대문 안으로 들어와 두리번대는 향숙.  
쌀가마니 옮기던 돌쇠를 발견하곤 다가가는 향숙.

향숙 나리 방에 계십니까?

돌쇠 (땀 뺀뺀 흘리며 일하다) 요 앞 언덕 정자에 가봐라.

### #33. 정자(낮)

나지막한 언덕 위. 버드나무 우거진 아래 나무 정자.  
근처 연못에 봉어들 평화로이 헤엄친다.  
새 지저귀는 소리, 매미 울음소리 들린다.  
상 하나 펴두고 그림처럼 앉아 책 펼쳐두고 있는 홍달.  
시선은 책에 두고 있지만 한참을 책장 넘어가지 않는다.  
언덕 아래에서 걸어오다 정자에 있는 홍달을 발견한 향숙의 얼굴 복잡하다.  
홍달, 한숨 푹 내쉬다가 향숙 발견하고 반가움에 얼굴 환해진다.

홍달 (미소) 어쩐지 오랜만인 것 같구나.

향숙 (서찰 건네주곤 눈 피하며)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홍달 (얼른 향숙 팔 붙들고) 벌써 가려느냐. 잠깐 앉았다 가거라.

향숙 (마음 흔들리고) ...

홍달 (팔 잡아당기며) 어서. (상에 놓인 다과 눈짓하며) 마침 혼자 먹기에 너무 많아 곤란하던 참이었다.

머뭇하다가 홍달 곁에 앉전히 앉는 향숙.  
상 위엔 약과, 떡, 자두와 수정과 한 그릇 놓여 있다.

홍달 (자두 하나 집어 향숙 손에 쥐여주며) 응.  
향숙 (얼른 먹고 가야겠다 싶어 덩석덩석 빠르게 베어 무는) ...  
홍달 (애정 어린 미소) 천천히 먹어도 된다. 누가 안 잡아가.

급히 먹느라 향숙의 턱으로 자두 과즙이 주룩 흐르고,  
홍달, 무심결에 소매로 닦아주다 두 사람 눈 마주친다.  
빤히 향숙의 눈 보는 홍달의 얼굴 점점 가까워지는데...  
홍달의 손 거칠게 밀쳐내곤 자기 소매로 턱 대충 훔쳐내는 향숙.

홍달 (어색해 떡 담긴 접시 내밀며) 저번에 보니 떡도 잘 먹더구나.

향숙, 대충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는데 잘 먹히질 않는다.  
빤히 쳐다보고 있는 홍달과 시선 마주치곤 킁! 사례들려 킁킁 기침한다.  
깜짝 놀라 얼른 수정과 그릇을 향숙의 입술에 대주는 홍달.  
향숙이 꿀꺽꿀꺽 마시면, 등 두들겨주는 홍달.

홍달 (걱정스런) 괜찮으냐. (향숙이 수정과 그릇 밀어내자 변명하듯)  
내가 마시던 것뿐이라...

향숙, 벌떡 일어서서 꾸벅 인사하곤 황급히 도망친다.  
홍달, 얼른 쫓아가 향숙을 붙잡는다.  
얼굴을 감추는 향숙을 억지로 돌이켜 세우는데, 두 눈에 눈물이 그렇그렇하다.  
흔들리는 눈으로 향숙을 보는 홍달. 이끼리듯 입 맞춘다.  
향숙의 볼로 눈물이 똑- 떨어진다.  
!!! 순간 멍해졌다가 황급히 밀쳐내는 향숙.

홍달 부탁이다.  
향숙 (혼란스레 보는)  
홍달 한마디만 해다오. 네가 가지 말라 하면, 혼례 하지 않겠다.  
향숙 (미친 듯이 가슴이 쿵쥔댄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홍달 (절절하게 애끓는) 제발...

FLASH BACK #30

초희 네가 가지 말라면 안 갈게. 울지 마아.

향숙 (번쩍! 죄책감이 들고) ...부디 행복하십시오 나리.  
  
생살을 찢는 심정으로 홍달의 손을 확 뿌리치는 향숙.  
미친 듯이 달려 도망쳐버린다.  
멀어지는 향숙을 애뜻하고 슬프게 바라보는 홍달.  
뜯지 않은 채 상 위에 놓여 있는, 초희의 서찰.

### #34. 거리(낮)

정신없이 달려 도망치는 향숙. 툭... 툭... 어둑해진 하늘에서 빗방울 떨어지더니 이내 싸아- 굵은 소나기 쏟아진다. 순식간에 향숙의 온몸 젖어버리고, 빗물에 미끌하며 돌부리에 걸려 세계 넘어진다. 흙탕물에 젖은 치맛자락 거세게 문질러 닦아내려 하지만 점점 더 얼룩지기만 하고 양 손바닥에 얼굴 묻고 아이처럼 왕- 울음 터뜨려버리는 향숙.

### #35. 초희 방(밤)

방문 열리고, 말끔해진 모습으로 저녁상 들고 들어오는 향숙.  
비 그쳐서 고요한 사위. 향숙 뒤로 처마 끝에 맺힌 빗방울 똑똑 떨어진다.



향숙, 상 내려놓고 방문 닫고 들어오면  
보자기 펼쳐두고 옷가지들 잘 정리해 챙기고 있는 초희.  
책들도 전부 뒤집어 바닥에 정신없이 펼쳐져 있는 모습에 놀라는 향숙.

초희 (눈길 안 주고 짐 정리에 집중) 와서 좀 도와다오.  
향숙 (널브러진 책들 모아 보자기에 정리해 넣으려 하면) ...  
초희 책은 안 챙겨도 된다.  
향숙 예? 버리시게요?  
초희 (향숙 등지고 옷가지 챙기며 상냥히) 너 가져. 선물로 줄게.

### #36. 초희 집 안마당(낮)

혼례식 당일. 대례를 준비 중이다.  
천막 아래 멍석을 두고 그 위에 돛자리 깔고 있는 종들.  
사내종 여럿 킁킁대며 초례상 차릴 커다란 나무 상 옮겨와 둔다.  
접시에 담긴 떡이며 대추, 배, 감, 귤 등 부지런히 나르는 여종들.  
향숙, 여종들과 함께 나와 청실홍실 드리운 술잔을 초례상에 정성스레 놓는다.  
모든 걸 체념한 담담한 얼굴.  
빨강, 파랑초 가져다 초례상에 놓는 서윤.  
이곳저곳 손짓하며 노비들에게 이것저것 지시하고 있는 초희 모.

### #37. 거리(낮)

홍달, 사모에 단령 입고 말 타고 초희 집으로 향한다.  
허벅지 위에 기러기 한 마리 두고 있다.  
심각한 표정으로 소매 안으로 손 넣어서 무언가 꺼내면, 마른 꽃 한 송이.  
향숙이 직접 준 것인지, 초희의 서찰 안에 넣어둔 것인지는 알 수 없는.  
홍달, 물끄러미 꽃 보며 곱씹히 생각에 잠겨 있는데 초희 집 앞이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올려다보며 씩 웃는 서윤.

서윤 (짐짓) 새신랑 낮빛이 어찌 그 모양이냐. 천하의 능구렁이 홍달이도  
혼례 앞에선 긴장이 되는 모양이지?

홍달, 서윤의 놀림에 마지못해 따라 억지웃음.

### #38. 초희 방(낮)

곱게 초록 원삼 차려입은 초희.  
향숙, 족두리 끼워주곤 잔머리 정성스레 쓸어넘겨  
정리해주며 쓸쓸하고 슬픈 미소.

여종(E) 아씨, 이제 나오세요.

향숙, 방문 열고 초희 부축해주며 따라나서려는데, 향숙의 손 떨궈내는 초희.

초희 (다정) 너는 여기 있거라. 가봐야 괜히 힘들고 정신만 없지. 책 정리도  
마져 하고 쉬려무나.  
향숙 (머뭇하다 내심 잘되었다 싶어 고개 조아리고) 예, 아씨.  
초희 (나가려다 돌아보며) 향숙아.  
향숙 예?  
초희 ...내게 할 말 없니.  
향숙 감축드려요. 부디 행복하셔야 합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향숙을 보다가, 돌아서서 나가는 초희.

### #39. 안마당(낮)

여종들의 부축 받아 청순하고 고운 자태로 다소곳이 걸어오는 초희.  
교배례를 하려 초례상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홍달.

마당 둘레로 잔뜩 모여든 구경꾼들.

구경꾼1 (입 딱 벌어지며 감탄) 곱다, 고와.  
항아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줄 알겠네.

구경꾼2 (호들갑) 명불허전 조선팔도 최고의 신붓감 아니겠어.  
신랑은 어쩔 복도 많지.

홍달, 초희를 부족한 여종들의 얼굴 살피지만, 향숙은 보이질 않고  
두리번대는데 구경꾼이며 일하는 종들로 인파 붐벼서 찾을 수가 없다.

### #40. 초희 방(낮)

방문 열고 바깥 내다보고 있는 향숙.  
문이 뒷마당에 연결되어 있어 혼례식은 보이질 않고 시끌벅적한 잔치 소리만.  
문 닫으면, 분주한 바깥과 대조되는 적막한 방 안.  
바닥에 흩어진 책들 모아 홀로 정리하는 향숙의 쓸쓸한 모습.

### #41. 안마당(낮)

교배레 중인 초희, 홍달.  
무릎 꿇고 있는 홍달을 향해 여종의 부축을 받고 세 번 반 절을 하는 초희.  
초희를 바라보는 홍달의 표정 심란하기만 하다.

### #42. 초희 방(낮)

책을 담은 보자기의 매듭을 짓고 있는 향숙.  
그때 벌컥! 열리는 방문.  
향숙, 뭔가 싶어 무방비하게 보는데, 구둣발로 들이닥치는 네 명의 포졸들.

향숙 (깜짝 놀라) 누구신데 여길 함부로 들어오십니까?

포졸들, 무시한 채 보자기 거칠게 풀어 바닥에 쏟아내 책들 확인하곤  
고개 끄덕이고 향숙의 팔을 양쪽에서 거세게 붙든다.

향숙 (겁에 질려)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포졸1 (엄하게) 나라에서 금한 패관소설을 이리 산더미처럼 보다니...  
참으로 간덩이가 부은 종년이로구나!

향숙 예?!

포졸 둘, 향숙을 무자비하게 질질 끌고 나간다.

바닥에 널브러진 책들 모조리 쓸어 담아 가는 나머지 포졸들.

### #43. 뒷마당(낮)

포졸들의 손 뿌리치려 몸부림치는 향숙.  
비명 지르려다 멀리서 혼례식 하는 소리 들려오자 잔치를 망칠까 꼭 참는다.  
향숙이 계속 반항하자 매섭게 눈을 부라리는 포졸1.

향숙 (억울한) 이것 좀 봐주십시오...! 저는 죄가 없습니다.

포졸1 네년이 죄가 있는지 없는진 종사관 나리께서 판단해주실 것이다.

뒷문으로 끌려나가는 향숙.

정종병을 들고 뒷문으로 들어오던 돌쇠, 포졸들과 향숙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포졸2 (향숙 붙들고 가며) 종사관 나리께서 오늘 본보기로 이년의 목을  
베겠지?

겁에 질려 파리해져 몸에 기운 쪽 빠지는 향숙.

포졸1의 말 들은 돌쇠, 경악하곤 허둥지둥 안마당을 향해 뛰어간다.

### #44. 안마당(낮)

합근례 중인 초희, 홍달. 무릎 꿇고 앉은 홍달과 마주 앉은 초희.  
여종이 청실, 홍실이 드리워진 술잔에 술을 따라 홍달에게 주면,  
홍달, 머뭇하다가 술잔 입술에 댄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서윤,  
서인, 초희 모, 홍달 모, 홍달 부, 종들과 구경꾼들.  
그때 적막을 뚫고 흠먼지 일으키며 허둥지둥 달려오는 돌쇠.

돌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요! (헉헉 가쁜 숨도 다 못 고르고)  
이 댁 아씨 모시는 향숙이가 지금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서윤 뭐?!

돌쇠 (몸서리) 오늘 당장 목을 베어버린다는데... (울상) 이를 어쩍니까.  
사람들 웅성거리기 시작하는데,  
들고 있던 술잔 바닥에 내던지고 자리 박차고 달려가는 홍달!  
흠바닥에 착 흠어져 검게 물드는 술.

### #45. 포도청(낮)

대청마루 위 의자에 앉아 있는 종사관.  
포졸들, 향숙 끌고 와 흠바닥에 억지로 무릎 꿇려 앉힌다.  
오는 사이 옷가지며 머리칼 엉망으로 흐트러진 향숙.

종사관 (찌렁) 네가 서 좌상 댁의 여종 향숙이냐!  
향숙 (겁먹고 고개 조아리며) 예...  
종사관 네년이 주상전하께서 금하신 온갖 패관소설과 잡서를 사들여

읽어댔다지. 천것이 제 주제도 모르고 뒤흔어 주는 주인 나리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구나.

향숙 (억울함에 고개 들고) 억울합니다! 그 서책들은 제 것이 아닙니다.  
종년 주제에 무슨 돈이 있어 그렇게 많은 서책을 사 모았겠습니까?  
종사관 (비웃는) 네 것이 아니다? 허면 그 많은 책의 주인이 누구란 말이나?  
향숙 그건...!

### #46. 과거. 강가(낮)

#16의 이후 장면. 비 그쳤다. 풀잎에 맺혀 있던 빗물 똑 떨어진다.  
피란민들도 왜구도 보이지 않는다. 평화로이 강물 흐르는 소리뿐, 고요하다.  
강변에 기절해 쓰러져 있는 어린 향숙(5세). 물에 폭 젖은 차림새, 파리한 낫.  
근처를 지나던 꽃가마 멈추더니, 어린 초희(8세) 가마에서 내려 다가온다.

초희 (양 무릎에 손 얹고 향숙 쪽으로 몸 기울여) 꼬마야.  
(향숙 반응 없자 손을 내밀어 흔들려는데)  
종 (나무라듯) 아씨. (얼른 대신 향숙 몸 붙잡아 흔들며)  
죽은 거 아닐까요.

그때 쿨럭쿨럭 기침 쏟아내며 희미하게 눈 뜨는 향숙.  
향숙의 부연 시야로, 걱정스레 보다 눈 마주치자  
꽃처럼 활짝 웃는 초희 보인다.

### #47. 포도청(낮)

종사관 (엄하게) 네 입으로 어서 대답해보거라!  
향숙 (차마 초희 책이라 말할 수 없다, 입술 질끈 깨물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제 책이 맞지만,  
저것들은 본디 제 책이 아닙니다.

종사관 (기막혀 헛웃음 터뜨리곤) 니 책이 맞는데, 니 책이 아니다?  
네년이 어디 증좌를 보고도 그리 말할 수 있나 보자. 증인을 데려와라.

포졸들, 안쪽에서 사람을 끌고 오는데, 세척점 점주다!  
고초로 너절해진 옷차림에 해쓱해진 점주, 향숙을 보는 눈이 희번덕 빛난다.

점주 (종사관이 묻기도 전에 향숙 향해 샷대질하며) 저년이 맞습니다요!  
저년이 매일같이 제 가젤 드나들며 서책을 사고 세책을 빌려 갔습니다  
나리!! 책을 훔친 적도 있어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향숙 (황급히) 아닙니다! 훔치려던 게 아니라 그저 책을 읽은 이들이 남긴  
말들을 보려던 것뿐입니다…!

종사관 네가 그것을 왜?

향숙 그건… (결심 굳히고 똑바로 보며) 제가 바로 그 책을 쓴 자이기  
때문입니다!

종사관 천것에 여인 주제에 글을 지었다?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지껄이는  
것이냐?

향숙 어찌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별이, 신분이 글 짓는 데에도  
장벽이 된단 말입니까?

종사관 (비웃는) 어리석고 천한 여인 주제에 거짓말엔 제법 능하구나. 더  
들어볼 가치도 없다. 여봐라! 당장 저년에게 곤장을 쳐라!

창고에서 곤장을 꺼내어 오는 관노들.  
포졸1:2, 꿇어앉은 향숙을 억지로 곤장으로 끌고 간다.  
곤장을 보고 겁에 질려 떨리는 향숙의 두 눈.  
곤장에 묶이며 억울함이 사무쳐 발버둥치는 향숙.

향숙 (서럽게 울부짖는다) 어찌 믿어주지 않으십니까? 천민도, 여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신분은 미천해도, 마음이란  
게 있단 말입니다!!

종사관 (혀 끝끝) 금서를 읽은 것도 모자라 훔치기까지 하고, 세 치 혀로  
거짓을 고해 속이려 들어? 그 죄가 참으로 무겁도다. 여봐라 저년을

매우 쳐라!

향숙에게 곤장을 내리치는 포졸들.  
“아악!” 고통스러운 비명 지르는 향숙.

## #48. 거리(낮)

미친 듯이 포도청을 향해 달려가는 흥달.  
달리는데 거지적거리는 사모를 벗어 내던져버린다.

## #49. 초희 집 안마당(낮)

신랑이 사라져버리자 찬물 끼얹은 분위기가 되어버린 혼례식.  
흥달 부와 흥달 모, 안절부절못하며  
서윤과 초희 모에게 고개 조아리며 사과 중이고  
구경꾼과 몸종들, 삼삼오오 모여 눈치 보며 수군거리고 있다.  
대례상 앞 신부 자리에 그대로 꿇꿇하게 서 있는 초희. 치욕스러운.

돌쇠 (초희 눈치 보며) 저어… 안 가보셔도 됩니까? 아씨 젤 가까이서  
모시던 아이니 마음이 쓰이실 텐데…

초희 (돌아보곤 싸늘히) 그 아일 밀고한 것이 나인데,  
내가 왜 거길 가겠느냐.

돌쇠 (헉! 충격으로 놀라 보는)

## #50. 과거. 초희 방(낮)

#30 이후. 향숙이 서찰을 들고 방에서 나가면  
초희, 붓이며 벼루, 종이 정리해 놓다가 바닥에 뒹던 비단 손수건 발견한다.

산수도 아래 이백의 <청평조사> 한 수를 수놓은 비단 손수건.

초희      도련님 드리려 했던 건데 깜빡했네. 향숙아!

### #51. 과거. 홍달 집 앞(낮)

꽃신 신은 초희, 홍달 집 근처까지 오는데,  
멀찍이서 대문 열고 손에 서찰 쥔 채 도로 나오는 향숙 보인다.  
초희, 반갑게 손짓하는데 향숙은 못 보고 종종걸음으로 빠르게 가버린다.

### #52. 과거. 언덕 아래(낮)

정자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  
향숙의 등 두드리며 수정과 먹여주는 홍달을 우두커니 서서 지켜보는 초희.  
묘한 기류 흐르는 두 사람을 바라보는 초희의 표정이 의아하다.  
도망치는 향숙을 붙잡는 홍달.  
입 맞추는 두 사람을 지켜보는 초희의 낯이 점차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진다.  
들고 있던 손수건을 툭 놓아버리곤 꽃신으로 짓밟고 돌아서 간다.  
싸늘한 표정. 붉게 충혈된 눈에 눈물이 고인다.

### #53. 포도청(낮)

곤장에 묶여 기절해 있는 향숙. 치마가 피로 물들어 있고 머리 산발 되어 있다.  
포졸1, 물동이 들어 향숙에게 물 뿌리지만, 향숙은 정신 잃은 채 미동 없다.  
어느덧 잔뜩 모여든 구경꾼들. 끔찍한 광경에 기가 질려 있다.

백성1      (목소리 낮추어) 죽은 거 아녀?

백성2      (혀 끝끝 차며) 모르지.

어린 계집에게 그리 매질을 해뒀으니 몸이 성하겠어...

백성1      아니 솔직히 한양 땅에서 소설 한번 안 읽어본 작자가 몇이나 된다고.  
높으신 양반들도 임금님 빼곤 다들 한두 번씩은 봤을걸.

백성2      지체 높으신 양반 나릴 벌할 순 없으니 파리 목숨 같은 천것을  
본보기로 삼아 겁주는 게지.

향숙을 곤장에서 풀어내 축 늘어진 몸을 짐짝처럼 끌고 옥사로 가는 포졸들.  
고개 절레절레하며 하나둘 빠져나가는 백성들.

### #54. 포도청 앞(낮)

헉헉 가쁜 숨 몰아쉬며 뛰어오는, 땀에 폭 젖은 홍달.  
흘어지는 인파 다급히 피해치며 포도청으로 들어간다.

### #55. 포도청(낮)

곤장 정리해 치우고 있는 관노들.  
홍달, 흠바닥에 흥건한 물과 핏자국 보고 기겁하며 포졸1 붙든다.

홍달      오늘 향숙이란 여종 하나가 끌려오지 않았소?

포졸1      (홍달 차림새 위아래로 훑으며) 그렇소만.

홍달      지금 어딴소! (둘러보며) 설마... 곤장을 친 거요?

포졸1      서씨 가문 나리십니까?

홍달      그건 아니오만...

포졸1      허면 알려드릴 수 없소이다.

홍달의 손 뿌리치고 들어가버리는 포졸1.

홍달, 불안감에 안절부절못하며 주변만 살피는데

홍달과 포졸1의 대화 들은 백성2 홍달에게 다가온다.

백성2 죽었을 거외다, 그 여중.  
 홍달 (다급) 향숙일 보셨소?!  
 백성2 (혀 끝끝) 작은 계집 몸에 매질을 그리 해뒀으니...  
 옥사에 끌고 갈 때 이미 의식이 없었수.  
 깨난다 해두 어차피 풀려나기도 그른 거 같던데 포기하쇼.

홍달, 충격으로 멍해지는데.

### #56. 초희 방(밤)

옷가지 전부 보자기에 싸여 있고 책장은 텅 비어 있는 방 안.  
 혼례 치르던 원삼 차림 그대로 홀로 덩그러니 앉아 있는 초희.  
 허망한 표정으로 손 더듬어 느릿하게 족두리 풀어낸다.

### #57. 포도청 마당(밤)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고요한 포도청 안.  
 옥사 입구가 보이는 자리에 굳은 것처럼 우뚝 서 있는 홍달.  
 그때 옥사 안에서 웅성거리는 말소리와 인기척 들린다.  
 굳어 있던 몸 풀리고 얼른 다가가 긴장해 보는 홍달.  
 이내 옥사 문 열리고 거적으로 덮인 시신을 실은 들것을 들고나오는 포졸3·4.  
 저도 모르게 멍침땀 뺀 걸음질치는 홍달.

홍달 (설마 아니겠지 싶어 부러 가벼이) 누구의 시신이오...?  
 포졸3 오늘 낮에 끌려온 여중이오.  
 홍달 (믿기지 않는) 예...?

홍달, 경악하며 얼굴 확인하러 거적 들치려 붙잡는데 거칠게 밀쳐내는 포졸3.

홍달 (미친 듯이 달려들며) 이거 놓으시오!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겠어!!!  
 포졸3 (가로막으며) 죄인의 시신에 손대시면 안 됩니다.  
 홍달 (막무가내로 포졸들 밀쳐내며 애절히 손 뻗는) 향숙아, 향숙아! 나다, 홍달. 향숙아!!

소란에 달려오는 포졸1·2. 홍달의 양팔을 결박해 붙들면  
 홍달을 스쳐 지나가는 향숙의 시신.

홍달 (온몸으로 미친 듯 발버둥치며 눈물 주르륵) 안 돼... 아니 된다... 죽었다니...? 내게 웃어주던 네 얼굴이 아직도 선한데... (울부짖는) 향숙아!!! 향숙아아!!!  
 종사관 (안에서 나와 내다보며) 웬 소란이냐?  
 홍달 어찌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이리 쉬이 죽인단 말이오! 신분이고 성별이 어찌 죽음의 이유가 된단 말이오!  
 포졸 (안절부절) 낮에 잡혀 온 여중이 죽어 저러는 듯합니다. 얼른 내보내겠습니다.  
 홍달 (울부짖는다) 향숙이가 글을 쓰는 것이, 읽는 것이 누구에게 그리 해가 된단 말이오! 그 작고 고운 아이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홍달에게서 점점 멀어져 포도청 빠져나가 사라지는 향숙의 시신.  
 홍달, 너무 우느라 혼절해 털썩 자리에 무릎 꿇고 주저앉는데...  
 홍달의 얼굴로 갑자기 확 끼쳐오는 밝은 빛.  
 포졸1·2, 향숙을 끌고 올 때 가져온 책들 전부 바닥에 쏟아부어 불사르고 있다.  
 멍하니 바라보는 홍달. 홍달의 눈동자 안에서 눈물과 섞여 일렁이는 불꽃.

FLASH BACK  
 #2 계곡가. 장난치는 홍달에게 새침하게 화내던 향숙.

향숙 (발끈) 아이참, 내놓으십시오!

#13 개천변. 홍달이 지어준 이름자를 감격해 써보던 향숙.

향숙 배움에 신분이 있더이까.

#15 영춘당 인근. 꽃 꺾어 불쑥 내밀던 향숙.

향숙 나중에 은혜 꼭 갚을게요.

#33 정자. 입 맞추던 홍달을 밀쳐내고, 도망쳐 멀어지던 향숙의 뒷모습.

향숙 ...부디 행복하십시오 나리.

홍달,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다. 숨쉬기가 힘들어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린다.  
 툭... 툭... 툭을 타고 떨어져 흠바닥을 적시는 눈물.

홍달 (쏟아지는 울음에 말이 다 멎개지고 느린) 내가 다 잘못했다...  
 돌아와다오... 네게 아직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

홍달, 밤하늘 올려다보면, 초롱초롱 빛나는 수만 개의 별 사이로 달이 보인다.

홍달 (질끈 고통에 눈 감으면 툭을 타고 툭 떨어지는 눈물) 향숙아.....

책이 전부 재가 되자 짓밟아 불씨를 꺼뜨리곤 포도청으로 들어가는 포졸1·2.  
 적막과 어둠만이 흐르는데...

포졸3 닻이 홍달이란 자요?

홍달 (눈물 젖은 눈 뜨고 보면) ...

포졸3 (빈 들것 세워둔 채 품에서 책 한 권 꺼내어 건네는) 숨이 끊기기 직전에 그 여종이 나리께 이걸 전해주랍니다.

홍달에게 책 전한 포졸3, 포도청 뒤편으로 사라진다.

책 보면, 표지에 '숙향전 下' 라 적혀 있다.

홍달, 의아하게 책을 펼친다. 빠르게 읽어 내려가는 홍달의 눈.  
 (이하, 지문에 '숙향전 책구절'이라 표기된 부분은 모두 실존 고전소설 <숙향전> 원본에 실제로 있는 문장. 드라마의 진행 장면이 해당 글귀가 보이는 책장과 겹쳐 보이게 연출.)

향숙(E) (숙향전 책구절) 소첩이 바로 숙향이로소이다.  
 저 창문 앞에 피로 쓴 글씨를 보셨나이까.

홍달(E) (숙향전 책구절) 작년 영춘당에서 봄을 맞이하며 저 옥계의 꽃이 더디 취함을 비웃더니, 금년에 또 영춘당에서 봄을 만나니 저 옥계의 꽃이 다시 만남을 반겨 웃는도다.

향숙(E) (숙향전 책구절) 꽃은 반가움을 이기지 못해 웃되, 나는 옛일이 새로이 떠올라 마음이 절로 슬퍼지는구나. (#15)

!!! 홍달과 향숙이 주고받은 시구가 <숙향전> 속 문장으로 적혀 있다.  
 품속에서 황급히 초희와 주고받던 연서들을 꺼내어본다.  
 필체가, 책과 같다. 모두 향숙의 글씨다.

INSERT  
 홍달에게 왔던 연서를 읽는 목소리와 얼굴, 초희에서 서서히 향숙으로 변한다.

초희 지난한 더위에

향숙 지치진 않으셨는지요.

초희 도련님과 함께 보낸 꿈같은 시간,

향숙 소녀 영영 잊지 못할 것입니다.

!!! 눈물에 젖어 있던 홍달의 눈이 깨달음으로 커다래진다.

## #58. 과거. 틱마루(밤)

다들 잠들어 조용한 초희 집 안. 고요하고 깊은 밤.  
향숙, 달빛에 의지해 종이 문치에 열심히 소설 쓰고 있다.  
벌써 쓴 종자들이 여러 장이라 두툼하다.

## #59. 과거. 세책점(낮)

향숙, 책 둘러보고 있다.

손님1 (가게 문 열고 들어오며 다짜고짜) 주인 양반 <숙향전> 세책 있소?  
향숙 (얼른 돌아보는) ...  
점주 다 그것만 찾네. 벌써 누가 빌려 가고 없수다.  
대기하는 손님만 열이 넘소.  
손님1 하권은 대체 언제 나온답디까? 뒤가 궁금해 죽을 지경이라구.  
향숙 (혼잣말처럼 짐짓) 그거 곧 나온다 하던데...  
손님1 걸 네가 어떻게 아냐?  
향숙 (절로 새어 나오는 웃음 감추지 못하고) 제가 그 책 쓴 자를 좀 압니다.

## #60. 과거. 틱마루(밤)

향숙(E) 편히 주무셔요, 아씨.

#18 뒷장면. 초희 방 불 꺼지고, 나와서 방문 닫는 향숙.  
주변에 누구 있나 두리번두리번 눈치 살피곤 품에서 <숙향전 下> 책 꺼낸다.  
책 후르륵 넘기다가 중간에 끊겨 있는 장을 펼쳐  
이어 적기 시작한다. 진지한 향숙의 눈빛.

## #61. 회상. 냇가(낮)

#23과 같은.

홍달 (확신에 차서) <숙향전> 초희 남자가 쓴 것 아니냐?  
향숙 (안절부절) 그것이...  
홍달 (다 안다는 듯 싱글) 됐다. 대답 안 해도 안다.

## #62. 회상. 들판(낮)

#13과 같은.

향숙 어릴 때 피란길에 아버지 밑 전부 잃구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전 진짜 이름도 몰라요.

## #63. 영춘당 인근(밤)

향숙(E) (숙향전 책구절) 김전 부부가 차마 숙향을 두고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도적이 쫓아와 사람을 썩은 풀 베듯 했다.

책 읽어 내려가는 홍달의 눈으로 눈물이 가득 고이고  
홍달의 눈에 꽃을 꺾어주던 향숙의 환영 보인다.  
홍달, 가슴팍에 책 끌어안은 채 차마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입술만 벅긋대다  
후회와 슬픔에 젖은 울음 토해내며 오열한다.

## #64. 저잣거리(낮)

자막 '한 달 뒤'



뗏구정물 흐르는 꼬마들 흠먼지 일으키며 뛰어논다.  
 꼬마 하나가 손에 세책 들고 오면 그 주변으로 우르르 모여드는 꼬마들.  
 표지에 책 제목 보이는데, '속향전 下'다.  
 책 펼쳐고 동그랗게 모여앉아 흥미진진하게 읽는 꼬마들의 빛나는 눈동자.  
 쓸쓸히 곁을 스쳐 지나가는 텅 빈 논의 홍달.

## #65. 계곡(낮)

맑은 물 팔팔 쏟아져 내려오는 아름다운 풍광의 #2와 같은 계곡가.  
 향숙이 떨어졌던 너른 바위 위에 서 있는 홍달의 뒷모습.  
 손에 들고 있던 <속향전> 上·下 두 권을 바위에 고이 내려놓는다. 초췌한 얼굴.  
 바람 훑 불어오자 후르륵 넘어가는 책장. 펼쳐진 책장 보이는 화면 위로

홍달(E) (속향전 책구절) 낭자가 나를 위해 고생하다가 죽었으니, 부모님을  
 뵈온 후에 낭자의 무덤을 찾아가 함께 죽으리라.

갓을 벗어 책 옆에 내려놓는 홍달.  
 신발을 벗어두고 바위 아래를 향해 한 발짝 내디디며 물로 몸을 던지려는 순간  
 뒤에서 홍달의 어깨를 꼭 붙잡는 누군가의 작은 손.  
 홍달 돌아보면, 믿기지 않는 놀라움으로 커다래지는 두 눈.  
 손의 주인, 향숙이다.

## #66. 과거. 옥사(밤)

향숙, 눈물 젖은 얼굴로 의식 잃은 채 옥사 안에 쓰러져 있다.  
 고초를 당해 물과 피에 젖어 엉망인 옷차림, 산발머리.  
 옥 지키는 포졸3이 들고 있는 횃불 활활 타오르며 기절한 향숙의 얼굴 비춘다.  
 감고 있던 눈 움찔대더니 천천히 뜨는 향숙.  
 멍한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대던 향숙, 상황을 기억해낸다.

품에 감추고 있던 쓰다 만 책과 붓을 꺼내어 이를 앙다물고 친다.  
 붓을 쥐 손에 기력이 없어 자꾸만 부들부들 떨린다.  
 펼쳐진 책장 위로 똑— 떨어져 번지는 향숙의 눈물과 핏자국.  
 고초, 설움, 홍달과의 기억에 서러운 눈물이 자꾸만 흐른다.  
 가물대는 의식에 시야마저 뿌연게 흐려지지만, 다시 애써 정신을 다잡아본다.  
 완성시키겠다는 집념과 창작열로 붓을 쥐 손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한 줄, 한 줄... 남은 기력을 모두 쏟아부어 필사적으로 적어 내려간다.

CUT TO

속향전의 마지막 문장을 적는 향숙.  
 끄트머리에 '끝'이라 적고, 벅차게 내려다본다.

향숙(E) 계축년 유월 이십삼일 옥사에서. 은애하는 분께, 사랑을 담아.

한 줄을 덧붙여 적고는, 비로소 붓을 내려놓는다.  
 더는 여한이 없다.

향숙 (쉬어빠진 목소리) 나리. 나리...!  
 포졸3 (하품 짝 하다가 흘깃 뒤돌아보며) 뭐냐.  
 향숙 부탁이 있습니다.  
 포졸3 (외면하고 건성으로) 암전히 있거라. 못 빼내준다.  
 향숙 (옥살 틈새로 책 내밀며) 홍달이란 양반 나리께 이 책만 전해주시시오.  
 그거면 됩니다.  
 포졸3 (눈살) 책을 빼돌렸냐? 정말 죽고 싶어 환장을...  
 (하다 표지에 제목 보고 멍칫) 속향전?  
 (받아들곤 후르륵 넘겨보며)  
 뭐, 나도 이 책은 제법 재미나게 읽기는 했...  
 (흥분하며) 하권이잖아!  
 (집중해 읽기 시작하며) 이걸 어서 냐냐? 꼭 직접 쓴 원본 같...  
 (하다 설마 하며 돌아보면)  
 향숙 (머뭇하다가 이내 끄덕, 비장하게) 예, 제가 그 책을 썼습니다.

## #67. 과거. 포도청 앞(밤)

거적 덮인 들것 들고 포도청에서 빠져나오는 포졸3·4.  
연신 주변 두리번대며 발걸음 재촉하는 포졸3의 긴장한 얼굴.

홍달(E) (울부짖는) 향숙아!!

거적 밖으로 늘어져 있던 향숙의 손 움짚...!

## #68. 과거. 산속(밤)

컴컴하고 우거진 산길 따라 울리는 헉... 헉... 거친 숨소리.  
포졸3·4, 어둠 속에서 거적 덮인 시신 들고 나타난다.  
비 오듯 쏟아지는 땀 흘려내는.

포졸4 (한숨 내쉬며 얼굴 훑치고) 이거 할 때가 제일 싫어.  
포졸3 (바닥에 들것 내려놓고 눈짓) 가서 좀 쉬고 있어. 뒤처리는 내가 하마.  
포졸4 (반색) 그래도 되냐? 나야 고맙지.

포졸4, 포졸3을 등지고 조금 내려가 바위에 털썩 앉아서 한숨 돌리며 쉰다.  
포졸3, 구덩이에 향숙의 시신을 굴러 넣고  
떨리는 손으로 거적을 슬쩍 들쳐내면,  
눈 감고 있던 향숙 스르르 눈 뜬다.

포졸3 (포졸4의 눈치 보며 목소리 한껏 낮추어) 새벽닭이 울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최대한 멀리 도망쳐 숨어 지내. 널 아는 자가 없는  
곳으로. (목에 손날 그으며) 들킴 너나 나나 죽은 목숨이야 알지...!  
향숙 (비장한 얼굴로 끄덕) ...  
포졸3 (돌아서 가려다가) 걸 밤새가며 재미나게 읽지만 앉았어두 이런  
위험한 짓은 안 했을 거다. (돌아서며 덧불이듯) 나 같은 것들 위해

죽을 때까지 그런 거 많이 쓰라구.

포졸4에게 가서 뭐라뭐라 말하고 하산하는 포졸3.  
점점 멀어지는 들의 발소리.  
숨까지 흘 멈추고 있다가 더 이상 발소리 들리지 않자  
그제야 숨 탁 트이는 향숙.  
주춤주춤 몸을 일으키는데, 온몸이 아파 절로 앓는 소리 나온다.  
누가 들을까 열린 손으로 입 틀어막다가, 설움에 절로 눈물이 쏟아져 나온다.  
소매로 거칠게 눈가 훔쳐내곤 일어난다.  
절뚝, 절뚝... 누가 있을까 긴장으로 살피며 산에서 내려가는 향숙.

## #69. 계곡(낮)

향숙 세상이 잠잠해지길 기다렸습니다. (홍달의 벗어둔 신 보며 근심) 나리,  
무슨 일이신진 모르겠지만...  
홍달 (향숙 품에 확 끌어안고) 귀신이나?  
향숙 (놀라) 나리...  
홍달 (눈 질끈 감고 끌어안은 팔에 힘주며) 그래도 좋다. (확인하듯 향숙의  
눈코입 더듬더듬 매만지며) 내가 널 잃고 얼마나... 얼마나... (목메는)  
향숙 (덩달아 눈물 고이는) 송구합니다. 도련님은 모르시겠지만 도련님께선  
제 목숨을 두 번이나 살리셨습니다. 저도 나릴 구하게 해주세요.  
(홍달의 양손 꼭 붙잡고 애투) 죽지 마세요, 제발...  
홍달 (붙잡은 손 멍하니 내려다보며) 따뜻해... 진짜 너로구나. 향숙이,  
너로구나. (품에 끌어당겨 안으며 눈물 툭 떨어지는) 살아 있으니  
되었다. 살아 있으니...

향숙, 애투하게 홍달의 등 마주 끌어안는다.  
두 사람 뒤로 팔팔 쏟아지는 깨끗한 계곡 물줄기.  
푸르른 나무들, 쏟아지는 맑은 햇살.  
풍경과 어우러진 두 사람의 모습 위로.

홍달(E) (속향전 책구절) 학사가 뜻밖에 남자를 보고 꿈인가 생시인가  
의심했다. 학사가 미친 듯 취한 듯 정신을 못 차리고, 다만 남자의 고운  
손을 꼭 잡은 채 흐느껴 우니,  
향숙(E) (속향전 책구절) 남자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위로하며 말했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끝없이 함께 걸어가는 홍달과 향숙.  
점점 멀어져 작아지는, 아련하고 아름다운 두 사람의 모습에서.

끝.

## #70. 초희 방(낮)

짐도 주인도 없이 텅 비어 있는 초희의 방.  
쓸쓸해 보인다.

서운(E) 학식 있는 명문가의 자제다. 초희 네 신랑감으론 더할 나위 없을  
것이야. 이제 세상에 없는 이는 그만 잊어라.

## #71. 들판(낮)

지평선이 보이는 너른 들판.  
들꽃과 들풀들이 바람에 부드럽게 살랑이는 평화로운 풍경.  
손을 꼭 잡고 멀리멀리 걸어가는 홍달과 향숙의 모습 보인다.  
들꽃 한 송이 꺾어 홍달 손에 쥐여주며 웃는 향숙.

향숙(E) (속향전 책구절) 부부의 인연은 하늘이 정한 것이며,  
홍달(E) (속향전 책구절) 애정에는 천하고 귀한 것이 없는지라.

향숙(E) 나리, 배움에 신분이 있나이까.  
홍달(E) 없지요. 헌데 부인은 언제까지 날 나리라 부를 생각이요.  
여보, 당신— 해보시오.  
향숙(E) (웃음) 천천히요.  
홍달(E) (엄하게) 어허, 어서. 사랑에도 신분이 없거늘.

## 작가 후기

---

당선 연락을 받고 제법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종종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맞는 걸까 스스로에게 되묻곤 합니다. 실력보단 운이 좋아 주어진 기회란 생각을 지울 수 없어 흘러가는 매 순간에 충실하잔 결심을 곱씹습니다.

김지일 센터장님, 임고은 과장님을 비롯 오픈 관계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관용과 가르침을 아끼지 않고 성장을 도와주셨던 선생님들, 동료분들 고맙습니다. 연약한 저를 지키고 지탱해준 부모님, 가족, 친구들 사랑합니다.

드라마를 쓰는 일. 끝없이 고민하고, 되묻고, 고쳐나가는 과정은 나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해 조금씩 틈을 메꾸며 세상과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고통스럽고도 흥미로운 여정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과도 닮아 있고 그래서 드라마가 좋습니다. 수정을 하며 '향숙전' 속 인물들에게서도 억압하는 세상에 대한 투쟁과 갈망, 변화와 성장이 조금이나마 보였으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안한 꿈을 열망하며 쉽 없이 절망하던 어린 날의 저에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작은 위로를 보냅니다. 사람이 보이는, 세상과 삶에 대한 애정과 온기를 가진 드라마를 쓰는 작가가 되겠습니다.

## 기획의도

---

세상이 급변할수록 세대 간의 단절은 더 깊어진다.  
노년의 삶은 한겨울 나뭇가지처럼 앙상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청춘은 혼란스럽다.  
두 세대가 서로를 이해할 수는 없을까?  
만일 서로를 이어줄 수 있는 매개체가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블루투스 시스템을 떠올리게 됐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끈끈한(?) 관계를 맺어주는 이 무선 공유 시스템은  
떨어져 있는 서로를 이어준다. 그것이 꼭 인간관계와 닮았다.

어차피 인간은 도구를 쓰며 진화해왔다. 노인은 진화의 절정체이니,  
노인들이라고 못할 게 뭐 있을까. 다만 새로운 문명을  
함께 공유할 친절한 스승이 없을 뿐.  
이 이야기는 그 스승 노릇을 하게 된 한 청년의 이야기다.

웬수 같은 할아버지의 청춘을 연기하게 된 스무 살 청춘이  
할아버지의 지난 청춘을 이해하고,  
지금의 청춘과 마주하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

## 등장인물

---

### 김성준(23세, 남)

할아버지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인연이지 싶다. 질풍노도의 시기는  
할아버지의 질책으로 보내야 했다. 그래서 청춘을 꽃피울 스무 살에 도망치듯  
입대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스펙이라곤 고졸, 군필이 전부인  
터라 취업은커녕 근근이 아르바이트하며 모진 서울살이를 버티는 중.  
그렇게 집을 떠나 산 지 3년째. 그사이에 엄마와 다름없는 할머니에게 치매가  
찾아왔단다. 3년 만에 만난 할머니는 성준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춘삼 씨”라고

부른다. 할머니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졸지에 할머니와 신혼여행을 떠나게 된다.

### 이춘삼(72세, 남)

한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남은 건 울화뿐이다. 보증을 잘못 섰다가 전 재산을 날려버렸고, 애지중지 키운 딸은 병든 놈 수발들겠다고 기어코 연을 끊고 나가더니 어린 아들놈을 맡기고는 죽어버렸다. 그렇게 떠맡게 된 손주 놈은 징그럽게 말을 안 듣더니 3년 전 집을 나가버렸다.

며칠 전까지 아파트 경비 일을 했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을 해왔다고 자부했건만 갑작스레 해고당했다. 엇친 데 덮친 격으로 자꾸 압박감받 정신 줄을 놓던 아내가 급기야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어쩔 수 없이 손주를 불렀다가 골치 아픈 여행을 떠나게 됐다. 브루투스지 브리투스지 처음엔 귀찮아 죽겠더니, 손주를 아바타로 부리게 되자 처음으로 손주 놈이 말을 듣기 시작한다. 그렇게 손주에게 진심을 건네기 시작한다.

### 송영옥(70세, 여)

한평생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남편을 위해 헌신해온 그녀의 시간이 20대 싱그러운 처녀 시절로 돌아가버렸다. 치매에 걸린 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에 도달한 영옥은 욕망 덩어리로 폭주하기 시작한다. 가슴 설레는 신혼여행. 춘삼 씨와 가고 싶은 곳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 죽겠다.

### 송화영(23세, 여) 성준의 첫사랑

### 이미연(30대, 여) 세상을 떠난 성준의 엄마

### 그 외

미연 친구, 여관 주인, 관리소장, 의사, 꼬마, 동네 아주머니 등

## 즐거리

### “우리 신혼여행은 언제 가요?”

제대 후 서울살이 1년 차, 열심히 일해도 코딱지만 한 방의 월세를 빼면 남는 건 없다. 취업은 계속 실패하고 근근이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성준, 그마저도 그만두게 된다.

춘삼은 일하던 아파트에서 정리해고된다. 엇친 데 덮친 격으로 영옥은 치매에 걸려 춘삼을 알아보지도 못한다. 춘삼은 고민 끝에 아내의 핸드폰에 저장된 성준의 전화번호를 누른다.

그렇게 3년 만에 만난 할아버지와 외손자. 하지만 둘은 영 서먹하기만 하다.

영옥이 춘삼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소리에 코웃음 치는 성준.

하지만 영옥은 손자 성준의 손을 덥석 잡고는 “춘삼 씨”라고 부른다.

손자인 성준을 젊은 시절 자신의 남편이라고 여기는 것!

### 리턴, 스무 살 우리 할머니

이번엔 할머니가 콧소리 가득하게 애교를 부리며 신혼여행을 가자고 졸라댄다. 할머니를 위해 여행을 가기로 하는 성준. 하지만 치매로 변해버린 할머니의 모습은 낯설고 당황스럽기만 하다. 성준은 고심 끝에 식당에서 쓰던 블루투스 무전기를 춘삼에게 끼워주고 할아버지의 아바타를 자처한다.

쌍인 것이 많은 성준과 춘삼은 자꾸 서로를 오해한다. 그런 둘에게 공통분모는 영옥이다. 영옥에게 이제껏 못해준 만큼 이 기회에 다 해주고 싶은 두 사람. 하지만 가고 싶은 곳도,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많은 20대 영옥 씨를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다.

20대의 감성으로 돌아간 건 영옥 씨뿐이 아니다. 춘삼 역시 영옥과의 20대 시절을 떠올린다. 두 사람에게도 찬란했던 시절이 있었다. 역할극에

부정적이었던 춘삼이 적극적으로 변해갈수록 성준과의 합도 맞아들어간다.

##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상경하는 차 안에서 춘삼이 몰래 넣어둔 돈을 발견한 성준은 코끝이 찡해진다. 성준은 그 길로 다시 돌아온다. 하지만 그사이에 영옥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성준과 춘삼은 낯선 여행지에서 영옥을 찾아 헤맨다. 가까스로 영옥의 소식을 들은 성준은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온다. 그 시각 간호사를 미연으로 착각한 영옥이 하는 말을 듣게 된다.

“이것아 속일 걸 속여야지. 애가 이렇게 큰데. 느이 아버지 알면 난리 난다.”

성준은 자신이 영옥과 춘삼의 친손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 청춘 아바타 김진아

---

### #1. 치과/진료실(낮)

성준, 입을 크게 벌리고 진료 의자에 누워 있다.

성준의 시선으로 보이는 의사.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모양새가 공포스럽다.

성준(NAR) 치과는 정말 두렵다.

성준, 말과는 달리 무표정하게 치료를 받고 있다.

의사 조금 아파요~

성준 (여전히 무미건조한 표정)

성준(NAR) 내가 진짜 두려운 건

의사 (들여다보며) 아말감이 너무 안 좋네. 때우셔야 돼요.

금이랑 레진 중에 선택하실 수 있어요.

성준(E) 금이랑 레진이면?

성준의 내레이션과 함께 머릿속에 떠오르는 액수.

성준(NAR) 월세 40만 원, 공과금/핸드폰 15만 원, 식비/교통비 30만 원, 예비비 20만 원, 치과 진료비...

치과 진료비에서 숫자가 ‘?’ 였다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한다.

성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인다.

성준(NAR) 변변한 집 없이 서울에서 버틴다는 건

성준 아말감! 아말감으로 해주세요!  
의사 아말감은 깎아내는 범위가 좀 넓어요. 그래서 요즘 추세는...  
성준 (단호하게) 아뇨. 무조건 아말감요!

금액이 싹싹 지워지더니 빠르게 정정된다.  
성준, 비로소 표정이 편안해진다.

성준(NAR)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 #2. 치과/대기실(낮)

치료를 마친 성준 결제하려고 핸드폰을 꺼낸다.  
스마트폰 화면 속 화영의 사진이 보인다.  
결제 앱을 실행해 직원에게 건네는 성준.

직원 어? 잔액 부족으로 뜨는데요. (핸드폰을 돌려주며)  
성준 네? 그럴 리가 없는데... (당황해서 핸드폰을 건네받는다)

그 순간 '화영♡'으로부터 문자가 온다.  
'헤어지자 미안 이제 연락 못 받아'  
성준, 놀라서 전화 버튼을 누른다. 신호는 가지만 받지 않는다.  
멍해지는 성준의 표정.

## #3. 음식점 밖+안(낮)

커다란 식당 외관.  
자동차가 꽉 들어차 있는 큰 고깃집이다.

성준 (기운 없지만 억지로 소리치는) 어서 오세요.

성준 귀에 블루투스 무전기를 끼고 있다.

사장(F) 2번 테이블에 야채. 3번 테이블에 물 빨리빨리 좀 가봐.

성준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일하는 모양새.  
그 옆에 앉아서 지켜보는 손님 한 명. 술이 거나하게 취해 있다.

손님 (시비조로) 너는 건방지게 일하면서 무슨 이어폰을 끼고 있냐.  
성준 이거 무전기예요. (가려는데)  
손님 (붙잡는) 어디서 약을 팔아. 우리 조카가 끼는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성준 (짜증 난다) 일할 때 쓰는 무전기 맞거든요. (또 가려는데)  
손님 아니 근데 어디서 말대꾸야. 그래서 안 뺀다는 거야? 아 나 기분 나빠서 못 먹겠어.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얼른 다가오며) 아이구 죄송합니다 손님. (정색하며) 어서 사과드려.  
성준 (한숨) 전 잘못된 거 없는데요.  
사장 (인상 쓰며) 사과드리라고 어서!  
성준 (손님을 노려본다)  
손님 뭘 봐? 넌 에미 애비도 없냐?  
성준 응. 없어.

성준 앞치마를 벗어서 바닥에 확 팽개치듯 던지고 그대로 나와버린다.

춘삼(E) 글썄 내가 뭘 잘못을 했냐고!

## #4. 아파트 관리사무소(낮)

관리사무소 안의 사람들 제각기 할 일을 하며 애써 춘삼을 외면하고 있다.  
춘삼 관리소장을 쫓아다니며 이야기한다.

춘삼 내가 근태가 불성실해? 꼼꼼하게 일하는 걸 가지고 사람을 자르면



어쩌냐고.  
 관리소장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일 처리가 늦으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온다고요.  
 춘삼 컴퓨터 다루는 게 익숙지 않아 그러지. 가르쳐주면 잘할 텐데.  
 관리소장 (말 자르며) 그걸 언제 다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그럴 시간에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뽑죠. 아무튼 제발 그만 오세요. 예?

관리소장 도망치듯 빠른 걸음으로 도망간다. 쿵. 문 닫히는 소리.

## #5. 식당(낮)

(E) 쿵, 소리에 주방에 있던 직원 놀라서 보면  
 춘삼 열받은 표정으로 데스크를 손으로 치고 있다.

춘삼 여기 국밥 한 그릇 달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 안 보여?  
 직원 (굳은 표정으로 나서며) 선불이에요. 저쪽에서 계산 먼저 하세요.

춘삼 힐끗 보면 키오스크가 보인다. 얼굴이 굳는다.

춘삼 거 그냥 좀 해주면 되잖아!

직원, 대꾸도 없이 제 할 일을 한다.  
 하는 수 없이 키오스크로 향하는 춘삼.  
 이것저것 눌러보는데 화면이 이상하게 넘어간다.  
 다시 눌러보는 춘삼. 이번엔 세트메뉴를 실수로 눌렀다.  
 당황하는 춘삼, 이마의 땀을 닦아낸다.  
 뒤에 서 있던 사람 짜증 난다는 듯 팔짱을 끼고 춘삼을 노려보고 있다.

춘삼 (화가 치밀어서) 뭘 놈의 세상이 말야. 국밥 한 그릇 먹는 것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답답함에 분풀이하듯 기계를 발로 차는)  
 직원 (뛰어오며) 뭐 하시는 거예요.

춘삼 (더 보란 듯이 발로 찬다)  
 직원 (막아서며) 아 하지 마시라고요! (하는데)

춘삼의 발이 직원에게 빗맞았다.

직원 (열받아서) 이 노친네가 사람을 쳐?  
 춘삼 (당황했지만 어깃장) 내가 언제 쳤어! 네가 가져다 댔지.  
 직원 (주방 쪽을 향해 소리치며) 애들아 경찰에 신고해.  
 춘삼 뭐, 경찰?

춘삼 전화벨이 울린다. 순간 움찔해서 놀라는 춘삼.  
 제 전화벨 소리인 걸 깨닫고는 전화를 받는다.

경찰(F) 송영욱 님 보호자분 되십니까?  
 춘삼 예 그런데요.  
 경찰(F) 경찰입니다.  
 춘삼 !

## #6. 경찰서(낮)

춘삼, 헐레벌떡 경찰서 안으로 들어간다.  
 웅크리고 앉아 있는 영욱이 보인다.

경찰 아, 보호자님이세요?  
 춘삼 (대꾸 없이 영욱에게 간다) 아니 이 여편네가 다리도 멀쩡하구먼 왜 경찰서에 죽치고 있어.  
 영욱 (춘삼을 가만히 보다가) 아버지 오셨어요?  
 춘삼 뭐라고?  
 영욱 아버지 오셨구나! 오실 줄 알았어요. (웃는다)  
 춘삼 임자, 왜 이래. 나 몰라?

영옥 (눈을 깜벅거리며) 우리 춘삼 씨는 어디 갔어요?

문밖으로 들리는 소리. 춘삼과 영옥이 싸우고 있다.

## #7. 성준의 방(밤)

성준의 방. 좁고 어둡다. 단출한 살림살이들이 눈에 띈다.  
벽에 기대앉아 카톡을 눌러보는 성준. 성준의 메시지만 가득하고 읽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1' 이라는 숫자는 그대로다.  
한숨을 쉬며 눕는 성준. 순간 전화벨이 울리자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는다.

성준 여보세요?

춘삼(F) 나다.

성준 (얼굴 확 구겨지는)

춘삼(F) 좀 내려와.

성준 안 가요.

춘삼(F) 네 할머니가 아파.

성준 (놀라서) 할머니가 왜요? 어디가 아픈데요?

## #8. 천안 버스터미널(밤)

어두운 시각, 터미널의 정경. 불빛 때문에 환하다.  
성준 벤치에 앉아 있다. 그 옆으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할아버지 한 명이 초등학교 정도 된 손자를 보고 함박웃음을 짓는다.  
두 팔을 벌려 손자를 꼭 안아주는 할아버지.  
성준 그 모습을 부러운 듯 바라보고 있다.

## #9. 회상. 춘삼의 집(낮)

어린 성준, 문밖에 서서 혼자 우두커니 외롭게 서 있다.

춘삼(E) 저놈만 아니어도. 우리 미연이가 병든 놈이랑 결혼했잖어?  
저 웬수 같은 놈 때문에...

영옥(E) 이러다 애 들겠어요! 못하는 소리가 없어!!!

춘삼(E) (분을 못 이기고) 임자나 나나 평생 짐 덩어리 맡은 거야. 알아?  
애지중지 키운 자식 잃고 늘그막에 이제 고생길이 열렸다고.

## #10. 천안 버스터미널(밤)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성준. 그 앞으로 춘삼이 나타난다.  
춘삼을 마주한 성준, 화를 참는 표정. 미간 사이로 선명하게 주름이 잡힌다.

춘삼 얼마나 있다가 가냐?

성준 (대꾸하지 않는)

춘삼 왜 이렇게 말랐냐. 너 밥은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성준 (성가시다. 말 자르며) 됐구요. 할머니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춘삼 나를 못 알아본다. 병원에서 치매라더라. 설마하니 너는 알아보겠지.

성준 (놀라서 잠시 말을 잊지 못하다가) 아니 무슨 소리에요? 어떻게 했길래 할머니가! 안 봐도 뻔하지 뭐. 얼마나 버럭버럭 성질내고 속을 끓게 했겠어.

춘삼 (울컥해서 확 소리치는) 넌 뭘 잘했다고 큰소리야! 그렇게 걱정되는 놈이 한번 내려와볼 생각도 못 해?

성준 몰라서 물어요? 할아버지 보기 싫어서 안 온 거지.

춘삼 (알고는 있었지만 서운하다)

## #11. 거리(밤)

언덕길을 올라가는 춘삼과 성준. 마치 남남 같다.

춘삼 씩 돌아서 뒤를 본다. 성준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  
성준. 춘삼이 돌아볼 때마다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려버린다.

## #12. 춘삼의 집/현관(밤)

성준 할머니~

성준, 문을 열면서 습관처럼 할머니를 불러본다  
방에서 뛰어나오는 영옥, 성준의 손을 덥석 잡는다.

영옥 (눈물이 그렇그렇해서) 왜 이제야 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성준 나 누군지 알지? 알아보는 거지?

영옥 (고개를 끄덕인다)

성준 (안도의 한숨)

영옥 춘삼 씨, 보고 싶었어요.

성준, 순간 말문이 턱 막혀 춘삼을 본다.  
춘삼 역시 멍한 표정으로 영옥을 본다.

성준 (화나서) 내가 왜 춘삼이야! 할머니 손자 성준이잖아.

영옥 (가만히 바라본다)

성준 나잖아. 몰라?

## #13. 춘삼의 집/방(밤)

춘삼의 시선으로 보이는 성준과 영옥.  
성준, 영옥에게 앨범들을 보여주며 말하고 있다.

성준 이것 봐 기억 안 나? 나야 나라고. 할머니 손자! 응?

영옥 (뚱하게 다른 곳을 보고 있다가) 춘삼 씨. 우리 여행은 언제 가요?

성준 (이게 뭐 소린가. 당황해서 춘삼을 본다)

춘삼 (난감하다)

영옥 우리 신혼여행~앵~.

춘자 고게 우리 신혼여행 언제 가냐고 약을 바짝 올리잖어~잉.

성준 (춘삼 보며) 할아버지 신혼여행도 안 갔어요?

춘삼 갔다. 속초 시내랑 설악산까지 갔었어.

성준 무슨 수학여행도 아니고 설악산을...

춘삼 그 당시에 신혼여행은 있는 집이나 가는 거였다.

설악산도 굉장한 거였다고.

성준 (말 자르며) 병원에선 뭐래요?

## #14. 병원/진료실(아침)

성준, 의사의 말을 듣고 있다.

의사 (담담하게) 기억 세포들이 손상되면서 종종 기억이 돌아오다가 어느 순간 아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약물로 치료를 할 거고... (하는데)

성준 제가 뭘 할 수가 있죠?

의사 (바라본다)

성준 (털어놓듯) 할머니가 절 못 알아봐요. 제가 할아버지인 줄 알아요.  
선생님, 뭐든 좋으니 방법을 알려주세요.

의사 치매는 좋아지지는 않아요. 다만...

성준 (본다)

의사 더 나빠지지 않게 최대한 천천히 늦출 수는 있죠. (보면서) 그런 마음이사라면 그냥 적당히 맞춰드리는 건 어때요?

성준 나보구 할아버지인 척하랴구요? (기가 막힌 듯) 딴 사람두 아니구.  
할아버지인 척을 어떻게 해요.

의사 치매 환자는 심리적 안정이 중요해요.

성준      종종 기억이 돌아오시기도 할 거고.  
(생각한다)

## #15. 병원/대기실(아침)

TV 화면에서 지나간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  
블루투스를 이용한 아바타 소개팅이 나오고 있다.  
성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블루투스 무전기를 꺼내본다.  
딸깍딸깍 눌러보다 생각에 잠기는 성준.

## #16. 거리(아침)

성준, 춘삼 나란히 벤치에 앉아 영옥을 보고 있다.  
옆에서는 영옥이 성준을 붙잡고 조르고 있다.

영옥      신혼여행해~앵~~. 응?  
성준      (난감한 표정으로 영옥을 본다)  
영옥      으응? 약속했잖아. 춘자 기집애가 설악산 다녀왔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하다가) 어머, 저 꽃 좀 봐!

영옥 꽃을 보러 뛰어간 사이, 성준 춘삼에게 묻는다.

성준      춘자라는 분이 대체 누구죠?  
춘삼      네 할머니 친구. 왜 그 머리 뽀글뽀글한.  
성준      아! (생각났다) 지금 어디 사시는데요?  
춘삼      죽었다. 며칠 전에.  
성준      !  
춘삼      문상 가서 하룻밤을 꼬박 새웠는데 밤새 평평 울길래 아는 줄  
알았더니. 나오면서 그러더라고. 춘자는 대체 어디 갔냐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코빼기도 안 비친다면서 (한숨) 어떻게 보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속 편하겠지. 제일 친한 친구인데...

성준      근데 왜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하지?  
춘삼      낸들 아냐. 어릴 적에 집 나가신 장인어른이 돌아온 거라고  
생각하더라고.  
성준      !  
춘삼      네 할머니가 부모 얼굴을 모르잖냐.  
나이가 많은 남자가 자길 돌봐주니까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  
성준      (멍한 표정으로 한숨) 우리 할머니. 지금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 시절로 돌아간 건가?  
춘삼      (어쩐지 숙연해진다)  
성준      (결심했다. 비장하게) 우리 그거 가요.  
춘삼      뭘 가?  
성준      신혼여행.  
춘삼      (기함하는 표정으로) 신혼여행을 가겠다고?  
성준      할머니 평생소원이라잖아.  
내가 할아버지 노릇 할게. 나한테 방법이 있어요.

## #17. 천안 버스터미널 입구(낮)

급하게 걷고 있는 세 사람. 헉헉대며 따라가는 춘삼과 영옥.  
성준, 빨리 오라는 듯 자꾸 돌아본다.

춘삼      (버럭) 꾸물대다 버스 시간 늦었잖아. 슈퍼는 뭇 하러 들러서.  
성준      십 분 남았어요. 충분해요.  
춘삼      네 걸음으로나 충분하지 늙은이들 걸음은 생각 안 해?  
너 그렇게 느려 터져서 일은 제대로 하나?  
성준      (열받는다) 할아버지는 서둘러서 이룬 게 있긴 해요?  
춘삼      이눔이!!! (확 열받는데)  
영옥      같이 가요, 춘삼 씨.

성준과 춘삼 동시에 돌아본다. 영옥 힘들어서 헉헉대며 따라온다.

성준 안 되겠다. 내가 먼저 가 있을게.  
춘삼 ?

## #18. 버스 안(낮)

버스 기사와 성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기사 아! 지금 출발해야 된다니까!  
성준 잠깐만요 금방 온다니까요.  
기사 다음 차 타라고요!  
성준 (곤란한 표정) 아!! 와요.

성준의 시선으로 보이는 춘삼과 영옥.  
춘삼과 영옥 올라타자마자 신경질적으로 출발하는 버스.  
영옥 몸이 크게 흔들리자 성준이 얼른 부축한다.  
춘삼 운전사에게 버럭 성질을 낸다.

춘삼 거 운전 좀 잘해! 사람이 앉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거 아냐!  
성준 (이 악물고) 그만해요. 우리가 늦었잖어.  
춘삼 니가 늦었지 내가 늦었어?  
성준 (하아 싫다. 입을 꼭 다문다)

성준 눈으로 좌석 번호를 살핀다. 10, 11, 12번이다.  
혼자 앉을 수 있는 10번 좌석에 앉으려고 몸을 트는 성준.  
그런데 영옥이 성준을 끌어안듯 당긴다.  
영겁결에 넘어가듯 영옥 쪽으로 넘어지는 성준.  
성준 어쩔 수 없이 영옥의 옆자리에 앉는다.  
영옥 성준에게 어깨 기대며 팔짱 낀다.

영옥 (콧소리로) 아버지, 저희끼리 앉을게요.  
(춘삼 향해 애교스럽게) 저희 신혼여행이잖아요. 호호.

파격적인 나이 차이의 연인 때문에 웅성거리는 버스 안.  
성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버스 기사 뒤통수로 흘깃 한번 보더니 액셀을 밟는다.  
버스 부웅 출발한다.

시간 경과.  
버스 도로를 달리고 있다.  
잠든 성준. 영옥은 옆에서 설레는 표정으로 밖을 바라보고 있다.  
춘삼, 영옥을 가만히 바라본다.

## #19. 회상. 기차(낮)

기차에서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20대 영옥.  
20대 춘삼 맞은편에 앉아 영옥을 흘린 듯 본다.  
영옥, 춘삼과 눈 마주치자 싱긋 웃는다.

## #20. 회상. 영화관(낮)

1960년대 극장가의 풍경. 나란히 앉아 있는 두 남녀.  
영옥 계속 헛기침을 하면서 손을 슬금슬금 옆으로 밀어본다.  
춘삼 그 모습이 귀여워서 짐짓 모른 척한다.  
영옥, 춘삼이 아무 반응 없자 민망하고 창피하다. 손을 스르르 내리려는데,  
그 순간 춘삼이 박력 있게 덤석 영옥의 손을 잡는다.

영옥 끄읍!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자기 입을 막는다)  
춘삼 (보고는 놀라서, 작게) 괜찮아요?

춘삼, 영옥의 등을 두드려주려고 잡은 손을 빼는데? 안 빠진다.  
영옥이 손을 꼭 쥐고 놔주지 않는다.

영옥 (작게) 좋아서요.  
춘삼 예?  
영옥 아니이~ 좋아서 그런 거라구요. (말하며 손을 더 꼭 잡는다)

## #21. 회상. 사진관(낮)

손을 꼭 잡은 그대로, 한복을 입고 영옥과 춘삼이 사진관에 앉아 있다.  
서로 마주 보며 미소 짓는 순간 플래시가 터진다.

## #22. 회상. 장미여관(밤)

묘한 분위기 속, 계속 헛기침만 하며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분주한 춘삼.  
춘삼, 창문을 벌컥 연다. 방충망에 가득한 모기들.  
춘삼, 황급히 다시 창문을 닫는다.

춘삼 (손으로 부채질) 아, 덥구먼 더워. (벌떡 일어난다)  
영옥 (옆자리를 팡팡 치며) 춘삼 씨. 그만하고 여기 와서 앉아요.  
춘삼 (다소곳이 영옥의 옆에 앉는다)  
영옥 춘삼 씨. 눈 좀 감아봐요.  
춘삼 (긴장으로 얼굴이 터질 것 같다) 눈은 또 왜 감으라고 하고 그래 흠흠!  
(기대하는 표정으로 눈을 꼭! 감는다)

아무런 이벤트도 일어나지 않는다.  
적막한 가운데 작게 우는 풀벌레 소리가 들린다.

영옥 참 좋지요?

춘삼, 뜻밖의 말에 눈을 뜨고 보니 영옥 눈을 감은 채 소리를 듣고 있다.  
춘삼, 영옥의 행복해 보이는 표정을 보다가 다가가서 쪽, 뽀뽀한다.

영옥 (정색하며) 아이, 뭐야아~!  
춘삼 (민망해서) 아니, 명색이 그래두 첫날밤인데 뽀뽀도 못 하나.  
영옥 그니까. 첫날밤인데! (춘삼의 양 볼을 잡더니 저돌적으로 키스한다)

성준(E) 여기가 맞아요?

## #23. 장미여관/입구(낮)

춘삼,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눈을 꼭 감고 있다가 성준의 말에 눈을 뜬다.  
허름한 여관 입구. 성준,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다.

춘삼 (반가운 마음에) 어어. 맞아. 맞다 맞아. 세상에 아직 있구나.  
성준 어우야, 세상에 귀신 나오겠다.  
춘삼 그때 우리 둘은 참 좋았다.  
성준 (들어가며 비아냥) 참 좋은 꿈 꾸셨겠어.  
춘삼 여기서 네 엄마가 생겼잖나.  
성준 (들어가다 인상 팍 쓰고 돌아서 나오며) 아주 재수 옴팡 붙겠네.

성준 돌아서는데 순간, 귀신처럼 스르르 다가와 있는 여관 주인.

성준 으아! 깜짝이야. (하고 자기도 모르게 밀친다)  
여관 주인 (자존심 상했다.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성준을 위아래로 본다)  
성준 (실례했다 싶어서 억지 미소) 괜찮으세요?  
여관 주인 (위아래로 찬찬히 훑어보며) 목을라고?  
성준 (어쩔 수 없이) 예. 방 하나 주세요.  
여관 주인 (못마땅한 표정으로 보며 카드 키를 하나 쓱 내민다) 선불.  
성준 얼마죠?

여관 주인 (손가락 일곱 개를 편다)  
 성준 설마... 7천 원이죠?  
 여관 주인 (눈을 흘기며 내밀었던 카드 키를 다시 가져간다)  
 성준 아니... 이런 다 쓰러져가는 여관에서 7만 원을 받는 게 말이 돼요?  
 여관 주인 그럼 딴 데 가든지. (문을 탁 닫는)

성준, 기분이 상해서 확 돌아서 나오는데 영옥이 안으로 들어선다.

영옥 춘삼 씨~ 이상하게 나 여기 꼭 와본 것 같아요~  
 성준 (그 말에 얼른 돌아선다. 문을 다시 열며) 방 주세요!

## #24. 장미여관/방 안(낮)

춘삼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선다.

춘삼 내부는 많이 바뀌었구만. 아무렴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  
 (영옥 보며) 기억나? 안 나지?

춘삼, 애뜻하게 영옥을 바라본다.  
 영옥, 고개를 돌려 춘삼을 바라보지만, 그때와는 다른 멍한 표정.

춘삼 팬찮아. 내가 기억하면 되니까.  
 영옥 (뻘뻘 바라본다)  
 춘삼 (가만히 손을 올려 영옥의 어깨를 토닥여준다)  
 영옥 (고개 돌려서) 춘삼 씨~  
 춘삼 (저도 모르게, 애뜻해서) 응?  
 성준 네.  
 춘삼 (맞다, 머쓱하다)  
 영옥 우리 방은 어디예요?  
 성준 우리... 방요? 우리 방이 여기죠!

영옥 아이 참 이이는~. 그래두우 우리 첫날밤인데에~.  
 성준 (난감하다) 아... (말 돌리는) 근데 여기 숙박비가 좀 비싸서.  
 영옥 (속상하다는 듯 성준을 꼬집는다)  
 성준 (아프다는 듯 팔을 부여잡는)  
 영옥 얼른 가서 방 하나 더 잡아요.

## #25. 장미여관/카운터(낮)

영옥, 성준의 등을 민다. 억지로 다가가는 성준.

영옥 두 개 빌렸어야지. 우리 신혼여행이잖아요.  
 여관 주인 (요것 봐라? 흥미로운데! 영옥과 성준을 번갈아 본다)

성준, 여관 주인에게 입 모양으로 연신 “없다고 해줘요”라고 말한다.  
 애원하는 신호 보내고는, 얼른 돌아서서 말한다.

성준 방이 없다네. 거참, 빈방이 하나뿐이래.  
 여관 주인 (얼른) 방 많아요.  
 성준 (작게, 이 악물고) 없다고 좀 해달라구요.  
 여관 주인 방이 많은데 어떻게 없다 그래. 방 많은데. 여기도 비었고, 저기도 비었고. 다 비었는데. 할머니! 어느 방 쓰고 싶으신데요.  
 성준 (이를 악무는데)  
 영옥 (돌아서더니 성준의 옷깃을 잡아당기고는) 그냥 가요.  
 이상한 사람이예요. 나보구 할머니래.  
 성준 (얼른 쿵짝 맞추며) 그러게요. 정말 이상하네.

## #26. 장미여관/방 안(낮)

방바닥에 블루투스 무전기를 놓고 설명하는 성준의 모습.

춘삼 (기가 차서) 그러니까 이깃 게 네가 말한 방법이라는 거야?  
 성준 할머니가 내가 모르는 소리를 할 때마다 이 버튼을 누르고 알려주면 돼요.  
 춘삼 알려주면?  
 성준 그러니까 내가 할아버지 아바타가 되는 거죠.  
 춘삼 아바타? 그게 뭔데. 난 안 해!

## #27. 속초 시내(낮)

거리를 걷고 있는 세 사람.  
 성준과 영옥이 팔짱을 끼고 걸어간다.  
 춘삼이 그 뒤를 따라 걷고 있다.

영옥 춘삼 씨, 나랑 세 번째 만나던 날에 사준 꽃 말예요.  
 성준 (당황한다. 쓰으 돌아보며 춘삼을 향해 눈짓하는)  
 춘삼 (당황했다. 버튼을 누르고) 내가 언제 꽃을 사줬어. 딴 놈 아냐?  
 성준 (확 노력본다)

CUT TO  
 길거리 가판대의 액세서리를 보고 있는 영옥.

춘삼 (자신 있게) 네 할머니는 보라색! 보라색 좋아한다.  
 성준 (얼른 보라색 핀을 집어준다)  
 영옥 (노란색 핀을 든다) ?  
 성준 (춘삼을 한심하게 본다)

CUT TO

영옥 그 가수 참 좋아했는데...  
 춘삼 (자신 있게) 남진!

영옥 나훈아잖아.  
 성준 (슬그머니 귀에서 무전기를 빼버린다)

## #28. 속초 시내 일각(저녁)

여자화장실 앞에 서 있는 성준, 팔짱을 끼고 허공을 보고 있다.  
 옆에 앉아 있는 춘삼. 이유는 모르겠지만 괜히 위축된다.

성준 거 뭐 기억하고 있는 게 있긴 해요?  
 춘삼 (반박해본다) 야, 너 열 살 때 뭐 먹고 뭐 했는지 다 기억해?  
 성준 그걸 내가 어떻게 기억해요?  
 춘삼 (인상 쓰며) 너 십 년 전 일도 기억을 못 하면서. 나보고 갑자기 50년 전 기억을 떠올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성준 근데 할머니 기억하잖아. 할아버지 기억 속에도 분명 있겠죠.  
 춘삼 (말문이 막혀서 본다)  
 성준 밥이나 먹으러 가요.

## #29. 식당(저녁)

식당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는 성준과 춘삼.  
 두 사람 다 별로 식욕이 없는 듯 영옥을 바라본다.  
 영옥, 어느새 한 그릇을 다 비웠다.

INSERT

10년 전 회상, 다른 식당.  
 세 사람이 밥을 먹고 있다.

영옥, 성준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성준의 그릇에 밥을 덜어준다.

영옥 우리 성준이 더 먹어.



성준 (익숙한 듯) 할머니, 벌써 배불러?  
영옥 응~ 당신도 더 들어요. (춘삼에게도 덜어준다)  
춘삼 (짜증 내며) 안 먹을 거면 시키지 말든가.

두 사람에게 덜어주고 양이 확 줄어든 영옥의 국밥.

현재.  
성준, 자신의 밥을 덜어 영옥에게 주려는데,  
춘삼이 먼저 영옥에게 덜어준다.  
성준과 춘삼의 눈 마주친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 #30. 식당 앞(저녁)

식당 밖으로 나온 성준.  
화영이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 것을 본다.  
성준을 보고 당황해서 팔짱을 빼버린 화영.  
이내 옆에 있던 남자의 눈치를 보며 다시 팔짱을 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표정.

성준 (화를 참는 표정, 화영에게 다가가) 이야기 좀 하자.  
화영 (어색하게) 오랜만이다. (남자를 향해) 동창이야. 잠깐만 기다릴래?

### #31. 골목길(저녁)

화영과 성준 마주 서 있다.

화영 너랑 헤어지고 만난 거야.  
성준 (기가 찬 듯) 사귀지 며칠 만에 여행을 왔다고?  
화영 (답하지 못하는)

성준 야. 그냥 사실대로 말하지 그랬냐? 사람 등신 만드니까 좋아?  
화영 그럼 내가 너랑 결혼이라도 할 줄 알았어?  
성준 (순간 말문이 막힌) 우리 나이가 몇인데 결혼 이야길 해?  
화영 거 봐. 어차피 끝이 뻘한 연애잖아. 오늘 끝내나 내일 끝내나 다를 게 뭐 있다고 유난이야?  
성준 너 나랑 만나면서 좋았던 적 없어?  
화영 만나는 내내 숨이 턱턱 막혔지.  
성준 내내 숨이 막혔다고?

성준, 전화벨이 울린다.  
핸드폰 화면에 ‘할아버지’라는 문구를 보곤 신경질적으로 끊어버린다.  
순간, 코뿔소처럼 씩씩거리며 달려오는 영옥이 보인다.

성준 어?  
영옥 (돌진하듯 달려와 대뜸 화영의 머리채를 휘어잡는)  
화영 (머리채 잡힌 채) 까악! 뭐야!  
영옥 감히 우리 춘삼 씨에게 꼬리를 쳐!  
성준 (당황해서) 이거 놔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영옥 당신 지금. 이년 편드는 거예요?  
(주저앉더니 아이고 아이고 목 놓아 운다)  
성준 (정신이 아득해지는 느낌)  
화영 뭐야, 이 미친 할망구는? 아오 재수가 없으려니까!!

성준, 그 말에 입술을 팍 깨문다. 영옥을 두고 도망치듯 피하려는데

영옥 신혼여행에 첩년이 딸려오고 이게 뭐야.  
(꺼이꺼이 울며) 아이구 내 팔자야.

성준, 그 소리에 눈을 질끈 감는다.  
다시 돌아서서 울고 있는 영옥에게 손을 내민다.  
영옥, 물기 어린 눈으로 그 손을 바라본다.

성준, 영옥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구석에 데리고 가서 앉힌다.

성준 그런 거 아냐. 아니니까 기다려요. 알았지?

성준, 다정하게 영옥의 등을 쓰다듬어주고는 화영에게 걸어간다.

화영 뭐야? 아는 사람이었어?

성준 응, 우리 할머니야.

화영 (당혹감에) 할머니? 너네 할머니 왜 저래?

성준 치매서. 나를 젊었을 적 할아버지인 줄 알고 계시거든.

화영 아...

성준 네 말이 맞다. 내 현실이 이러니 우린 언제 끝나도 끝났겠지.  
근데 화영아. 나는 너 만나는 동안 정말 좋았어. 나한테는 니가 내 유일한 숨구멍이고, 가족 같은 존재였어.

화영 (그 말에 심쿵 해서 성준을 본다)

성준 고마웠다 그동안. 잘 살아.

성준, 말을 마치고 영옥에게 가더니 영옥의 손을 잡고 나간다.

성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보는 화영.

### #32. 식당 앞(저녁)

성준, 걸어 나오면 맞은편에 춘삼이 서 있다.

춘삼 (괜히 변명해보는) 그러니까 왜 전화를 안 받아.

성준 (기운 없이) 이제 들어가요.

### #33. 버스 안(저녁)

덜컹거리는 버스 안이다.

버스 맨 뒷자리에 셋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양.

영옥은 성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잔다.

성준, 혼자 숨죽여 울고 있다. 창문을 보며 눈물을 쓱 닦아낸다.

춘삼, 가만히 성준을 보고 있다. 심란한 표정.

### #34. 장미여관/방 안(밤)

영옥은 곤히 잠들어 있고,

춘삼과 성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멀뚱멀뚱 천장을 보고 있다.

춘삼 미련이 남으면 가서 다시 매달려봐.

성준 됐어요. (돌아눕는다)

춘삼 사람을 만나야 장가도 가고 하지.

성준 (너털웃음) 내가 장가를 어떻게 가.

춘삼 (놀라서 보는) 그럼 결혼 안 할 거야?

성준 결혼도 돈이 있어야 하지. 누구 고생시키려고.

춘삼 없어도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작게 시작해서 맞춰가면서.

성준 (O.L.) 없이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없어. 일흔 넘게 사신 분이 그걸 몰라? 그뿐이야? 시할아버지 자리가 편해 시할머니가 멀쩡해.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지. 난 결혼 안 해요.

춘삼 그냥 조부모는 없다 치고 살면 되잖아.

뭐, 평생 안 하던 효도 결혼해서 하려고?

성준 (본다) 의외네. 키워준 은혜도 모른다고 욕할 줄 알았더니.

춘삼 넌 왜 이렇게 할머니랑 할아버지를 차별하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성준 (톡 쏘듯) 몰라서 물어요? 특하면 욕박지르고 집 나가라 그러고.

춘삼 (미안해서) 그랬냐.

성준 하긴 엄마가 버리고 가는 바람에 떠안은 짐 덩어리인데  
얼마나 싫었을까.

춘삼 (화들짝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 네 엄마가 널 버렸다니?  
말기고 가는 길에 사고가 난 거지.

성준 (격앙돼 소리치며) 그날 할아버지가 펄쩍 뛰고 화내면서 하는 말  
다 들었어요. 짐 덩어리라며!

성준,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버린다.

### #35. 장미여관/복도(밤)

복도 계단에 앉아 있는 성준.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던 무전기를 딸깍딸깍 누르고 있다.  
성준, 무전기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자 귀에 꽂아본다.

춘삼(F) 네가 싫었던 게 아냐. 누군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게 버겁고 무서웠다.  
그걸 들켰구나 내가.

춘삼, 복도에서 성준을 보고 있다.  
돌아선 성준의 등에 대고 이야기하는 꼴이다.

춘삼(F) 그래도 너희 엄마 너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어. 그건 믿어도 돼.  
널 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해하지 마라.

성준, 고개를 푹 숙인다. 울고 싶지 않은데 자꾸 눈물이 난다.  
어느새 다가온 영옥.

영옥 (놀라서) 춘삼 씨, 왜 이려고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성준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올려다보는)

눈물 속에 잠긴 영옥의 모습. 아른거릿듯 다가온다.  
영옥, 잠자코 성준의 눈물을 닦아준다.

영옥 (손을 내밀며) 들어가요, 이제.

성준, 물끄러미 영옥을 올려다본다.

INSERT

성준의 회상.

어린 성준이 울고 있다.

그때 성준에게 내미는 손. 영옥이다.

현재.

성준, 어릴 적처럼 영옥의 손을 꼭 쥘다.

성준 영옥 씨, 이번 여행에서 가고 싶은 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이야기해봐요. 내가 다 해줄게.

영옥 정말? (행복한 미소)

### #36. 장미여관/방 안(아침)

얼핏, 잠이 들었나? 아침 햇살에 눈을 뜨는 춘삼.  
순간 깜짝 놀란다. 영옥과 성준이 준비를 마친 채 바라보고 있다.

영옥 그만 일어나세요, 아버지.

성준 (민망해서 눈은 안 마주치면서) 빨리 갑시다 거.

### #37. 장미여관/카운터(아침)

여관 주인, 연신 하품을 하며 앉아 있다. 성준, 여관 주인에게 카드 키를 내민다.

여관 주인 어제는 본의 아니게 다 들었네. 옆에 있는 것마냥 생생하게 들려서.  
 성준 죄송합니다.  
 여관 주인 그게 왜 그쪽 탓이오. 건물 탓이지. 뭘 놈의 방이 방음이 안 돼.  
 (그러더니 밑에서 뭔가를 쓱 꺼내어 봉지째 올려놓는다)  
 성준 ? (본다)

봉지 안에는 도시락, 과자, 과일 등이 들어 있다.

여관 주인 (수첩을 쓰윽 내밀며) 내가 말 안 했나? 우리 여관 서비스라고. 뭐,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건 아니니까 소문내진 말고. (하다가) 어제 들어보니 할머니가 하고 싶은 게 많으시던데 참고하시라고 좀 적어봤어.  
 성준 고맙습니다.  
 여관 주인 (보며) 힘내요. 남들은 그냥 쉽게 사는 것 같아 보여도 다들 엄청 애쓰면서 사는 거라오.  
 성준 (울컥한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여관 주인 (카드 키 다시 밀어주며) 오늘도 여기 와서 자고 가요. 방값은 어제 다 냈으니까.  
 성준 (본다) 예?  
 여관 주인 내가 하루에 칠만 원이라고 한 적은 없거든. (따뜻하게 미소)

### #38. 장미여관/입구(아침)

춘삼과 성준, 지난밤에 속을 쏟아낸 뒤라 민망하고 어색하다.

영옥 (해맑게) 우리 이제 설악산 가는 거예요?

성준 (웃으며 고개 끄덕, 영옥의 손을 잡는다. 블루투스 무전기를 끼고 돌아보면)  
 춘삼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 #39. 국립공원 앞(아침)

설악산 국립공원 앞이다.  
등산객들 가운데 유난히 흥분돼 보이는 영옥.

영옥 아우 드디어 케이블카 타보네!!! 춘자 계집애한테 가서 자랑해야지!!!  
 성준 (영옥의 손을 가만히 잡아준다)

### #40. 케이블카(아침)

케이블카 타는 세 사람.  
영옥, 창문에 딱 붙어서 신기한 듯 아래를 내려다본다.  
영옥을 보고 있는 성준과 춘삼, 덩달아 기분이 좋다.

### #41. 설악산 정상(아침)

설악산 정상이다.  
성준, 춘삼과 영옥을 놓고 사진 찍고 있다.

성준 웃으세요 좀!  
 춘삼 (세상 어색한 미소)

사진 찍는 모습을 바라보는 등산객. 성준에게 다가온다.

등산객 세 분 제가 찍어드릴게요.  
 성준 아, 감사합니다. (등산객에게 핸드폰을 건넨다)  
 등산객 (핸드폰을 들고) 찍을게요. 웃으세요. 하나. 둘. 셋!

INSERT

사진 속 세 사람 환하게 웃고 있다.

## #42. 중앙시장(낮)

CUT TO

시장 입구에 서서 영옥과 춘삼에게 설명하는 성준의 모습.  
 수첩에 빼곡히 적혀 있는 설명을 읽고 있다.  
 지나가던 주변의 관광객들이 가이드인 줄 알고 몰려든다. 당황하는 성준.

CUT TO

대게를 보고 입을 찻 벌리고 있는 영옥과 기분 좋은 춘삼.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슬그머니 미소 짓는 성준.

CUT TO

영옥이 모르는 것을 물어보자 돌아보는 성준.  
 무전기를 누르고 뭔가 말하는 춘삼.  
 놀란 듯 돌아보며 입 모양으로 “오~” 하는 성준.  
 춘삼 어깨를 으쓱해 보인다.

## #43. 식당(저녁)

성준, 씹을 싸서 영옥에게 준다. 슬그머니 하나 더 싸서 춘삼에게 주려다가  
 만다. 춘삼, 자기도 모르게 입을 찻 벌렸다가 멧쩍어서 다시 다문다.

성준, 이번엔 영옥의 수저에 고기를 올려준다.  
 그러고는 잠시 고민하는 눈치더니  
 춘삼이 시금치를 먹으려고 손을 뻗자, 얼른 반찬 그릇을 밀어준다.

춘삼

(손주의 애정표현에 당황해서) 뭐 하나?

성준

(민망해서 고개 돌린다) 아니, 난 시금치 안 먹잖어.

춘삼

할머니는 고기 주고 나는 풀만 먹으라고? (하면서도 싫지 않은)

성준

고기보다 나물이 건강에 더 좋잖아. 건강하시라고.

춘삼

말이나 못 하면...

성준

진심이야.

춘삼

(보면)

성준

할아버지 말고 나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춘삼의 수저에 고기 올려주며) 할아버지까지 아프면 나 진짜 골치 아파.

춘삼

뭐가 골치 아파. 그러면 너 하던 대로 뒤도 보지 말고 내빼야지.

성준

(피식 웃으며) 나 다시 천안 와서 살까? 할아버지 혼자 힘들잖어.

춘삼

(버럭) 쓸데없는 소리 말아!

성준

아니...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매사에 화만 내?

춘삼

(고기를 집어 성준의 밥그릇에 수북이 올려주며) 밥이나 먹어.  
 젊은 놈이 비리비리해서는.

성준, 춘삼을 물끄러미 본다. 춘삼 묵묵히 밥을 먹는다.

자신의 밥그릇에 올려진 고기들을 보는 성준.

순간, 핸드폰이 울린다. 성준의 핸드폰이다. ‘사장’에게 문자가 와 있다.

‘야 인마. 잔소리 좀 했다고 그러고 나가면 되냐? 얼른 돌아와!’

성준의 표정 어두워진다. 그런 성준을 가만히 바라보는 춘삼.

## #44. 장미여관/방 안(밤)

어두운 방 안, 영옥과 성준이 눈을 감고 있다.

춘삼, 잠이 오지 않는지 잠든 손자를 뺏히 본다.

춘삼 이놈은 다 커서도 이불을 차네.

춘삼, 성준에게 이불을 덮어준다.

성준, 잠고대하듯 뒤척이며 돌아눕는다.

돌아누운 채 눈을 뜨는 성준, 심란한 표정이다.

#### #45. 속초 버스터미널/대기실+매표소 앞(아침)

춘삼의 시선으로 성준이 표를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인다.

춘삼, 영옥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다.

춘삼 임자, 여기 있어. 절대 딴 데 가면 안 돼. 알았지?

영옥 (가만히 고개 끄덕인다)

춘삼, 영옥을 두고 매표소 쪽으로 향한다.

성준, 표를 사고 있다.

성준 천안 세 장요.

춘삼 (끼어들며) 천안 두 장, 한 장은 서울 주소.

성준 (쳐다본다)

춘삼 (호두과자 봉투 내밀며) 올라가며 먹어라.

성준 배부른데. 됐어요.

춘삼 누가 지금 먹으래? 이따가 먹어.

성준 (마지못해 받는다)

춘삼 어여 가.

성준 할머니한테 인사는 해야죠.

춘삼 그냥 가.

성준 그래두.

춘삼 할머니 예전 네 할머니 아니다. 너 계속 붙잡을 거야.

성준 (어쩔 수 없이 물러서며) 전화할게요.

춘삼 (돌아선다)

#### #46. 버스 안+밖(낮)

버스에 앉아 있는 성준. 차창 밖으로 할아버지를 찾아보지만 이미 사라진 뒤다.

버스가 출발하면 터미널 한쪽 구석에 서 있는 춘삼이 보인다.

춘삼, 버스가 터미널에서 멀어질 때까지 그저 바라본다.

#### #47. 속초 버스터미널/대기실(낮)

영옥, 앉아 있다가 문득 옆을 바라본다.

유리창 속에 주름이 가득한 할머니가 있다.

영옥, 눈을 깜빡깜빡 뜨더니 얼굴로 손을 가져가 주름을 펴보려 한다.

손가락으로 펴는 즉시 다시 찌그러드는 피부.

놀란 영옥, 순간 주변을 둘러본다. 여기가 어디지 하는 표정. 혼란스럽다.

#### #48. 속초 버스터미널(낮)

터미널 한복판.

춘삼, 영옥이 보이지 않자 급히 주위를 돌아본다.

낮선 사람들이 제각기 할 일을 위해 바쁘게 다니고 있다.

춘삼 (걱정되고 초조해서) 이 여편네가 대체 어디 간 게야.

#### #49. 도로(낮)

속초 시내를 지나고 있는 버스.

성준, 춘삼이 건넌 호두과자 봉투를 본다. 순간 코끝이 찡해온다.  
봉투를 여는 성준. 봉투 안에 호두과자 대신 웬 까만 비닐봉지가 있다.  
비닐봉지 열어보면 꼬깃꼬깃 낡은 지폐가 들어 있다.  
짤막한 편지도 있다. 춘삼의 필체다.  
'여행 다니면서 돈 많이 썼을 텐데. 얼마 안 된다.'

성준(NAR) 싫다 정말. 돈을 보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놓인다.

성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버스 기사에게 간다.

성준 저 여기서 좀 내리면 안 될까요?

기사 예? 안 돼요.

성준 할머니가 아프신데 인사를 못 하고 와서요. 부탁드립니다.

## #50. 속초 버스터미널(낮)

성준, 두리번거리며 춘삼과 영옥을 찾고 있다.

성준 그새 어딜 간 거야. 전화도 안 받고.

방송(E) 송영옥 할머니를 찾습니다. 분홍색 상의에 검은 하의를 입은  
송영옥 할머니를 발견하시는 분은 방송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

## #51. 속초 버스터미널 일각(낮)

성준, 터미널을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다.

성준 할머니! 영옥 씨!

## #52. 속초 버스터미널 앞(낮)

춘삼 입자! 영옥아!

춘삼, 돌아다니며 영옥을 애타게 찾고 있다.

## #53. 속초 버스터미널 부근 길가(낮)

화영, 얼굴이 새빨개져서 씩씩대며 걸어가고 있다.

화영 참 나! 미래가 없어서 헤어져? 아니 누가 지랑 결혼이라도 한대?  
돈 좀 있다고 사람 비참하게... (하다가 멈칫)

INSERT #31

화영 어차피 끝이 뻥한 연애잖아.  
오늘 끝내나 내일 끝내나 다를 게 뭐 있다고 유난이야?

현재.

화영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으며 탄식한다) 하아...

문득 옆에 보이는 누군가의 맨발. 화영이 씩 위로 올려다보면 영옥이다.

화영 어?

자기도 모르게 방어하듯 머리를 부여잡으며 경계한다.  
영옥, 화영을 알아보지 못하고 쏘그리고 앉아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고 있다.

영옥 (횡설수설하는) 그러니까 미연이가 우릴 속인 거라는 거지?

아이고 이 기집애가 어찌려구. (꼭꼭대며 울기 시작하는)  
 화영 ? (조심스레 말을 붙여본다) 저기 혹시 성준이 할머니 아니세요?  
 영옥 (화영을 보더니 쓰러진다)

### #54. 병원(밤)

병원 로비로 뛰어 들어오는 성준.  
 다급하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다.

### #55. 병원/병실(밤)

영옥, 눈을 뜬다. 희미하게 간호사의 얼굴이 보인다.

간호사 정신이 드세요? 보호자분 곧 오실 거예요. 걱정 마시고... (하는데)  
 영옥 (벌떡 일어나 앉더니 한탄하듯 쏟아낸다) 아휴, 이것아 어찌려고  
 그래 응? 속일 걸 속여야지.  
 간호사 (당황스럽지만 그냥 가만히 있다)  
 영옥 느이 아버지 알면 진짜 난리 난다. 애 당장 보내라고.  
 그러니까 어찌자고 부몰 속이고 애까지 딸린 남자랑 결혼을 해!!

카메라 멀어지면, 그 뒤로 들고 있는 성준의 표정.

### #56. 병원 앞 벤치(밤)

춘삼, 얼굴이 하얗게 질려 달려온다.  
 성준, 그런 춘삼을 빤히 바라본다.

춘삼 할머니는 괜찮은 거야?

성준 (고개 끄덕인다)  
 춘삼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털썩 옆에 앉는) 넌 왜 이렇게 낮이 나갔어?  
 성준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릴 속였어요.  
 춘삼 (본다) 뭘?  
 성준 나 할아버지 친손주 아닌 것 같아.  
 춘삼 (표정 굳는다)  
 성준 (더 말하려는데)  
 춘삼 (화내며) 시끄럽다! 난 안 들을란다.  
 성준 ! (보다가) 알고 계셨어요?  
 춘삼 ... (대답 못 한다)  
 성준 언제부터요?  
 춘삼 ...

### #57. 회상. 방 안(밤)

영옥과 미연 친구가 작게 이야기하고 있다.

미연 친구 알고 계셨어요?  
 영옥 몸을 풀었다는 애가 암것도 모르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정이  
 헤프더니만 어찌다 철딱서니 없게 환자랑 정이 들어서는... (한숨)  
 미연 친구 저희도 말려봤는데 소용없었어요. 해사하게 웃는 게 맘에 들고  
 그 남자를 똑 닮은 아이도 눈에 꼭 박혔다면서...  
 영옥 ...  
 미연 친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옥 우리 딸이 자식으로 받아들였으면... 내 자식이이지.

춘삼, 밖에서 가만히 들고 있다.  
 듣다가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나간다.



## #58. 병원 밖 일각(밤)

성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성준 왜 말 안 했어요?  
 춘삼 내가 말했음 너 눈치밥 안 먹었잖나?  
 성준 핏줄도 아닌데 뭐 하러.  
 춘삼 내 손주니까.  
 성준 (본다)

INSERT

과거 회상. 동네 골목.  
 동네 아주머니와 춘삼, 샷대질을 하며 싸우고 있다.  
 초등학교 성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동네 아주머니 어우 노친네가 아주 괴팍해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할아버질 싫어하는 거예요!  
 성준 (나서며) 우리 할아버지 욕하지 마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줌마보다 백 배, 천 배는 더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춘삼, 눈빛이 크게 흔들린다.

춘삼(E)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건 없다.

## #59. 병원/병실(낮)

성준, 터덜터덜 걸어 들어온다.  
 잠들어 있는 영옥을 보고는 옆에 앉는다.  
 영옥, 부스스 눈을 뜬다.  
 성준, 천천히 영옥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성준 영옥 씨가 나를 기억 못 하든, 스무 살이 됐든, 칠순이 됐든... (곱씹듯)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어. 그치? 영옥 씨는 영옥 씨잖아.  
 영옥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고개 끄덕이며) 춘삼 씨, 되게 낭만적이다.

영옥, 성준을 꼭 끌어안는다.

## #60. 춘삼 집/마당(낮)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 돛자리 위에 앉은 춘삼과 성준.  
 성준 머리를 뻑뻑 긁어가며 뭔가를 작성하고 있다.  
 상 위에 놓인 성준의 노트북 화면에는 취업지원서가 떠 있다.  
 옆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춘삼.

춘삼 (혼잣말이지만 들으라는 듯) 아, 이거 어떻게 보내는 거야.  
 성준 취봐요.  
 춘삼 (반색하며) 가르쳐주려고?  
 성준 (괜히 민망해서) 아니, 거 쓸데없이 툭하면 전화하고 그러지 말라고. 귀찮잖아.  
 춘삼 (얼른 핸드폰 내민다)

성준, 춘삼의 옆으로 쓰윽 다가간다. 춘삼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설명하는.

성준 이거 편지봉투 모양을 누르고 펜 모양을 누른 다음에.  
 춘삼 (울컥해서 화내려다가 억지로 미소 지으며) 좀 천천히 해봐.  
 성준 (똑같이 화내려다가 누그러뜨리며) 천천히 하고 있잖아요... 오~~ 생각보다 잘하는데? (금세 짜증 내며) 아니 그거 누르지 말라고요!!!

투닥거리는 도중, 성준 핸드폰에서 전화벨이 울린다.

성준 어보세요? 예? 면접요? 예, 알겠습니다!

전화 끊은 성준, 춘삼과 잠시 침묵.

춘삼 올라가야지 이제.

## #61. 춘삼의 집/방 안(밤)

방문을 열어보는 성준. 할머니가 잠들어 있다.

성준, 이불을 덮어주고 가만히 보다가 문을 닫고 나온다.

## #62. 언덕길(밤)

춘삼과 같이 걸어 올라오던 길을 혼자 내려가는 성준.

걸어가다가 뒤를 자주 돌아보는 성준.

춘삼이 얼른 가라는 듯 손을 뻗어 흔든다.

## #63. 고속버스 안(밤)

달리는 버스 안, 성준 블루투스 무전기를 만지고 있다.

괜히 딸깍딸깍 버튼을 눌러보다가 말한다.

성준 (혼잣말처럼) 할아버지, 진짜 괜찮겠어?

## #64. 춘삼의 집/방 안(밤)

같은 시간 손자가 떠난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는 춘삼.

블루투스 무전기를 귀에 끼본다.

춘삼 (마치 대답하듯) 우리 걱정 말고 잘 살아. 이놈아.

애뜻하게 손자의 침대를 손으로 쓸어본다. 화면 멀어진다.

## #65. 거리+면접 대기실(낮)

성준(NAR) 그렇게 1년이 지났다.

근사하게 양복을 입고 거리를 걷고 있는 성준의 모습.

성준(NAR) 나는 여전히 면접을 보러 다닌다.

성준, 면접 대기실에 앉아 있다. 가슴에 이름표를 붙이고 있다.

성준의 시선으로 들어오는 다른 이름표. '송화영'

성준 놀라서 고개를 들자 화영이 서 있다.

성준, 외면하려는데 화영이 말 걸어온다.

화영 오랜만이네.

성준 (가만히 본다)

## #66. 커피숍(낮)

성준과 화영 마주 앉아 있다.

화영 어떻게 지냈어?

성준 뭐, 그렇지. 아르바이트도 하고 면접도 보고...

화영 무슨 아르바이트?

성준 전에 일하던 데.

화영 이번엔 오래 버티네. (말을 하고는 순간 당황)

성준 (피식 웃는다)  
 화영 (같이 웃다가) 사실은 사과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성준 (바라본다)  
 화영 널 만나는 내내 답답했다는 말 말이야. 사실 답답한 건 나 자신이었거든. 근데 그때는 누구한테라도 탓하고 악다구니 써야 견딜 것 같았나 봐.  
 성준 이해할 것 같아.  
 화영 이해한다고?  
 성준 응.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  
 화영 (끄덕이며) 그때보다는?  
 성준 다행이네. (생각하며) 누가 그랬는데 남들이 쉽게 사는 것 같아 보여도 다들 엄청 애쓰면서 사는 거래. 이렇게 애쓰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남들처럼 살 수 있을까?  
 화영 (가만히 본다)

### #67. 아파트 관리사무소/안+밖(낮)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보인다.  
 소장, 멀리서 춘삼이 보이자 인상부터 쓰며 일어난다.

관리소장 아, 저 노인네 또 오셨네. 한동안 잠잠하더니. (문 열고 나가서) 몇 번을 말씀드려요! (하는데)

그 앞으로 탁 놓이는 상자 하나.

일동 ?

춘삼, 실버택배라고 쓰인 완장을 보란 듯이 '탁' 친다.  
 이어 품 나게 스마트폰을 꺼내는 춘삼.  
 재빠른 손놀림으로 '배송 완료' 처리를 한다.

관리소장의 핸드폰으로 오는 문자. '배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어안이 병병한 표정의 관리소장.  
 그 뒤로 관리사무소 사람들이 기웃거리며 나온다.  
 그 사이로 걸어 나오는 춘삼의 표정, 당당하고 뿌듯하다.

### #68. 음식점(낮)

키오스크 앞에 서 있는 꼬마.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어려운지 고개를 푹 숙인다.

춘삼(E) 뭐 먹을 건데?  
 꼬마 (고개 든다)  
 춘삼 (씩 웃으며) 할아버지가 눌러줄까?  
 꼬마 (춘삼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 #69. 치매안심센터 앞(낮)

'치매안심센터' 간판 아래, 오토바이를 세우는 춘삼.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시간 경과.  
 영옥의 손을 잡고 나오는 춘삼. 춘삼이 영옥에게 헬멧을 씌워주자 영옥은 익숙한 듯 춘삼의 오토바이에 올라탄다.

### #70. 도로(낮)

도로를 달리는 춘삼과 영옥.

## #71. 춘삼의 집 앞(낮)

집 앞에 도착한 춘삼과 영옥.

영옥 춘삼 씨~  
춘삼 (버럭) 그놈 바빠. 고만 좀 찾아.  
영옥 춘삼 씨이~ (어딘가를 보며 뛰어간다)  
춘삼 (기겁해 고개 드는데)

멀리서 웃으며 손을 흔드는 성준. 도시락을 들고 손을 흔들고 있다.  
영옥이 성준에게 달려가 안긴다.  
가만히 우뚝 서서 서로를 바라보는 춘삼과 성준.

## #72. 공원 잔디밭(낮)

함께 도시락을 먹고 있는 셋.  
겉모양은 소풍이라도 온 모양새지만 서로 말없이 밥만 먹고 있다.

성준(NAR) 성질 괴팍한 할아버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손자, 그 손자를 남편이라 부르는 할머니. 가족이라고 하기엔 이상한 조합.

성준, 가만히 춘삼과 영옥을 본다. 그러다 춘삼과 눈이 마주친다.

춘삼 이 시간에 내려온 거 보니 또 떨어진 거야?  
성준 (킁. 없히게 생겼다. 헛기침하며 물을 마신다) 아직은 모르구...  
춘삼 떨어졌다는 거야 붙었다는 거야.  
성준 아니. 다들 신임을 뽑는다면서 경력 10년은 된 사람을 찾더라고.  
춘삼 지가 못해서 떨어져 놓고 핑계는.  
성준 (짜증이 치솟는) 아니, 할아버진 사람 속을 그렇게 굽어야 속이 시원해요?

춘삼 (아, 내가 또 실수했나 미안한 마음이 들려는 찰나)  
성준 이러니 누가 할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겠어? (말해놓고 아차 싶다)

어색한 분위기, 순간 춘삼과 성준의 손이 포개진다.  
영옥이 두 사람의 손을 가져가 포개놓고 흔들고 있다.  
춘삼, 괜히 쑥스러워 손을 열린 뺀다.  
성준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고는 다시 말이 없다.  
영옥, 그 모양을 보며 배시시 웃는다.

성준(NAR) 평생 서로 굽히고, 굽어도 주고...  
그렇게 맞춰가며 사는 거다. 그런 게 가족이니까.

영옥 춘삼 씨~!  
성준 (누그러진) 왜요?  
영옥 근데 우리 신혼여행은 언제 가요?  
성준, 춘삼 (마주보며)!

끝.

## 작가 후기

---

살면서 올 한 해처럼 다사다난한 적이 없었다.

그런 가운데 오픈 당선은 두 다리로 서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다.

센터장님과의 면담 중에 당선작 외에 내가 낸 다른 단막들도 모두 읽어보신 걸 알게 됐다. ‘하나만 걸러라!’ 하는 생각으로 낸 대본도 없지 않았다. 뒤늦게 얼굴이 화끈거리며 부끄러웠다. 부족한 대본들까지 진지하게 평해주시니 이내 썰물처럼 빠져버리는 부끄러움 대신 감사함이 밀려들었다. 두 감정이 밀물과 썰물처럼 교차한 그날, 수료 후 내 모습을 그려봤다. 더불어 어떤 작품을 쓰고 싶은지,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 반추해보았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너른 갯벌을 본 적이 있다. 수많은 갯골이 만들어내는 역동성과 장엄함이란... 지금의 나는 켈밭의 망둥이처럼 헤매는 중이다. 그리고 이 대본은 어쩌면 그런 나의 고민과 과제 속에 침잠해 있을지도 모른다. 이 담금질을 끝내고 수면 위로 드러날 내 모습을 상상해본다.

짧지 않은 지망생 시절이 있었다.

그간 한결같이 믿고 기다려준 사랑하는 가족들, 지지해준 동료와 친구들, 선생님, 부끄러운 작품을 읽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노라 약속하고 싶다.

## 기획의도

---

이것은 한탄이 아니다. 계도는 더더욱 아니다.  
명품 신발과 파우더 팩트를 가지지 않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주눅이 드는,  
“로드숍 립글로스는 애들이 ‘꼭 주지’ 않을까?” 고민글을 인터넷에 올려야만 하는,  
아무렇지도 않게 “너희 집은 몇 평이야?”를 서로에게 묻고 답하는,  
“엄빠가 열심히 살긴 하지만 은수저 친구를 보면 빠치고 마는” 오늘,  
이 시대 청소년들에 대한 관찰과 상상이고,  
더 이상 브레이크도, 후진기어도 듣지 않는 자본주의가 그려내는 자화상이다.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급식을 먹고, 똑같은 교과서로 공부한다고 해서  
계급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 동질성 속에서 아이들의  
촉수는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 부모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날카롭게 포착하고 그것을 더욱 열렬하게 추구한다. 그렇기에 이 시대 아이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한 돈으로 기어이 수십만 원짜리 운동화를  
사야 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동학개미 열풍에 동참한 ‘주린이’ 고교생이 자신과 학우들의 욕망을  
읽고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다. 범람하는 ‘경제뉴스’가 씨를 뿌리고, 아이들의  
평범한 욕망들이 잉태한 캐릭터에 대한 상상에서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 등장인물

---

### 안형인(18세, 여)

야망 있는 고2.

본인의 명민한 지능이 재산이다. 우수한 학업성과 무난한 평판의 소유자.  
평범한 가정, 평범한 진학, 평범한 노동으로 인생을 낭비하기엔 본인이 타고난  
지능과 끈기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당돌한 아이. 눈치 빠르고 명민한 두뇌 덕에  
세상 돌아가는 이치 또한 빠르게 깨우쳤다.

아버지가 본업 이외에 밤새도록 자서전 대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속상하고

자신보다 적은 노력으로 최상의 성과를 내는 교내 상위 클래스 친구들의 정보력이 뼈아프다. 10대 여고생들이 모두 가질 법한 물욕과 과시욕도 가지고 있다.

2020년. 등교수업이 중지되어 집에서 인강을 듣다가 포털사이트에서 '동학개미'에 대한 기사를 접했고, 고민할 필요도 없이 주식계좌를 개설. 시장 한가운데 등판했다.

### 은하늘(18세, 여)

사람들이 자신을 동경하는 데서 희열을 느낀다. 시기와 질투면 더 좋다. 중학교 때 부모의 강요로 강제유학 생활을 했고, 미국 하이소사이어티 학교에서 끔찍한 인종차별을 겪고 단식투쟁과 시험 백지제출 등을 감행해 한국 학교로 돌아왔다. 계급의 선을 확실히 지키는 아이들이 좋다. 이로운처럼. 주제를 모르고 나대는 애들은 싫다. 안형인처럼.

### 이로운(18세, 남)

정의로운 성품의 평화주의자 은수저.

형인과 마찬가지로 전교 최상위권의 성적 보유.

어려움 없이 자란 덕에 성격에 멧힌 데가 없어 순수해 보이기까지 한다. 아버지가 강남에서 큰 성형외과를 운영 중이다. 아버지끼리의 인연으로 하늘과 어울리고 있으나 명민하고 도전적인 형인에게 편견 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

### 강유정(18세, 여)

교내 마당발. 성적은 처참한 지경이지만 생활력 강하고 학교 내 모르는 소식이 없다. 메이크업에 관심 많고, 자신의 강력한 친화력과 껌찡은 외모, 메이크업 실력을 바탕으로 '유튜버 같은 것'을 하고 싶다. 현재로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쌍수를 하기 위해 고깃집 알바를 열심히 하고 있다.

### 그 외

형인 부(49세), 하늘 부(50대 중반), 하늘 모(50대 중반),  
담임교사(30대 중반, 남), 상담교사 포함 교사 일군, 학교 이사장,  
투자 학생들 일군 등

## 즐거리

### 장 시작 10분 전입니다

평범한 고교생 형인은 2020년 등교수업이 중지된 이후 집에서 인강을 듣다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다. 그것은 바로 주식시장! 동학개미의 열풍을 타고 나날이 상승장세가 이어지는 중. 형인은 망설이지 않고 그 동학운동에 동참한다. 그렇게 형인은 주식투자의 세계에 빠져들었고 '눈 감고 찍기만 하면 되는' 장세에 힘입어 놀라운 수익률을 거둔다. 돈이 돈을 번다! 확고부동한 투자 원칙도 세웠다. 세상이 걸어찬 사다리를 타하지 않겠다. 세상은 내가 개척할 것이다.

###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등교수업이 시작된 이후 생활도 즐겁다. 단순한 '범생'을 넘어서 더 높은 클래스의 사람이 된 것만 같다. 그러나 자신의 아버지가 은하늘 아버지의 자서전 대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열등감이 터져 하늘의 심기를 건드리고 만다.

### 해당 종목은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늘의 알량한 계급의식을 건드린 것도 모른 채 좀 더 높은 수익을 내고 싶다고 생각하던 형인. 그때 하늘이 아버지 로펌의 변호사들이 지도해준 수행평가 소논문 주제라며 솔깃한 기업 정보를 흘린다. 형인의 거래 원칙은 무너진다. 형인은 한순간의 욕심으로 우량주를 팔아치워 전액을 '저평가 성장주'에 '몰빵'해 넣고, 해당 종목은 상장폐지 대상이 되고 만다.

###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습니다

돈을 복구할 방법을 찾던 중 형인에게는 은밀한 제안이 들어온다. 부모가 반대해 주식계좌를 만들 수 없는 아이들의 투자를 대리해달라는 것. 그렇게 형인은 유정과 함께 교내에서 비밀리에 투자일임을 시작하게 되고 학교에는 조용하지만 거센 주식투자 열풍이 분다.

### 장 마감 동시호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자신의 계략이 형인에게 큰 타격감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안 하늘은 또다시 형인의 뒤를 캐고, 이들이 작은 동아리방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에

혜방꾼을 투입한다.

###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바이크를 사기 위해 좀 위험한 투자를 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던 한 학생 투자자. 본인이 밀어 넣은 돈이 마이너스라는 소식을 들은 후 형인의 교실에 난입하고, 형인과 유정이 벌이고 있던 사업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른다.

## 스톡 오브 하이스쿨(Stock of High School) 박경화

---

### #1. 낯은 빌라 외경(아침)

(E) 휴대전화 알람 소리.

### #2. 형인 집/형인 방(아침)

침대와 책상 겸 화장대가 놓인 작은 방.

카메라, 바닥부터 침대 높이 정도로만 비추는 가운데,

얼굴 보이지 않는 짧은 여성(형인), 씻고 들어와 맨다리인 채 침대에  
수건 톱 걸치고 휴대전화 열어 무언가 조작하면 들리는 소리.

방송(E) 네, 투자자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아침 주식 시황, ‘아주황’입니다.

증권방송 소리 위로 젖은 머리 드라이어로 말리는 여성의 뒷모습.  
분위기는 커리어우먼이 출근 준비하는 듯하다.

방송(E) 지난밤 사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25프로  
하락한 30,253.7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INSERT

책상 겸 화장대 서랍 열면 가지런히 도열한  
5-6종의 명품 립스틱과 파우더 팩트 등 화장품.

방송(E) S&P 500 지수는 1.48프로 내렸고 나스닥 지수는 1.47프로  
떨어졌습니다.



여성 얼굴 전체 보이지는 않고 브러시로 얼굴 툭툭 두드리는 모습.

방송(E) 국내 증시에선 불개미파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장 한때 지수 3200선을 뚫은 코스피 시장,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성, 눈썹 그리고 마스크라 정성스레 올리는.  
서랍에서 립스틱 꺼내 입술에 쓱쓱 바르면 색깔 좀 진하다.

형인(E) (입만 보인다) 아... 이걸 한소리 들을 각이지...

티슈로 입술 째어내 연하게 만든 후 뒤돌아  
침대 위 아까 던져둔 수건 위에 입고 있던 상의 툭 던져지고  
흰 블라우스 입고 있는 여성의 뒷모습. 단추 다 잠그고  
스커트 입고 지퍼 쪽 올린 여성, 뒤돌면.  
그제서야 형인 전체 모습. 옛된 얼굴.  
전신거울에 자신의 모습 요리조리 비춰보고.  
벽에 걸린 재킷 낚아채면 교복이다!

CLOSE UP

‘ㅈㅈ’을 심볼로 한 지성고등학교 교표 아래 이름표 ‘안형인’

‘ㅈ’과 ‘ㅈ’이 주식 차트 그래프로 바뀌며 타이틀.

〈Stock of High School〉

### #3. 형인 집/거실(아침)

재킷 걸치고 백팩 멘 채 방에서 나온 형인의 시각.  
좁은 거실 소파 아래 좌식 책상에 엮어져 있는 형인 부.  
엮어진 아래에는 노트북, A4 용지, 필기구 등이 잔뜩 널려 있고.

형인 (한숨) 아빠.  
형인부 (엮어진 채 움찔)  
형인 회사 안 가? 여덟 시 다 돼가.  
형인부 (벌떡) 어? 벌써? (얼굴에 메모지 붙어 있고)  
형인 (짖하다) 자서전, 또 맡은 거야?  
형인부 (여전히 잠 덜 깨 혼곤하다) 어, 너무나 훌륭한 분이려.  
형인 (자기 때문이지 싶어 미안한) ...학교 가.  
형인부 (눈 비빈다) 어이, 안형!  
형인 (보면)  
형인부 (미소)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청춘을 즐겨!  
형인 (어이없고) 개열심히 할 거야. 눈물 나는 부성애를 봤잖아.  
형인부 (소리 내 웃는다)

형인, 신발장 열다가 멈칫. 현관에서 목 뒤로 빼 거실의 아빠 살피면  
형인 부, 욕실로 들어간다. 형인, 신발장에서 명품 운동화 꺼내  
바닥에 내려 발에 꿰차는. 만족스러워 발 내려다보며 조금 웃고.

### #4. 지성고등학교/운동장(아침)

교문에서 등교 지도하는 교사들과 선도부 지나쳐 학교 들어서는 형인.  
음악 들으며 걷는데 옆으로 후다닥 뛰어 지나치는 유정.

형인 (조금 웃고) 강유정!  
유정 (뛰다 급정거. 돌아보면) 어? (놀라서) ... 안형?  
형인 (다가가며 웃음) 뭘케 뛰어?  
유정 (눈 뚫글) 뒤에서 보곤 넌 줄 몰랐어. 가방이랑 신발... 뭐야?  
형인 (우쭐하지만 표 안 내려) 별거 아냐.

두 사람 함께 걷기 시작한다. 유정, 놀랍다는 듯 형인 아래위로 보고.

유정 (선망의 눈) 자세히 보니까 더 선녀 같애.  
 형인 (기분 좋지만 화제 돌리자) 넌? 학교 안 나오는 동안 잘 모았어?  
 유정 (한숨) 망했어. 딱 30만 원 모자라더라고.  
 (걸다가 앞쪽 턱으로 가리키며) 재네 아빠네서 하고 싶었는데. 쌍수.  
 형인 (유정 시선 따라 보면)  
 깔끔한 인상의 로운 등교 중이다. 옆에는 함께 등교 중인 하늘.  
 하늘, 까르르 웃는데 명품 카디건, 가방, 액세서리 등 걸쳤고.  
 형인 (로운과 하늘 보는 채로) 이로우이 비상장 우량주이긴 하지.  
 재료가 좋아.  
 유정 (건기 시작하며 형인 보고) 뭐래는 거야?  
 형인 (여전히 하늘과 로운 본 채) 서울대 가면 바로 코스피 상장이고.  
 유정 (뭘 소린지 모르겠고) 야, 근데 저건 확실히 여자가 더 좋아하는 거.

## #5. 지성고등학교/2학년 복도(낮)

복도 오고 가는 학생들. 창문 너머 교실 안에는 아이들 제각각 따로 앉아 책  
 펴거나 잡담 중이다. 형인과 유정 조용히 수다 떠는 중.

## #6. 지성고등학교/2학년 2반 교실(낮)

유정 (책상 치며) 등교수업 안 할 때가 진짜 찬스였는데에!  
 (히잉... 기운 빠져) 고깃집 9시면 문 닫았잖아. 개저씨들 틱도 줄고...  
 여학생1 (건너편에서) 야 나는 오 킬로 짬. 아침에 교복 치마 터지는 줄...  
 유정 (깔깔대다) 안형은 어떻게 지냈어? (하면)  
 눈을 빛내는 형인 위로 오버랩되는, 화장 안 한 맨얼굴의 형인.

## #7. 형인 집/형인 방(낮)

여름, 후줄근한 티셔츠에 안경 낀 채 의자에 대충 걸쳐 앉아 EBS 화상수업  
 듣고 있는 형인. 졸리고 지루해 눈 자꾸 감긴다.  
 고개 도리도리하고 화상수업 창 띄운 채 인터넷 포털사이트 열고.  
 무심히 '많이 본 뉴스' 클릭, 스크롤.  
 그러다 문득 뭔가 생각난 듯 검색.

CLOSE UP

형인의 뺨뺨이 안경 위로 지나가는 기사 제목들  
 개미들한테 '선물꾸러미' 쏟아내는 금융당국... 솔렁이는 여의도  
 '명규 개미' ...금융당국 정책 '기관'→'개미'로 선회한다  
 '필승' 동학개미... 6개월 연속 벌었다 등 기사 10여 건 주르륵.

형인 (벌떡 일어나 방을 오락가락)  
 유정(E) 오졌다...

## #8. 지성고등학교/2학년 2반 교실(낮)(#6에 이어)

유정 (선망하는 눈, 작은 소리로) 시대가 낳은 부자다.  
 형인 (작게) 부자는 무슨... 얼마 안 되는 시드머니로...  
 (우쭐하게 배식 하는데)  
 담임(E) 자~ 다들 앉아라.  
 교실로 들어선 담임교사. 아이들 제각각 자리로 흩어진다.  
 담임 1학년 땀 등교도 얼마 못 해 이제야 고등학생이 된 것 같지? (웃는데)  
 유정, 형인 건너편 제 자리에서 형인 보고 엄지 척 올리면 형인 웃고.  
 카메라, 형인 얼굴에서 교탁 앞 담임 쪽으로 이동하면.

형인(NAR) 나 안형인. 보잘것없는 흠수저 고딩이 아니다.  
나의 수저 색깔을 스스로 바꿔나가는 이 시대의 파이오니어.  
선행학습을 통해 빠르게 주린이를 탈출한,  
확고부동한 원칙의 선제적 투자자.

‘안형의 투자원칙’ 칠판에 판서되기 시작한다.

형인(NAR) 1. 코스피 200 우량주에만 투자한다.

자막 — ‘코스피 200 : 유가증권시장의 전 종목 가운데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상위군에 속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우선하여 선정한 200종목. 쉽게 말해 시장을 주도하는 200개의 종목.’

형인(NAR) 2. 계란은 무조건 여러 바구니에.  
3. 투자 전에는 무조건 감사보고서와 기업리포트 정독. (별표 쳐지고)  
4. 오로지 나의 돈으로만 투자한다. 미수는 없다.

자막 — ‘미수 : 원하는 수량만큼 주식을 살 수 없을 때, 매수금의 30프로  
이상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차액은 외상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것.’

형인(NAR) 5.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 기계적으로 수익 현금화!  
6. 대학 입학 전까지 무조건 자산 3,000만 원 달성! (밑줄 쳐지는)

빙긋, 자신 있게 웃는 형인의 얼굴.

## #9. 지성고등학교/운동장 스탠드(낮)

점심시간. 형인과 유정, 운동장 스탠드 앉아 하드 하나씩 입에 물고 있다.  
유정, 운동장에서 공 차는 애들 보고, 형인, 모바일 HTS로 차트 보는.

유정 (운동장 보는 채) 아침에 화장을 딱! 하고 나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  
형인 (정신 팔려 대답 못 하고) ...  
유정 (운동장 보는 채) 내가 확실히 이사배보다 낫다 싶을 때가 있거당?  
형인 (휴대전화로 뭔가 토토토토 입력한다)

CLOSE UP

형인, 주식 커뮤니티에 글 올리는 중.

‘오늘 외국인 매수세 관촬을 걸로 보입니다...’ 입력되고 있는 위로

유정(E) 그니까, 일단 쌍수를 하고 나서 장비를 갖추는 거야. 그리고...

유정, 그제서야 형인이 대답 없다는 걸 눈치채고 형인 본다.

유정 안형, 뭐하는 거야? (형인 휴대전화 화면 보려고 고개 들이민다)  
형인 (자판 치며) 듣고 있어. 나도 니가 이사배보다 낫다고 봐.  
유정 (스탠드 위로 시선 던지며) 그래. 인생... 한방!

하다가 말 멈추고 조용해진다.

형인, 유정이 말이 없자 한번 쳐다보고 같은 방향으로 올려다보면.

하늘과 로운, 함께 걸어가고 있다.

유정 (로운에게 눈 고정하고) 이로운이 우량아는 아니지 않음? 말랐잖아.  
형인 (피식) 우량아 아니고 우량주.

하는데, 로운, 유정과 형인 발견하고 하늘에게 “잠깐” 하고 다가온다.

로운 (해사하게 웃으며 다가와) 안형인, 안녕? 같은 반 됐더라?

형인 어, 반갑다.

로운 (형인 손에 든 휴대전화 화면 훑듯 보고) 너 주식해?

형인 (황급히 화면 끄며) 아. 그냥 소액이야.

로운 (미소) 진취적이다. 너무 신경 쓰이지 않아? 무슨 종목인데?

유정 (좋아서 방싯대며 친구 둘 번갈아 보면)  
 형인 (괜히 유정 표정도 신경 쓰이고) 뭐 그냥 이것저것... (하는데)  
 하늘(E) 야, 이로운!

세 사람, 하늘 쪽으로 보면 하늘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다.

로운 (하늘 보며 한숨) 수업 시작하겠다. 너희들도 들어가. (하며 자리 뜬다)  
 멀어지는 로운 보는 형인과 유정.

형인 (고개 제자리로 돌리며) 은수저들, 잘 어울리네.  
 유정 재들이 무슨 은수저들이야?  
 형인 ??  
 유정 온하늘은 금수저지. 법무법인 온&정 딸이잖아, 재.  
 형인 (유정 보며) 정말?

FLASH BACK #3

형인 부가 대필하고 있던 자서전의 자료들.  
 <법무법인 온&정 10년사>, <온형필 대표 변호사 인터뷰> 등.

유정 (무심히) 어. 이로운 빼고 다 가졌다는 소문.  
 형인 (부러우면서 한편 우울한 마음. 온하늘 한 번 더 쳐다본다) ...

#10. 지성고등학교/외부 일각(낮)

#9에서 이어진 상황. 하늘 뽀로통해서 로운과 교실로 향하는 중.  
 밀짚모자에 목장갑 낀 70대 여성 노인, 땀투성이로 화단 가꾸는 중이다.

하늘 뭐야? 사람 세워놓고. 너 개들이랑 친해?  
 로운 (웃는다) 머리 긴 애, 수학을림피아드에서 봤어.

하늘 (피식) 가진 명품들이 좀 애매하더니, 머리 좋은 흠수저구나?  
 하는데 화단 쪽 호스의 물이 하늘 다리 쪽에 조금 튈다. 노인도 놀라고.

하늘 (자기도 모르게 버럭) 아이, 씨!  
 노인 (놀라서) 아니, 학생... (하는데)  
 로운 (하늘 팔 좀 강하게 잡으며) 가자.  
 하늘 아니... (뭔가 말할 듯)

로운, 노인 향해 가볍게 허리 숙이고 하늘 끌다시피 건물 안으로.

#11. 지성고등학교/2학년 2반 교실(낮)

하늘 자리에서 하늘과 로운 서서 입씨름하고 있다.

하늘 (짜증) 학생들 없는 새벽에 나와서 일하란 게 무슨 갑질이야?  
 로운 (한숨) 너, 또 문제 생기면 이번엔 미국서 못 돌아와!  
 하늘 (올라서) 야, 너 내가 그 소린 꺼내지도 말라 그랬지!

그때 교실로 들어오는 형인과 유정. 뭘 일인가 싶다.

하늘 남의 돈 벌려면 그 정도 싫은 소린 다들 들어! (하는데)  
 형인 남의 돈 벌어나 봤어?  
 하늘 ??? (어이없어서 당황한다) 넌 또 뭐야?  
 형인 (자기 자리로 가며) 뭘진 몰라도,  
 싫은 소리는 노동의 대가에 포함 안 돼.  
 하늘 (황당하다) 모르면 빠져.  
 형인 (돌아보며 웃는다) 여기서 빠지면 내가 뭐가 돼?  
 하늘 (얼굴 화끈. 괜히 구경하는 애들 흘기고 자리로)

유정, 씨근대는 하늘 지나쳐 슬그머니 자리로 가 앉는다.  
괜히 눈치 보이지만, 형인에게 쌍따봉 날리고. 형인 그 모습 보고 웃는.

## #12. 지성고등학교/2학년 2반 교실(낮)

종례 중인 교실. 아이들은 집중 안 하고 담임은 자기 얘기 하는 중이다.

담임 그리고, 수시 대비 자기역량강화 활동은 수요일 점심시간부터 5교시  
통으로 사용한다. 쓰던 논문 있는 사람들은 교과담당 선생님 면담  
빨리 잡고, 소논문 경진대회 참가할 사람들은 신청서 내일까지.  
자, 이상!

아이들, 후다닥 가방 챙기고 형인도 휴대전화 꺼내 주식 증가 확인한다.

유정 안형! 교무실 좀 갔다 오께! 쫄만 기둘려어?!! (튀어나가면)

다가오는 이로운과 온하늘. 로운이 불일 있고 하늘은 기다리는 중.

로운 안형인!

형인 (휴대전화 보다 고개 들어) 어?

로운 너, 소논문 경진대회 나갈 거지?

형인 어... 그래야지.

로운 같이 안 해볼래?

형인 나랑? (무심결에 온하늘 쳐다본다. 너희 둘이 할 거 아니냐는 뜻)

하늘 왜 날 봐?

로운 쓰던 논문 있지? 볼 수 있어?

형인 어, 뭐... (가방에서 노트북 꺼내 전원 켜다)

버벅대는 노트북. 부팅 오래 걸리고. 침묵 길어진다.

하늘 (비웃으며 중얼) 날 새겠네...

형인 (얼굴 달아올라) 어? 이게 왜 이리지? (하는데)

로운 (웃으며) 시작프로그램 정리 한번 하면 괜찮아져.

하는데 여전히 침묵 속에 노트북 부팅 소리만 웅웅. 형인 당황한다.

하늘 (로운에게) 교무실에서 노트북이랑 태블릿이랑 대여해주던데.  
그거 괜찮지 않나?

형인, 귀까지 빨개지고.

로운 (형인 민망할까 싶어 얼른) 집에 가서 톡으로 보내줘도 되구.

형인 어, 그러자. (노트북 가리키며 애써 밝게) 애가 좀 수줍음을 타.

보는 눈이 많아서 이러나 부다.

로운 (웃으며 형인 어깨 톡톡 치고) 미안. 먼저 같게. 오늘 약속 있어서.

형인 (괜히 밝게) 어, 그래. 가~

하늘과 로운 사라지면 그제서야 윈도우 켜지는 소리.

형인, 성질나서 노트북 한 대 때린다.

## #13. 형인 집/형인 방(밤)

노트북으로 주식 차트 보는 형인. 책상에는 교과서와 EBS 교재 등이  
펼쳐져 있지만 화면에 정신이 팔렸다 문득 딴 생각.

형인 부(E) 글썄, 고딩 주제에 왜 자산을 굴리고 싶냐고!

## #14. 회상. 형인 집/거실(밤)

형인 부, 소파에 앉았고 형인은 서서 대치 중이다.

형인 (열받아서) 누가 돈 달래? 내 세뱃돈 통장 텅다잖아!  
 그냥 은행에 한 번만 같이 가주면 된다고오!

형인 부 (한숨) 용돈 올려줄게.

형인 (짜근대며) 그런 거 아니라고. 이거 다 공부고 경험이야.

형인 부 난 너,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기를 순수하게... (하는데)

형인 (끓고) 그러니까 번번이 신춘문예지 뭔지 그거 물 먹는 거야!  
 세상을 왜 이렇게 모르냐고오!

형인 부 (상처다) !!

형인 (본인도 아차했다) 그니까 내 말은...

형인 부 ...내가 너 유치원 졸업식 이후 이겨본 적이 없다.  
 좋아. 대신 등교하면 안 하는 거다.

## #15. 형인 집/형인 방(밤)(#13에 이어)

형인, 엑셀 시트 열어 매매일지 정리해나간다.

형인 (중얼) 돈이 신분이야.

## #16. 지성고등학교/2학년 2반 교실(낮)

조회 끝낸 담임 퇴장하면 형인, 휴대전화 열어 주식 동시호가 확인하고,  
 유정은 로드숍 파우더 팩트 꺼내 거울로 제 얼굴 요리조리 보는데.

여학생1(E) 색깔 완전 환상! 이거 디올 로즈우드지?

유정과 형인 동시에 뒤돌아보면 하늘이 명품 파우치에서 고급 파우더팩트 꺼내  
 거울 보며 립글로스 바르는 중. 여학생 서넛 몰려들어 호들갑.

여학생1 (선망의 눈) 발색 진짜 이쁘다.

여학생2 (하늘이 들고 있는 팩트 로고 보며) 어? 모야. 파우더 샤넬이네?

여학생1 와! 나 좀 봐도 돼? (하고 손 뺐어 립글로스 짙는데)

하늘 어. 근데 (친절하게 웃으며) 바를 거 아니지?

여학생1 뚜껑 열어보려다가 멈칫하고,  
 다른 애들도 괜히 주눅 들어 요리조리 보기만 하는데

하늘 알바해서 사~ 색깔 이쁘지 않니?

유정과 형인, 고개 제자리로 돌리며 서로 눈 마주치면.

유정 (작게) 재수뽕.

형인 (눈 깔고 잠시 생각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파우치 꺼내 하늘과 같은  
 립글로스 꺼내 유정에게 건넨다. 좀 들리게 오버해서) 이거, 발라봐.

유정 (눈 커지고) 와! 와! 이거 모야?

형인 한 번밖에 안 발랐어. 괜찮음 너 가져.

유정, “주식 짱이다~” 하며 받는다. 그 모습 멀거니 보는 하늘.

## #17. 고급 오피스텔 내부/그룹과외 스터디룸(밤)

그룹과외가 이루어진 오피스텔. 하늘과 로운 외 학생 두 명 정도  
 더 있다. 수업 끝난 참. 과외 교사 밖으로 나가고. 학생들도 가방 챙긴다.

하늘 (로운에게) 차 마시고 가자.

로운 (한숨) 너 친구 없냐?

하늘 (자존심 상하고) 머리 너무 썼어. 단거 먹어야겠어서 그래.  
 로운 봐주라. (다정하게) 나도 집에 가서 게임도 하고 좀 쉬자. (달래듯) 어?  
 하늘 ... (핑계 만들려) 소논문.  
 로운 ?  
 하늘 소논문 경진대회, 나랑 할 거지?  
 로운 글썸. 난 안형인 대답 기다리는 중인데.  
 하늘 (어이없고) 헐...  
 로운 암튼, 주제 생각해본 게 있어서.  
 하늘 (짜증스럽지만 대충 가방 챙겨 일어서고)

### #18. 지성고등학교/운동장(낮)

형인, 유정 학교 중. 유정, 알바 때문에 급히 먼저 뛰어가느 모습.  
 두 사람 손 흔들며 안녕하고 형인, 혼자 걷는데  
 하늘, 뒤에서 잠시 무언가 생각. 도도도 뛰어 형인 뒤에서 팔짱 낀다.

하늘 너도 야자 안 하네?  
 형인 (황당하다) 어? 어. 학원 가야 해서.  
 하늘 너, 이거 (형인 머리핀 가리키며) 갤러리아에서 샀어?  
 형인 아니. 인쇼. 근데 무슨 일? 나한테 따질 거 있어?  
 하늘 (눈 동그랗게) 따지긴? 그럴 일 있었나?  
 형인 (의심스레 보는데)  
 하늘 소논문 경진대회, 나갈 거지?  
 형인 (이거구나 싶다) 근데?  
 하늘 같이 준비해보지 않을래? 초안 나오면 봐줄 사람들이 많아. 주변에.  
 형인 생각해볼게.  
 하늘 (얼굴 좀 굳었다 생긋 웃으며) 그럼 연락 줘? 난 기사 아저씨가 기다려.

하늘,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올라타는 모습 보이고,  
 형인, 그 모습 보며 가볍게 한숨.

### #19. 영어 단과학원 교실(밤)

수업 중인 교실. 아이들 칠판 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형인은 생각에 잠긴 얼굴.

### #20. 회상. 지성고등학교/2학년 2반 교실(낮)

쉬는 시간이다.  
 형인, 교실 뒤편 사물함에서 책 꺼내는데 로운도 옆에서 책 꺼낸다.  
 바닥에 떨어지는 해외 대학 입학설명회 자료들.  
 형인, 주워주면 로운 빙그레 웃으며 “땡큐” 하고.  
 형인 부러운 눈으로 자료들 본다.

### #21. 회상. 지성고등학교/급식실(낮)

형인, 유정과 급식 타고 있고  
 한두 명 뒤쪽에서 하늘과 로운 급식 타고 있다.

유정 어제 입 짧은 헛님 먹는 거 봤어? 세 시간을 먹어. 세 시간.  
 형인 (건성) 대단하다. (하는데 뒤에서 소리 들려온다)  
 하늘 그래서 아이엘츠는 더 안 듣고?  
 로운 어 일단은 더 안 들어도 될 거 같은데...  
 하늘 그럼 나도 안 할래. 그러잖아도 그 썸 재수 없었어.  
 로운 넌 점수 좀 더 올려야 하지 않아?  
 하늘 됐어. 엄마 맘 편하라고 듣는 거. 딱 걸로 하지 뭐.

유정, 계속 유튜브 얘기, 예능 얘기 떠드는데 형인 귀에 들리지 않는다.  
 로운과 하늘 대화에만 귀 쫓긋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한숨.

## #22. 영어 단과학원 앞(밤)

생각에 잠겨 학원에서 걸어 나오는 형인. 결심한 듯 휴대전화 꺼내든다.

## #23. 지성고등학교/2학년 2반 교실(낮)

칠판에는 '자기역량강화 활동' 적혀 있고, 아이들 조별 모임 대형으로 2~3명씩 모여 있다. 유정 같은 입시 포기자들 서넛은 옆드려 자고. 형인과 하늘은 노트북 앞에 두고 얘기 중이다.

형인 뭐?  
 하늘 주말마다 같이 조찬모임 하는 오빠들 있거든. 거기서 들은 거. 작년에 키오스크주 엄청 뜰 때 애만 좀 그저 그랬는데, 그거 한꺼번에 쳐서 오를 거래드라.

형인 (솔깃하지만 외면하고) ...  
 하늘 (웃고) 그걸 사라는 게 아니고, 우리 논문 주제랑 상관있잖니. '언택트 시장과 청소년 노동환경'

형인 그래. 누가 뭐래? (하며 노트북으로 시선 던지고 생각에 잠기는)  
 하늘 (그런 형인 웃으며 쳐다본다)

## #24. 형인 집/형인 방(밤)

형인, 노트북으로 HTS에서 종목 정보 보고 있다. 화면 응시하는 형인. 주식 커뮤니티 열어 글 써 내려가면 화면 분할. 눈 빛내고, 심각하고, 그럴지! 하고, 고민하는 등 형인의 표정 시시각각 변화하고 한편에서는 커뮤니티 질문 답변이 좌르르 올라간다.

형인(E) (남자처럼 목소리 굵게) 형들, 나 지금 알파전자 50프로, 빅케이엔터 15프로, 아나콘다제과 35프로. 안전은 한데 너무 무거운 거 같지?

커뮤인1(E) 냥냥이 매매세요? 존나 박스권만 잘도 골랐네 ㅋㅋㅋ  
 커뮤인2(E) 맛있는 녀석들도 그것보단 가볍겠다. 시발. ㅋㅋㅋ  
 형인(E) 하, 근데 변동성 크고 가벼운 건 위험하니까.  
 커뮤인3(E) 야, 이 장에서 한 달에 20퍼 못 먹을 거면 한강 고고.

분할된 화면 한편의 커뮤인들 답변 사라지고 #8 '안형의 투자원칙' 판서 떠오르는데. 형인, 비장한 표정으로 포털에 '바이오스크' 검색한다. 투자원칙 '1. 코스피 200 우량주에만 투자한다'에서 '코스피 200' 지워지고 그 자리를 채우는 글씨 '저평가'. 잠시 후 '우량주'도 지워지고 '성장주'로 바뀐다.

## #25. 지성고등학교/화장실(낮)

세면대에서 양치하는 아이들 한둘, 화장 고치는 한둘 있다. 제각기 할 일하는데 갑자기 변기 칸 안에서 "이얍!" 하는 짹고 굵은 소리. 아이들 일제히 손 멈추고 화장 고치던 아이도 변기 칸 쪽 돌아본다.

화장 학생 씨발... 역대급을 싼 모양인데...  
 아이들 킬킬대며 웃고. 저마다 하던 일 하면.

화장 학생 (변기 칸 안쪽 향해) 야! 큰 거 나왔음 사진 찍어라~

하는 소리와 함께 카메라 화장실 칸 안쪽으로 이동하면 신나서 소리 죽여 팔짝팔짝 뛰는 형인.

형인(E) (내적 환호) 십 프로! 반나절 만에 십 프로오!!

뛰다 심호흡하는 형인. 휴대전화 들고 HTS 뚫어지게 보며.

형인(E) (가웃) 매도? 아니야. 하. (고뇌) 아침에 알파전자가 다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반만 들어간 거 너무 아쉬운데...  
(무언가 결심!)

형인, 매수 버튼 누르는데 옆에 #8 '안형의 투자원칙' 판서 뜨고  
'2. 계란은 무조건 여러 바구니에' 지워지고  
'저렴한 계란은 어서 바구니에'로 바뀐다.  
'3. 투자 전에는 무조건 감사보고서와 기업리포트 정독' 지워지고  
'집단 지성을 믿어라!'로 바뀐다.

## #26. 전자기기 판매 매장(낮)

교복 차림의 형인, 황홀한 눈으로 노트북과 태블릿 PC 둘러보고 있다.  
신중하지만 들뜬 모습. 예쁘고 알쌍한 노트북 앞에서 흘린 듯  
조작해보고. 결심한 듯 주변 두리번대며.

형인 저기요~

## #27. 거리 일각(밤)

캐릭터용품 매장에 들러 파우치까지 사제킨 형인.  
노트북과 파우치 등이 담긴 쇼핑백을 소중히 들고 가고 있다.  
마침 눈에 띄는 고깃집 간판.  
앞치마 두르고 마스크 낀 유정.  
깡깡 불판 들고 나오면,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는 형인.  
술 취한 남성들 고깃집 앞에서 담배 피우다가 유정에게 말 붙이고.  
형인, 눈 뒤집혀 달러가려는데 유정, 속없이 헤살대며 대꾸 몇 마디.  
형인,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형인 강유저영...?! (소리 작아지고)

## #28. 형인 집/형인 방(밤)

형인, 사 들고 온 노트북, 파우치 등 쇼핑백에서 꺼내지도 않고  
어두운 방에 오도카니 앉아 있다.

FLASH BACK  
#27의 유정. 취객에게서 팁 받아드는 모습.

어둠 응시하던 형인. 눈빛 바뀌며 쇼핑백들 바닥에 내려놓고,  
쓰던 노트북 부팅하고 HTS 켜다.

형인 (중얼) 몰빵이야. 가만히 있음 가마니야.

## #29. 지성고등학교/화장실(낮)

#25의 화장 고치던 학생 세면대에서 거울 보고 있고  
몇몇 손 씻고 있는데 변기 칸 안에서 광! 하는 소리.  
아이들 일제히 변기 칸 돌아보면

화장 학생 저 칸엔 귀신이 붙었나... 존나 사람을 놀래켜...

하는데 카메라 화장실 칸 안쪽으로 이동하면  
사색이 돼 바닥에 주저앉은 형인,  
휴대전화 잡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INSERT  
휴대전화 화면에 '바이오스크 대표이사 배임·횡령 혐의로  
거래 정지... 상폐 수순?' 기사 떠 있다.

변기 칸 문 광 열리며 뛰어나오는 형인.

### #30. 지성고등학교 교문 앞(낮)

얼굴 하얗게 질려 교문 밖으로 뛰어나오는 형인. 달리면서 전화 거는.

알림(E) 죄송합니다. 지금은 통화량이 많아 연결되지 않았으니 다음에...

### #31. 거리 일각/학교 근처(낮)

형인, 달리다가 정신 차린 듯 차도 향해 정신없이 팔 뻗어 택시 잡고.

### #32. 거리 일각/증권가 근처(낮)

오피스빌딩이 밀집한 거리. 택시, 갯길에 정차하면 뒤통이 내리는 형인.

한 건물 앞, 사람들 밀집한 게 보이고.

형인, 정신없이 달려가면 열댓 명 남짓한 사람들이 고성 지르며 빌딩에 난입하려 하지만 경비들에게 막혀 못 들어간다.

투자자1 아니! 여기 주식담당자를 만나야 한다니까!  
 경비1 사전 방문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시면 못 들어갑니다.  
 투자자2 지금 전 재산을 날리게 생겼다고!  
 경비2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난동 부리시면 경찰을 불러야 합니다.  
 투자자3 비켜! 비키라고!

건물 앞은 아수라장. 형인, 정신이 멍해져 도로 끝에 쓰그러 앉고 만다.

형인 (멍한 눈으로 건물 앞 소요를 지켜보는데 눈물도 안 난다)  
 아... 아빠... (하는데 특, 감정 북받치고)  
 아빠... 아빠... (하며 점점 큰 소리로 울어대면)

투자자들, 아빠 아빠 하는 소리에 놀라 뒤돌아본다.

서럽게 우는 형인. 사위가 조용한 가운데 울러 퍼지는 형인의 통곡.

### #33. 형인 집/형인 방(밤)

노트북 보고 있는 형인.

눈은 통통 부었고 옆에는 눈물 콧물 닦은 티슈 잔뜩 쌓여 있다.

CLOSE UP

형인 휴대전화에 '부재중전화 12통'.

팝업으로 유정 메시지 뜨는 중. '안형! 뭐야? 어디야?'

형인, 안읽씹하고 휴대전화 책상 옆으로 쓱 치우면 바로 화면 분할된다.

그런가 하면 화면 보다 한 번씩 눈물 똑똑 흘리는 형인 얼굴.

노트북 화면 한편에 투자자들 글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투자자1(E) 주담 새끼들 휴대폰까지 끄고 잠적했으면 말 다한 거 아님?  
 투자자2(E) 대책방 카페 만들었습니다. 링크 클릭클릭!  
 관중1(E) 장례식 육개장 먹으러 왔습니다.  
 관중2(E) 내일 장대양봉 터집니다. 물론 알파전자. ㅋㅋㅋㅋ  
 투자자3(E) 거래 재개 국민청원 올렸어요. 링크 클릭!

하는데 (E) 도어록 열리는 소리 들리면 형인 노트북 황급히 덮고  
 책상 위 코 폰 휴지들도 모두 서랍 속으로 황급히 밀어 넣는다.  
 (E) 똑똑 노크 소리.

형인 (잠긴 목소리. 책 쪽으로 고개 숙이고) 어.

형인부 (문 열고) 아빠 왔어.

형인 어. 알어.

형인부 어째 당최 얼굴을 안 보여줘. (하고 방에 들어오려 하면)

형인 (고개 숙인 채) 들어오지 마! 지금 스톱워치 풀이 중.  
형인부 (들어오려다 말고) 그래. (사이) 파이팅. 안형.  
형인 ...  
형인부 (딸 잠시 보다 한숨 쉬고 나간다)

(E) 방문 닫히는 소리.

CLOSE UP

형인 보고 있던 문제집 위로 눈물 투투룩 떨어지는.

### #34. 지성고등학교/2학년 2반 교실(낮)

수업 시작 전. 아이들 두엇씩 모여 떠들고 있고, 일부 등교해 가방 내려놓는데  
형인, 부은 눈으로 터덜터덜 들어온다.

형인 멍하니 자리로 가는데 유정, 형인이 어제 두고 간 가방까지 해서  
가방 두 개 메고 들어오다 후다닥 형인에게.

유정 (걱정) 너 어제 어떻게 된 거야? 가방까지 두고 대체... (하는데)

하늘 등교해 형인 발견하고 싱긋 웃으며 자리로 온다.

하늘 (제법 다정하게) 형인아, 어젠 무슨 일 있었어?

형인 (애 때문이다 싶어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본다) 너... 너...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다) 아냐. 암것도.

하늘 (형인 어깨 토닥이며) 어려운 일 있음 얘기하구 응?  
(하는데 수업중 소리)

### #35. 회상. 하늘의 집/다이닝룸(낮)

등교 전. 하늘과 하늘 부모 식사 중이다.

하늘부 당신, 교회 봉사활동은 계속 나가고 있는 거지?

하늘모 별걱정을...

하늘부 이번 배임 횡령 건이 규모가 좀 커서 그래.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거야.

하늘 (묵묵히 듣다가 눈 빛내며) 무슨 회산데요?

하늘부 (좀 엄하게) 니가 알 거 없다.

하늘 (기죽어서) 네...

### #36. 회상. 하늘의 집/하늘 부 서재(밤)

늦은 밤, 불 꺼진 방 안. 문 살며시 열리고 들어서는 하늘.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켜고, 문 밖 동태 살피며 클릭.

INSERT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는 회의록 폴더.

하늘 (어두운 가운데 얼굴에 노트북 불빛만 비치는데 흥얼)  
냠여라~ 냠여라~

### #37. 지성고등학교/2학년 2반 교실(낮)

담임(수학) 수업 중. 아이들 모두 정면 보고 집중하는 가운데  
형인은 노트에 무언가 마구 적고 있다.

담임(E) 자, 이 문제는 확률의 덧셈정리에 관한 문제다. 합사건의 확률이 A

형인(E) 확률에 B 확률 더하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는 거다.  
복구해야 돼. 할 수 있어. 그전까지 너무 잘했어.  
실수였어. 하... 근데 종잣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하다가 의무적으로 칠판 보는 형인.  
다시 #8의 '안형의 투자원칙' 판서가 떠오르고.  
'6. 대학 입학 전까지 무조건 자산 3,000만 원 달성'  
지워지려고 하는데.

형인(E) (다급) 잠깐잠깐! 지우지 마! 지우지 말라고!

형인, 머리 싸매며 다시 노트에 무언가 동그라미를 마구 그린다.

INSERT

노트 위 형인의 글씨들.  
세벳돈 통장 30만. 용돈 10만. 학원비 뺑??  
위험한 돈??? 쓰다가 지우고. 종잣돈 200만에 마구 동그라미 쳐지는.

### #38. 지성고등학교/급식실(낮)

형인과 유정, 급식 타서 자리로 옮겨가는 중.  
적당한 곳 자리 잡아 마주 앉고. 막 식사하려고 하는데  
한 여학생, 식판 들고 유정 옆, 형인 맞은편으로 와 앉는다.

유정 오! 전은수! 오랜만! 안형, 애 작년 우리 반.  
(여학생에게) 넌 근데 니네 반 친구들 두고 왜?

형인 (흠긋 보고 밥 먹으려는데)

여학생3 (유정에게) 응, 그냥, (형인 보며) 이 친구가 그 친구?

유정 어? (당황) 어어. 그, 전교 3등.

형인 ??

여학생3 아니, 그거 말구 말야.

유정 (말 막으려는데)

형인 무슨 친구?

여학생3 (몸 숙 내밀어 형인에게 작게) 너, 주식 천재라던데. (몸 제자리로)

형인 뭐? (유정 보며)

유정 (당황) 아니~ 나는...

여학생3 (형인에게) 비법이 뭐야?

### #39. 지성고등학교/옥상(낮)

유정, 죄지은 사람처럼 눈치 보며 쪼그리고 앉아 있고  
형인 생각에 잠겨 왔다 갔다.

유정 (눈치) 미안... (변명) 아니, 그 립글로스 어디서 샀빈 거 아니냐고  
자꾸 그래가지고... 내 친구가 다! 어? 뭐! 너 같은 뺨대加里만 있는 게  
아니다! 어? 뭐 그런 걸 좀 자랑한다는 게 그만...  
(다시 눈치) 미안...

형인 ...

유정 (벌떡) 야! 인간적으로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지 않냐?  
내가 니 뒷담을 깐 것도 아니고... (하는데)

형인 (손으로 유정 제지) 아냐. 잘했어.

유정 어?

형인 (유정 보며 눈 빛낸다) 잘했다구.

### #40. 형인 집/형인 방(밤)

형인, 노트북으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오가며 문서 작업 중이다.  
집중하는 얼굴 위로.

형인(E) 비밀유지가 생명이야. 우리 아직 미자라.

### #41. 지성고등학교/옥상(낮)

#39 마지막 구도에 이어.

유정 투자... 일임? 그게 모야?

형인 경제교육이다 뭐다 주식투자 권하는 부모들도 많지만  
어린 것들이 무슨 주식이나, 대학 가서 해라, 하는 집도 많아.  
특히 이거, 컨트롤 안 돼서 빠져들면 공부고 뭐고 뒷전이 되거든.

FLASH BACK #30  
교문에서 정신없이 달려 나오던 형인.

형인 (생각 떨치려 도리도리) 그러니까... 실제 주식계좌를 가진  
이 전문가가...

유정 대신 투자를 해준다 이거지?

형인 (끄덕) 수수료 받구.

### #42. 형인 집/형인 방(밤)

형인, 작성했던 문서들 프린트하고 있다.

INSERT  
프린트되어 나오는 문서. 제목은 '투자성향 분석 인터뷰'

유정(E) 야, 그거 손해 나고 그럼 어떡해? 사람 막 죽고 그런 거 아냐?

INSERT  
프린트되어 나오는 문서. 제목은 '투자 계약서'

형인(E) 아냐. 지금 장세도 괜찮고, 내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계란을  
여러 군데 담으면서 리스크는 최소화할 거야. 책임은 분산시켜야지.

### #43. 지성고등학교/옥상(낮)

#39 마지막 구도에 이어.

유정 뭘 소리야~ 알아듣게 얘기해.

형인 몰라도 상관없어. 넌 지금부터 영업팀장 겸 총무팀장이야.  
고깃집 개저씨들 팁 없어도 너 이로운 아빠한테서 쌍수 받게 해줄게.

유정 (활짝) 뭘진 몰라도 좋다. 할게!

형인과 유정 사이로 떠오르는 #8의 '안형의 투자원칙'  
'4. 오로지 나의 돈으로만 투자한다. 미수는 없다'  
지워지고 대신 '신용도 자산이다' 쓰인다.

### #44. 몽타주. 모두 지성고등학교 일각(낮)

— 먼지 쌓인 빈 동아리방. 조그마한 공간에 책걸상 아무렇게나 쌓여 있다.  
형인과 유정 문 열고 들어와 쿵쿵쿵.  
유정 손 팔락대며 눈앞 먼지 휘휘 하는데 형인 만족스러운 얼굴.

형인(E) 우리 타깃은 부모님 반대로 주식투자를 못하는 애들이야.  
미자들은 부모님이 은행에 같이 가서 계좌를 터줘야 되거든.

— 교무실. 형인 당당한 얼굴로 담임교사 책상 앞에 서 있고.

동아리방 사용허가증에 도장 광 받는다.

— 빈 동아리방 앞에 A4 용지 붙이는 형인, '자력강 경제분야 스테디'

형인(E) 스스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애들은 됐다. 우리 목표는

— 교실 일각, 하늘과 로운, 소논문 준비 중

형인(E) 돈을 벌고 싶은 목적이 확실하지만 방법을 모르는 애들.

— 유정, 급식시간에 밥 먹고 있는 #38의 여학생3에게 식판 들고 접근해 무언가 속닥속닥.

— 교문 앞. 고급진 오토바이를 소유한 남학생 한 명. 그 주위에 남학생 서넛 몰려서 구경 중인데, #38의 여학생3, 그 주변 남학생 중 한 명에게 다가가 속닥속닥.

형인(E) 난 개들에게 가이드가 되어주는 거지.

— 청소 깨끗이 되어 있는 동아리방. 형인 들어와 자신의 노트북 세팅. 이어 유정 들어와 작은 프린터 놓고 코드 꽂으며 세팅.

## #45. 지성고등학교/동아리방(낮)

형인, 책상 두 개 붙인 자리에 노트북과 만들어둔 파일 앞에 둔 채 앉아 있고

유정, 초조해서 다리 달달 떨며 출입구 보고 있다.

(E)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후 #38의 여학생3 등장하고.

유정과 형인, 서로 마주 보고 고개 끄덕.

CUT TO

형인의 책상 앞에 의자 두고 앉은 여학생3.

형인, 조금 긴장한 채 '투자성향 분석' 파일 꺼내 볼펜 든다.

형인 그럼. 지금부터 간단히 뭣 좀 물어볼게.

여학생3 모야. 그냥 주식으로 돈 불러주는 거 아냐?

형인 그렇게 해선 안 돼. 자, 우선. 투자의 목적이 뭐야?

여학생3 어? 뭐, 강. 돈 많으면 좋은 거 아냐?

형인 자금의 목적이 뚜렷해야 목표 수익과 투자 기간을 정할 수 있어.

여학생3 (어라? 싶다) 어? 그럼... 난 사고 싶은 가방이 하나 있는데.

하는 여학생 얼굴 CLOSE UP.

그 화면 둘로 나뉘며 #44의 오토바이 주변 남학생 추가.

남학생1 나 마이크 사야 돼.

화면 다시 넷으로 나뉘며 소리 추가.

여학생4(E) 나 남친 100일 선물.

남학생2(E) 알바 그만두고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

화면 다시 여덟로 나뉘고, 열여섯으로 나뉘고... 아이들 추가된다.

여학생5(E) 나 방탄에 힘 실어줘야 돼. 무조건 빅히트.

남학생3(E) 해외주식도 가능? 나 앱등이라.

여학생6(E) 나 돈 30만 원밖에 없는데 괜찮아?

남학생4(E) 장투도 상관없어. 무조건 전기차 장비 분야.

소리 점점 작아진다.

## #46. 형인 집/형인 방(밤)

형인, 책상 앞에서 아이들 '투자성향 분석' A4지 파일 보며 엑셀에 입력하고 있고. 우측 셀에는 투자 원금 쓰여 있다. 20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다양하다.

유정, 형인 침대에 누워 말뚱말뚱 뭔가 생각 중.

클릭클릭하는 형인 모습 위로 햇살 쏟아지고.

유정      안형.

형인      (입력에 집중하며 건성) 어...?

유정      넌 돈 왜 벌고 싶어?

형인      ...꿈?

유정      의대 등록금 땀에?

형인      (뒤돌아본다) 우리 아빠 나 진짜 의대 갈까 봐  
밤새 남의 자서전 대필해.  
...빨리 자립해서 난 내 인생 살구, 아빤 글 쓰게 하고 싶어.

유정      너 머리 좋으니까 장학금 받구, 존나 알바하구. 그럼 되지.

형인      (다시 엑셀 입력 시작하며) 그리고 나 30대엔 무조건 건물 살 거야.

유정      (벌떡 일어나며) 갓물주!

형인      (조금 웃고)

유정      우리 이걸로 얼마나 벌 수 있을까?

형인      (엑셀에 수식 입력하고) ...너, 내가 한 달에 120만 원씩 줄게.

유정      (벌떡 일어나) 레알?

형인      (돌아보며) 진짜야. 고깃집 알바 그만둬.

유정      안형! 나 방금 존나 설렘. 인소 주인공이 (목소리 굵게 내며)  
“공주님, 이런 험한 일은 이제 그만둬” 그러는 거 같았어.

형인, 자신 있게 웃는 데서 화면 아웃.

### #47. 지성고등학교/동아리방(낮)

형인, 아침자율학습 시간 이용해 노트북으로 아침 동시호가 보고 있다.  
HTS 화면 슬쩍 보이면 종목이 열댓 가지쯤 되고.

형인      (중얼) 오케이... 너는 어제 기관이 사제끼더라. 좋았어. (클릭)  
흠. 너는 오늘 종가 좀 보자. 이쯤에서 익절하는 게 맞을 거 같긴 한데...

### #48. 지성고등학교/2학년 2반 교실(낮)

하늘, 맨 뒷자리 앉아 파우치에서 화장품 꺼내 화장 매무새 고치고 있다.  
주변 별 반응 없자 눈 데굴 굴리고 신상 립글로스 꺼내 바른다.  
#16의 여학생1의 어깨 툭툭.

여학생1    응? (쳐다보면)  
하늘       (립글로스 내밀며) 발라볼래?

하는 중에 #47에 이어 노트북 들고 교실 뒷문으로 들어오는 형인.

여학생1    아... (책상 서랍에서 파우치 꺼내고 거기서 같은 립글로스 꺼내든다)  
(웃으며) 괜찮아. 고마워, 온하늘.  
하늘       (어이없는 얼굴)

형인, 지나가며 그 모습 눈으로만 보고 슬며시 웃고,  
여학생1, 그런 형인 보고 마찬가지로 의미심장하게 웃는다.

### #49. 몽타주. 모두 지성고등학교 일각(낮)

- 동아리실, 낮. 여학생3 쪽으로 노트북 화면 향해 보여주고 뭔가 설명하는 형인. 화면에는 ‘스튜디오타이거’ 전망 리포트 보여주고 있고. “매수 의견” 등의 소리 작게 들린다.
- 앞의 장면 옆에서는 노트북 한 대 놓고 뭔가 입력하는 유정. 인터넷뱅킹 열어 아이들에게 수익금 송금하고 있다.
- 앞의 장면 옆으로는 대기 중인 상담자 학생 서넛. 형인 보고 있고.
- #48의 여학생1, 고급 후드 집업을 입고 교실에 나타나면 여학생 서넛 “와!

너 대박!” 하며 몰려서 얘기하고.

— #45 분할 컷에 등장했던 남학생 둘, 휴대전화로 포털사이트 증권방

열어놓고 보며 “테슬라”니 “넷플릭스”니 해외주식 얘기한다.

— 쉬는 시간, 복도에 많은 아이들. 몇몇 휴대전화 들고 보며 걷거나 삼삼오오

얘기하며 걷는 머리 위로 주식차트 뽕뽕 솟아난다.

— 교실 일각, 소논문 쓰고 있는 하늘과 로운. 로운 노트북으로

뭔가 작성 중이고. 하늘, 재미없는지 턱 괴고 뭔가 골똘히 생각한다.

하늘(E) 너무 타격감이 없는데...

### #50. 지성고등학교/교실 일각(낮)

#49 마지막 장면에서 연결된다.

로운 (노트북 타이핑하며) 너 청소년 취업인구 통계는 다 찾고 노는 거지?

하늘 패는 맛이 약한데...

로운 (놀라) 너 또 사람 꿰어?

하늘 (지가 더 놀라) 내가 덩초야? 애들 패게?

로운 (어이없다) 덩초는 패도 돼?

하늘 가만있어. 확실히. 이상한 감이 와.

### #51. 지성고등학교/2학년 2반 교실(낮)

철판에 “자기역량강화 활동”이라 쓰여 있고, 형인과 유정은 자리에 없다.

#48의 여학생1, 조용히 일어나 자리 뜨는.

로운과 소논문 쓰던 하늘, 그 모습 옆눈으로 보고 있다 따라 나선다.

로운 야! 너 어디 가?

하늘 (검지 입술에 대고 씹! 모양)

### #52. 지성고등학교/동아리방 앞 복도(낮)

여학생1, 주변 두리번대고 아무도 없는지 확인한 후 동아리방 노크.

여학생1 (안쪽 향해 조용히) 스튜디오타이거.

하면 안쪽에서 걸쇠 풀리는 소리 들리고 문 열려 여학생1, 들어간다.

잠시 후 복도 끝 모퉁이에서 나타나는 하늘.

하늘 헐...

### #53. 지성고등학교/동아리방(낮)

#45의 남학생1. 주머니에 손 찢러넣고 삐딱하게 앉아 있다.

형인, 좀 당황한 채 보고 있고. 유정도 뒤에서 찢찢매며 보는데.

형인 (노트북 보며) 지금 수익률도 괜찮아. 너 복리 알지?

니 원금에 수익이 붙어서 그게 다시 원금이...

남학생1 (O.L.) 너 내가 사려는 바이크가 얼마 줄 알아?

형인 그러니까...

남학생1 그렇게 모아선 졸업 전에 못 산다고.

형인 (보다가) 지금 니가 추가로 넣겠다는 이 돈 출처, 물어봐도 돼?

남학생1 (O.L.) 할 거야, 말 거야?

어차피 너도 수수료 더 받아먹고 괜찮은 거 아니냐?

형인 ...좋아.

### #54. 형인 집/형인 방(밤)

형인, 노트북으로 HTS 켜놓고 골똘히 생각 중이다.



형인(E) 어차피 투자금이 커졌으니까 수익률이 1—2퍼센트만 높아져도  
수익금 착시가 좀 있을 거야.

고개 가웃하고 머리 짙는다.

형인(E) 아닌가, 역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맞을까?

한숨 쉬고 계속 고민하는 형인. 화면 어두워진다.

### #55. 지성고등학교/2학년 2반 교실(낮)

아이들, 등교해 하나둘 자리에 앉는 중이다.

유정은 등교 전. 형인 제 자리에서 공부 중이고,

하늘도 자리에 없고. 작은 소음만 있을 뿐 교실 조용한데

뒷문 광 열리며 거칠게 들어오는 남학생1.

남학생1 야! 안형인!

형인, 깜짝 놀라 뒤돌아보고 아이들 모두 이목 집중된다.

남학생1, 성큼성큼 형인 자리로.

남학생1 너 뭐야!

형인 (당황했지만 소리 낮춰) 교실로 찾아오면 어떡해?

남학생1 (큰 소리) 안 찾아오게 생겼어? 마이너스라니 무슨 소리야?

형인 (작게)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라니? 아직 매수도 다...

남학생1 (O.L.) 야이 씨발. 삐소리 그만하고! 그제 무슨 돈인 줄 알아?!

형인 (놀란다) 너 그제 무슨 소리야?

하는데 유정 들어오다 이 모습 보고 뛰어온다.

유정 야, 씨발. 너 뭐야!

남학생1 넌 빠져. 경리년.

유정 뭐?

형인 (일어나며) 자리 옮겨. 동아리실로 가자. (움직이는데)

### #56. 지성고등학교/교무실(낮)

담임교사,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하늘 그 앞에 앉아

무언가 설명 중이다. 담임, 놀라서 입 벌어지는데.

담임 너, 이 얘기, 책임질 수 있어?

하늘 (싱긋 웃는데)

남학생1(E) 조까지 마! 책임?

### #57. 지성고등학교/2학년 2반 교실(낮)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있고, 형인과 남학생1, 유정 대처 중이다.

형인 (무섭지만 침착하게 낮은 목소리) 너, 여기서 일 키우면...

남은 기회도 사라지는 거야. 책임진다니까.

유정 이거 또라이 아냐?

형인 (남학생1 지나치며 조용히) 동아리실로 가자. 설명할게. (하는데)

남학생1 가긴 어딜 가야! (하며 형인 머리채 잡는다)

### #58. 교차. 지성고등학교 2학년 2반 교실+복도 일각(낮)

교실.

약! 하고 머리채 잡히는 형인, 유정 놀라서 남학생1 팔 잡고.

흥분해 날뛰는 남학생1. 형인 머리채 잡힌 채 버둥대고.

복도.

담임교사와 하늘, 복도 지나쳐 교실로 가는 길.

교실.

로운 달려와 말리지만 남학생1 난리통에 나동그라진다.

교실 샅시간에 아수라장. 유정. 자기도 얻어터지며 뜯어말린다.

교실 앞 복도.

담임교사, 하늘 바라보면, 하늘 자신 있다는 듯 고덕.

교실.

유정, “이 병신 개새끼가!!!” 하고선 남학생1 팔 꼭 물어버린다.

남학생1 “오아악! 이 미친년이!!!” 하고 유정 팡 치고.

유정, “오오냐. 씨발. 더 때려라. 가진 게 뭣집이!” 하고 덤비는 데서

담임 (고함)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 #59. 지성고등학교/위클래스 상담실(낮)

형인, 유정, 남학생1 엉망진창이 된 채 위클래스 교실에 앉아 있다.

상담교사(30대, 남), 세 사람 보는데, 유정 분이 안 풀려

남학생1 계속 노력본다.

유정 (씨근대며) 멍청한 새끼...

남학생1 이게 또! (손 확 올리는데)

상담교사 책상 가볍게 두드리고.

상담교사 (부드럽게) 자자... 그만들 하고. 담임쌤들 오실 때까지 조용.

형인, 끝장이다 싶어 눈 질끈 감는데 노크도 없이 문 광 열리고.

후줄근한 차림의 남학생1 모(40대 중반) 나타난다.

성큼성큼 남학생1에게 다가오는 어머니, 다짜고짜 아들 뒤통수 후려친다.

형인, 유정 놀라 쳐다보고 상담교사 “어머님!” 하며 말리는데.

남학생1 모 너 이 새끼! 그거 무슨 돈인 줄 알아?

이모들 월급 주려고 일수 탄 거야, 그거!

(등짝 후리면서) 이 망할 놈의 새끼! 튀겨 죽일 새끼!

남학생1 (그냥 묵묵히 맞는데)

유정 (자기가 더 놀라서) 아, 아줌마! 애를 왜 때려요!

상담교사 (강하게) 어머니!

남학생1 모 넌 뭐야, 이년아!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하면서 계속 때린다)

형인 (다급하게) 저기, 아주머니. 그 돈. 돌려드릴 수 있어요.

(남학생1 학생 가리키며) 재가 쓴 거 아녜요.

남학생1 모 뭐?!

### #60. 지성고등학교/동아리방(낮)

아무도 없는 고요한 동아리방 안. 프린터 한 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잠시 후 출입구 열린다.

등장하는 형인과 담임교사. 담임교사 앞서 들어와 둘러보고

얼굴에 반창고 붙인 형인 고개 숙이고 뒤따라 들어온다.

담임 (들어와 형인이 앉았던 자리 앉으며) 여기냐? 너희 사업장이?

형인 (고개만 숙이고 가만히 선 채)...

담임 (마른세수) 하아... 앉아봐.

형인 (와서 담임 앞에 앉으면)

담임 일단... 이게 사상 초유의 사태라 (헛웃음) 전례가 없는 일 아니겠냐?

형인 ...

담임 오늘 일단 쌤들끼리 회의를 할 거야.  
일단 니가 한 게 유사수신행위인지 그니까,  
법률 위반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연루된 학생들 상담 진행될 거고...

형인 (가만히 듣는데)

담임 ... (형인 대답 기다리며 사이 두고) 방법을 찾아보자.

CUT IN  
#9 공차는 애들의 풍경.

담임(E) 같이 놓고,

CUT IN  
#37 수학 시간 공부하는 애들 풍경.

담임(E) 공부하고,

CUT IN  
#25 화장실 풍경.

담임(E) 그냥, 일상 전부예요.

담임 어른들보다 더 자신의 위치를 뼈저리게 느낀단 말입니다.

상담교사 안형인 학생만의 문제랄 수가 없죠.

주임 무슨 소립니까? 교장선생님! 재량권으로 제재를 하셔야 해요.

교장 (묵묵히 듣다가)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죠? 그게 학칙이니...

CUT TO  
형인, 불려와 교사를 둘러앉은 테이블 앞에 교실 의자 두고 앉았다.  
무릎에는 파일철 올려두고 있고.

교장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선 다 들었다.

형인 ...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교장 애들의 피해가 없다곤 해도... 사회에선 엄연히 불법인 이 일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교육자들의 입장이다.

형인 ...그럼...

교장 별점과 교내봉사활동.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  
(좀 엄하게) 할 말이 있냐?

## #61. 지성고등학교/교장실(낮)

형인의 담임, 위클래스 상담교사를 비롯 2학년 주임(40대, 남),  
사회과 교사(30대, 여), 교장(60대, 남) 앉아 있다.  
창밖으로 #10의 70대 여성, 밀짚모자 쓴 채 교단 꽃나무 가지 치고.

상담교사 아이들 모두 입을 짹 닫고 피해 본 게 없다고만 할 뿐이에요.  
실제로 투자 원금은 다 돌려줬구요.

사회교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를 살포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나름의 자율적인 계약을 맺었더군요.

주임 그렇지만 교내에서 투자일임업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담임 이 일이 밖에 알려지면 곤란합니다.

교내에서 처리하는 게 좋아요.

주임 아이가 우수해서 별점이나 징계 주기 아까우신 거 이해는 해요.  
그치만,

담임 (O.L.) 성적이 우수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안형인 학생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애들은 하루 열 시간씩 한 공간에 붙어서 지냅니다.

CUT IN  
#38 급식실의 풍경.

담임(E) 같이 밥 먹고,

형인 ... (고개 숙인 채) ...  
주임 할 말 없으면... (하는데)  
형인 제 친구는...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고깃집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CUT IN  
#27 팁 받던 유정의 모습.

형인(E) 팁 오천 원을 받겠다고 술 취한 아저씨들의 주정도 받아줬다고  
했습니다. 작년엔 9시 이후에 고깃집들이 문을 닫아 그마저  
아쉽다고 했습니다.

INSERT  
형인의 집 거실, 밤. 좌식 책상에 앉아 글 쓰고 있는 형인 부.  
형인, 방에서 문 조금 열고 그 모습 보다 한숨 쉬고 문 닫고.

형인(E) 저는... 물리 때문에... 학원 한 군데 더 다니고 싶었지만,  
영어학원을 이미 다니고 있어서 그 애길 아빠에게 차마 못 했습니다.

CUT IN  
#45에서 저마다 원하는 걸 말하는 아이들.

형인(E) 애들은 자기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게 가방이면 왜 안 되고, 오토바이면 왜 안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들보다 좀 더 아는 걸... 활용했을 뿐입니다.

CUT IN  
#49의 여학생3에게 '스튜디오타이거' 전망 리포트 보여주는 형인 모습.

형인(E) 시장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투자했고, 애들에게 자신이 지금  
어느 회사의 주주이고, 산업의 동향이 어떠한지 모두 얘기해줬습니다.

형인 첨엔 아무것도 몰랐던 친구들이, 나중엔 스스로 원하는 종목과  
자기 스스로의 분석 자료를 가지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INSERT  
학교 앞 일각, 남학생1에게 접근해 속닥이는 하늘.

CUT IN  
#58에서 머리채 잡히는 형인.

형인(E) 그러나 여전히 제가 서툴렀고, 부작용 있었던 걸 인정합니다.

형인 (고개 숙이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교사들, 모두 침묵하며 형인을 바라보고 있다.  
창밖에서 꽃나무 가지치기하는 노인도 보고 있고.

주임 (흠흠) 그럼, 별점과 봉사활동 시간은 회의를 통해... (하는데)

형인 (O.L.) 별점과 교내봉사는, 제발... 어떻게 안 될까요?

교장 (나무란다) 생기부가 그렇게 중요한 학생이 왜...!

형인 (O.L.)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담임 기회라니?

형인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4분의 1로 접힌 A4 용지 꺼내 펼친다)

INSERT  
용지에 적힌 문안 CLOSE UP.  
'개비투자증권 X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공동주최  
전국 고교생 모의투자대회 시행 공고'

형인 포털사이트 대문에, 학교 이름 걸게요.

교사들 놀라 서로 바라보는데,

형인      대회는 일주일 후. 대회 기간은 한 달이에요.  
1등 할게요. 장학금은 모두 학교에 기부할게요!  
선생님들의 특화된 경제교육 덕분이었다고 자소서에서 쓰겠습니다!

주임      (어이없어서) 지금 학생이 교사들 상대로 협상을 하겠다는 거야?  
(하는데)

노인(E)   재밌겠는데요?  
  
교사들 모두 창밖 바라보면 빙그레 웃고 있는 노인.

교장      이사장님!

노인      교사들도 지금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별점이 진짜 맞나, 애매하지요?

교사들    ...

노인      그렇담 저 학생의 제안은 학교로선 손해 볼 게 없는 거 아닌가요?

형인      (벌떡 일어나 노인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      (고개 저으며) 아니, 선생님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나는 그냥 의견만 준 거란다~ (창밖으로 사라진다)

아연한 교사들과 일어난 형인의 모습에서 아웃.

## #62. 지성고등학교/교무실(낮)

교장실에서 돌아와 자리에 앉은 교사들. 학년 주임, 마음에 안 든다는 듯  
다이어리 자신의 책상 위에 탁 올려놓고 나가버리고.  
담임교사와 형인, 담임교사 자리로. 교사는 앉고 형인은 서 있다.

담임      참, 당돌도 하다.

형인       쌤.

담임       왜?

형인      저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어요.

담임      어이구? 그러세요?

형인      (손에 들고 있던 파일철 내밀며)  
온하늘과 그 아버지 면담을 좀 진행해주세요.

담임      무슨 소리야? (하며 파일철 열면)

INSERT  
‘150억 횡령·배임 혐의 바이오스크 대표이사 건  
법무법인 온&정 온형필 대표 변호사 직접 출격’ 등 신문기사 스크랩.

담임      이게 뭐냐?  
  
시간 경과.  
형인, 선 채 자초지종 얘기했다. 담임, 빙뚱서 쳐다보고 있고.

형인      아마... 인과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아버지 면담 한 번이면 돼요. (하는데)

형인 부(E)  안형! 안형인!  
  
형인 부, 사색이 돼 교무실로 뛰어 들어온다.

담임      너, 아버지도 안형이라고 부르시냐?

형인      (좀 웃는다) 아버지 이름에도 형 자가 들어가거든요. 나름. 애정표현.

형인 부, 후다닥 달려와 형인 살피고.

형인 부    뭐야? 야단맞았어?  
  
형인, 아직 어린 고등학생이다. 아버지 보니 안심돼 눈물 나고.  
참았던 눈물 폭 터져 아버지한테 안기는데.  
형인 부, 딸 모습에 놀라 안아주고. 형인, 한참 품에 안겨 운다.

시간 경과.

형인 담임,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형인과 형인 부 뒷모습 보고 있고.

담임 (중얼) 어른도, 애도 아닌 너희들을... 어쩔까 싶다...

### #63. 지성고등학교/운동장(낮)

형인과 형인 부, 터덜터덜 걷고 있다.

형인 (아빠 안 보고) 아빠 나한테 실망했지.

형인 부 (딸 안 보고) 실망은 아니구. 경악? 충격?

형인 미안...

형인 부 니가 나쁜 애여서가 아니라, 내가 널 몰랐다는 거, 그게 충격이지.

형인 ...

형인 부 차라리 차근차근 공부하게 해줄걸. 후회했어.

형인 (멈춰 서서 아빠 보고)

형인 부 (좀 걷다 딸 뒤돌아보며 멈추면)

형인 (허리 깊숙이 숙이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형인 부 (다가가 머리 쓰다듬) 야, 난 니가 중2를 그냥 넘기길래 딸 진짜 쉽게 키우는구만 남들 왜 그렇게 고생하나 그랬었어!

형인 (고개 들고) 그냥 안 넘겼어. 아빠가 몰랐던 거지.

### #64. 지성고등학교/동아리방 앞 복도(낮)

형인과 유정, 같이 걸어와 동아리방 앞에 선다.

문에는 '자력강 경제분야 스터디' A4 용지 펴려있고.

두 사람, 함께 보고 서 있다가 유정이 다가가 종이 떼낸다.

쌩쌩히 마주 보는 둘.

### #65. 지성고등학교/2학년 2반 교실(낮)

유정, 동아리방에 설치했던 프린터 들고,

형인, 문에서 떼낸 A4 용지 들고 들어온다. 각자 자리로 가는데.

하늘 (들으라는 듯) 학교가 뭐가 되려는 거야?

돈놀이라니. 오 마이 가쉬!

형인 들고 있다가 하늘에게 다가가 책상 앞에 선다.

하늘 (올려다보며) 왜? 뭐?

형인 미국은 어떤 나라야?

하늘 (짱그리며) 뭐?

형인 년 영어 잘하니까 아마 금세 적응하겠지?

(음절마다 강조하며) 다, 시, 말, 야.

하늘 (공포. 생각도 하기 싫다) 뭐래는 거야? 너 돌았어?

형인 (살짝 웃고) 가서는 좀 똑바로 살아.

### #66. 몽타주

- 형인, 서점 주식/투자 코너에서 실전 투자 관련 책들 쭉 본다.
- 도서관 열람실에 책 쌓아놓고 보며 노트북에 주요 사항 적어넣는 형인.
- 형인 방, 밤. HTS에서 기업 차트 띄워놓고 어딘가 메일 쓰는.
- 학교 운동장 스탠드, 낮. A4에 프린트한 기업분석 리포트 보며 샌드위치 먹는 형인. 옆으로 유정 다가와 우유 건네고.
- 형인과 형인 부, 차 타고 교외로 나가고.
- 화학기업 부설연구소. 형인과 형인 부, 연구원에게 연구 분야 관련 설명 듣고 있다. 형인, 열심히 메모하고.

## #67. 지성고등학교/동아리방 앞 복도(낮)

형인과 유정이 썼던 동아리방. 아무런 표찰도 붙어 있지 않은 문.  
살짝 열린 문틈으로 혼자 노트북 펼쳐놓고 있는 형인.  
눈 감고 가만히 무언가 생각 중이다.  
곧이어 노트북 스피커에서 울리는 소리.

(E)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형인, 가만히 눈 뜨고 화면 응시하며 화면 무언가 클릭한다.  
잠시 후 노트북 스피커에서 울리는 소리.

(E) 모의투자대회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 #68. 지성고등학교 전경(낮)

수업 시간, 빈 운동장 위로 수업 끝나는 종 울리고.

아이들(E) 감사합니다.

## #69. 지성고등학교/3학년 5반 앞 복도(낮)

창으로 수업 끝난 교실 풍경 보인다.  
몇몇은 화장실로, 몇몇은 책상에 엮어진다.

## #70. 지성고등학교/3학년 5반 교실(낮)

형인, 방금 들은 과목 책 책상 서랍에 넣고,

형인 다음 시간 뭐지?  
옆 친구 무리무리물리.  
형인 (짱그린다) 으... 싫어라.

일어나 교실 뒤편 사물함으로 가 참고서와 문제집 꺼내는데.  
뒷문에 여자애들 두 명이 기웃댄다.

여학생7 (문가에 앉은 아이에게) 너희 반에 안형인이라고 있지?  
문가 학생 (교실 둘러보고 형인 향해) 저기 있네. (하면)  
여학생8 (형인에게 다가와) 니가 안형인?  
형인 (의아하다는 듯 보는데)

## #71. 지성고등학교/옥상(낮)

찾아왔던 여학생 둘과 형인, 서서 얘기 나누고 있다.

여학생7 너 그리워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어서 그래.  
여학생8 그래. 작년에두 오토바이 타던 그 밥팅이만 아니었음  
애들 완전 더 꿀 빨았을 거라 그러는데. 응?  
형인 안 한다니까 그러네.  
여학생7 어우 야야~ 진짜 이번엔 비밀보장 확실하다니까? 완전 소수정예.  
형인 (웃으며) 나, 졸업할 때까지 배당금만 받기로 했어.  
부모님 동의받은 계좌 가지고 따로 찾아오라 그래. 조언은 싹가능.  
여학생8 재능이 아깝잖아.  
형인 (조금 웃고) 미안. 나 먼저 가볼게.

## #72. 형인 집/형인 방(낮)

아무도 없는 빈방.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형인의 책상 위.

상패와 기념사진이 추가돼 있다.

#### CLOSE UP

‘깨비투자증권 X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공동주최

전국 고교생 모의투자대회 3등상

지성고등학교 2학년 안형인’

그 위로 #8 형인의 내레이션.

형인(NAR) 나 안형인. 보잘것없는 흠수저 고딩이 아니다.  
나의 수저 색깔을 스스로 바꿔나가는 이 시대의 파이오니어.  
선행학습을 통해 빠르게 주린이를 탈출한,  
확고부동한 원칙의 선제적 투자자.

끝.

## 작가 후기

---

‘애들 얘기 한번 써보자.’

시작은 그랬습니다.

그간 썼던 습작품들의 주인공이 다 너무 세상을 많이 알아버린 어른들이었기에,  
손끝 가볍게, 발랄하게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소재를 구체화하며 아이들의 세상이  
어른들의 그것보다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살이의 ‘짬밥’도 ‘경험’도 ‘관성’도  
부족한 아이들이 느끼고 있을 ‘계급의 무게’를 이렇게 가볍게 접근해도 되는 건가, 반성이  
많이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수정고 작업을 하는 지금도 반성은 유효하지만 한편으론 어딘가에 있을 대찬 형인들과  
곳곳한 유정들이 분명히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주길 바라는 애뜻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올곧은 성장을 응원하고 있는 어른이 어디엔가 있음을  
알려주고 싶단 마음도 생겼습니다.

‘오픈의 작가’가 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이 덮칠 때마다 형인이나 유정이를 생각할 것입니다.

나 자신이 만들어낸 캐릭터들이 스스로 뛰고 구르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나를 이 낯선 세상에 데려다주었던 소중한 경험을 잊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곁에서 매운 조언을 아끼지 않는 나의 반려, ‘농’,

열렬한 응원자를 자처해준 교육원 동기들, 육망이들,

그리고 당선작 이외의 작품에 존재하던 캐릭터 이름까지 새기듯 기억해주신 센터장님과

언제나 응원을 전해주시는 임고은 과장님, 저의 피맺힌 몸부림을 함께해주시는

오픈 멘토링 동기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해경은 생각한다.

‘예전엔 우리 모두 마음을 전하는 어린 작가였어.

진심을 말하고 싶을 때면, 그걸 못 참고 꼭 썼지.

그땐 그게 세상의 유일한 일 같았으니깐.

나이가 들수록 진심은 점점 단전 아래 숨어.

그렇게 어딘가에 숨죽여 살아. 근데 내가 말야...’

이 이야기는 자신한테 소홀한 채, 남의 진심만 써오던 대필 사이트

운영자 김해경이, 첫사랑으로 엮힌 그 시절 그때의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이 왜 진심을 전하지 못하고, 연애도 잘 못 했는지 깨닫고

진심에 한 발자국 다가서는 얘기다. 쌓여가는 후회들이

우리를 삶 한가운데로 떠민다. 남의 진심을 글로 써서 전하는 일을 하는

그녀가 이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쓴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내 마음의 소중함을 보듬고 싶다.

## 등장인물

---

### 김해경(34세, 여) 인터넷 사이트 ‘진심 레터’ 운영자

대필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 편지글, 축하문, 탄원서 등과 더불어

잡다한 글들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써준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 만 명. 입소문과 후기들로 젊은 층 단골 고객들이

좀 있다. 인스타 감성피드 써주는 의뢰가 심심찮다.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의뢰받기도 한다. 여튼 잡다하게 일한다.

### 황연수(34세, 남) 목수

해경의 중고등학교 동창. 결혼식장에서 우연히 옛 동창 해경을 만난다.

그녀에게 편지를 의뢰한다. 한편 수술을 앞두고 있다.

## 이석(35세, 남) 대장암 전임의

해경의 중고등학교 선배. 대학병원 전임의. 조심해야 할 순간에도 사람을 좀 허물없이 대해서 상처를 준다.

## 그 외

신랑 민혁(34세), 연수의 여자친구 미주(32세), 룸메 언니 종미, 해경의 아빠 김수(60대), 동창 주영 등

한편 해경은 병원에서 첫사랑이었던 이석을 만나면서 가장 힘들었던 고등학교 때의 기억들과 마주한다. 자신이 직면해야 할 마음의 문제와 대면.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동창 연수는 생각했던 것보다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이제 곧 수술 날짜가 다가온다….

## 줄거리

---

대필 사이트에서 축하문, 편지글 등을 써주며 소일거리 하는 해경.

그녀는 1년을 좋아했던 남자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결혼 소식을 듣게 된다. 심지어 그의 결혼식 축하문을 써달라는 의뢰를 받는데. 문제는 그 말도 안 되는 걸 거절 못 하고, 아닌 척 관찮은 척 쿨한 우정을 둔갑해서 축하편지를 써서, 기어코 식장에서 낭독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데…

그날, 엇힐 것 같은 가슴을 꼭 누르며 결혼식장 뷔페 음식을 전투적으로 먹는데 그 모습을 좀 눈여겨본 남자, 연수. 그녀의 중고등학교 동창이다. 아무도 모르지만 연수는 그녀가 지금 관찮지 않다는 걸 안다. 하지만 서로 어색하게 인사하고 헤어진다.

그런데 해경의 대필 사이트에서 익숙한 의뢰인의 이름이 눈에 띈다. 황연수. 결혼식장에서 나의 구린 모습을 본 그 녀석. 개가 의뢰를 한 거다. 편지를 대신 써달라는데. 의뢰 내용은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두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그의 의뢰는 이별편지를 써달라는 것. 해경은 일단 응하지만, 그의 상황을 알면 알수록 편지 쓰는 게 쉽지 않다. 한편, 중학교 때부터 자신을 좋아했던 연수와 시간을 보내면서 해경의 마음엔 감정들이 조금씩 쌓인다. 그녀는 연수의 진심 어린 말을 들곤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조심히 다독여보는데.

## 대필편지 김해경 백진영

### #1. 타이틀 시퀀스(밤)

신비롭고 희망적인 음악 시작되고  
'진심 레터' 낫말이 붙은 원룸 현관 입구. 2인 사용하는 저렴한, 좀 넓은 원룸.  
침대와 책상 한 세트씩 양 벽에 놓였고, 벽의 한쪽을 작업실로 꾸며놓았다.  
벽면에 낙관 '수' 찍힌 서예체로 쓴 작은 현수막 '진심 레터' 걸렸고  
책장엔 '편지류', '축하문', '탄원서' 파일들 가득.  
바닥엔 저렴해 보이는 팸플릿 '각종 편지, 축하문, 탄원서 써드립니다.  
진심 레터 truthletter.kr 010-1234-6789, 인스타/진심레터.' 쌓였다.  
책상 위에 일렬로 정돈된 연필통. 톰보우 HB부터 4B까지 종류별로  
꽃혀 있고 그중 몇 개씩은 깔끔하게 깎아놓았다. 지우개도 종류별로 착착.  
향초도 종류별로.  
조금 열려 있는 창문으로 바람 들어와, 팸플릿 살짝 너풀거리는데

빌라와 원룸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수동쯤으로 보이는 동네 전경.  
뜨문뜨문 불 켜진 집들.  
또 다른, 옆 동네. 아파트 단지에도 몇 세대 불이 켜졌다. 잠 못 드는 누군가들.  
불 켜진 어떤 집 위로, 글씨 'DM 전송' 뜬다.

경건하게 책상에 앉은 해경의 긴장된 뒷모습. "후우-습" 심호흡 새어 나온다.  
수행을 하는 듯 골똘히 집중 모드. 보면, 흰 티슈 깔아놓고 연필을 깎는다.  
독서대에 펼쳐 있는 책은 <연필 깎기의 정석>. 하지만 해경,  
자꾸 집중하지 못하고 오른쪽에 놓인 컴퓨터 마우스를 가자미눈으로 힐끔힐끔  
보는데 핸드폰에 인스타 DM 알림음. '진심레터 님 피드 10개 부탁드려용.'  
해경, 내용 확인하고 핸드폰을 뒤집어놓는다.  
다시 집중해서 연필을 깎으려는데

벽시계에서 째깍째깍 소리 점점 커지며, 컴퓨터 마우스와 교차.  
초조 불안 복잡한 해경, 흐르던 음악은 점점 단조 분위기로 전환.  
해경, 이내 마우스를 보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컴퓨터를 클릭한다!  
프린터에서 칙칙 소리가 난다. 해경, "으으..." 소리 빠져나오고  
그제야 제대로 보이는 해경의 얼굴, 텅텅 부은 눈, 산발, 엉망진창 가관.

해경 (터져 나오는) 미친...!

몸부림치는 해경. 그로 인해 땅으로 후두두 흩어지는 티슈와  
연필 깎고 난 나뭇조각과 심 가루.  
프린터에서 출력되는 종이 한 장, 제목 '축하 편지'라고 쓰였다.  
다소 맥없는 글씨체의 타이틀 CLOSE UP.

<대필편지 김해경>

음악과 함께, 서서히 사라진다.

### #2. 예식장(낮)

예식 준비로 바쁜 식당 안. 예식 순서지 든 직원1, 동선을 설명한다.  
그 옆에 '축하 편지' 종이 든 해경, 추레함 온데간데없고 과한 화장에  
투피스와 빨간 구두.

직원1 주례 끝나고 반주 나오면 다른 호명 없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읽으시면 돼요. (종이 보며) 축하편지 A4 반 장 정도가 딱 좋으신데.

해경 ...

직원1 마이크는 요 앞에 놓인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친구분 궁금하신 거?

어정쩡하게 대답하는 해경.

바빠 가는 직원1. 신랑 민혁, 해경을 발견하곤 다가온다.

민혁 (종이 보며) 진짜 고맙다. 어떻게 축하편지, 축하 하겠단 놈들이 하나도 없어. 너 땀에 체면 살렸어. 저쪽 집한테 꼬투리 잡힐 뻔했어. (작게) 사회성 없다 말들 나왔다나. 여튼, 네가 축하편지 이런 거 쓰는 거 나름, 전문이니깐. 친구가 이럴 땐 좋아.

해경 ...

직원2(E) 신랑분 잠시만요!

민혁 (바빠 가다 우뚝 멈춰 서는, 뒤돌아 해경을 잠깐 보는) 해경아. ...뷔페 먹고 가라고. 여기 맛있대, 인당 6만 원. 꼭 먹고 가.

다시 가던 길 가는 신랑. 표정관리 못 하는 해경, 종이 짚 손에 힘이 들어가는데

해경(NAR) 지난 1년을...

### #3. 예식장(낮)

사회자, “신랑 입장” 외치면 입장하는 신랑 민혁.

내빈석 끝에서 그 모습 보는 해경.

해경(NAR) (폭포같이 쏟아내는) 새벽에 라면 먹자며 불러내 편의점 컵라면 먹고 대낮부터 해장국에 낫술 하자며 청진옥으로 불러내 낫술 걸치고,

### #4. 과거. 차 안(밤)

자동차 조수석에 앉은 해경.

해경(NAR) 양주 별 보러 가자며... 서울서도 똑같은 별을 양주까지 가서 보고

선바이저의 거울로 얼굴 상태 점검 및 붕어입술 만들어본다.

해경(NAR) 그렇게 긴 썸인 줄 알았는데... 좋아한단 그 한마디! ...왜 ...왜!

### #5. 예식장(낮)

마이크 든 해경, 반대편에서 환히 웃는 신랑 민혁의 입만 보이는데

해경(NAR) 웃는 입을 껴매고 싶다...

심호흡하는 해경, 축하 편지 낭독한다.

해경 두 사람의 결...혼을 (꼭— 마음 누르더니) 결혼을, 누구보다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띄웁니다,

신랑 신부, 그리고 하객들. 그중 검정 비니 쓴 남자의 시선도 보인다.

편지 낭독하는 해경, 주변 소리 점점 들리지 않고 아득하기만 한데

### #6. 예식장/연회장(낮)

북적북적한, 한복 입은 신랑 신부가 테이블마다 인사한다.

구석에 앉아 고추 한 입 베어 먹던 해경, 맥주에 슬쩍 소주 타서 마신다.

취기에 멍하니 갈비탕에 코 박고 먹는데,

순간 갈비탕에 뭔가 툭 떨어지며 동심원

이루는데, 눈물인지 콧물인지 정체 모를 것이...

당황해 누가 볼세라 기겁하고 갈비탕 들이켜는데, 뜨거워서 킁킁.

그때 누군가 해경의 등을 톡톡 친다.

회색 양복에 검정 비니 쓴 연수, 접시를 옆자리에 놓고 앉는다.

연수 저...

해경 왜요?

연수 ...

해경 (답답) 저한테 무슨 볼일 있으세요?

연수 (조용한 개미 목소리) 뜨거울 텐데...

해경 (입천장 아프고)

연수 김해경 맞지? 성환고.

해경 (얼굴 흘끔 보는) 누구? 같은 반이었나?

연수 (조금 보다가) 우리 같은 문예반.

해경 아, 기억날 것 같기도 하다, 반갑다.

연수 (해경을 자꾸 보는) 응...

해경 (일어서려) 그럼 식사 마저 해.

자리를 피하려는 해경. 그런데 조심스레 해경에게로 손을 뻗는 연수.  
 당황한 해경, 갑자기 뭘 시추에이션? 하는 찰나,  
 머리칼 위의 양념소스 엉겨 붙은 핑이버섯 가리키는 연수.

연수 아까 음식 담을 때부터,  
 해경 (재빨리 핑이버섯 잡아떼며) 아까부터 나 봤어? 황연수.  
 연수 기억하...  
 해경 (민망) ...

그때 인사하던 신랑 민혁, 해경 테이블 쪽으로 다가온다.  
 해경, ‘오지 마... 오지 마’ 마음의 소리 커지지만,  
 눈치 없이 다가오다가 빼앗히는 신랑. 부축하는 신부.  
 황급히 나가려던 해경, 의자 사이에 구두 굽이 낀다. 간신히 굽을 빼고  
 나오는데

## #7. 예식장/로비(낮)

화장실 쪽에서, 젖은 머리칼을 핸드타월로 푹푹 누르며 나오는 해경.  
 휴지통에 타월 버리고 어깨 펴고 당당히 걸어본다. 그러다 로비 의자에 앉은

연수와 눈이 마주친다. 해경에게로 다가오는 연수.

연수 (종이를 건네는) 테이블 위에 떨어졌길래. 혹시나 해서.  
 해경 (보면, 축하 편지고, 대수롭지 않은 척 받는다) 그거 버린 건데.  
 연수 ...  
 해경 (주저리) 사람들 징글징글 싫어하면서도 꾸질하게 못 버리는 게  
 뭔질 아냐? 과거. 지난 것들. 지난 것들엔 아무 힘도 없는데  
 그걸 그렇게들 무서워해. 무서워서 싫고, 싫으면 버리면 되는데,  
 연수 ...  
 해경 그걸 또 참 못해. 사람 그렇게 미련맞아. 어리석고.  
 왜 그러고 다들 사나. 정말.  
 연수 사람들 말고...  
 해경 ?  
 연수 너... 넌 어떤데?  
 해경 (당황) 어...?  
 연수 아니... 오랜만이라고.

그때, 해경과 연수를 발견한 고등학교 동창 주영, 두 사람에게 다가온다.

주영 김해경? 해경이 맞지? 역시 결혼식 오면 온갖 동창 다 만난다니깐.  
 해경 (진짜 피하고 싶고)  
 주영 아까 축하글 좋더라. (명함 꺼내서 주는) 연락 좀 하고 살자, 김해경.

명함 받는 해경, 백에서 명함을 꺼내서 두 사람에게 건넨다.  
 디자인은 멀끔한 ‘편지 축하문 탄원서 써드립니다. 진심 레터  
 truthletter.kr 010-\*, 인스타/진심레터.’

주영 (살짝 당황) 아... 너 문예부였지. 학교별 토론대회서 상 같은 거  
 받지 않았나. 현수막 걸리고. 누구였지, 전교 일등 선배랑 같이.  
 너 근데 그때 왜...  
 해경 (경직... 이내 밝은 척) 별걸 다 기억한다. 10년도 더 됐는데.

연수 (시계 보더니) 내가 급한 일 있어서 먼저 간다. (황급히 나가는)  
 연수 (그 모습을 보는)

## #8. 해경의 원룸(밤)

컴퓨터 앞에 앉은 해경. 바탕화면엔 편지, 축하문, 탄원서 등 폴더 정리되었다.  
 편지 폴더 들어가면 다시 '고백', '이별'로 나뉘었고, 이별 폴더 들어가면  
 '박상철', '이주민' 등 고객 이름의 하위 폴더 있다. '박상철' 클릭하는데  
 화장실에서 머리를 딱 내미는 룸메 언니 종미(30대 후반).

종미 초상났지? 어! 죽을 맛인 거지?  
 해경 (보지 않은 채) 왜 또.  
 종미 정신 아주 콩밭에 버리고 왔지! (전동칫솔 흔들며) 이걸 왜 샤워기  
 거치대에 꽂아놔! 샤워기 왜 대야에 처박아놓곤 물도 안 잠그고.  
 돈 우습지. 자꾸 그럼 니 카페 알바비 삭감할 수가,  
 해경 (안 듣고) 박상철 님이 수정본에 좀 더 진심이 들어갔음 한하는데,  
 종미 지 진심도 모르는 게 남 진심은 어떻게 써왔나 몰라.  
 해경 나 뭐...  
 종미 그 지지리 홀리고 다니던 발싸개 같은 놈 결혼식 가서 싸다굴 날려도  
 모자랄 판에 축하니 뭐니, 글은 청산유수,  
 해경 친했어.  
 종미 (칫솔을 탕탕) 칫솔이 칫솔이지 샤워기 거치대에 꽂는다고  
 샤워기 된다니?!  
 해경 ...!  
 종미 키스했다며, 것도 두 번이나. 넌 왜 자꾸 널 속여?!  
 해경 (내상...)  
 종미 (심했다) ... (한숨 푹) 김해경. 너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  
 도대체 어떤 남자부터 시작이 잘못돼서, 원흉이 누구길래!  
 연애사에서 작금의, 이런 인간이 됐냐고오.  
 평소엔 멀쩡한데 꼭 남녀 문제만, 왜 솔직을 못 해.

해경 (고개 획 돌리고, 다시 화면 보는)  
 종미 (문 닫으려다가) 아, 널 가게 풀로 좀 봐라. 널 접때 말한 그날이야.  
 창식이 그놈... (칫솔 모가지 잡고) 부숴버리겠어... (해경에게) 오케이?  
 해경 미쳤다고 오케이야.  
 종미 (대답 안 듣고 문 황— 닫는)

## #9. 해경의 원룸(새벽)

쿨쿨 자는 종미. 해경, 한글 페이지에 '칫솔은 칫솔 칫솔은 칫솔' 기계적으로  
 쓰다 된 짓인가 싶어 껌싸게 지운다. 정신 차리려 얼굴 문지르고,  
 비장하게 일어선다.

경건하게 걸린 벨벳 느낌의 한복 두루마기를 탁 털어 휘릭 입는데

해경(NAR) 생각이 집중되지 않을 때  
 이걸 입고 의뢰인이 되어본다.  
 (눈을 감았다 천천히 뜨는!)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 기억하자,  
 두루마기 허리끈 꼭 동여매고, 책장 앞으로 전투적으로 간다.  
 해경(NAR) 첫 단출 잘 꿰면 모든 경조사잔잔바리일감 굴비 엮듯 따라온다는 걸.  
 책장에 정리된 '편지류' '축하문' '탄원서' 프린트된 파일들.  
 편지류 꺼내 가지고 와 책상에 앉아, 향초에 불을 붙인다.  
 피어오르는 불빛 사이로 편지류 파일 훑어보면 '연차별 이별 팁 모음' 메모.  
 해경(NAR) '헤어지자' 말하는 건 어렵다.  
 사랑했던 기간이 길수록, 그 마음의 짐은 더 커진다.  
 '진심 레터' 사이트 들어가 의뢰 수기를 훑는데

해경(NAR) 그 한마디가 서로에게 힘든 건 상대에 대한 연민일 수도 있지만  
지나온 시간들, 자신의 인생 어느 한 부분을 부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때, DM 메시지 알림 소리. 핸드폰으로 인스타그램 보면  
'진심레터\_팔로워 1만 명/감성피드 써드려요/DM으로 의뢰' DM을 확인하면  
'보내주신 피드 넘 좋았어용!! 널 잊지 못했고, 기다린다는 피드 10개 또  
부탁해어'

해경(NAR) 짧은 사랑의 이별은 통증 부위가 좀 다르다. 거기엔  
미련이 깃든다. 아직 함께 해보지 못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미련.

항초 불빛 보는 해경, 이내 '박상철' 수정본 열고 다다다다 고친다.

## #10. 해경의 원룸(새벽)

책상에 엎드려 잠든 해경, 팔이 아픈지 부스스 눈을 뜬다.  
머리카락들 볼때기에 철썩 붙었고, 입에도 몇 가닥...  
머리카락 툭툭 빼내는 해경.  
그런데 울었는지 눈 주위에 눈물이 말라붙었다. 얼굴을 닦아보는데

해경 뭐야, 운 건가? 꿈에서?

다리 저리고 아파서 뒤통치를 보면, 반창고 붙어 있다. 현관에 놓인 빨간 구두.  
이내 벽면에 걸린, 어깨 부분이 얼룩진 투피스를 멍하게 바라보는데

FLASH CUT #5 축하 편지를 내려다보는 해경의 시점 쏙.

스스로가 한심스러워 슬픈 마음 드는 해경, 컴퓨터 전원 끄려 창들 닫는데  
'진심 레터' 사이트 의뢰 창에서 신규 의뢰 발견.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이름.  
황. 연. 수. 눈 비비고 열어본다. '편지 의뢰하려고. 만나서 얘기해도 될까'

## #11. 진심 커피숍 입구(아침)

양손에 과일 봉지 든 해경, 가게 앞에 서서, 봉지 내려놓고 문을 여는데  
자몽 몇 알 데굴데굴 굴러간다. 잡으려는 찰나 누군가 먼저 잡는, 보면 연수다.  
희색 모자 쓴 연수, 입가가 좀 부르뒸다.

해경 잘 찾아왔네. 이 동네 좀 복잡한데.  
연수 (자몽을 건네주며, 힘이 없는 개미 목소리로)  
아침부터 미안. 뒤에 다른 일이 좀 있어서... 이른 시간이긴 한데,  
해경 황연수야.  
연수 ?  
해경 크게, 좀 크게 (아아— 입을 짹짹 크게 시늉, 코를 벌름)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어?

좀 웃고 마는 연수. 커피숍 문을 여는 해경, 문이 뻑뻑한지 안 열려 끄깁니다.  
지켜보던 연수, 뻑뻑한 문을 살짝 들어 올려 밀면, 툭 쉽게 열린다.

해경 (오호—) 뭐냐 너.  
연수 목수...  
해경 어?  
연수 (문 모서리를 확인하며 들어가면서) 문 나사 좀 조여야겠다...

## #12. 진심 커피숍(아침)

포스기 켜는 해경, 머신에서 물 빼고 오픈 준비.  
홀 선반엔 진심 레터 팸플릿이 놓였다. 벽엔 낙관 '수' 짝한,  
서예체로 쓴 '꽃길만 걸으소서. 진심 커피' 개업 액자.

해경 룸메 언니가 사장, 난 이를 정도만 일해. 대필로만 먹고살기 좀 그래.  
워낙 의뢰가 들쭉날쭉해서. (커피 내리며) 커피 뭘로 줄까?



연수 (자리에 앉는, 원목 의자 삐걱거리고) 아니, 그냥 물.  
 해경 커피 안 마시면 차 있어. 생과일도 있고.  
 연수 그냥... 단거 빼고.  
 시간 경과.  
 커피와 자몽 주스 든 해경, 자리에 앉는다. 경직되고 진지해 보이는 연수.

해경 (가방에서 뭔가 찾는) 주로 의뢰 내용 사이트에 적거든. 짧은 길든. 축하문하고 편지, 탄원서가 대부분인데. 직접 대면은 안 하고. 요샌 인스타 DM 의뢰도 좀 있어. 건당 하는 감성피드 같은 거. 홍보하러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깐 이것저것 다 해. (녹음기 꺼내는)

연수 (두 손 맞잡은 채)  
 해경 (녹음기 보며) 말로 하려면, 이게 괜찮겠지?  
 연수 ...응.  
 해경 (녹음 버튼 누르고 한참을 기다려주며) 편하게 해.  
 연수 (팔을 탁자에 올리는, 탁자가 삐걱) 몸 안 좋으면 성격도 좀 변할까?  
 해경 (좀 갑작스럽고)  
 연수 (메마른 입술 좀 만지는)  
 해경 (그제야 얼굴 자세히 보면 야위고, 많이 메마른 입술)  
 연수 (이내 주스 들이켜고) 헤어지려고. 이별편지라 해두자.  
 7년... 만났어. 끝내려고.

시간 경과.  
 말 없는 두 사람, 잔 다 비었다. 식은땀 나는 연수, 컨디션 나빠 보인다.

연수 (탁자 또 삐걱거리는) 혹시... 공구함 같은 거 있어?  
 해경 없는데...

### #13. 진심 커피숍 입구(아침)

바지 허리춤에 달아놓은, 휴대용 포켓 드라이버 세트 꺼내는 연수, 식은땀을 조금 흘린다. 문을 살짝 들어 올려, 드라이버로 나사 조이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본다.

연수 이런 건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탁자는 담번에 오게 되면 해줄게.  
 오늘은 시간이 좀... (순간 손에 힘이 풀려 드라이버를 놓치고)  
 해경 (드라이버 줍는, 어디 아픈지 묻고 싶지만) ...잘 닫히네. 고마워.  
 연수 (속 메스꺼리는) 잠깐만...

다리에 힘이 풀리는 연수, 핸드폰을 꺼내서 택시 앱을 켜다.

### #14. 대학병원 앞(아침)

택시 한 대 멈춰 서면 사색이 된 해경, 웃웃 주머니에 드라이버 꽂은 채 내린다. 이어 내리는 연수. 연수 혼자 설 수 있는데 과잉으로 부축하는 해경, 울기 직전.

해경 (목소리 격앙) 응급차 탔어야 했어... 자몽... 약이랑 상극이라잖아.  
 몰랐어. 나 땀에. 너 어떻게. 여기 너가 다니는 병원 맞지?!  
 연수 저기... 조용히 좀. 자몽 때문 아냐...  
 해경 (팩- 고래고래) 어떻게 조용하란 거야! 너가... 지금,  
 (얼굴 보는데, 입술 끝에서 피가 좀 나는, 사색 돼서) ...피 ...피...  
 연수 ...  
 해경 (곧 울음 터질 것 같은) 너 입에 피가... 피가...!  
 연수 (한숨 푹) 입술 말라서 터진 거야... 자주 이래.  
 사람 쉽게 어케 안 돼. 응급실 많이 왔었어. 어제부터 안 좋았다니깐.  
 해경 (들리지 않고)  
 연수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너가 더 문젠데...  
 해경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그니깐, 내가 문제라니깐...

연수 아니, (발 쪽 보면 해경이 연수 발 꼭 밟았고) 부서질 것 같아... 발톱.  
 해경 (화들짝, 발을 떼며) 진짜 나 왜 이러니!

## #15. 대학병원/응급실(낮)

침착하게 들어서는 연수. 그 옆에서 안절부절못하며 부촉하는 해경.

시간 경과.

베드에 누운 연수, 자꾸 주변의 누군가를 신경 쓴다. 조금 진정한 해경.

해경 발톱은 괜찮나...?

연수 몇 번 깨진 적 있어. 원래 항암 하면 좀 그래. 걱정 마.

(드라이버 빼죽 나온, 긴장 풀려) 싸우러 왔어? 그건 왜 거기 꽃았어?

해경 (애써) 나 중딩 때까지 싸움 잘했지. 너 괴롭히던 씨름부 애 내가 말로  
 조저놔잖아. (가만 보다가) CT 찍는 거 보고, 집 데려다줄게.

연수 (핸드폰 보는) 아마 미주 좀 있다 올 거야. 내 차 미주가 갖고 다녀.

연수, 의사 가운 입을 사람들을 자꾸 신경 쓴다.

응급실 레지던트 와서 체크하고

그때, 대장암 전임의 이석(35세), 들어온다.

이석 (레지던트에게) CT는 바로 찍을 수 있지? (연수 보며) 수술 3주

남겨두고 컨디션 조절 잘하라니깐. 황연수. 두 번째 더 조심해야 돼.

연수 (약간 굳은 채고, 해경을 신경 쓰는)

이석 (연수 굳은 표정 보는데, 그제야 해경을 발견)

해경 (시선 피한 채, 연수에게) 나 잠깐 화장실 좀... (나가려는)

이석 김해경...? 김해경 맞지?

해경 (잠시 굳은 채로 멈춰 서는)

간호사 (다가와서) 황연수 환자분 CT 준비되셨어요.

## #16. 대학병원/영상의학과 앞(낮)

어색히 서 있는 해경과 이석.

흰 가운에 '전임의 이석' 보는 해경.

이석 3기 상태로 와서 수술하고 항암 5년 차 끝났고. 완치 받고 클린했는데  
 미세하게 전이돼서. 나빠지기 전에 수술하는 거니깐 걱정 마.

연수 병원에서 만났어. 우리 교수님한테 수술받았거든.

해경 (드라이버 쥔 양손을 뒷짐 졌고, 조금 충격이고) ...

이석 변한 거 없이 그대로다. (주머니 뒤적) 명함이 없네. 넌 뭐하며 지내?

해경 (경직) 문서 편지 대신 써주는 일 해요.

이석 (가만 보다가) 인생 참 아이러니다.

해경 ...

이석 아니, 딴 뜻은 아니고. 너 학교 그렇게 그만두고,

해경 (피하려) 그땐 다 어렸으니깐 이해해요. 애들이 뭐 그렇지. 괜찮아요.

이석 (좀 보는) 그치 어렸지.

해경 저 진짜 괜찮아요...!

연수 CT 다 찍었을 것 같으니 먼저 가볼게요. (가려는)

이석 (살짝 잡으며) 저기 시간 되면,

어깨 확 빼는 해경, 들고 있던 드라이버 떨어뜨린다.

자신의 반응에 스스로 좀 당황하는 해경.

이내 드라이버 줌고 고개를 드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 연수가 서 있다.

연수 (말 더 오가지 않게 하려) 해경아 미안한데 부촉 좀.

이석 (보는)

해경 어. (부촉하는)

연수 가자... (데리고 나가는)

## #17. 연수 동네(밤)

드라이버만 만지작거리며 걷는 해경. 해경의 안색 살피며 걷는 연수.

해경 (주변 보다가 애써 밝은 척) 야, 우리 동네랑 가까웠네.  
연수 신세 저서 미안. (이석 신경 쓰이고, 드라이버 보는) 그거,  
해경 (건네주려는) 아, 맞다.  
연수 가지라고. 가게에 드라이버 정도는 있어야지.  
해경 괜찮은데,  
연수 몇 개 더 있어. 난.

드라이버 보면, '묵묵'이라고 새겨진 걸가죽. 나를 고급스럽고.

해경 묵묵? 야, 이거 의외로 고급지다. 너가 만든 건가?  
연수 어. 케이스만.  
해경 (종알종알) 이런 것도 만들어? 신기하네. 와. 이걸 어케 만드는 건가?  
하긴 너가 중딩 때도 손재주가 좋았지. 점토 수업 때 다 도와줬잖아.  
연수 (그런 해경을 가만히 보다가) 저기,  
해경 (그제야 연수 얼굴 보는) 어?  
연수 괜찮나...?

FLASH CUT #16 떨리는 손으로 드라이버 줍는 해경. 연수 시점 솟으로.

해경 (되레 더 밝게) 뭐가? 안 괜찮을 게 뭐 있어. 다 괜찮지.  
연수 (가만히 보는데) ...  
해경 나 진짜 괜찮아!  
해경(E) (#16) 저 진짜 괜찮아요...!  
연수 저기,  
해경 뭐. 자꾸.  
연수 괜찮지 않을 땐, 괜찮지 않아도 된다고...  
해경 ...

연수 불편하면 불편하다...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 해도,  
해경 (피하려) 너 왜케 혼자 심각해.

그때, 연수 핸드폰 벨 울린다. 보면, '미주' 떴다.

## #18. 연수 아파트 앞(밤)

주차장 쪽으로 걸어오는 두 사람. 차에서 내리는 미주, 생기 없는 얼굴, 양손에 쇼핑백 들었다. 해경에게 살짝 목례로 인사하고 별 반응 없이 연수에게 차 키 건넨다.

미주 (걱정스럽지만 조금은 사무적인) 일 갑자기 생겨서.  
반찬 세 개. 국은 들어가자마자 냉동실 넣었다가 해동해서 먹고  
타히보 가루도 넣었어. 우려서 물처럼 하루 세 번 마셔.

미주, 연수를 보는데 운동화 끈이 풀려졌다.

아이 혹은 환자 대하듯 끈을 묶어주며

미주 차 주유해놓긴 했는데, 웬만하면 오빠 운전하지 말고.  
연수 (발 살짝 뒤로 빼며) 내가 할게. (자기가 운동화 끈 묶는)  
미주 (보는) 그럼, 간다. 병원 갔다 왔으니깐 자기 전에 체온 재고.  
전화 말고 카톡하고. 널은 연락 잘 안 될 수도 있어.

말 없는 두 사람. 으레 그러했다는 듯하다. 그때 전화 오는데 받질 않는 미주,  
해경에게 살짝 인사하고 간다. 가면서 핸드폰 확인하는 미주.

연수 (해경에게) 너도 늦었다. 조심히 가. (짐 들고 간다)

해경, 아파트 쪽을 보면, 1층 복도 첫째 집으로 들어가는 연수가 보인다.  
좀 걱정스레 바라보다가 이내 발걸음 돌리는 해경.

## #19. 해경의 원룸 건물(아침)

팸플릿 묶음 들고, 쇼핑백 멘 해경, 우편함에다가 팸플릿 한 장씩 꽂는다.

## #20. 교차. 해경의 원룸 건물 앞+안동 한옥(아침)

건물에서 나오는 해경. 그때, 카톡 알림. '하늘보다 높으신 수님'한테서 온 카톡.

안동의 한옥 대청, 커다란 화선지와 먹, 붓. 기품 있게 글씨 쓰는 생활한복 입은 해경 아버지, 서예가 김수. 화선지 끝에 낙관 '수' 찍는다.

이내, 돋보기 쓰고 핸드폰 들여다보는 김수.

미간에 인상 써가며 열심히 카톡 작성.

해경, 아빠한테 온 카톡을 보면, 작문처럼 길게 온 장문의 카톡.

화면 옆으로 카톡 내용이 서예 글씨체로, 세로 내림으로 획획 써지는

김수(E) 딸아 아침은 먹었느냐? 이 아빠는 강된장 먹었다.

무탈하게 잘 지내느냐?

항상 몸가짐 마음가짐 바르게! 컴퓨터로만 글 쓰지 말고

시시때때로 연필도 잡고!

또한 무처부당! 무슨 일이든 감당 못 할 것이 없다.

열심히 살아갈 김해경이 되거라.

히죽 웃으며 카톡 읽는 해경.

해경 작문 시간이야? 아빠들은 왜 항상 카톡에다 작문을 해, 작문을.

옛그제도 카톡 했으면서. 진짜. (웃어보는)

김수, 카톡 '1' 이 없어지길 기다리는데, 드디어 없어진다. 잔뜩 답장 기대하는데

덜렁 '아빠도 오늘 핫팅요'와 귀여운 이모티콘만. 왠지 모르게 서운하다.

김수 이 녀석은, 표현이 쯤. 심히 인색해... 큼큼.

딸 생각에 잠시 째렸다가 이내 미소 짓는 김수, 다시 먹을 간다.

## #21. 세탁소(아침)

쇼핑백에서 투피스 꺼내주는 해경. 세탁소 사장, 옷을 본다.

사장 드라이? (옷 보다가, 어깨 얼룩 발견) 요것도 지워야겠네.

해경 지워지겠죠? (요금 내려고 지갑 꺼내는데)

사장 ! 빌라 처자는 공짜라니깐.

해경 세상에 공짜가 어딴다고.

사장 여겼다. 자네가 써준 탄원서 덕분에 내가 이 건물주랑 대판 붙을 때 아주, 코를 눌러버렸는데 내가 요깃 드라이 값 받아? 말아?

해경 사장님. 자꾸 그러시면 저 단골 세탁소 바꿀 건데.

사장 고건 니 사정이고. 여튼 1년 동안 드라이 값 공짜 동결. 토 달지 마. (옷 주머니 살피며) 글솜씨가 그리 좋으면 얼마나 좋아?

아주, 살면서 하고픈 말들 싹 다 하고. 편지로도 여럿 심금 올렸잖어.

해경 울긴 누가 울어요.

사장 (팸플릿 보며) 고 거 몇 장 두고 가. 담번엔 정식으로 돈 내고 부탁할 기니깐. (옷 주머니에서 종이 발견, 꺼내주는) 요깃 챙겨.

해경 (종이 보면서 흠칫, 주머니에 싹 넣는)

## #22. 세탁소 앞(아침)

빈 쇼핑백 들고 나오는 해경. 그때, DM 알림 소리.

'진심레터님!! 전 남친이 갑자기 결혼한다네요. 죽이고 싶어요...

날 놓친 거 피눈물 나게 피드 10개만 부탁해!' 보다가,

문득 주머니에서 종이 꺼낸다. 축하 편지다.

## #23. 거리(낮)

힘없이 걸던 해경, 은행 ATM 기기가 보이는데

## #24. 은행 ATM(낮)

문서 세단기 앞에 선 해경, 축하 편지를 죽- 찢어 세단기에 조금씩 넣는다.

해경 평생을, 부끄러운 줄 알아라 김해경... 이런 걸 써서 읽은 거...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을 세단기에 넣는다.

## #25. 해경의 원룸(밤)

책상에 앉아, 바탕화면에 '축하 편지' 파일을 호기롭게 삭제하는 해경.

이내 휴지통 들어가 비우기 누르려는데...

근데, 차마 비우기 버튼을 누르지 못한다.

도대체 왜?! 이내 못 본 척, 휴지통 창을 끄고, 정신 차리려 애꿎은 볼만 탁탁.

일하러 '이별편지' 폴더 들어간다. '황연수' 폴더를 만드는 해경.

한글 파일 열고 녹음기를 켜고, 녹음파일 듣는다.

연수(E) 7년 사귀었어. 두 달 전부터였나. 다른 사람 만나. 회사 사람.  
우연히 봤어. 미준 나 아는 거 몰라. 그냥 모른 채 끝낼 거야.  
덮고 끝내고. 그냥 가끔 안부하고 경조사 가주는 친구로 지내게.

녹음 내용 들던 해경, 화 같은 뭔가 점점 올라오는데

해경 친구...? 지가 무슨 평화사절단이야. 왜 참아... 왜 모른 체해?  
나쁜 것들은 따로 있는데. 경조사? 친구우?!

FLASH CUT #2 신랑 민혁 "친구가 이럴 땐 좋아."

갑자기 화가 치솟고, 연수에게 전화를 건다.

해경 (대뜸) 나한테 불편하면 불편하다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  
말하라며. 너 도대체 무슨 맘으로 그러는데. 남자 자존심 뭐 그런  
거야?

연수(F) 해경아...?

해경 나 찢단 건 차치하고.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글을 못 쓰겠어.  
너 이렇게 아픈데, 곧 수술하는데 단 남자 만난 여친 왜 덮어줘?  
애초에 의뢰 같은 걸 할 사안인가 싶어.  
편지 쓸 문제 아니라 가서 답판 짓고 삼자대면하고.

연수(F) ...

해경 듣고 있어? 왜 피드백이 없어. 가타부타 말이 있어야,

그때, 전화 너머로 와장창, 우당탕탕 소리.

해경 황연수! 괜찮아?

전화 끊인다. 다시 걸면, 전화기 꺼져 있어 연결 멘트 나온다.

해경, 지갑 하나 들고 나가는데.

## #26. 도로(밤)

택시를 잡는 해경, 그사이 연수에게 계속 전화 걸지만 전화기 꺼져 있다.

## #27. 연수 아파트/복도(밤)

문 두드리는 해경. 기척 없다. 연수에게 전화 걸어본다. 그제야 받는데

해경     괜찮아? 어디야! 전화 왜 계속 꺼져 있어? 집에 아무도 없고. 어딘데?  
 연수(F)   ...어. 잠깐만...  
  
 전화 바로 끊긴다. 그때 문 조심히 열린다.  
 후드티 입은 연수, 좀 창백한 얼굴인데

## #28. 연수 아파트/거실(밤)

    좀 긴장한 채로 현관 들어오는 해경.  
 맨발인 연수, 깨금발로 거실로 간다.  
 바닥엔 공구함의 온갖 나사, 압정, 시침핀을 한쪽에 모아뒀고,  
 세척액이 흥건하다.

연수     조심해... 다른 건 괜찮은데 압정 있어서. 한쪽으로 치워놓긴 했는데.  
 해경     어... 너 괜찮아?  
 연수     압정 살짝 밟았어. 지금 소독하긴 했어.

    거실 들어서는 해경. 선반 테이블 모두 목재. 목재 핸드폰 거치대에  
 핸드폰 충전 중. 깨금발로 걸던 해경, 세척액 밟고 휘청하는데 뒤에서  
 잡아주는 연수. 머쓱한 두 사람. 발바닥 욱신거리는 연수,  
 앉아서 발바닥 마저 소독한다. 엄지발톱 3분의 1쯤 없다.

해경     야, 너 발톱... 접때,  
 연수     자고 나면 저절로 자라나는 게 손발톱이랑 머리칼. 괜찮아.  
 (후드티 만지며) 해경아, 이것 좀. 머리 위로 공구통이 떨어져서.  
 다치진 않았는데 옷으로 들어간 것 같아.

해경     (후드티 보면 못, 압정 따위 붙어 있고,  
 모자 부분 뒤집으면 거기에서도 떨어지고)

연수     등에... 뭔가 있는데.  
 해경     (조심히 털어보는)

연수     압정 걸렸나?  
 해경     (후드티 보는, 손을 넣을 수도 없고)  
 연수     (등에 손 대보려는데 안 닿아 난감한)  
 해경     벗어. 벗어서 털어. 안 볼 테니깐.  
 연수     보면 뭐. 환자 몸이 남자 몸인가...  
 해경     (시선 피해 다른 곳 보는)  
 연수     (후드티 벗다 뭔가 긁혔는지 따끔) 아...  
 해경     괜찮아? (보면, 연수 몸 잔근육 남았지만 갈비뼈 보일 정도로 마른)  
 연수     등 긁혔나 봐... (후드티 뒤쪽에 걸린 시침핀 빼는)  
 해경     ... (등에 발갈게 긁힌 자국) 그냥 두면 좀 그렇겠다. 소독만 좀 하자.

    해경, 좀 어색한데, 소독하고 반창고를 조심히 붙여본다.  
 살 안 닿게 조심하지만 손끝이 맨살에 조금 닿는다.  
 두 사람, 좀 더 어색하다. 등에 멍이 많은데

해경     멍이... 많다.  
 연수     볼품없어.  
 해경     (뒷모습 가만 보다가) ...너 아직 괜찮아.  
 연수     (몸 움츠리는) 미주하곤 일이 년 전부터 의리로, 환자 보호자로  
 그렇게 버텼어. 남녀 사인 진작 끝났고.

해경     ...  
 연수     어느 순간부터 책무만 남았어. 서로한텐.  
 갠 내가 매사 신경 쓰여 못마땅하고 애처럼 다그치고 화내고  
 난 그런 개가 점점 갑갑하고 자존심 상하고. 서로한테 짜증뿐이고  
 진작에 끝났는데 나한테 헤어지자 말 못 하고, 나도 못 하고.  
 그렇게 2년을 붙잡고. 서둘 걱정하면서도 또 미련스런 서로가 밀고.

해경     (가만히 보다가) 의뢰 왜 했어? 너가 직접...  
 연수     (고민하다가) 그날, 결혼식장서 봤어.

## #29. 회상. 예식장/비상계단(낮)

핸드폰 들여다보는 연수, 연락처 ‘우리 미주’만을 본다. 그때, 아래층 계단으로 누군가 들어온다. 해경이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 해경.  
웅크려 앉은 채로 멍하니 축하 편지를 보는데,  
종이 위로 눈물이 뚝 떨어진다. 그 모습을 보는 연수.

연수(E) 결혼식 끝나고 미주 만나려 했어. 헤어지자 말하려고.

## #30. 회상. 자동차 안(밤)

운전석에 앉은 미주. 조수석에 앉은 연수의 눈에, 붉은 립스틱 바른 미주의 얼굴이 보인다.

연수(E) 근데 미주 얼굴 보는데 죽어도 말 못 하겠더라. 바람피우는 거 안다고.

## #31. 연수 아파트/거실(밤)

연수 자존심. 그거 아예 아니라고 말 못 하겠지... 피하고 싶었는지도.  
편지 한 장으로, 이 상황을... (생각에 빠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해경 ...

연수 수술 전 무슨 결정은 해야겠는데 입은 안 떨어지고.  
내 속 뒤집어 까서 보여주고 싶은데, 것도 못 하겠고.  
그날, 너 우는 거 보는데 뭘 사정인진 몰라도 너도,

해경 ...

연수 미안하다. 너 입장에선 좀 당황스럽지.  
(담담히) 덮고 싶어. 개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덮고, 모른 체 끝낼 거야.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 관계 진짜 끝났어. 미련 없어.  
수술 끝나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다시, 다. 다른 사람으로.

해경 (연수 보는)  
연수 너한테... 내가 진짜 숨을 곳이 없다. 몸 이런 것도 나 이렇게 사는 것도. 다 알아서. 쪽팔리다.

해경 나 거지 같은 모습, 너도 다 봤잖아.  
그리고 (이석 생각나고) 내 꼴도 그닥 별로야.

연수 ... (이내 편히 웃어보려) 인생 참 뭐 없다.

해경 (편히 표정 지어보며) ...응. 참 뭐 없네.

연수 응. 진짜 없지.

해경 (이내 전환하려) 근데, 그 표정 뭐야.

연수 어?

해경 등만 봤는데 너 표정이 보여.

연수 (좀 웃어보는)

해경 (등을 보다가, 바닥에 놓인 옷을 털어 건네주며) 점은 그대로네.

연수 (멈칫) ...

해경 (미소) 흠쨌다. 입어.

연수 (자기도 모르게 살짝 웃음 나지만 정색) 기억하지 마.

해경 (같이 웃어보며) 뭘?

## #32. 회상. 중학교 운동장(낮)

몇몇 남학생만 축구한다. 수돗가, 땀에 젖은 뺨뺨머리 연수(중1),  
웃통 젖어 티셔츠 벗고 얼굴 씻는데 뒤통수 따끔하다.  
보면, 해경(중1), 연수 등을 뺨히 본다.

어린 연수 (뒷걸음질치며) 으아악!!

어린 해경 (곰곰이 등을 곱씹으며) 점이 꽤 커.

어린 연수 (양손으로 몸 가리며) 뭐야...! 김해경!!

어린 해경 (진지) 원래 컸을까...?

어린 연수 뭐가... 야!

어린 해경 음음. 몸이 자라면서 점도 점점 자라는 게 분명한군. (고개 끄덕끄덕)

어린 연수 (창피해서, 얼굴 빨개지고)  
 어린 해경 (한발 다가서며 얼굴 들이미는)  
 어린 연수 (흠칫, 뒤로 물러나는) 오지 마.  
 어린 해경 (한발 또 다가서는)  
 어린 연수 오지 말라니깐! 오지 마, 경고... 주의... 준다.  
 어린 해경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 꺼내서 획 주는)  
 어린 연수 (보면, 편지 앞면에 '해경이에게 연수가' 쓰였고)  
 어린 해경 내 대답은,  
 어린 연수 (꼴깍, 심장 쿵쿵하다가, 긴장감 고조)  
 어린 해경 (눈을 뚫어지게 보는데, 두구두구두구, 이내) 노!  
 어린 연수 (헉...)  
 어린 해경 (배시시 웃어보는, 편지 주는)  
 어린 연수 (입 썩 나와, 도망치듯 뒷걸음질치며) 그건 버리든 말든 알아서 해!  
 어린 해경 야, 쌍가마! 같이 가!

내달리는 연수.

편지 흔들며 뒤쫓는 즐거운 해경. 운동장 빙빙 추격하는 두 사람.

해경(NAR) 좋았던 순간들이...

### #33. 연수 아파트/거실(밤)

정리된 거실. 선반에 놓인 연수 사진.

동해 밤바다에서 목수 동료들과 웃통 벗고 함성 지르며 찍은 사진.

근육 다부지고 듬직한 20대 초반의 연수 모습.

해경(NAR) 왜 비겁하게 서글퍼지냐. 황연수. 너도 변했고. 나도 좀 변했다.

'묵묵' 새겨진, 여러 개의 가족케이스 드라이버를 보는 해경.

FLASH CUT #16 바닥에 떨어진 드라이버를 줍는 해경의 시점 숏.

이석(E) (#16) 인생 참 아이러니다.

고개 돌려 베란다 쪽을 보는 해경, 연수가 창밖 보며 앉았다.

베란다로 가는 해경.

### #34. 연수 아파트/베란다(밤)

연수 옆에 앉는 해경. 같이 창밖을 본다.

해경(NAR) 그래 알아. 다 알아. 근데,

연수(E) 그거 알아?

해경 (연수를 보는)

연수 너 따라 성환고 갔던 거.

해경 (작게 미소)

연수 집 앞에 남고 있는데 버스 타고 30분 넘는 남녀공학 간 거.

(해경을 가만히 보는) 너 고2 겨울에 학교 그만두고...

해경 (피하려) 연수야, 우리 그 애긴 하지 말자. 나 다 잊었어.

연수 ...

해경 ...그리고 내가 다니기 싫어서 그만둔 거야. 졸업 못 한 게 뭐라고.

(연수 보더니) 안 추워? 난 좀 춥다. 몇 시지? (시계 보는, 일어서려)

연수 ...지금 가게?

해경 어? ...가야지... 늦었으니깐...

연수 그치. 가야지. 늦었으니깐...

두 사람, 뭘지 모르게 어색하지만 서로 더 대화하고 싶어 아쉽다.

해경 밤샘까...? 그냥. 옛날처럼 밤새 얘기하고 과자 먹고 수다 떨면서.

연수 (좀 멍하다가) 동해 갈까?



해경 어?  
 연수 그냥. 오늘인 거 같아서. 갈 수 있는 게.  
 해경 (좀 당황스러운)  
 연수 (바로 후회, 미소 지으며) 나도 참. 갑자기 무슨 동해냐.  
 미안. 데려다줄게. (일어서는) 잠깐만.

순간 내뱉은 말이 좀 민망한지 부엌 쪽으로 가는 연수.  
 해경, 연수의 뒷모습을 본다. 그리고 시선이 선반 위에 있는 동해 사진으로 향한다. 그리고 이내 결심한다.

해경 가자 지금.  
 연수 (순간 못 듣고) 어?  
 해경 옷 입어. 가자고.  
 연수 야, 나 그냥 해본...  
 해경 뭐해. (일어서는) 오늘 가자. 지금 가는 거지 뭐. 인생 뭐 없잖아!

### #35. 연수 아파트 단지 입구(밤)

두꺼운 점퍼 입은 연수. 연수 점퍼 입은 해경. 추워서 발 동동 구르며 택시 기다린다. 좌우로 움직이던 두 사람, 손등이 서로 툭 부딪히는데 어색하다. 그때 택시 와 선다.

### #36. 택시 안(밤+새벽)

막상 호기롭게 나왔지만 뭔가 어색한 두 사람, 한참 말이 없다.

해경 돌아가긴... 늦었겠지?  
 연수 돌아가긴... 늦었을걸.  
 해경 (어색히 웃는) 근데 동해는 왜?

연수 첫 수술 전에, 수술 끝나고 회복되면 꼭 가야지 했지.  
 근데 막상 수술 끝나고 회복했는데도 핑계 대고 못 갔어.  
 못 가겠더라.

해경 동해가 미국도 아니고. 차 타면 세 시간이야. 왜 못 가.  
 연수 (담담히 있다가) 무서워서.  
 해경 ...  
 연수 (좀 웃어보는) 죽는 것도 아닌데.  
 해경 (연수 보는)

시간 경과.  
 잠든 해경과 연수. 새벽의 어스름이 창 안으로 들어온다.

기사(E) 저기, 어달리 해변 도착했어들.

### #37. 어달리 해변(새벽)

아직 어둠이 내려앉은 해변,  
 막상 왔는데 뭘 해야 할지 몰라 바다 앞만 서성인다.  
 썰렁하게 자판기만 덩그러니 있다. 연수는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는데

해경 하고 싶은 거 없어?  
 연수 해경아... 우리 한... 십 분만 각자 시간 좀 가질까?  
 해경 어? (연수 보는) 어.

바다를 보던 연수, 갑자기 점퍼를 확 벗더니 뛰어가면서 함성을 지른다.  
 미친 사람처럼 고향치는데, 다른 사람 같다. 꽉 눌러 있던 것들이 쏟아져 나오듯 제어 못 하고 터져 나온다. 그 모습 좀 안쓰러워 보이지만, 이상하게 시원해 보이기도 하는데

좀 떨어진 곳으로 해경도 달려가며 고향 질러본다. 주먹 꼭 쥐고 소리

내지른다. 주변 신경 쓰지 않고, 미친 척 허공에 마구 고함친다. ‘야, 병@&%!  
너 거지 같아. 너 따위는 @&#!!’ 욕 비스듬한 말들 난무한다. 허공에 샷대질.  
그때 스치는 기억들.

FLASH CUT #5 이어서, 신랑 신부 퇴장하는데 밝게 박수치는 해경.

FLASH CUT #29 비상계단에 웅크려 앉은 해경.

종미(E) (#8) 넌 왜 자꾸 널 속여?! 김해경. 너 어찌다 이렇게 된 거냐.

기억들이 마구 스친다. 화난 마음들이 슬픈 마음으로 변하는 해경.

소리 점점 사라지면서 두 사람의 모습이 느리게 보인다.

모래 움켜쥐더니 바다를 향해 집어 던지는 연수.

여전히 입 모양은 욕을 씨뿔이며 허공에다 주먹질, 니킥을 날리는 해경.

같은 바다에 있지만 다른 공간에 있는 두 사람. 각자에게 필요했던 시간들.

그러다 해경, 문득 옆을 보는데 연수가 보이지 않는다. 주변을 둘러봐도 없다.

저 멀리 바다에 검은 머리 같은 것이 떠 있다. 불안감 엄습하는데

연수(E) (#36) 무서워서. 죽는 것도 아닌데.

해경, 미친 듯이 바다 쪽으로 가, 뛰어들려고 한다. 그때, 뒤에서 확 안는 연수.

연수 (뺨을 확 때리며) 너 뭐 하는 자식이야! 김해경!

해경 너, 너... (바다 자세히 보면, 그냥 부유물이고) 너가...

연수 (바다 쪽 보는데) 병 걸렸다고 다 바다에 빠져 죽어? 내가 왜 죽어!

해경 ...야! 어디 갔었어! (뺨 부여잡으며) 근데 왜 때려! 미친놈아!

연수 너... 뛰어드는 줄 알고. (민망해진) 최근에 너 이런저런 사건도 있고,

해경 (이마에 꿀밤 콧) 내가 왜 죽어! (짜려보는) 갑자기 어딜 갔던 거야.

연수 너가 하두 정신없이 욕하길래...

해경 (민망)

연수 (주머니에서 캔 커피를 꺼내는)

### #38. 어달리 해변(새벽)

나란히 앉아 파도를 가만히 보는 두 사람.

해경 목 아파. 춥고. (연수 점퍼에 몸을 파묻는)

연수 미안하다... (캔 따서 주는, 이내 이마 만지며) 나 흑 난 것 같아.

해경 엄살 피우지 마. 깃털처럼 살짝 콩— 했어. (살포시 웃는, 커피 마시는)

연수 (미소, 커피 마시는, 한참을 파도만 보는)

해경 사는 거 참 이상해. 진짜 싫어 멀어지려 한 것들에서,  
잘 못 벗어나.

연수 뭐에서 그러고 싶었는데.

해경 ...그냥, 별거 없어. 옛날 기억들. 누구나 다 있잖아. 그런 거.

연수 (생각하다가) 너... 지금 대필하는 일,

해경 왜. 이상해?

연수 이상하긴.

해경 (파도 보다가) 정작 나 하고픈 말은 쓰지 못하고 헛짓거리만 하고  
남들 글만, 것도 진심 뭐다 하면서 써주는 거 좀... 우습지.

연수 안... 우스운 사람 있을까.

해경 (연수 보는)

연수 우습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긴 한 건가. 우습게 살면 좀 어때.

(점퍼 여미는) 살면 되는 거지. 좀 우스우면 어때. 우스운 게 뭐.

해경 ...

연수 (파도 보며) 어떻게든 살아 있으면 되지. 살아내면 되지.

그니깐 지금은, 좀 우스울지 몰라도 결국 잘 살아내고 있어.

해경 (연수 옆모습 보는, 마음이 편해지고)

연수 아, 맞다. (신발과 양말 벗으며) 이거 하고 싶어서 온 거야.

(맨발로 모래 속에서 발가락 움직여보는) 모래로 놀던 거.

어렸을 땐 엄마아빠랑 자주 했었는데. 요새 자꾸 이게 생각나더라고.

해경 (발톱 보며, 걱정) 모래 닿으면,  
연수 안 죽어. 이런 길로 안 죽어. 나 절대 안 죽어.  
해경 자꾸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런 말 하지 마. 당연한 건데.  
연수 (모래알 보며) 응.

애들처럼 발로 모래알 꼼지락거리는 연수. 해경도 신발 벗고 같이 해본다.  
해경을 향해 애처럼 웃어 보이는 연수의 미소. 그 미소를 물끄러미 보는 해경.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들리고 시시각각의 파도 모습.  
깊은 바다를 바라보는 두 사람.

### #39. 택시 안(아침)

창에 머리 기댄 채 굶아떨어져 자는 두 사람. 침까지 흘리는 해경.

시간 경과.  
연수 아파트 앞에 도착한 택시. 졸던 해경, 그런 해경 깨우는 연수.

연수 간다.  
해경 (부스스) 가. 가서 잘 수 있음 좀 더 자고.  
너 덕분에 바달 제대로 봤어. 당분간 안 봐도 될 것 같아.  
연수 조심히 가.  
(왕복 택시비 35만 원 내며) 기사님 근처 10분만 더 가주세요.  
해경 반명 할 거다. 계좌 알려줘.  
연수 싫다. (미소)

내리는 연수. 해경 집 쪽으로 향하는 택시. 해경, 점퍼를 보다가 메시지 보낸다.  
'야, 너 옷.' 바로 답장 온다. '나중에 줘.' 그리고 메시지 하나 더 오는데

연수(E) 오늘 고맙다.

해경 (가만히 보다가) 나아말로 고맙다. 숨통 좀 트였어.

'나도, 고마워' 보내는 해경,  
점퍼가 목까지 올라왔고 점퍼 속으로 몸 폭 넣어본다.

해경 좋은 냄새 나네... 짜식...

### #40. 연수 아파트/화장실(아침)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연수. 수증기 찬 거울,  
손으로 닦아내면 마른 몸이 보인다.  
등으로 손을 뻗어 만져보면, 반창고 끝이 만져진다.  
뭔지 모를 감촉이 남은 듯하다.

### #41. 해경의 원룸(밤)

컴퓨터 앞, 휴지통에 파일들 중 '축하 편지' 가만히 응시하는 해경.

연수(E) (#38) 그니깐 지금은, 좀 우스울지 몰라도 결국 잘 살아내고 있어.  
해경 (비우기 버튼 클릭하며) 그래. 좀 우스웠음 어때.

화면에 '선택한 항목을 완전히 지우시겠습니까?' 뜬다.  
삭제 클릭하면, 완전히 삭제.

시간 경과.  
책장 위에 작은 캐리어 꺼내는 해경. 열면, 박스 안에 중학교 때까지  
주고받았던 빛바랜 편지 따위 들었다. 그중 한 장의 편지(#32),  
짧은 고백 쓰였다.

어린 연수(E) 안녕, 김해경. 나 너 뒷자리에 앉는 황연수. 한 달 전부터 널 좋아하는데, 넌 날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난 너가 좋은데 우리 친하게 지내자. ps 너 쌍가마인 거 알아. 나도 쌍가마야. 쌍가마 친구 어때?

열게 웃어보는 해경. 뒤통수 만져본다. 쪽지 아래쪽에 해경의 답장 쓰였다.  
'쌍가마 친구 좋아. 근데 난 이석 오빠 좋아해.  
고등학교 가면 고백할 거야. 진심을!  
영문 모를 쓴 마음 올라오지만, 다른 편지들 훑어본다.

해경(NAR) 예전엔 우리 모두 마음을 전하는 어린 작가였다.  
진심을 말하고 싶을 때면, 그걸 못 참고 꼭 썼지.  
밤새 고민해 쓰고, 주지 못해 공공 앓을 때도 있고  
때론 친구한테 대신 써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물건들을 이리저리 보다가, 연수와의 교환일기가 보인다.

해경(NAR) 하지만 결국 마음을 전하고 싶어하였다.  
그땐 그게 세상의 유일한 일 같았으니깐.  
나이가 들수록 진심은 점점 단전 아래 숨는다.  
그렇게 어딘가에 숨죽여 사나.  
차곡차곡 쌓인 기억들이, 숨죽일 빌미를 마련해준 걸까.

열어보면 시시껄렁한 내용들뿐. '너랑 나랑 공통점 발견! 울 둘 다 널 솔직해.  
크크. 역시 쌍가마들!' 해경, 생각에 잠기다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본다.  
'황연수' 폴더 가만히 보다가 이내, 뭔가 결심한 듯 연수에게 메시지 보낸다.

해경(E) 널 좀 만나자. 의뢰에 대해서 할 말 있어.

바로 답장 오는데 '널은 좀 힘든데.'

## #42. 대학병원/커피숍(낮)

구석 쪽에 앉아 기다리는 해경. 안으로 들어오는 연수, 해경 앞에 앉는다.

해경 (대수롭지 않게 말하려) 아프니깐 상전이다. 맞지? 내가 여기까지 친히 오고. (연수 보면, 밝은색 옷과 모자고) 근데 이 밝음은 뭘까.

연수 ...그냥 뭐. 또 오게 해서 미안하다. 당 검사 날이라.  
수치 약간 애매해서 수술 전 체크한대서. 뭐 마실래?

시간 경과.

생크림 올라간 커피 후룩 다 마시는 해경, 이내 연수를 가만히 본다.

해경 나, 내 맘 하나 솔직지 못해서 이렇게 지냈어.

연수 ...

해경 근데 넌, 넌 그러지 마. 황연수. 넌 안 그랬음 좋겠어.

연수 ...

해경 수술 전 다 떨치고 싶다 했지. 수술 후엔 다른 사람처럼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그럼, 다 말해. 솔직히. 뭐든. 그게 서로한테 좋아.

그때, 간호사들과 들어오는 이석, 두 사람 발견.

간호사에게 '난 라떼' 하곤, 오는데

이석 (연수 보며) 당 수치 괜찮아서 다행이다. 수술까지 컨디션 관리 잘하고. (두 사람 번갈아 보며) 근데 요새 미주 씨 안 보이네.

해경 (커피잔만 보는)

이석 몇 년을 그렇게 하기도 힘든 건데. 부모님 어디셨지. 남미 쪽 외교관이셔서 한국 자주 못 들어오신다고. 항암 때 미주 씨가 거의 보호자처럼,

연수 ...

이석 (표정 보다가, 해경 보며) 언제 밥이라도 셋이 먹자. 편하게.

해경 (누르는)

이석 아, 그리고 해경아 너 문서 같은 거 대신 써준다며,  
간호사(E) 이석 쌤, 라떼 나왔어요.  
이석 그건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 (명함 주며) 연수 통해 연락할게. (가는)  
해경 (낮빛 어둡고, 경직된)  
연수 (해경 안색 살피다가) 일단 나가자.  
해경 (움직임 없이 멍하기만 한데)  
연수 해경아.  
해경 어, 미안... 근처에 갈 만한 곳 있나...  
연수 이 근처에,

### #43. 목목 목공소 입구(낮)

두 사람 멈춘 곳, 회색 콘크리트 건물.  
간판 '목목 목공소'. 닫힌 철문을 여는 연수.

### #44. 목목 목공소(낮)

천장 높고 깔끔한 내부. 크기별 원목들 잘 정돈되었고, 벽면엔 수공구들과  
크기별 대패들 진열. 연수, 작업대 쓱 훑으면 먼지들 묻는다. 창문을 열고  
환기시킨다.

연수 한참 달았었어. 일 계속 쉬었거든.  
해경 (내부 보며) 목수 맞추나. 너...  
연수 건물 짓고 내부 만드는 데 3개월 걸렸어. 초창기 댄 클래스도 하고.  
해경 (벽면에 수공구들 보며) 주로 뭘 만들어?  
연수 가구들. 개인 주문도 많이 받고. 일반인들 상대로 가구 클래스도 하고.  
미주 그때 만났어. (해경 쪽으로 가는데 의자 세트가 덩그러니,  
한쪽으로 잘 치우는) 이걸 미주가 만든 거.  
(천으로 잘 덮는) 부모님 선물 드린다고. 아직도 못 갖다드렸네.

미주는 여기 가끔 와. 만들고 싶은 것도 스스로 만들고.  
(해경 보면 낮빛 더 안 좋고 입술 창백한데) 너... 괜찮아? 아까부터,  
체했나 봐... 커피 마신 거.  
연수 (목소리 커지며) 체했으면 말을 해야...! (이석 생각나는) 안 그랬음  
아까 약국이라도,  
해경 (처음 듣는 큰 목소리에 좀 당황) 어...  
  
원지 모르게 화난 연수, 전기포트에 물 올리고,  
구급상자를 열어보는데 연고들뿐.

연수 약이 없네. (뭔가 생각하다가) 따줄까...?  
해경 (도리도리) 뭘 따...?  
연수 잘 따. 내 손도 내가 땀었어. 체하면. 어릴 때 친척집서 지내면서.  
해경 (미심쩍은) 잘... 따?  
연수 (끄덕)  
해경 (물끄러미 보다가) 솔직히 말해. 진실되게. 정직히.  
연수 솔직히 정확히 말했는데. 계속 (해경 눈을 보는)  
해경 (좀 당황해 시선 피하고, 팔을 뻗으며) 그렇다면 내 팔을 너에게  
잠깐 맡기겠다. 아빠도 체하면 항상 따줬거든.

연수, 진지 신속하게 바늘 꺼내 소독솜에 재워두고, 등과 팔을 팡팡 치더니  
피 모은다. 해경이 "아파아파" 앓는 소리 해도 가차 없이 손바닥 탁탁,  
손을 조물조물한다.

연수 (손마디를 끈 같은 걸로 묶곤) 손에 힘주고 꺾꺾 해봐.  
해경 (손에 힘주고 피 모으는) 짬짬. 이렇게?  
연수 장난치지 말고...  
해경 (뭔가 생각하다가 웃는) 근데 왜 너만 만나면 좀 애들 같아지지?  
연수 (툭, 웃음 나오며) 그러네.  
해경 그치. 약간 바보들 같아. 누가 보면 우리.  
연수 (해경 손을 보다가, 순간 손 감촉 인지하는) 편한가.

해경 (같이 감촉 인지하는)  
 연수 (이내 민망하고)  
 ...편하면 사람 좀 바보 같아지나 봐.  
 바보 같아지면 더 솔직해지고.  
 해경 ...  
 연수 (이내, 바늘 꺼내서 신중히 정확히 위치 보며) 탄다.  
 해경 (어색하고) 어...

#### #45. 묵묵 목공소/공터(낮)

자잘한 나무 소품 전시된 공간. 원통형의 나무도 쪽 정리되었다.  
 해먹에 앉은 연수. 작은 원통 원목 하나를 보던 해경, 연수 옆의 해먹에 앉는다.  
 애들처럼 흔들흔들.

해경 (원통 원목 보며) 저걸로 연필꽂이 만들면 딱, 이겠다.  
 연수 고작 연필꽂이?  
 해경 (해맑은) 응. 고작 연필꽂이.  
 연수 (좀 웃는)  
 해경 근데 이거 그네 타는 거 같다. 예전엔 우리 동네서 자주 탔었잖아. 내가  
 맨날 불러내서. 추운데 밤새 수다 떨고. 너가 나 땀에 고생이 많았지.  
 연수 (가만히 생각하다가) 해경아.  
 해경 응?  
 연수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진지하게) 다시 만났을 때부터 말하려 했어.  
 너 학교 그만두고 한참 후에 겨울에 동네 편의점서 마주쳤었잖아.

#### #46. 과거. 편의점 입구(밤)

출입구 뒤편, 편의점 조끼 입은 연수(19살). 고개 숙인 채 들어오려는 사람과  
 부딪힌다. 모자 뒤집어쓴 해경(19살)이다. 두 사람, 눈이 마주치고 서로

당황하는데

해경(E) 그랬었나...  
 연수(E) 나 대학 입학 전에 거기서 잠깐 알바해서.

#### #47. 묵묵 목공소/공터(낮)

연수 너랑 연락 끊기고, 집 찾아가도 너 없고. 그래서 그때 너 만났을 때 막  
 화내고. 앞으로 연락하자고 너 새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해경 어...  
 연수 근데 헤어지기 전에 너가 그랬잖아. 축하한다고... 입학 축하한다고. 꼭  
 연락하자 했잖아... 근데 연락할 수가 없었어. 너 검정고시 준비한다  
 했잖아. 그래서 그땐 너가 나 보면 힘들까 봐... 라고 생각했었어. 난  
 대학 갔는데 넌 자퇴하고 검정고시 보고.  
 해경 ...  
 연수 사실... 너 학교에서 소문났을 때 나 애들 말 믿었어.  
 내가 쪽 너만 좋아했었잖아. 그래서 너가 더 미웠나 봐.  
 해경 ...  
 연수 그렇게 한번 멀어진 게 계속 갈 줄은 몰랐어. 너 학교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 그때 대학 가려면 입시 준비해야 하니깐, 핑계 댔어...  
 해경 어차피 같은 반도 아니었잖아. 고등학교 가선 친하지도 못했고...  
 연수 나중에 사실 다 알게 되기도, 못 다가갔어. 계속 죄책감 들었어.  
 힘들 때 같이 못 있어준 거. 두고두고 후회됐어.  
 해경 ...  
 연수 그때... 미안했다. 해경아. (가만히 바라보다가) 정말 미안했어.  
 해경 (땀 손끝을 아득히 보다가) 응... (연수를 보며) 응.  
 연수 (애잔하게 바라보는)  
 해경 (서로 애잔하게 바라보다가, 이내 작게 미소 지어 보이는)  
 연수 (해경의 미소에 따뜻하게 미소 지어보는)

## #48. 묵묵 목공소 입구(낮)

입구로 들어서려 코너 도는 두 사람. 그런데 서 있는 차.

조수석에서 내리는 미주.

연수, 미주와 눈 마주친다. 해경, 운전석 보면 남자가 앉았다. 잠시 정적 흐른다.

미주 (연수에게로 와, 입을 떼지 못하다가) 의자 가지러 왔어...

연수 (운전석 남자 보는) ...

미주 ...

남자, 차 문 열고 나오는

미주 (억누르던 말 간신히 하는) 나... 오빠한테 안 미안해. 미안 안 할 거야.

서로 직면하는 연수와 미주. 해경, 그런 연수의 모습 보는데

연수 응...

미주 오빠도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연수 (애써) 어...

미주 우리 서로한테 미안한 거 없어...

연수 ...

미주 ...난 더는 할 말 없을 거야. 오빠도 없을 거지...

연수 ...

미주 ...

연수 미안하다...

순간... 왈칵 올라올 것 같은 미주. 고갯 숙여버리는 연수. 두 사람, 꼭 누른 채다.

미주, 연수를 지나쳐 철문 안으로 들어간다.

시간 경과.

뒷좌석에 의자(#44) 싣는 연수. 그 모습 보던 미주, 조수석에 탄다.

차가 곧 출발한다. 떠나는 차를 바라보는 연수. 그 모습을 보는 해경.

## #49. 해경의 동네(밤)

지친 기색의 연수, 좀 떨어져서 걷는 해경.

연수 (멈춰 서며) 집 앞까지 데려다줘야 하는데 미안하다.

해경 뭐가 미안해...?

연수 (보는) ...

해경 뭐가 그렇게 미안해?

연수 ...

해경 딱 남자 만났잖어. 솔직히 다 말하라는 건 이런 거 아녘어.

왜 너가 미안해야 하는데.

연수 ...미안하니까...

해경 그니깐, 뭐가 그렇게 미안해서 그 남자 앞에서 미안하다 고개까지 숙이고... 니가 다 까발렸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들은 너한테 걸린 거고. 근데 왜 니가 미안해?

연수 함부로 말하지...

해경 넌 함부로 쫓 해! 솔직 좀 해져. 지금 이게 니가...

연수 미주는...! 개는... 좋은 애야. 좋은 사람이라서... 미안해.

해경 ...

연수 우리 진작에 끝났는데도 개 나 괜챿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해경 ...

연수 내가 미안해할까 봐. 20대의 몇 년을, 지 청춘 나 땀에 고스란히 허비했는데, 그걸 누구보다 내가 잘 아니깐. 어디 제대로 놀러 가지도 못하고. 흔한 데이트도 잘 못 하고. 내가 그런 지한테 미안해할까 봐 개 때때로 나한테 더 못되게 굴었어. 그러면 내가 좀 덜 미안해할 거라 여겨서. 진작 끝냈어야 했는데. 이기적이게 말도 못 하고,

해경 ...

연수 개가 나한테 안 미안해할 거란 거. 그 다짐이. 그게 미주 진심이야. 그래야 나도 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해경 ...

연수 내가 이기적이어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주먹 짝 쥐며) 지금껏 고마웠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짝 없었는데  
이 상황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 한마디 못 했어. 했어야 했는데...

해경 (그런 연수가 가슴 아파지고) ...

연수 ...

해경 (고갤 숙인 연수를 바라보다가) 해...

연수 (보는)

해경 하라고. 고마웠단 말, 언제든 안 늦어. 할 수만 있다면. 해도 돼.

## #50. 몽타주. 연수의 편지

— 집에 있는 미주의 소소한 물건들을 캐리어에 챙기는 연수. 캐리어 앞에,  
'미주's' 스티커가 붙었다. 물건을 정리하던 연수,  
책상에 앉아 빈 종이를 바라본다.

— '진심 레터' 사이트 대문 이미지와 문구 변경하는 해경. '당신의 진심을  
전해드립니다' 지우고 새로운 문구를 쓰려 한다.

그때 박상철 의뢰인에게 전화 온다.

— 농협 앞의 커피숍. 은행원 옷 입은 남자, 이름표 '박상철' 쓰였다.

박상철 (눈물 머금은) 미치게 헤어지고 싶어 쓴 건데... 진짜 헤어졌...

해경 (난감) 박상철 님... 제가 원래 의뢰하신 분과 직접 대면 잘 안 하는데.

박상철 (테이블에 봉투 올려놓는) 감사하다고요... 꼭 직접 드리고 싶어서...  
(콧물눈물) 깨진 그릇 억지로 붙여놔서. 그래서 감쪽같은 줄 알았는데  
새더라고요... 사랑이 줄줄. 누나 탓 아니라 내 탓이었던 건데.

해경 (난감하지만, 가만히 듣는)

— 목공소. 목공품들을 흰 천으로 덮어두는 연수. 뒤 공터로 가서, 해경이 보던  
원목을 들고 다시 안으로 들어온다. 자리 잡고 앉아, 뭔가를 만들기 시작한다.

— 봉투 든 채로 걷는 해경, 반대편에 연수가 다니는 병원 건물이 보인다.

— 짐 가방 멘 연수, 병원 로비에 서 있다.

해경(NAR) 연수는 마지막 편지를 자신이 직접 쓰겠다 했다.

— 병실로 들어서는 연수, 침대 위에 있는 환자복으로 옷 갈아입는다.

해경(NAR) 그녀가 좋은 인생을 살기 바란다고

— CT 찍는 연수.

해경(NAR) 그리고 지금껏... 지금껏 고마웠다고. 미움도 후회도 원망도 고마움  
앞에선 어쩔 수 없다고

— 연수 방, 책상에 앉아 종이에 한 글자씩 푹푹 써내려가는 연수.

해경(NAR) 한 시절 너로 인해 참 따뜻하고 좋았다고. 지금껏 감사했다고.

— 연수, 캐리어 맨 위에 편지를 넣고, 편한 얼굴로 지퍼를 닫는다.

— 어스름한 새벽, '황연수' 폴더를 바라보던 해경, 이내 폴더를 지운다.

해경(NAR) 난 그런 연수가, 부러웠다.

## #51. 대학병원(낮)

낙엽 떨어지는 입구. 음료수 박스 든 해경, 병원 안쪽으로 걷는다. 건너편에서  
몇몇 의사들과 내려오던 이석, 해경과 눈 마주친다. 해경, 시선 피하려는데  
해경을 보곤 짐짓 무심한 미소 짓고 모른 척 가는 이석. 어떤 기억으로 순간...  
굳어버리는 해경.

해경(NAR) 그날 교문 밖을 빠져나오면서



## #52. 과거. 고등학교 교정(낮)

벚꽃 흩날리는 교정, 학생들 수업 중이고, 운동장에선 체육 수업 중이다.  
교문으로 향하는 길을 홀로 걷는 해경(고2), 엉망인 얼굴로 울음 팍 참고 있다.  
책가방과 양 어깨에 작은 가방 메고 방석을 끌어안고... 그때, 반대편에서  
체육복 입은 이석, 운동장으로 뛰어가다가 해경과 눈 마주친다. 이내 짐짓,  
무심한 미소 짓고 아무 말 없이 가버린다.  
잠시 멈춰진 듯... 해경, 꼭 누르며 교문 밖을 나오는데  
교문 앞, 참았던 눈물이 똑똑 떨어지고 만다. 들고 있던 방석을 떨어뜨린다.

해경(NAR) 내가 정말 잃어버린 건...

## #53. 해경의 원룸(밤)

‘진심 레터’ 사이트 대문 속 이미지에 #52의 울고 있는 해경(고2)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가 사라진다. 화면 속 자신을 멍하게 바라보는 해경.  
정신 차리려 얼굴 문지른 후, 엑셀 파일 의뢰 장부 열고 미입금 확인한다.

해경 (의뢰인에게 전화를 거는) ...이주민 님, 팔순잔치 비용 많이 쓰셨다  
하셔서 깎아서 오만 원에 해드린 건데... 3주나 지났는데 입금이...

전화 푼 끊는 의뢰인. 황당한 해경, 두 손으로 얼굴을 더 문지른다.  
책상 위 거울 속 자신의 모습 본다. 피곤했는지 눈 쾅하고 입술 조금 찢어졌다.  
튜브형 립밤 꺼내 입술 옆에 발라보는데, 연수 입술 터졌던 거 생각한다.  
연수와 주고받은 메시지 보면 해경이 주로 보냈고, 연수 답장 거의 없다.  
스케줄러 보면, 23일에 수술 날짜 표시.

## #54. 진심 커피숍(낮)

근무 중인 해경. 그때 우체국 집배원 들어와 택배 건네주고 나간다.  
보면 ‘보낸 사람 황연수’ 열어보면 뽁뽁이에 쌓인 물건. 원목의 연필꽂이.  
쪽지엔 ‘감사 답례품’이라고 쓰였다. 미소 지어지는 해경. 연필꽂이 앞면 보면  
예쁘게 ‘진심 레터’라고 새겨졌다.

## #55. 대학병원/연수의 병실(밤)

우두커니 창밖을 바라보는 연수.

## #56. 대학병원/복도+연수의 병실(낮)

머리 매우새 만지는 해경, 노크하고 병실로 들어간다.  
연수 자는지 기척 없다. 쇼핑백만 두고 나가려다 잠시 앉아 연수의 얼굴을  
가만히 본다. 알고 있던 익숙한 얼굴 같기도 하고 또 낯선 얼굴 같기도 하고,  
아주 작게 “연수야” 불러보는데 대답 없다. 연수 입술 바짝 말랐고 찢어져  
피딱지 굳었다. 쇼핑백 열면 새 립밤, 소독약 따위와 ‘쪽지’도 들었다. 립밤을  
짜더니, 발라줄지 말지 고민하는데 순간 창피해진다.

해경 (도리도리) 뭐 하나.

립밤을 그냥 자기 입술에 쓱 바른대. 그러곤 조용히 병실 나오는데

## #57. 해경의 원룸/복도(밤)

복도 지나며 핸드폰 보는 해경. 연수에게 ‘오늘은 뭐했어?’ 보냈지만  
여전히 답장이 없다. 현관문에 머리 박고 있는 종미,

해경을 보더니 덩석 안고 얼굴을 부비부비.

종미 ...보드라와.

해경 (밀어내며) 쫘... 뭘 이렇게 고주망태 신이 오신 거야.

종미 (자기 볼 잡으며) 나도 보드라운데... 너도 보드라운데... (울먹) 그냥 우리 다 평범하게 보드라운 사람들인데... 왜 사랑은 안 보드랍냐...

해경 아예... 끝냈어...?

종미 꺼칠어... 내 연애티 너무 꺼칠고 까슬거려. 아파. (아픔의 몸부림)

그 자식... 끝까지... 지 진심 안 말해. 미안하면서...

얼굴에 다 써 있는데, 그 한마디 죽어도 안 해.

해경 (가만히 혼잣말로) 사정이... 있겠지. 말 못 하는.

종미 (훑 보며) 누가 그걸 몰라? 인간 다 사정 있어. 없는 인간이 어딴어.

(가슴 탁탁 치며) 근데도...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절대 영원 안 해. 그걸

알면... 그걸 알아버리면, 망가지고 하찮아져도 진심 나와.

(가슴 탁탁 치며) 나온다고.

해경 ...

종미 나온다고... (입을 틀어막으며) 나올 것 같다고...

현관문 열고 화장실로 막 뛰어나는 종미. 우웩 토하는 소리 격렬.

### #58. 해경의 원룸(밤)

뻘어 자는 종미. 해경, 종미 목 아래 베개 넣어준다.

연수의 답장 없지만 '수술 끝나면 뭐 먹고 싶어? 별은 좀 일찍 갈게' 보내는데,

바로 연수한테서 전화 온다.

연수(F) 해경아. 오지 마...

해경 응?

연수(F)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해경 서운하게 왜 이러실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깐.

연수(F) (경직) 부탁이니깐, 오지 마...

해경 ...무슨 일 있어?

연수(F) 없어. 그런 거. 수술 끝나면 그때 보자. 내가 먼저 연락할게.

해경 ...

### #59. 대학병실/복도+연수의 병실(낮)

복도를 걸어가는 해경, 병실 문을 연다. 침대에 걸터앉아 해경이 주고 간

'나도 작은 답례품' 쪽지를 보던 연수, 쪽지를 주머니에 넣는다.

해경 (문 닫는) 왜 그러는데?

연수 ...

해경 갑자기 왜 그러는데?

연수 (대수롭지 않으려) 뭐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불쑥... 매일 와.

해경 니가 왜 그러는지. 검사 결과 안 좋아?

연수 ...

해경 솔직히 말 좀 해봐. 답답하게 그러지 말고.

연수 (피할 수 없는 거 느끼는) 수술 부위 살짝 넓어졌다. 큰 문제 없고.

걱정할 일 아냐, 예상했던 거니깐. 수술 잘 끝날 거야.

해경 ...그런 걸로 왜 오지 말라 해. 의리가 있지. 전쟁터 들어가기 전까지

끝까지 옆에서, 안 그래?

연수 (좀 단호) 해경아 너한테 고마운 거 많아.

근데 너무 자주 보진 말자. 매일 오는 거 좀 그래.

자꾸 보는 게 난... 그렇다. 좀 두렵고.

해경 ...오는 거 불편해?

연수 그런 거 아냐.

해경 아님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혼자 있는 건데.

연수 (시선 피하며)

해경 도대체 왜 그러냐고. 뭐가 두려운데?

연수 ...

해경 솔직히 말 좀...

연수 너...

해경 ...

연수 너가 두렵다고... 기대할까 봐... 이렇게 매일, 매번, 자꾸...

해경 ...

연수 (누르는) 검사 결과 듣는데... 순간적으로... 나도 인간이니깐 너 얼굴 떠오르더라. 너 만나서 좀 들렸나 봐.

해경 (순간 둘러대는) 기대 좀 하면 어때. 친구끼리 힘들면 의지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 중고 동창이야. 그게 뭐 쉬운 줄 알아?

연수 (해경 눈을 보는)

해경 ...

연수 해경아.

해경 ... (시선 확 피하는)

연수 응. 알았으니깐 걱정 말고 가.

침대에 누워 이불 덮는 연수, 해경의 시선 피한다.

해경, 자기감정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괜히 연수의 모습에 화가 나고 다가가 이불 꼭 잡아끄는데, 서랍장 위에 놓인 쇼핑백 떨어져 립밤 등 흩어진다.

해경 도대체 뭐가 문제데, 왜 자꾸 날 피해?  
오지 말라고만 하고. (이불을 잡아끄는데)

이불을 다시 확 잡아당기는 연수, 해경의 몸이 연수에게로 쏠리고 연수, 누운 채로 해경의 어깨를 잡는다. 해경의 눈을 가만히 본다.

연수 내가 뭘 피해.

해경 ...

연수 내 감정 안 피하고 솔직히 너한테 말하고 있잖아.

연수, 해경의 어깨를 조금 당긴다. 숨소리 오가는 것, 서로에게 들린다.

연수 초라하고 후져도... 말하고 있잖아. 피하는 건 너고.

해경 ...

연수 (해경의 눈을 보며) ...틀려?

해경 (연수의 눈을 보는데, 시선 피하며) ...응... 틀려.  
나 피하는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잡은 어깨 놓는 연수... 해경, 한발 뒤로 물러서는데 바닥에 떨어진 립밤을 밟는다. 안의 내용물이 흘러나와 바닥에 질척하다. 황급히 빠져나오는 해경.

## #60. 대학병원/지하 화장실(밤)

손을 씻는 해경, 마음 이상하게 쓰라린데 또 미친 듯 뛰고 “뭐가 두려워서” 손жат말 터져 나온다. 한발 디디면 립밤 때문에 미끄러진다.  
전화 오는데 받지 않는 해경.

## #61. 대학병원/지하 화장실 앞(밤)

고개 숙인 채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해경, 순간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히고 신발 바닥 미끄러워 그만 엉덩방아 찰는다. 상대방 보면 이석이다.

이석 (해경 어깨 잡으며) 괜찮아? 해경아.

해경 (어깨 빼며)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일어서는, 꼬리뼈 아프고)

이석 (팔을 확 부축하며) ER 가자, 데려다줄게. 힘 빼고, 나한테 기대.

해경 (팔을 빼려는, 하지만 아랑곳없이 부축하는 이석 때문에 굳는)

이석 근데 너 글 대신 써주는 사이트 운영한다며. 탄원서... 이런 것도 써주나? 다른 사람한테 말하긴 좀 그렇고 아무래도 너가 편하니깐,

해경 안 편해요...

이석 어?

해경 하나도 안 편해요. 혼자 걸을 수 있으니깐... 팔 놔요.

지하라 사람들 없지만, 환자들 두어 명 지나가며 그 모습 흘끔 보는데

이석 (약간 자존심 상하고, 되레 팔을 더 잡으며) 야 나 의사야. 너 지금,  
 해경 내가 안 편하다잖아.  
 나 편하게 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 불편해야 하는 거잖아.

이석 김해경. 야, 십여 년 만에 만나서 말이 좀 그렇다.  
 해경 (이석 태도에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자리를 먼저 뜨려는데)  
 이석 니가 그냥 가면 내가 뭐가 돼. 넌 예나 지금이나 진짜 사람 힘들게...  
 해경 ...사과해요.  
 이석 ...  
 해경 나한테 사과해. 사과하라고.  
 이석 야 당황스럽게 왜 이래. 그땐 다 어리고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면...  
 해경 사과하려면 사과만 해. 입장 들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난 그냥 고백 편지 쓴 거밖에 없어.  
 좋아한다고. 그것밖에 없어.

이석 ...  
 해경 근데 문예실에서 내 옷 막 헤집고 나한테 그러려 했잖아.  
 내가 뛰쳐나와서 교무실밖에 더 가? 그래서 담임한테 말해서  
 너 징계 받은 거 고작 이틀이야. 일주일도 안 돼.

그때, 코너 쪽에서 전화하며 해경을 찾는 연수. 두 사람의 모습 발견한다.

해경 근데 내가 왜 전교생한테 왕따 당해야 하는데.  
 너가 소문내고 다녔잖아. 김해경이 쇼한 거라고. 이석한테 고백했다  
 차여서, 쪽팔려서 거짓말한 거라고. 이석은 완전 피해자라고.

이석 야 나도 어렸지만 그때 너 좋아했어. 좋아해서, 좋아해서 그런 건데,  
 해경 (올라오지만 억누르며) 내가 진짜 참을 수 없던 건  
 전교생한테 왕따 당하고, 막 친해지려던 애한테 절교 당하고  
 사도 사도 매번 체육복 찢겨 있고, 밤마다 더러워진 가방 빠는 거  
 그건 어떻게든 참을 수 있었어... 근데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 #62. 과거. 고등학교/복도(낮)

체육복 바지에 교복 남방 입고, 노트 끌어안고 가는 해경. 반대편에서 여러 학생들과 무리 지어 오는 이석. 해경, 고갯 속이고 가다가 눈 마주치고 만나. 순간 이석의 표정, 싫고 경멸스러운 무언가를 본 것 같은 얼굴이다.

해경(E) 니가 경멸하는 눈으로 봤던 거. 그 어린 나이에 그게...

## #63. 대학병원/지하 화장실 앞(밤)

이석 (한발 물러서는)  
 해경 자퇴한 거, 누구 탓 안 해. 그땐 그게 내 최선이었으니깐.  
 이렇게까지 생각하기도 오랜 시간 걸렸어. 근데, 내 맘 짓밟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거. 나한테 함부로 한 거...  
 사과하세요.

이석 (해경 가만히 보다가 시선을 피하며) ...미안하다... 미안했다. 진짜  
 미안하게 됐어. 근데 십여 년이나 지난 일 이제 와서 그리고 여기 나  
 일하는 곳이야. 그런 건 술 먹고 회포 풀 때나 하지 애들도 아니고  
 굳이 여기서 (주변 살피며 헛웃음, 안타깝다는 듯) 너도 떨쳐내고  
 살았어야지.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걸로. 사람이 좀 강인해야지  
 나약해서. 너 글 써주는 일 한다며. 강인해야 글도 써주고 하는 거지.

해경 ...  
 이석 잘 아는 정신과 교수님 있으니깐, 상담받고. 치유도 하고  
 예약 잡아줄게. 너 좀 강인해져야지 이게 뭐니,  
 해경 (순간 이석의 뺨을 확 쳐버리는)  
 연수 (해경을 보는)  
 해경 너나... 지금처럼 남들한테 상처 주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강인하게 잘 살아.

뒤돌아서 가는 해경. 짜증 난 이석, 해경에게 다가가려 한다.

잡고 막아서는 연수.

이석      나라.  
연수      (놓지 않고)  
이석      (팔을 빼려 하지만 빠지지 않는) 어찌자고.  
연수      한발만 더 다가가면 진짜 가만 안 댈.

팔을 뿌리치고 가는 이석. 순간 연수... 이석을 주먹으로 치고 만다.

### #64. 대학병원 앞(밤)

문 빠져나왔는데,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해경.  
손끝만 떨리고, 뒤따라 온 연수.

연수      해경아. (해경의 얼굴 보면, 일그러져 굳어버렸고)  
해경      쪽팔려... 저런 인간 때문에, 그때 기억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고  
          괴롭고 그랬다는 거... 쪽팔려. 지금 죽기보다 쪽팔려.  
연수      ...  
해경      처음으로 그렇게 설레고 좋아했는데, 돌아서니깐 그런 눈빛으로  
          보는 거. 그게 진짜 수치심 들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잠 못 자고  
          가슴에서 안 사라져서. 그 이후로 만났던 사람들도 잘 못 믿겠고  
          좋으면 좋다 말 못 하고. 이 나이 먹어서도 감정에 솔직도 못 하고.  
          그 시간들이 한심하고 쪽팔려.  
연수      ...  
해경      이 모든 게 편지 때문 아니고, 거지 같은 애한테 걸려서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게 사실이니깐. 그래서 오기로... 이 일 더 열심히  
          했어. 아닌 척 괜찮은 척. 벗어나려. 근데... 사실 계속 자책했어.  
연수      ...  
해경      그 편지만 안 썼으면... 사실 억울해서 그때에서 못 벗어난 거였는데.  
연수      (떨리는 해경의 손을 보는) 아팠겠다.

해경      ...  
연수      (손 가만히 잡아주는) 그동안 많이 아팠겠다.  
해경      (손이 떨리고) ...  
연수      너 탓 없어. 너 탓 아냐.  
          사람이니깐... 너도 나도 사람이니깐. 우리 힘들고 괴로울 수 있어.

떨리는 해경이 느껴져 더 지그시 잡아주는 연수.  
해경... 떨렸던 손과 몸이 조금씩 멈춘다. 고요해진다. 처음 느껴보는 안정감.  
연수를 보는데 마음이 이상하다...  
표현할 수 없는데. 해경, 순간 손을 조심히 빼곤 빠져나가버린다.

### #65. 거리(밤)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 못 한 채, 정신없이 거리를 걷는 해경.

### #66. 해경의 원룸(밤)

침대에 누워 자는 해경.  
옆 침대에서 자던 종미, 화장실 가려고 부스스 일어나는데  
해경의 얼굴을 보고 놀란다. 자는데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해경.  
종미, 그 앞에 멈춰 선다. 잠에서 깨는 해경, 눈물이 여전히 줄줄 흐른다.

종미      뭐야... 무슨 일... 있어?  
해경      ...죽는 꿈을 꿨어. 연수가 죽는 꿈 꿨어...  
          (고장 난 것처럼 눈물만 계속 흐르는)  
          연수가 죽었는데... 뒤늦게 갔어...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했어...  
          내 손 잡아줬는데 난 아무 말도 못 했어. 두려워서...  
          내 맘 지킨답시고 못 갔어... 마지막을 외롭게 혼자 뒀어.  
          (손을 보며) 개가 죽은 게 너무 생생한데...

종미 오늘이 수술이겠지... (안아주는)  
해경 ... (뭔가를 결심하는)

## #67. 대학병원/로비(새벽)

해경, 면회시간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들어선다. 벽시계 5시.

## #68. 대학병원/연수의 병실(새벽)

조심히 들어가는 해경, 연수를 바라보다 손을 가만히 본다.  
순간 잠에서 깬 연수.  
좀 당황하지만, 두 사람 말없이 한참을 서로의 눈 바라보는데

해경 무서울까 봐. 너 혼자서... 무서울까 봐.

해경, 연수를 끌어안는다. 멍멍히 있던 연수, 해경의 품에 고갤 파묻는다.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런 연수를 더 꼭 안아주는 해경.

## #69. 몽타주

— 수술실 베드에 누운 연수, 수술실로 들어간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해경.  
— 수술 마친 연수, 병실에 누웠다. 창밖으로 비가 내린다.

해경(NAR) 수술은 무리 없이 끝났고, 그렇게 무사히 한 주가 흘렀다 생각했다.

— 병실에서 뛰쳐나오는 해경, 미친 듯이 의사들 찾는다.  
— 인천공항. 연수의 부모님이 황급히 귀국한다.  
— 장례식장. 목수 동료들과 찍었던 연수 사진이 영정사진으로 놓였다. 조문객

받는 연수 부모님. 테이블에 앉은 미주와 미주 남자친구. 고개 파묻은 채 술  
한잔 마시는 이석. 구석에 홀로 앉은 해경, 울지도 못한 채 앉아 있다. 눈앞이  
이상하게 뿌옇고 흐리게만 보인다.

## #70. 연수 아파트/복도+거실(낮)

소파를 든 인부 두 명, 현관을 나온다. 현관 쪽으로 걷는 해경, 안으로 들어간다.  
베란다 쪽에서 담배를 피우는 연수 부. 인부들 사이에 있는 연수 모.

인부 (멀찍이에서) 여사님, 이것들도 다 버립니다.  
해경 (연수 모에게) 안녕하세요...  
연수 모 (해경을 발견) 아, 예... (인부들 향해) 네... 다 버리세요.  
...내일 저흰 돌아가요. 발인까지 있어줘서 고마워요.

해경 ...  
연수 모 내가... 지금 무슨 대화하기가 힘드네.  
(해경 보더니) 좀 더 있다 가요.

현관을 나가는 연수 모, 담배 다 태운 연수 부, 해경에게 목례하고 현관을  
나간다. 인부들 물건들을 케이지에 담아서 하나둘씩 내보내는데,  
케이지에서 작은 포켓 앨범 하나 툭 떨어진다. 떨어진 앨범을 가만히 보다가,  
들고 나오는 해경.

## #71. 해경의 원룸(새벽)

뭘 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눈으로 바탕화면에 저장된 수많은 폴더들 보던  
해경, 자기도 모르게 다 삭제해버린다. 책상 한 귀퉁이에 놓인  
드라이버와 포켓 앨범. 그리고 원목 연필꽂이. 앨범을 열어보는 해경.  
연수 어린 시절 사진들이다.  
바닷가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모래성 쌓으며 노는, 환히 웃는 어린 연수의

얼굴...

FLASH CUT #38 애들처럼 환히 웃는 연수 얼굴.

연수(E) 어렸을 땐 엄마 아빠랑 자주 했었는데. 요새 자꾸 이게 생각나더라고

그 모습이 아른거리는데... 눈물도 나오지 않고 멍하니 바라보는 해경.

### #72. 연수 아파트 단지 입구(밤)

집집마다 불 다 켜졌는데, 연수의 집만 불 꺼졌다. 불 꺼진 집을 바라보는 해경.

### #73. 진심 커피숍 입구(아침)

과일 봉지 든 해경, 문을 연다. 열리지 않아 힘으로 밀어보는데 열리지 않는다.

문을 살짝 들어 열어보는데, 툭 열리는 문... 잠시 멈춰 서는 해경...

꼭꼭 참았던 가슴 무너져 내린다. “안 죽어. 이런 걸로 안 죽어.

나 절대 안 죽어.” 연수의 목소리(#38)...

해경, 과일 봉지 놓치고 만다. 굴러가는 과일들.

주먹으로 허벅지 짓이기듯 치는데

해경 안 죽는다며... 안 죽는다며... 안 죽는다며!

그제야, 목 놓아 울어버린다...

### #74. 시외버스 안(낮)

자막 '3개월 후'. 무릎 위에 놓인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는 해경.

해경(NAR) 이걸 날 위해 쓰는 첫 편지야. 그리고 이별 편지.

### #75. 해경의 원룸(새벽)

빈 종이 앞에 앉아 움직임 없던 해경.

펜을 잡고 이내, 한 글자씩 꼭꼭 눌러쓰는데

해경(NAR) 널 만날 걸 후회해. 아픈 널 만난 걸 너무... 후회해.

다 아는데도 널 좋아한 내가... 가장 후회돼.

### #76. 어달리 해변(낮)

사람 없는 바닷가. 혼자 서 있는 해경.

해경(NAR) 너가 원망스럽다. 아무것도 해본 것도, 시작한 것도, 함께한 것도

우리한테 추억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억울해. 그 사실이 억울해서 화가 나.

연수랑 앉았던 자리에 앉아, 가만히 파도만 바라본다.

해경(NAR) 다시 태어나면, 내가 먼저 죽었음 좋겠어.

### #77. 장례식장(아침)

발인 끝내고 돌아온 버스에서 내리는 해경. 햇살이 내리쬐어 눈을 뜨기 힘들다.

해경(NAR) 너가 혼자 남아서. 날 그리워했음 좋겠어.

## #78. 장례식장 앞 거리(아침)

멍하니 걸어서 장례식장을 빠져나오는 해경.

버스정류장 지나쳐서 걷기만 한다.

해경(NAR) 허정이며 집으로 돌아갔던 그날을,

## #79. 해경의 원룸(아침)

현관에 들어서서 문을 닫는 해경. 신발을 벗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다.

해경(NAR) 너도 알았음 좋겠어.

시간 경과.

창문 너머는 저녁인데, 여전히 현관에 쭈그리고 앉았다.

해경(NAR) 근데... 근데도... 이렇게 허망한데도

## #80. 어달리 해변(낮)

모래알 쥐어보면,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들이 빠져버린다.

해경(NAR) 보고 싶다.

FLASH CUT #38 해경을 향해 애처럼 웃어 보이는 연수의 미소.

FLASH CUT #47 해경의 미소에, 따뜻하게 미소 지어보는 연수.

해경(NAR) 널 만난 짧은 순간들이 내겐 위로였어.

FLASH CUT #64 떨리는 해경이 느껴져 더 지그시 잡아주는 연수.

해경(NAR) 처음으로 안정감 느꼈어. 줄곧 불안했던 맘이 고요했어.

왜 소중했던 찰나엔, 그것이 소중한 줄 모를까.

## #81. 연수 아파트 단지 입구(밤)

연수 집 쪽으로 가서 멈춰 서는 해경, 누군가 들어와 사는지 불이 켜졌다.

해경(NAR) 그때의 마음 기억할게. 그 마음... 간직할게.

그래서... 사랑하고 이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게.

그리고 여긴 다시 오지 않을게.

## #82. 어달리 해변(낮)

파도를 바라보던 해경.

해경(NAR) 고마웠어. 고맙다...

해경, 고개 돌려 옆을 보면, 동해바다 사진 속 등직한 모습의 연수가 앉았다.

해경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어.

FADE OUT

## #83. 신축빌라 입구(낮)

FADE IN



계절 바뀌고, 우편함에 새 팸플릿을 하나씩 꽂는 해경.

### #84. 해경의 원룸 건물 입구(낮)

팸플릿 들고 돌아오는 해경. 원룸 앞에 익숙한 뒷모습, 돌아서면 민혁이다.

### #85. 커피숍(낮)

마주 앉은 두 사람. 테이블 위에 팸플릿 올려져 있다.

민혁      그때 결혼식 편지 부탁한 거... 내 실수야. 내가 미쳤지. 어떻게 너한테... 나 이혼했다. 몇 달도 개량은 못 살겠더라. 해경아 내가...

해경      먼저 말할게.

민혁      ...

해경      너 좋아했어. 한 번도 제대로 말 못 했지만, 그랬어.

민혁      ...

해경      니가 나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거 알았어. 그래도 좋아했어. 축하 편지... 그거... 내가 어떻게 니 결혼을 축하해. 너 나 불러낼 땐 여자로 대하고, 이용하곤 항상 친구라 선 그었어. 어떻게 우리가 친구야. 친구도 뭣도 아녘어. 내가 널 끊어냈어야 했는데 (보는) 나 이제 조금도 너한테 마음 없다.

민혁      그래도 우리가 같이한 게...

해경      나 이제 나 안 속여. 그렇겐 안 살아. 그렇게 안 살기로 (좀 편안한 얼굴이고) 약속했어. (일어서는) 다신 연락하지 마.

해경, 팸플릿 들고 나간다. 그 모습을 보는 민혁.

### #86. 해경의 원룸(밤)

컴퓨터 앞에 앉은 해경, 바탕화면에 폴더 만들고 '김해경' 쓴다.  
한글 파일을 열고 맨 위에 '5월 26일' 쓴다.  
책상 위에 놓인 원목 연필꽂이가 보인다.

해경(E)      이걸 나를 위한, 김해경을 위한, 대필 글이다. 여기엔 내 진심만...

타닥타닥 자판을 쳐나가는 해경, 표정이 편하다.

끝.

## 작가 후기

---

나의 한 시절을 단막의 주인공들과 함께했다.  
힘들었고, 행복했고, 외로웠고, 감사했다.

그들을 발견해준 '오픈'에게 감사하다.

더 많은 이야기를 쓰고 싶다.  
이렇게 모든 시절들을 다 소진해도 행복할 만큼,  
쓰고 싶다.

## 기획의도

---

취업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최대의 비극은,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 직업이나 구하려다 '덧'에 걸리기도 하고,  
평생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며 살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인다면?

시련의 시간은 주변을 다시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 같은 재난이 닥쳤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다.  
왜 하필 내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 원망하고 탄식하다가 주저앉는 것과  
극적인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하는 것.

〈신입사원 연수원〉은 이루고자 하는 것이 꿈이 아니라 '취업'이 되어버린,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생존을 위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우리 사회 청년들의 이야기다.

작품을 통해 '취업사기'라는 재난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맞이해,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인지,  
'자신'을 발견하는 인물을 보여주고자 했다.

## 등장인물

---

### 나영재(32세, 남)

안정적인 직장을 원해서 공시생이 되었지만 7년째 공무원 시험에 탈락.  
도대체 몇 년을 더 해야 하나 지쳐갈 때쯤 여자친구 집에서 백수는 안 된다면  
이별을 종용하는 걸 알고 취준생이 되었다.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취직만 하면! 당당히 인정받으리라!

### 이광기(38세, 남)

압도적인 덩치와 날선 눈빛만으로 상대를 단숨에 기선 제압해버리는 ‘커넥트’ 선배.

### 박태주(31세, 남)

영재 룸메이트. 있는 듯 없는 듯 튀지 않는 캐릭터로, 차분해서 모범생 느낌이 난다.

### 김상민(27세, 남)

영재 룸메이트. 최다 자격증 보유자로 수많은 회사의 최장 인턴 경력자.

### 고봉준(28세, 남)

영재 룸메이트. 지방에서 올라와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으며 안 해본 알바가 없다.

### 문장훈(53세, 남)

국내 최고의 대학, 최고의 대기업을 거쳐 벤처회사를 운영해온 ‘커넥트’ 대표이사.

### 그 외

친구들 및 선배들

## 줄거리

### 7년 공시생 나. 영. 재! 드디어 취. 직. 하다!

### 하지만 그가 입사한 곳은 취업사기단!

7년째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며 여친 몰래 이력서를 써오던 영재는, 드디어 회사에 합격하고 들뜬 마음으로 신입사원 연수원에 들어선다. 2주 동안 총 3회에 걸쳐 과제가 부여되고 각 회차별 꼴등은 자동 퇴소되며, 최종 1등은 1억 연봉을 받는 MVP가 된다는 서바이벌 연수! 휴대폰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기기는 기밀유지를 이유로 압수되고

인터넷 등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다. 수많은 CCTV가 지켜보는 가운데 난생처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신입사원들.

영재는 상민, 봉준, 태주와 룸메이트가 되어 2주간의 연수 생활을 시작한다. 첫날부터 만만치 않은 과제가 부여되자 영재는 당황하며 헤매지만, 문 대표의 칭찬을 받고 난생처음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흥분한다. 이후 사력을 다해 집중한 끝에 태주와 경쟁하며 유력 MVP 주자가 된 영재! 그렇게 밤낮으로 무리했던 영재는 결국 배탈로 급하게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예기치 않게 선배들의 살벌한(?) 밀담을 엿듣는다! 회사 취업은 사기고, 신입사원 연수는 취업을 가장한 사기라고 한다. ‘그럴 리가! 잘못 들은 거겠지... 어떻게 들어온 회산데! 이렇게 나를 알아봐주는 곳인데!’ 하지만 애써 잊으려 했던 의심은 과제를 진행하면 할수록 확신으로 바뀌고, 영재는 고민 끝에 엿들은 애길 룸메이트들에게 전하며 이곳을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룸메이트들은 말도 안 된다며 영재가 잠이 덜 깨서 잘못 들은 것이라고, 증거도 없지 않느냐며 믿지 않는다. 만약 회사가 진짜 사기단이라면, 1차 탈락자인 꼴등을 저렇게 순순히 내보내주겠냐며, 나가려면 혼자 나가라고 한다. MVP를 차지하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게 아니냐며 되레 영재를 몰아붙이고! MVP에 혈안이 된 룸메이트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따돌리자, 밤마다 홀로 탈출구를 찾아 헤맨 끝에 지하실을 발견하는 영재! 그곳엔 퇴소한 줄 알았던 1차 탈락자 동기가 만신창이가 되어 묶여 있다! 동기가 끌려 나간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탈출하려던 그 순간, 누군가 앞을 막아서는데, 룸메이트 태주다!

### 영재는 과연 연수원을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

## #1. 대강당 앞 화장실 안(밤)

탁—! 화장실 불이 켜지고 정장 차림으로 들어오는 선배1(남, 30대 중반).  
씩아—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데 붉은 핏물이 씻겨 나오며 깨끗한 손이 드러난다.  
뒤이어 같은 정장 차림의 선배2(남, 30대 중반)가 들어오고.

선배1 (셔츠 손목에 묻은 핏자국을 발견하곤 짜증) 아! 씨!  
선배2 (힐끔 보고는) 묻었어? 한두 번 작업하나.  
선배1 (짜증) 아 진짜 그 새끼! 얼마나 쳐우는지! 아직도 귀가 멍멍하네!  
고만 좀 울라고 두들겨 뺐는데 맞으면서도 대출은 또 안 받겠대!  
선배2 취직한 줄 알고 들은 연수원이 사긴 줄 알았잖나! 억울했나 보지!  
선배1 어우! 근데 형님이 나서서 단번에 제압해버리는데, 와우!  
선배2 요즘 너무 예민하셔. 애들 손대면 바로 골로 보내고…  
선배1 (뭔지 안다는 듯) …당산점 털린 거 땀에?  
선배2 어, 내부에서 정보가 새나간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거 같더라고.  
그러니 입 조심해. 괜히 꼬투리 잡히지 말고.  
요번에 들은 애들 잘 털어서 기분 좀 풀어드리자.  
선배1 (별것 아니라는 듯) 굳이 뭐 애쓸 거 있어?  
연수원에 들은 이상 독 안에 든 천데. 지들이 뭘 어찌겠어.

카메라, 화장실의 안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  
끝에 달려 있는 화장실 문 하나 보인다.

CUT TO

화장실 칸 안. 바질 내리고 번기에 앉아 있는 안경 쓴 창백한 얼굴의  
영재(남, 32세), 엉덩이를 간 채 가까스로 문에 바짝 붙는데,

순간 뿌우웅! 놀라서 손으로 입을 막고!

CUT TO

세면대 앞.

선배2 (짜증) 야! 너는 진짜 매너 없이 그렇게 막 방구를 끼냐!  
선배1 (황당) 나 아니거든! 너잖아!  
선배2 돌밖에 없는데 나 아니면 너지!  
선배1 (짜증, 답답) 아 진짜 나 아니라니까!

선배1과 선배2가 서로 티격태격하다 순간 멈칫! 잠깐의 정적, 마주 보던  
둘의 시선이 동시에 화장실 칸 쪽으로 향하고, 화장실 칸 안의 벌겍게 상기된  
영재 얼굴이 화면 가득 보이는 가운데, 타이틀. <신입사원 연수원>

## #2. 대강당 안(오전)

자막 — ‘일주일 전’

대강당에 모인 사람들을 설렘 가득한 얼굴로 둘러보는 영재,  
연단에는 ‘커넥트 신입사원 여러분! 입사를 축하합니다!’라고  
현수막이 걸려 있다.

문 대표(E) 애플사에선 사람들의 생활습관과 패턴을 분석해 잠재적인 니즈를  
간파하는 리서치 팀이 있다고 합니다. 커넥트의 목표도 같습니다.

연단 위에 올라선 문장훈 대표(남, 53세)가 카리스마를 뽐으며 연설 중이다.  
고무된 표정으로 문 대표를 보는 30여 명의 신입들.  
연단 아래에는 정장 차림에 매서운 인상의 광기(남, 38세)와 선배 일행들이  
미소를 지으며 신입들을 마주 보고 서 있다. 카메라, 상기된 얼굴의 신입들을  
천천히 훑고.

문 대표 커넥트는 아이디어 하청업입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대우도 못 받는 게 하청 아니겠나 하겠지만, 우린 아이디어를 파는 회사입니다.

CUT TO

연단 아래 일각. 지잉— 휴대폰 진동 울리자

‘일주일 후 테솔!’ 일정해제 버튼 누르는 상민(남, 27세).

문 대표(OFF) 개발은 아이디어를 요청한 기업에서 하는 거죠. 굳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개발하지 않아도 자신의 아이디어가 서비스에 적용되어

지잉— 여전히 진동 소리가 끊이지 않자 고개를 갸웃하던 태주(남, 31)가 헤벌레하고 문 대표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봉준(남, 28)을 톡— 친다. 그제야 자신의 휴대폰을 보는 봉준, ‘pc방 사장님’ 표기 확인하자 휴대폰을 꺼버리고.

문 대표 그 결과에 따라 회사가 쪽박이냐, 대박이냐 기로에 설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토록 안정적이고 기회 많은 회사에 입사한 여러분은 엄청난 행운아라는 걸?

신입들 (들뜬 얼굴의 신입사원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문 대표 그래서 커넥트 신입사원 연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연수 2주 동안 총 3회에 걸쳐 과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매 회차마다 가장 하위등수는 퇴소, 즉 탈락 처리될 겁니다.

신입들 (탈락이라는 소리에 당황한 얼굴로 웅성거리는)

문 대표 (예상한 듯) 대신, 1등은 자그마치! 1억 연봉을 받는 MVP가 됩니다!

신입들 (1억이라는 소리에 모두 놀라운 얼굴)

문 대표 2주간 국내 교육이 끝나면, 각자 신청했던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해외 지사에서 남은 2주의 연수과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신입들 (기대감과 전망의 눈빛으로 문 대표를 보고)

문 대표 앞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을 도와줄 선배이자 서포터입니다!

선배들 (신입들을 향해 정중하게 90도 인사하고)

문 대표 2주간 치열한 시간을 보낼 때마다 1억 연봉의 MVP를 떠올리세요!

여러분 중 한 명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커다란 함성과 함께 터지는 신입사원들의 박수, 그들을 뿌듯하게 보는 선배들.

### #3. 기숙 룸 앞(오후)

틱! 목에 걸린 신분증을 센서에 찍자

붉은 램프가 초록으로 바뀌며 문이 열린다.

뿌듯한 얼굴로 신분증 보면, ‘나영재’ 이름과 사진,

‘커넥트’라는 회사명이 찍혀 있다.

### #4. 기숙 룸 안(오후)

두 개의 이층침대가 놓인 4인실 내부를 둘러보는 영재.

각자의 옷장으로 쓸 수 있는 캐비닛이 한쪽 벽에 진열되어 있다.

봉준 (들어오며 감탄하듯) 식당, 세탁실, 샤워실이 전부 한 층에 있네!

그 칸데, 남녀가 분리된 연수원에서 교육받는다든 게 참말로 아쉽다. 같이 부대끼며 지내야 CC가 탄생한다 카는데...

태주 (이어 들어와) 어찌겠어요. 불미스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그렇다는데.

상민 (따라 들어오며) 맞아요. MVP 되서 근사하게 만나는 게 낫죠!

영재가 2층 침대로 올라가 짐을 푸는 걸 보고 다른 침대 2층에 자리 잡는 태주.

영재 그래도 휴대폰이랑 기기 압수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전 하루도 휴대폰이랑 떨어져 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보름이나...

봉준 우리가 하는 과제가 진짜 회사 프로젝트라 안 캅니까!

쪼매 불편하지만... 뭐 그래봤자 2주니까!

영재 게다가 밖에 못 나간다는 건... 꼭 감금된 것 같아서...

태주 전 다 공짜라서 그런지 좋은데요? 해외도 보내주고...

봉준 맞습니다! 땡전 한 푼 안 들이고 2주 있다 필리핀 간다는 거 아이겨!

영재 난... 중국 신청했는데!

상민 (반가워하며) 어! 나도 중국! 한 달 내내 보겠네요!

봉준 지는 필리핀! 홈페이지 보이까네 필리핀 숙소가 5성급 호텔이든데!

태주 전 베트남이요. 숙소는 다 좋아 보이던데요?

영재 저도 해외여행은 참이라... 약간 설레네요. 근데 사규 어기면 퇴소에 고소 고발까지 된다고 하니까... 좀 겁나는데...

태주 어느 회사나 기밀엔 민감하잖아요.

상민 전 아까 기밀 유지 계약서 사인할 때는 괜히 졸리던데요.

봉준 내는 거보다 근로계약서 쓸 때 가슴이 떨려가...

영재 (가슴에 손 얹고) 저두요! 이제 백수 끝, 진짜 직딩이구나! 감격!

## #5. 대강당 안(오전)

6명씩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다섯 개 조로 나뉘어 있고, PC가 세팅되어 있다.  
 자리에는 신입들 이름이 아크릴 명찰로 걸려 있는데...  
 ‘나영재’ 명찰이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을 보니 뭔가 감개무량하고 진짜 직장인이 된 느낌이 들어 어깨가 으쓱한 영재, 피식 웃는다.

광기 (신입들 향해) 자, 연수원 첫 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집중!  
 1차 과제는 숙박 앱의 예약 테스트입니다.  
 나눠드린 스마트폰을 보면 아지트라는 숙박 앱이 깔려 있을 겁니다.  
 매뉴얼의 상품별 룸별 예약 과정을 실행해보고 문제점이나 오류에 대해 문서로 정리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6. 구내식당 안(낮)

식판을 들고 줄지어 선 신입사원들에게 앞치마와 위생 마스크,

위생모를 착용한 선배들이 국과 반찬을 퍼주고 있다.

CUT TO

같은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은 영재와 태주, 봉준, 상민.

영재 연수라고 해서 그냥 노는 건 줄 알았는데 회사 연수는 뭔가 다르네요.

상민 (고개 끄덕이며) 봤어요? 사방이 CCTV고, 인터넷도 과제 중 테스트 링크만 열어주고 내부 자료실만 쓰라고 하는 거.

영재 잠깐 폐북 들어가려고 했는데 포털 사이트, SNS, 다 막혔더라고요.

봉준 같이 알바 뛰던 아덜한테 자랑 좀 할라 했는데 다 틀렸다 아이겨!

상민 보안은 진짜 대기업 수준인 듯해요!

봉준 그카고, 선배들이 알려준다 카며 딱 붙어가 보는데 심장이 벌렁벌렁!

태주 (크크 웃으며) 나만 긴장된 건 아니었네요?

봉준 이왕 하는 거 지대로 해가! MVP 됩시다! 존버정신으로!

영재 (입안 가득 미어터져라 먹으며 신나게) 오케이! 존! 버!

선배1(E) 새로운 법인명입니다.

## #7. 대표실 안(새벽)

대표실 중앙에 기다랗게 자리 잡은 테이블의 맨 끝 상석에 앉아 있는 광기.

광기 (다양한 이름의 회사 이름이 리스트업 된 문서 보며) 오케이, 이걸로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공고 올려! 이번엔 50명씩 뽑자.

선배 130명도 지금 경기 상황에선 많은 겁니다. 괜히 의심 살 수 있고 중복 지원한 애들 체크하려면 비용이 더 듭니다.

광기 중복 지원자? 그렇게 들 떨어진 놈들이 많아?

선배2 저희가 매번 법인명과 사업자 번호를 바꾸잖습니까. 취준생들한테 완전 다른 회사니까요. 지금 해외에 가뉘는 애들 여기 풀어노면 그것들 또 들을 겁니다. 개네들한테는 새로운 회산 거죠!

광기 (길길) 하긴 지들이 뭔들 가리겠어. 취직 한번 해보겠다고 똥인지

밥인지 구별 못 하고. 그제 뽑아준다니까 암 생각 없이 들어온 것 봐봐!  
(뿌듯한 얼굴로) 그래서 우리 사업이 더 잘되는 거고!  
(선배1 옆의 누군가를 보며) 애들 분위긴 어때? 의심하는 애들 없고?

광기의 시선을 따라, 카메라 이동하면 화면 가득 들어오는 태주.

태주 일단은 모두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기 어이 문 대표, 애들 긴장도 풀어줄 겸 가서 동기 부여 좀 해줘.  
가서 잘한다잘한다 하란 말야. 올 회사에 오는 애들이 어떤 애들야?  
다들 취직에 목땀던 애들 아냐. 칭찬 한번 해줘봐,  
서로 인정받을라고 난리 나지. 그렇게 약을 쳐줘야, 지들끼리  
경쟁하며 MVP에 집중하고 회사에 대한 의심도 안 한다니까.  
문 대표 (살살거리며) 알겠습니다. 동기부여, 인정욕구, 제 전문 아닙니까.

## #8. 대강당 안(오전)

PC 모니터를 보고 있는 영재, 화면 보면 텍스트만 잔뜩 입력된 상태다.  
“우와!” 감탄 소리에 힐끔 보면, 상민 옆에 몇몇 신입들이 몰려 있다.

봉준 (영재 기획안 보고는) 으아... 내보다 더 심하다! 이기 뭐꼬?  
영재 (얼른 모니터 가리며 당황) 아니 남의 걸 왜 봅니까!  
봉준 (위로하듯) 그래도 마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기 아름답다 아입니까!  
영재 (주변에서 괜히 킁킁대며 옷자 얼굴 붉어지고)  
문 대표(OFF) 근사하게 만들어진 문서가 한순간 사람들을 반하게 할 순 있겠지만,

말없이 들어와 끼어드는 문 대표를 발견하고 놀라는 신입들.  
문 대표가 영재의 테이블로 다가가 가리고 있는 영재의 손을 치운다.

문 대표 오랜 기간 많은 이를 공감하게 만드는 서비스는 아무나 만들 수 없지.  
신입들 (갑자기 등장한 문 대표를 발견하고는 웅성거리는)

문 대표 (영재의 문서를 힐끔 보고는 신입들을 향해) 여러분, 밥 먹고 싶은데 집에 밥 없으면 뭘 먹죠?

상민 (큰 목소리로) 햇반이요!

문 대표 네! 편의점만 가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즉석밥!  
그건 바로 혁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씨온 그룹 신입사원 연수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신입들 (문 대표의 얘기를 들으며 다들 집중하고) ...

문 대표 그게 가능했던 이윤, 고객 입장에 있을 때 나온 아이디어이기 때문이죠. 입사 후 1, 2년 된 직원들 아이디어 혁신성이 떨어집니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고객이 아니라 만드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햇반 같은 아이디어를 낼 최상의 상황입니다!

신입들 (어느새 고무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는) ...

문 대표 (영재에게) 자네가 써낸 기획안을 보니 10년만 지나면 스티브 잡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돼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군.

좌중 탄성이 터지며 영재를 모두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는 가운데,  
신입들 반응 보며 슬며시 피식 웃는 광기.  
영재의 시점으로 마치 구세주처럼 누구보다 환하게 빛나 보이는 문 대표!  
화려하게 만든 자신의 문서를 보고 고개를 숙이는 상민.

## #9. 기숙 룸 안(새벽)

모두가 잠든 기숙 룸 안,  
2층 베드에서 뒤척이던 영재가 벌떡 일어난다.  
그 위로.

문 대표(E) 지금은 B플러스지만, 자넨 만점 정돈 우술 정도로 기량이 뛰어나네.



## #10. 자료실 안(새벽)

새벽시간임에도 자리에 앉아 공부하는 다른 신입들을 보고 놀라는 영재.  
구석 자리에 앉아 교육시간에 작성했던 기획안 프린트물을 다시 들여다본다.

CUT TO

시간 경과. 아침. 테이블 위로 보이는 다양한 책들. 그 옆에는 탐처럼 쌓아  
올린 다 마신 커피잔들 보이고. 누군가 테이블을 똑똑! 고개 들어보면 봉준이  
“아침도 안 먹냐”고 한다.

문 대표(E) (홍분한) 회사에서 큰 자산을 얻었구만!

## #11. 대강당 안(오전)

신입들 모두 부러운 시선으로 누군가를 향해 보고,  
카메라, 그 시선 따라가면 태주가 쑥스러운 듯 문 대표 앞에서 미소 짓고 있다.  
태주, 어디선가 다가온 시선 느껴지고,  
확— 돌아보면 영재가 훑어져라 보고 있다!

문 대표 (영재와 태주 보며) 이제 보니 둘 중 한 명이 MVP가 유력한데!

## #12. 구내식당 안(낮)

한 테이블에 둘러앉은 영재와 룸메이트들.

상민 (마주 앉은 태주와 영재 보며) 아니... 인간적으로 너무 하네요.  
같이 좀 합시다! 다른 방은 스테디하고 그러던데, 우리도  
스테디하면서 서로 노하우 좀 알려주고... 어때요?

영재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일언지하에 거절하려는데) 말도 안 돼.

태주 (O.L.) 그럼요! 당연히 서로 도와야죠! 스테디해요!  
봉준 (감탄하며) 으아! 역시 MVP는 달라도 뭐가 다르네예!  
상민 (영재 보고) 왜요. 영재 님은 별루예요?  
영재 (헛기침하며) 별루긴요! (눈치 보며) 하죠! 저두 좋아요! 도와야죠!

사람 좋게 웃어 보이는 태주 보며  
얕미운 표정으로 입이 미어터져라 밥을 퍼먹는 영재.

## #13. 기숙 룸 화장실(밤)

영재, 몸을 배배 꼬며 똑똑! 화장실 두드려보면 두 칸 모두 안에 사람이 있다.  
와르르! 쏟아내는 거북한 소리를 듣고, 얼굴 찡그리는 영재.

## #14. 복도(밤)

영거주춤 자세로 벽을 더듬으며 컴컴한 복도를 걸어가는 영재.  
주변의 모든 문이 잠겨 있고 불은 꺼져 있다.  
어기적어기적 불안한 걸음걸이로 겨우 대강당 앞 화장실에 도착하고...  
감히 불 켜 생각도 못 하고 안으로 들어간다.

## #15. 교차. 대강당 앞 화장실 안+화장실 칸 안(밤)

#1과 다시 연결되며, 선배1이 화장실 칸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화장실 칸 안쪽의 영재는 뚜벅, 발걸음 소리를 듣고 거의 숨쉬기도 힘든 상황!  
그 순간, 빠리리— 선배1의 전화가 울린다. 액정화면으로 ‘광기 형님’ 표시 뜨고.

선배1 (긴장한 얼굴로 통화) 네, 형님. (사이) 지금요?  
(선배2에게 눈짓하며) 바로 가겠습니다. (불을 끄고 화장실 나가는)

## #16. 복도(밤)

하얗게 질린 영재가 벽을 더듬어가며 비상계단으로 향하면, 잠겨 있는 문.  
복도 승강기는 꺼져 있고, 문이란 문은 다 열어보려고 하지만 모두 잠겨 있다!  
통유리창의 밖을 내려다보면 10층 아래가 까마득해 보이고,  
천장엔 360도 회전이 되는 CCTV가 여기저기서 영재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광기(E) 어쭙? 이 자식 봐라?

## #17. 대표실 안(밤)

CCTV를 올려다보는 영재가 노트북 모니터 속으로 들어온다.

광기 (모니터 속의 영재를 보며) 이 새끼, 뭔가 눈치챈 느낌인데? 누구야?

선배1 (이력서들을 휘리릭 넘기며 사진과 모니터를 보다 영재 이력서에  
멈칫) 이름은 나영재... 태주랑 같은 방인데, 태주 부를까요?

광기 (대수롭지 않게) 이제 와서 뭘 어쨌어. 문단속 다 끝났지?

선배1 네. 휴대폰은 모두 압수됐고 엘리베이터는 작동 중지. 비상계단 통로도  
모두 잠갔고 현재 10층 안에 완전하게 고립된 상태입니다.

띠리리~ 그때 광기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온다.

## #18. 기숙 룸 안(새벽)

2층 침대에 누워 이리 누웠다 저리 누웠다 뒤척이는 영재,  
요란하게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화장실에서 들은 밀담이 떠오르고.

선배1(E) 취직한 줄 알고 들은 연수원이 사긴 줄 알았잖나!

설마... 아닐 거야... 아니어야만 해!  
고개를 가로챘고는 이리저리 뒤척이는 영재.

CUT TO  
영재 침대 아래 1층.

상민 어유, 그리 고민한다고 MVP가 됩니까? 뒤치락거려서 잠을 다 깬네.

영재 아... 미안해요... 깬어요? 잠이 안 와서... 근데요...

상민 근데 뭐요? ...설마 ...스터디하겠다고 한 거, 맘 바뀐 건 아니죠?

영재 네? 아... 아니에요.

상민 (안도) 그럼 다행이고요. 전 정말 침으로 일다운 일 하는 거 같아서  
넘 좋거든요. 어쨌든 우린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영재 (불안한) 그런... 거겠조?

상민 끝까지 해보자고요. 일단 탈락은 면해야죠. MVP가 되면 더 좋고.

잠든 줄 알았던 태주가 가만히 영재와 상민의 대화를 들으며 눈을 뜬다.  
어느새 코 골던 봉준도 슬며시 눈을 뜬다. 영재의 심란한 얼굴, 그리고 봉준,  
상민, 태주의 각기 다른 심경의 얼굴이 4분할 된 화면으로 보이는 가운데,

광기(E) 뭘? 그러니까 이번에 들은 애들 중에 경찰이 있단 얘기야?

## #19. 대표실 안(밤)

남자(F) 확실히 않아. 당산점 털린 게 아무래도 이상해서 여기저기  
기름칠 해가며 찌러보는 중이니까 내부적으로도 좀 알아봐.

휴대폰을 끊은 광기,  
테이블 위 이력서 보면,  
화면 가득 보이는 영재의 증명사진.

## #20. 대강당 안(오전)

- 선배1 어제 여러분이 제출한 오류사항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개선점을 기획안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재, 문서 작성을 시작하다가, 힐끔 선배1을 본다.  
시선 의식한 선배1, 영재와 눈 마주치자 사람 좋은 미소로 웃어준다.  
그래, 잘못 들은 거야... 안심하듯 선배1을 보고 환하게 웃는 영재의 얼굴 위로.
- 태주(E) 그걸 문제라고 생각 안 한 게 애초에 잘못된 거죠.

## #21. 자료실 안 회의 룸(오후)

-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회의실에 모여서 스테디하는 영재와 룸메이트들.
- 태주 (상민의 기획안을 보며) 예약 취소가 안 되는 건 핵심 오류사항으로 제출했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 상민 (당황) 정신없이 테스트하다가 보니... 그걸 빠뜨렸더라고요.  
(걱정하며) 설마... 이것 땀에 저 꼴등으로 탈락하진 않겠죠?
- 봉준 이미 지나 가쁜 거, 기냥 조용히 있음 괜찮지 않을까예?
- 태주 차라리 개선안이나 보완점에 더 집중해서 제출하면 오히려 반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 영재 (머뭇거리며 눈치 보는) ...글쎄요 ...굳이 타이밍 놓친 걸...
- 봉준 그라이까네 영재님은 그냥 있는 게 낫다 그 말이재?
- 상민 (재차 확인하듯 영재 보며) 그런 거예요?
- 영재 (명확하게 의사 표현하지 않고 최대한 두루뭇술하게) 글쎄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또 안 하자니 걸리고...
- 상민 (실망스러운) 뭐예요... 영재님, 우리 서로 돕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 영재 네? 당연히! 돕고 싶죠! 근데 제 생각이 정답은 아닌지라...  
(하품 하며) 근데 밤샘 꺼예요? 난 못 버티겠는데?

## #22. 구내식당 안(낮)

- 식판을 들고 먼저 자리 잡고 앉은 봉준의 테이블로 다가오는 상민.
- 상민 (테이블에 앉으며) 근데, 영재님 너무 예민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오전에 영재님이 쓴 기획안 좀 봤다고 어찌나 사람을 잡던지...
- 태주 (같은 테이블에 앉으며) 아... 저도 봤어요. 그거 땀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영재님은 식사 안 한대요?
- 봉준 (배식구에 줄 서 있는 영재 가리키며) 저 있네예.
- 상민 (영재 시선 피하며 소곤) 아니 문장 몇 개 비슷하게 썼다고 그렇게 난리 난리! 완전 피해 의식 떨어가지고!
- 봉준 그건 저도 예민하다 아입니까! 여 들오기 전, 자소서 스테디를 했는데 아 글씨, 머리 쥐 나게 짜내가 쓴 사연을 지가 한 것처럼 멍그러서 고대로 갖다 쓴 멤버가 있어가 얼마나 치고받고 싸웠는지...
- 상민 에이, 어차피 자소서는 소설 아닌가? 우리끼리 얘기지만 팩트라고 하기엔... 찢리는 거 많잖아요. 서로 베끼고 베끼는 거지 뭐.  
그리고 뉴스 기사도 못 봤어요? 자소서가 다 같아잖아요. 전문 업체한테 컨설팅받아 쓴 거라서.
- 태주 (O.L.) 예민할 만하죠. 우리 모두 각자 스펙, 나이도 다 다르잖아요.  
특히나 영재님은 나이가 좀 많은 편이라...
- 식판 들고 가까이 온 영재, 멍뚱 얼굴 굳고.  
영재 온 줄도 모르고 얘기하는 일행들.

## #23. 대강당 안(오전)

-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신입들 앞에 선 광기.
- 광기 커넥트 사원 복지 신용카드가 발급됐습니다! 여러분 명의로 새롭게 개통된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나눠 드릴 테니 인증정보를 저장해서

결제서비스 테스트할 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선배2가 신입들의 이름이 붙은 휴대폰과 신용카드가 첨부된 봉투를 나눠준다.  
각자 이름이 새겨진 신용카드를 보고 뿌듯한 얼굴이 되는 신입들.

CUT TO  
영재 테이블.

상민 (카드 받아들고 보면) 근데 이거 진짜 결제되는 거 아니에요?  
 태주 나중에 일괄 취소된다잖아요.  
 봉준 (결연한) 내는 딴 건 잘 모르겠고, 월급 통장에 신용카드까지 생기니까 너무 좋다 아입니까! 신용카드는 어데 어데 할인되노?  
 상민 (피식 비웃으며) 뭐, 벌써부터 돈 쓸 생각만 합니까?  
 영재 (심각한 표정으로 가만히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보고 있는) ...  
 ...근데 카드 있음 대출... 되는 거죠?  
 상민 (신나서) 뭐 대출뿐입니까! 현금서비스도 받을 수 있죠!

## #24. 자료실 안(밤)

룸메이트들과 자료실의 테이블에 모여앉아 서로 의논하는 걸 뵈던 영재.

영재 (망설이다) ...저기... (헛기침하며) 있잖아요...  
 (주변 테이블의 신입들 눈치 살피다 룸메이트들에게 가운데로 모이라 손짓하는) ...저기... 여기요... (소곤대는)  
 봉준 (흥분해서 목소리 커지는) 뭐라꼬예? 사... (기라고 하려던 순간 영재가 급히 입 막으며 고개 가로졌고)

## #25. 기숙 룸 안(밤)

불 꺼진 기숙 룸에 둘러앉아 비밀 이야기 하듯 소곤대며 얘기 중인 일행.

태주 그러니까 영재 님 애긴, 화장실서 선배들이 하는 애길 엿들었는데 사기꾼들이라는 거잖아요? (봉준과 상민 보며) 어떻게 생각해요?  
 상민 (고개 가로저으며) 말도 안 돼요.  
 태주 (고개 끄덕, 팔짱 끼는) 저두요. 너무 황당한 얘기라... 증거 있어요? 자다가 들은 얘기 아녜요? 꿈에서 덜 깬 거 아닌가?  
 영재 (답답) 아~ 진짜라니까! 지금 우리 봐요! 휴대폰 다 압수했죠! 인터넷도 못 쓰죠! 외부연락도 못 하게 감금해놓은 것도 말 안 되고!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러다 누가 사고로 죽어나가...  
 봉준 (O.L.) 뭘 소립니까. 진짜 제대로 된 일 해보는 거 같아가 좋더구만.  
 상민 마져. 그리고 실제 회사서 계약된 프로젝트를 과제로 낸다고 해서 첫날 기밀유지 계약서 쓴 거 기억 안 나요?  
 영재 그거야 우리 입막음... (하려고)  
 상민 (O.L.) 영재님 인턴 안 해봤죠. 저, 여러 회사서 인턴만 5년 해봤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은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아요! 시다바리나 시키지...  
 영재 그니까 이상한 거죠! 어느 회사서 신입한테 이런 일을 시켜?  
 태주 (O.L.) 그래서 어찌자구요?  
 영재 (기다렸다는 듯) 일단 수적으로 우리가 더 우세하잖아요! 힘을 합치면, 여길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봉준 그래예? 그까른 영재님 먼저 가이소. 지는 남을라이까네.  
 상민 어! 나도 같은 생각인데! 저도 남겠습시다.  
 영재 (잘못 들었나) 예? 진짜 여기 있다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봉준 (영재 보며 진지하게) 지는 나가른 죽습니다. 고시원 월세 널라문 다시 알바 뛰야 카는데 여기 합격했다 케서 다 때려쳤다는 거 아이겨!  
 상민 저두요. 어떻게 들은 회산데, 잠꼬대 같은 애길 듣고 나갈 순 없어요.

## #26. 대강당 안(오전)

신입들이 모두 모여 대강당 출입구 문에 붙어 있는 문서를 본다!  
신입사원 30명의 순위가 1등부터 30등까지 정리되어 있다!

봉준 (순위 보며) 우와... 넘하다 아이가... 이렇게 등수를 공개적으로 따악!  
영재 (3위 나영재 확인하고 놀란)  
상민 (자신의 순위 5등을 보고 실망스러운) 아이, 진짜... (그러다 흥분)  
우와! 태주 님! 1등이에요! 1등! 진짜 MVP 되는 거 아니에요?  
태주 (순위 확인하곤) 와! 진짜네? 그냥 열심히 썼을 뿐인데!  
봉준 겁내, 부럽고마! 그 칸데 순위 옆에 저 포인트는 뭐꼬?  
상민 글썩요... 뭔지 모르겠지만... 1등이 젤 높은데요?  
태주 (들뜬 룸메이트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듯 눈치 주는) 헛!  
(손가락으로 순위 중 맨 끝 30등을 가리킨다)

## #27. 복도(오후)

함께 지낸 룸메이트들과 악수와 포옹을 하며 인사를 나누는 신입.  
선배1이 다가와서 옆에 놓인 캐리어를 끌고,  
함께 대표실 가서 인사하고 가자 한다.  
그 모습 힐끔거리며 엿보는 영재.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고민하고...

## #28. 대강당 안(오전)

신입들 앞에 선 광기, 테이블 위엔 전자제품들의 박스가 잔뜩 쌓여 있다.

광기 점수가 모자라 MVP 포기하신 분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고자  
찬스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앞에 놓인 노트북은 여러분이 업무할  
때 빼놓수 없는 필수도구죠. 이 노트북을 구매하면 포인트가 천

포인트 올라갑니다! 각자 점수에 맞게 구매하실 수 있게 태블릿,  
스마트와치, 무선 이어폰 등 최신 전자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론 상위권하고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확실한 한방이  
필요하다는 분들을 위한 추가 찬스!

신입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광기의 말에 귀 기울이고) ...  
광기 여기 땡큐 캐시 사의 대출 테스트 과제를 시나리오대로 끝내면 10등  
이내 지원자들과 같은 포인트를 갖게 됩니다!  
대출금은 여러분의 각자 월급계좌로 입금이 될 겁니다.

매뉴얼에 표기된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이체해줘야  
대출 테스트가 완료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CUT TO  
영재 테이블.

영재 (룸메이트들 보며 소곤) 아직도 내 말이 잠꼬대 같아요?  
상민 (영재 말에 개의치 않고) 전, 어차피 노트북 필요했습니다.  
영재 님, 자꾸 색안경 끼고 보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 알아요?  
혼자 퇴소를 하든 도망을 가든 안 말릴 테니까 방해는 말죠.  
영재 (기막힌) !!!  
봉준 내는 무선 이어폰이랑 스마트와치! 겁나 살 거 많네예!

대다수의 신입들이 줄 서서 노트북, 전자제품을 구매하느라 정신없다.  
대강당에 수북이 쌓여 있던 전자제품들은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 #29. 기숙 룸 안(오후)

신입들의 비좁은 방에는 다양한 전자제품 박스가 몇 개씩 쌓여 있다.

### #30. 대표실 안(오후)

인터넷 뱅킹의 금액을 흐뭇한 얼굴로 보고 있는 광기.

광기 (선배1에게) 최대한 빨리 현금 찾아오고, 이 계좌는 이제 끝내.

### #31. 몽타주. 신입들의 자택 우편물 도착

- 땡큐 캐시 회사에서 발송된 우편물들이
- 신입들 각자의 집으로 도착하는 컷 컷 컷.
- 우편물을 열어보고 이게 뭐지 싶은 부모들, 가족들의 다양한 표정.
- 화면 가득 들어오는 고지서 타이틀 ‘땡큐 캐시 마이너스 대출 상환 고지서’
- 고지서 내용 보면, 대출 금액은 오백만 원, 천만 원, 2천만 원 등 다양하다.
- 대출 금액 옆의 적용 금리 40%.

### #32. 교차. 대강당 앞 화장실 안+화장실 칸 안(오후)

어푸~! 어푸~! 요란하게 세수하는 영재.  
젖은 얼굴의 영재를 힐끔 보고는 자기들끼리만 깔깔대며 무리지어 나가는 상민과 봉준, 태주. 왕따가 된 듯한 느낌에 신경질적으로 툭툭 페이퍼 타월을 꺼내 얼굴을 번번 닦는 영재. 문득, 화장실 천장이 들어온다.

순간 화장실 내부를 둘러보는 영재,  
외부로는 아주 작은 쪽 창문이 한 개 있을 뿐,  
대신 하얀 텍스로 덮인 천장 위에 큼지막한 환기구 철창이 보인다.  
그 환기구 철창 아래의 화장실 칸으로 시선 향하자,  
쌩아~! 하고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고 나오는 다른 신입2.

눈치를 보던 영재가 막 나온 그 칸으로 들어간다.

변기 뚜껑을 덮고 올라서면,  
철창 너머 뺑— 뚫린 듯 어둠 속 빈 공간이 느껴진다.  
눈이 커지는 영재, 주머니에서 안경 드라이버를 꺼내 한참 보는데...

CUT TO  
시간 경과. 컴컴한 어둠 속에서 변기 위에 풀썩— 주저앉는 영재,  
저린 팔을 다른 팔로 주무르며 깊은 한숨을 내쉰다.  
손 안에 든 안경 드라이버를 보며...  
이게 뭐하는 짓인가 울컥 설움이 터지는데...

태주(E) 나영재 말입니까? 문제 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 #33. 대표실 안(새벽)

태주, 문 대표, 선배1:2 모여 회의 중이다.

광기 (그럼 다른 놈인가? 잠시 고민하는) ...그래? 애들 분위기는?  
태주 일단 모두들 MVP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광기 (서류 보고 선배2에게) 중국이랑 필리핀 실적은 왜 이래?  
선배2 (당황) 요즘은 노인네들이 금방 보이스 피싱인지 알아차려버려서...  
광기 쓸 만한 놈들 추려서 전화응대 방법 다시 써!  
애들한테 아이디어를 최대한 뽑아내야 될 거 아냐!  
대출 빚을 마구 불러줘야 목줄이 확실히 채워진다고 얘기했지?  
그래야 지들도 살기 위해 짱구를 돌린다니까!  
태주 (광기를 뻔히 보는) ...  
선배1 형님...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자꾸 도망가고... 자살... 합니다.  
문 대표 (광기 눈치 보다 꾸물하게 꺼드네) 그건 제가 좀 아는데요...  
아무리 일해도 빚이 안 줄면... 그게 좀 그렇거든요...  
광기 (노려보며) 그러니까 지금 본인 빚 좀 줄여달란 말이야?  
문 대표 (깨갱) 아니요... 그게 아니라...

광기 어이 문 대표! 애들 앞에서 사장 놀이 하니까 좋아? 정신을 놔버렸어?  
 문대표 (당황)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광기 (O.L.) 회장님이 이 사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지?  
 신입들은 어차피 우리 밥이다. 빚진 거 청산하려면 중국이든  
 필리핀이든 감금실에서 평생 전화해도 다 못 갚아. 그리고 그 빚은  
 뭐다?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 회사 자금이다! 애넌 그저 지들 받아줄  
 회사가 필요한 거야! 우린 그냥 쓰면 돼! 어떻게? 주머니를 털든  
 아이디어를 털든, 최대한 털어내라고!  
 일동 알겠습니다!  
 광기 (시계 보며) 회장님께 보고드리고 올 테니까. 잘 지키고 있어!

### #34. 기숙 룸 안(새벽)

2층 베드에서 뒤척이는 영재, 조용히 베드에서 내려와 불을 탁! 켜면,  
 상민과 봉준의 베드는 비어 있고, 태주는 코를 골며 자는 중이다.  
 영재, 태주를 힐끔 보고는 기숙 룸을 나가고...  
 문이 닫히자 눈을 번쩍 뜨는 태주!

### #35. 대강당 앞 화장실 안(새벽)

환기구 철창의 나사를 모두 풀어낸 영재, 철창을 뜯어낸 사각형의 프레임  
 구멍으로 머리를 들이밀고는 끄끙거리며 힘껏 몸을 들어 올린다.

### #36. 천장 안 덕트 속(새벽)

비좁은 덕트 통로 안에 딱 차게 들어선 영재,  
 영금영금 통로의 모양을 따라 마냥 기어가는데...  
 한참이 지나 어둠 속 통로에 불빛이 보이며 들려오는 선배1·2의 목소리!

“아우! 배고파! 뭐 좀 먹고 올까!” “그렇까? 형님 오기 전에 얼른 나갔다 오자!”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리며 발걸음이 멀어진다!  
 조심스레 환기구 철창 가까이 다가가 구멍 아래를 내려다보면, 책상이 보이고.

### #37. 교차. 대표실 안+승강기 안+지하실+대표실 앞(새벽)

검은 먼지를 잔뜩 뒤집어쓰고 책상 위로 내려오는 영재의 다리.  
 테이블 위 대리석 명판에는 문장훈 대표라고 쓰였다. 잔뜩 긴장한 얼굴로  
 내려와 주변을 살피면... 사무실 내부에 비밀 승강기가 보인다!  
 승강기에 올라타는 영재!

재빨리 문을 닫고 버튼을 누르려는데, 10층과 지하 1층 팔랑 두 개.  
 지하 1층을 누르니 부웅— 내려가는 승강기. 이윽고 스크류 문이 열린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컴컴한 공간, 겁먹은 얼굴로 팔을 승강기 밖으로 뻗어  
 더듬더듬 스위치를 찾아 불을 딱! 켜는 순간! 형광등이 파팍! 켜지고.

불쾌한 냄새와 함께 바닥엔 검은 피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는 귀퉁이 창고  
 느낌의 공간이 눈앞에 펼쳐진다. 주변엔 망치 같은 잡동사니가 굴러다니는데...

천천히... 지하실로 발을 내딛는 영재, 순간 신발에 뭔가 끈적한 게 들려붙은  
 느낌이 들어 신발 밑창을 보면, 검붉은 끈적거리는 것에 허연 무언가가 엉겨  
 붙어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뭐지? 하고 손으로 떼어보는데!

CUT TO  
 대표실 앞 복도. 분식류가 든 포장봉지를 들고  
 요란하게 수다를 떨며 대표실로 다가오는 선배1·2.

CUT TO  
 지하실 안. 허연 무언가를 들어보면, 화면 가득 보이는 사람 치아!!!  
 끈적거리는 사람 피! 헉! 겁먹은 영재가 뒷걸음치며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

황급히 버튼을 누르고!

대표실까지 올라온 승강기에서 정신없이 내려서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온다!  
급히 책상 위로 올라가 천장 덕트 안으로 몸을 밀어 올리는데!  
띠띠띠. 대표실 출입문 비번이 눌리는 소리!  
환기구 철창이 덮이는 순간 동시에 딸각하고 들어오는 선배1과 선배2!

문 대표의 책상 위로 남은 영재의 발자국!  
하지만 눈치 못 채고 수다 떨며 책상의 발자국 위에  
영덩이를 걸치고 앉은 선배1.  
소파에 앉아 다리를 쪽 테이블에 올려놓은 선배2와 수다를 떨며 깔깔거린다.

### #38. 대강당 안(오전)

테스트를 수행하기 바쁜 신입사원들.  
주변에는 선배들이 오가며 신입들의 테스트를 돕고 있는 가운데,  
화면 가득, 영재가 작은 글씨로 끼적이는 내용 보이고... ‘지하실’이라는 단어다.  
  
머리를 쥐어짜며 괴로워하는 영재,  
보기엔 진지하게 테스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참을 고민하다 지하실 옆에 다른 단어를 끼적이면 ‘탈출구?’  
확신하듯 동그라미를 마구 치다가 누가 볼까 얼른 볼펜으로 까만 칠을 한다.

### #39. 교차. 대강당 앞 화장실 안+화장실 칸 안(오전)

벌컥—! 틈틈이 칸이 빌 때마다 안에 들어가 코를 막고 살피는 태주,  
그렇게 살살이 체크하다가 영재가 드나들었던 칸으로 들어가고,  
바닥이며 벽이며 가방걸이며 하나하나 들여다보다가 이윽고 천장을 보면,

환기구 철창의 나사 하나가 빠져 있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다른 나사도 조여 있긴 하지만 헐거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INSERT

지난 새벽 기숙 룸, 먼지를 뒤집어쓴 영재가 샤워실로 들어가는 걸 보는 태주.  
설마...!!! 미묘한 표정의 태주, 환기구를 올려다본다!!!

### #40. 대표실 천장 위 덕트 안(새벽)

덕트를 기어가는 영재, 불빛이 새어 나오는 환기구 철창 아래 귀를 기울이면,  
조용하다! 조심스레 환기구를 들어 올려 머리만 들이밀고 아래를 내다보면,  
아무도 없다!

### #41. 교차. 대표실 안+승강기 안(새벽)

책상에서 내려와 전용 승강기에 재빨리 올라타는 영재.  
지엄— 하고 움직이던 승강기가 지하에 멈춰 서고! 두근두근 문이 열리는데!  
불이 켜져 있어서 멍청하고 놀란 영재!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고!

### #42. 교차. 지하실 안+캐비닛 안(새벽)

조심스레 들어서면... 어디선가 공공 앓는 소리가 난다!  
놀란 영재. 신음 소리가 나는 곳을 보면 구석에 신입1이 의자에 묶여 있다!  
처참한 물골의 신입1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영재를 알아보지도 못한다.

어찌해야 하나... 당황하는 그 순간, 승강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다급한 영재, 두리번거리다 벽에 세워진 커다란 철제 캐비닛 안에 몸을 숨긴다!  
도착한 승강기에서 내린 광기, 신입1을 보고는 표정 일그러지고.



신입1 (결국 눈물 터지며 왈각 큰 소리로 흐느끼는) 살려주세요...  
 광기 그렇게 울어도 아무도 못 들어. 꼴등으로 연수원 퇴소한 애한테 누가 신경을 쓰겠냐? (전화 꺼내서 통화) 데리고 나가!

낮은 캐비닛의 뚫린 구멍으로 훑쳐보는 영재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승강기에서 막 내려온 선배1과 2가 다가와 신입1을 부축해 나가고,  
 어둠 속 커튼이 좌악— 걷힌다! 커튼에 가려졌던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것을 보고 눈이 커지는 영재! 곧장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는 광기!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자... 조심스레 캐비닛을 열고 나오는데...  
 출구에 다가간 영재, 귀를 문에 대고 밖의 소리를 들어보면 조용하다!  
 문의 손잡이 돌리려는 순간, 어? 저절로 돌아가며 열리는 문!  
 바로 코앞에 태주가 서 있다! 태주도 영재를 보고 놀라기는 마찬가지!  
 순간 정적.

영재 (놀란 얼굴로 마주 보고 서서) 박... (태주라고 하려던)  
 선배1(OFF) (O.L.) (문밖에서 들리는) 태주야, 뒷정리 좀 해라.  
 태주 (영재 보고 놀라 입만 뻥긋, 아무 말도 못 하는데) ...  
 영재 (일당이 밖에 있음에 놀라 커진 눈, 태주 뻥히 보며 침 꿀꺽)  
 선배1(OFF) (짜증 난 듯 고함) 야! 박태주!  
 태주 (그제야 정신 차리고) 네! 알겠습니다! (영재를 당혹스럽게 보고)

이어서 승강기가 다시 내려오기 시작한다! 뭐라 할 새도 없이  
 재빨리 아까 숨었던 캐비닛으로 다시 들어가며 태주를 보는 영재,  
 얼음처럼 보고 서 있는 태주!

광기 (승강기에서 내려와) 대충 정리하고 올라가.  
 (뭔가를 훌쩍 던지며) 받아!  
 태주 (척! 받아보면 주머니칼이다) 이걸 왜...  
 광기 말 안 듣는 새끼들은 그걸로 조용히 처리하고 불러!  
 태주 (주머니에 챙겨 넣고 캐비닛 의식하며) 형님은 계속 계실 건가요?

광기 왜? (태주를 보며 다가오고... 캐비닛에 가까워지는) 뭐 할 말 있어?  
 캐비닛 안에서 창백해진 얼굴로... 다 틀렸다는 듯 눈을 질끈 감는 영재.

태주(OFF) ...저 술 좀 사주시면 안 됩니까?  
 광기(OFF) (다 안다는 듯 씨익— 웃으며) 새끼... 간만에 좋은 데 데려가줘?  
 태주(OFF) (멋쩍어하며) 아닙니다... 사식 먹은 지 오래돼서 그런지 힘도 없고...  
 광기(OFF) (흔쾌히) 나가자! 너랑 술 마신 지도 한참 됐다.

광기가 앞서 나가고, 태주가 캐비닛을 힐끔 보고는 따라 나간다.  
 조용해진 지하실. 조심스레 캐비닛에서 나온 영재,  
 다시 출구로 가서 문 열려고 하는데, 밖에서 “에이~같이 좀 가지” 불평하는 선배1·2의 목소리! 승강기로 냅다 향하는 영재!

### #43. 기숙 룸 안(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요란하게 기지개를 한껏 켜는 봉준,  
 다크서클이 잔뜩 내려앉은 쾅한 눈으로 침대에 앉아 있는 영재를 본다.

봉준 와따마! 놀래라! (영재 보고) 밤새 반쪽이 됐네? 어데 아픈니까?  
 영재 아... 아니에요... 그냥 좀...  
 태주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나오는) 아침 먹으러 가죠?  
 영재 (태주와 마주치자 얼른 드러눕고 이불 뒤집어쓰는)  
 태주 (이불을 확 걷고 영재 보고는) 누가 보면 간밤에 귀신이라도 본 줄 알겠네. 뭐 못 볼 거라도 봤어요?  
 영재 (겁먹은 얼굴로 눈만 껌뻑, 태주의 불룩한 주머니로 시선 향하고)  
 태주 (주머니 속 칼을 향한 시선 눈치채고) 그거 알아요? (의미심장하게) 귀신은 봤다고 하면 옆에 계속 있고, 안 본 척하면 사라진답니다!  
 상민 (하품하며 침대에서 일어나 영재 보곤) 그러게. 진짜 얼굴 안 좋네? 흑시... 또 무슨 얘기라도 엿들었어요?

영재 (놀라서 당황) 네? (매섭게 노려보는 태주와 시선 마주치고) 아... 아니요... 생각해보니깐... 아무래도 그때... 제가 잘못 본 거 같아요.

봉준 (황당한 얼굴로) 뭐라고요?

영재 (태주 눈치 보며 긴장) 잠... 잠결에 꿈에서 덜 깬 거 같아요.

상민 (따지듯) 참 나. 진짜예요? 확실해요?

영재 네? (다시 태주 시선 마주치고는 눈 내리깔고) ...네... 확실해요...

봉준 뭐꼬! 그람 그 말 믿고 나갔음 우리만 완전 바보 될 뻔했다 아이가!

영재 ...다...다행인 거죠...하하하. 아무도 안 믿어서. (쏟아진 표정)

상민 진짜 넘하네. 어떻게 그런 애길. (멈칫) 설마 우리 MVP 못 하게 하려고?

영재 (당황하며) 네? 그게 아니라...

상민 (O.L.) 아니긴 뭐가 아니예요. 뻔하구만.

봉준 (기막힌) 와... 이 배신감... 우짤 끼고...

영재 (해명하려고) 아뇨 아뇨... 그게 아니라...

태주 (O.L.) 넘 그러지 말죠. 다들 MVP 원하잖아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영재 (차마 더 이상 말 못 하고 답답)

상민 (태주와 상민에게) 밥 먹으러 가죠? (영재 보지 않고 나가는)

봉준 (나가며 불평) 내 참... 뭐 이른 경우가 다 있노?

봉준과 상민이 나가고 뒤따라 나가려던 태주, 남은 영재와 눈 마주치자 입술 위로 지퍼 채우라는 시늉을 하고는 나간다. 한숨 내쉬며 그대로 침대에 드러눕는 영재.

## #44. 대강당 안(오전)

선배1 자, 오늘은 창의성을 자극시키기 위해 자리를 변경했습니다. 명찰이 놓인 곳이 본인 자리이니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새로운 조원들입니다.

웅성거리며 자신의 이름을 찾아 새로운 테이블에 앉은 신입들.

자리를 확인한 영재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지는데... 상민과 봉준의 자리는 같은 조 테이블, 그와 떨어진 다른 테이블에서 영재와 태주가 같은 조다. 매 순간 자신을 응시하는 태주를 의식하며 긴장하는 영재. 열심히 과제 수행하는 중이다.

CUT TO

시간 경과. 상민 테이블. 문 대표가 들어와 신입들을 둘러보며 친근하게 말을 건다. 자신의 테이블로 올라 싶어 책상 위를 말끔히 치워놓고 계속 주시하는 상민. 하지만 영재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툭— 격려해주고는 나간다. 이글이글 질투의 시선으로 보는 상민!

봉준(OFF) 겁내... 미운 짓만 골라하이...

상민 (보면 봉준의 시선도 영재에 가 있다) 솔직히... 나도 그때 회사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 사람이 문제였네요.

봉준 ...내도 실은 그때 안 믿는 다 케놓고... 걱정 마이 했다 아입니꺼.

상민 우리만 바보였던 거죠. 저렇게 비열한 사람이 MVP 되면 안 되는데!

CUT TO

영재 테이블. 자신에게 향한 시선 의식하고 고개 들어보다 상민, 봉준과 눈 마주치는 영재, 활짝 웃어 보이지만, 싸늘하게 시선 피하는 두 사람 보고는 저절로 한숨이 나온다.

태주 (영재 옆으로 다가와 나직이) 새벽마다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영재 (테스트하다 순간 멈칫, 마른침 삼키는) ...

태주 지하실은 두 번 다시 안 가는 게 좋아. 보는 눈이 많다.

(혼잣말하듯) 그냥, 아무것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해.

시킨 대로 하면 집에 갈 수도 있어. 안 그럼 담엔... 지하실서 눈 뜬다.

영재 !!! (차마 태주 시선을 마주 보지 못한 채 겁먹은)

## #45. 대표실 안(새벽)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리고 통화 중인 광기.

남자(F) 빨리 찾아내서 족치든가, 모르겠으면 그냥 내보내.  
 거기 상황이 실시간 보고되고 있다던데? 휴대폰 압수하지 않았어?  
 광기 (표정 일그러지는) 근데, 신입 중 한 놈인 건 확실한 거고?  
 남자(F) 연수 참여 중이라고 하면 신입밖에 더 있나?

전화를 끊고는 곰곰이 생각하는 광기,  
 똑똑! 선배1·2, 문 대표, 태주가 들어오자  
 의심의 눈초리로 일행을 한 명씩 훑어본다.  
 휴대폰을 진동으로 바꾸는 선배1과 전원 끄는 선배2,  
 그 옆 태주는 휴대폰이 없다.  
 어느덧 문자를 보내고 있는 문 대표를 뚫어져라 매섭게 보는 광기!

광기 문 대표, 댓글 요청 업체들이랑 만나봤어?  
 문 대표 (휴대폰 집어넣으며) 네. 일단 다들 계약 연장하자네요.  
 광기 그래... 자네 혹시, 밖에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  
 문 대표 (놀라서) 예? 제가 무슨...  
 광기 전에도 신입이 낸 아이디어가 좋다면 나 몰래 업체에 팔아먹었잖아!  
 그러다 다른 정보 흘린 것 아니냐고!  
 문 대표 (억울한) 아닙니다. 사장님... 설마 다른 것도 아니고...  
 광기 (눈 부라리며) 항상 대박 아이템 찾고 있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문 대표를 노려보는 광기. 카메라, 그 위 천장으로 향하고.

## #46. 교차. 천장 덕트 안+대표실(새벽)

천장을 관통한 카메라, 영재가 천장 위 덕트에 었드려 었고 있다.

광기 국내 연수 일주일로 줄이고 해외 연수 3주로 간다. 대신 꼴등은 2회차 한 명만 퇴소시킨다고 신입들한테 전해.  
 선배2 (당황한 기색으로) ...애들 보낼 항공권 예약도 다 끝났는데...  
 광기 매일투어지? 내가 박 사장하고 통화할 테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애들은 원래 세 명 낙온데 두 명만 낙오하니까 좋아하지 않겠어?  
 선배1 갑자기 왜...  
 광기 (피식) 낮에 신입 하나가 연수원에 이상한 놈이 있다고 신고했다.  
  
 덕트 안에서 흠칫 놀란 영재. 귀를 쫑긋 세우는.  
  
 광기 (시선은 선배1·2를 노려보며) 화장실서 선배들 애길 었들은 쥐새끼가 애들을 선동했다던데... 박태주,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해?  
 선배1·2 (광기의 날카로운 눈빛에 고개 푹 숙이고 당황하는 두 사람)  
 광기 (짜증 내며 태주에게) 이런 건 진작 보골 했어야지. 애들이 얼마나 놀랐으면 나한테 고자질을 하겠어! 넌 그사이 뭐한 거야?  
 태주 (긴장한 얼굴로 조심스레) 나영재... 말입니까?  
 광기 (싸늘한 시선으로) 구멍 하나 생기면 골치 아파지니까 사전에 작업해야 된다고 했지. 그러라고 신입들하고 한방에 넣은 거 알잖아!  
 태주 (눈치 보며) 워낙 헛소리 같아서 아무도 안 믿는 줄 알았습니다.  
 광기 만에 하나 그 새끼 땀에 문제 생기면 너도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조직이 손해 보는 만큼 니 빛도 늘어난다는 걸 명심해.  
  
 빛? 설마... 예상과 다른 태주의 처지에 의아한 얼굴로 고개 가웃하는 영재.  
  
 광기 역시 1억 연봉이 귀 막고 눈 막는 데 직빵이라니까!  
 (길길) 김상민? 신입으로 뽑아줘서 너무 감사하넌다.  
  
 었고 있는 영재, 낭패감으로 눈을 질끈 감는다.

광기 MVP 되면 회사에 충성을 다할 거래. 근데 나영재처럼 동기들한테 헛소리해서 부당하게 MVP 차지하려는 놈들은 걸러내야 된단나?

선배1 (벌떡 일어나서) 지금 바로 끌고 오겠습니다.

광기 아냐, 애들한테 사기회사라고 말했고, 그걸 고자질한 놈까지 있는데 그대로 끌고 오면 그 말이 맞다는 것밖에 더 돼? 해외 숙소에 도착할 때까지 의심 안 하게 만드는 게 최선이다.

선배2 그대로 두면 애들한테 또 헛소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광기 그럴 시간 없을 거다. 이번 주까지 기획안 써서 발표하라고 해. 지들끼리 투표해서 가장 적은 표를 받은 사람은 꼴등으로 낙오되고,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MVP다! 그렇게 하면 불만도 없겠지?

선배1 네? 그럼 나영재가 낙오 안 될 수도 있잖습니까?

광기 애들 분위기 업 시키려고 문 대표가 칭찬 좀 해주고 등수 올려준 거지 개가 뭐 진짜로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멍!!! 이게 무슨 소린가!  
생각지도 못한 기막힌 얘기에 영재, 병해지고.

광기 (이력서 보고는) 7년 동안 공시생 하다가 들은 꼴통 새끼 데다, 그사이 애들한테 인심도 잃은 상태면 꼴찌는 말아논 거 아니겠어?

누군가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마냥 좋았던 영재,  
괴로운 얼굴로 눈을 질끈 감고.

광기 꼴등 되면 자연스럽게 퇴소하는 것처럼 해서 그놈만 잡으면 돼. 나머진 해외 현지로 보내고, 그럼 아무도 의심 안 하겠지?

선배1 그래도... 그냥 먼저 제거하는 게...

광기 가만히 뒤도, 지들끼리 경쟁하느라 끈지른 거 봐. 지금 분위기는 딱 우리가 그린 그림대로 가고 있는 거다. 돈 앞에선 동기도 의리도 없는 거지. 손보는 건, 교육 다 끝나고 해도 늦지 않아. 만에 하나, 시키는 대로 안 하거나 튀는 행동 하면 조용히 끌고 와. 여차하면 그 새끼 잡고 그 방 새끼들도 다 처리한다. 그전까진 애들 동요 없는지 살피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해.

공포에 질려 창백한 얼굴이 되는 영재!  
온통 땀에 젖어 축축하다.

## #47. 기숙 룸 안(새벽)

기숙 룸으로 돌아온 영재,  
온통 까만 먼지를 뒤집어쓰고 엉망이다.  
텅 비어 있는 침대들을 보는 영재.  
그때, 화장실에서 막 나오는 상민.

영재 (거침없이 다가가 상민의 멍살을 잡고 버럭) 말할 게 따로 있지!  
그걸 놈들한테 얘기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어?

상민 (놀라서) 왜 이래요? (알겠다는 듯) 아~ 불러갔다 왔어요?  
근데, 멀쩡하네? 확실하네. 사기회산 아닌 게.

영재 (기막혀하며) 설마, MVP 때문이야? (답답) 그거 다 사기라고!  
상민 (외면하듯) 자료실 가봐야 돼요. 글고 나이 좀 있다고 반말하지 말죠?  
대표님한테 이쁨 좀 받는다고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본데, 회사에서  
님 호칭하란 얘기 못 들었습니까?

영재 (버럭) 아무리 일자리가 궁하다 해도 사기꾼 회사에서 일해야 되겠냐?  
상민 (울컥) 나요! 대학에선 근로 장학생으로 일했고 편의점 알바한 돈으로  
학비랑 생활비로 썼어요! 휴학, 복학 반복하다 겨우 졸업하고 각종  
회사서 5년간 인턴해본 결과 이만한 회산 없단 결론이에요!

영재 정신 차려! 사기회사 다니면 너도 사기꾼 되는 거야!  
상민 (피식) 앞에선 사기회사라 하고 뒤에 가선 죽어라 기획안 쓰려고?  
영재 (답답) 그건 내가 사기회산 줄 몰랐을...  
상민 (O.L.) (진지하게) 나 솔직히 진짜 하고 싶은 일 같은 거 없어.  
그런 거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이것저것 따질 상황 아니라고!  
나 돈 벌어야 돼! 학자금도 갚아야 되고, 아픈 가족도 돌봐야 돼!  
(헛웃음) 꿈? 하고 싶은 일? 그딴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뭐든 해서 월급만 받을 수 있음 어디든 들어갈 판인데!

영재 (그 심정 잘 아는지라 깊은 한숨 내쉬며) 알아! 아무리 그래도...  
 상민 (O.L.) 제발 부탁인데... 헛소리는 이제 그만 좀 하지? 안 믿는다니까?  
 (비아냥) 사기회사 아닌 걸 몸소 증명해놓구선... (쏘아보고 나가는)

## #48. 대강당 안(오전)

테이블 맨 앞에 서서 공지를 알리는 문 대표.

문 대표 해외 지점에서 인력 요청이 왔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 인재를 빨리 보내달라는군요! 그래서 2주간의 국내 연수를 1주로 줄이고 해외 연수는 3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입들 (신나서 환호하고)

문 대표 대신 마지막 과제는 기획안 제출로 MVP와 탈락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투표로!

신입들 (박수 치며 휘파람 소리)

문 대표 단, 기획안은 아무나 제출할 수 없습니다. MVP는 10만 포인트 이상 보유자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인트는 모두 5만 이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광기를 보고 눈짓하면) 자, 설명해드려요.

광기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번에 국내 연수 기간이 짧아져서 가족들 걱정이 커질까 고민한 끝에 회사에서 작은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매해 우수 사원들만 50프로 할인된 직원가로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고급 안마의자를, 신입사원 모두에게 구매할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신입들 (웅성거리고...)

광기 매달 27만 원씩 36개월이면 최고급 안마의자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10만 포인트를 획득! MVP 도전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영재 (계산해보면 천만 원! 기막힌 얼굴로 보고) !!!

광기 어디서도 이런 기원 없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부모님들께 나중에 효도하겠다고 공수표만 날리지 말고, 회사가 도와줄 테니 지. 금. 하세요! MVP에 도전도 하고, 부모님께 효도도 할 기쁩니다!

CUT TO  
 시간 경과. 줄 서서 카드를 긁는 신입사원들.  
 상민과 봉준, 태주도 중간쯤에 서 있다.  
 상민이 뒤를 힐끔 보면 맨 끝에 영재도 보인다.  
 “그냥 자기도 MVP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면 되지...”  
 “진짜로. 이쯤 되니 무섭다 아이가” 하며 봉준과 소곤거리고.

CUT TO  
 줄의 맨 끝. 카드를 쥔 채,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광기 일행과 눈 마주치는 영재의 얼굴 위로.

광기(E) 만에 하나, 시키는 대로 안 하거나 튀는 행동 하면 조용히 끌고 와. 여차하면 그 새끼 잡고 그 방 새끼들도 다 처리한다.

영재, 다시 룸메이트 일행을 보는데,  
 자신을 향한 야유 담긴 시선을 보고 괴롭다.

## #49. 몽타주. 신입들 자택 안마의자 배송

— 거대한 사이즈의 안마의자들이 신입들 자택으로 속속들이 도착하는 컷 컷 컷.  
 — 심각한 얼굴의 가족들, 부모들의 표정 컷 컷 컷.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카드 대금 청구서.  
 화면 가득 들어오는 카드 결제 금액은 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이 넘는다.

## #50. 복도(새벽)

최종 기획안 준비로 새벽시간에도 환하게 불이 켜진 연수원 내부.  
 많은 신입생들이 자료실과 복도, 화장실을 오간다.

CCTV를 의식하며 다른 신입 일행들에 묻어 화장실로 들어가는 영재.

### #51. 교차. 천장 덕트 안+대표실(새벽)

대표실을 향해 덕트를 기어가는 영재, 불빛이 흘러나오는 환기구에 가만히 귀를 대고 아래에서 나는 소리에 집중해보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안심하는 기색으로 내려가려 하는데... 카메라, 바로 아래로 내려오면, 대표 자리는 비어 있다. 사무실 구석 소파에 드러누워 이어폰을 끼고 아이패드로 공포영화 보는 광기! 영화 보다 놀란 광기가 “엄마야!” 하고 고향을 지르고! 동시에 바로 위 천장에서 광기 소리를 듣고 놀란 영재 역시 자신도 모르게 덩달아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는데!

다행히 이어폰을 끼고 집중하던 광기는 영화 사운드가 커서 듣지 못한 상태. 텅 빈 주변을 둘러보고는 아무도 자신의 비명을 못 들은 것에 안도하는 광기, 괜히 무안한 듯 혼잣말로 “깜짝 놀랐네” 하다가 다시 영화에 집중하고... 덕트에 드러누워 놀란 가슴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영재, 다시 돌아간다.

### #52. 자료실 안(새벽)

먼지를 잔뜩 뒤집어쓴 영재가 열심히 자료를 찾고, 여러 이미지를 캡처해서 문서에 붙여 넣고 파워포인트 문서를 작성 중이다. 책상 위로 푹—! 보면... 코피다! 오! 하고 놀라 벌떡 일어난 영재, 순간 떠오르는 목소리.

광기(E) 애들 분위기 업 시키려고 문 대표가 칭찬 좀 해주고 등수 올려준 거지 개가 뭐 진짜로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풀썩, 다시 앉아 화장지로 코를 대충 쑤셔 막고는, 무서운 눈빛으로 집중하고!

### #53. 대강당 안(오전)

연단에 나가 각자 준비한 기획안을 발표하는 신입들.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신입도 있고, 긴장해서 실수하는 신입도, 현란한 문서로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신입도 있다.

광기 다음은... (순서를 보더니 픽— 코웃음 치고는) 나영재 님.  
  
CUT TO  
연단. 진땀을 흘리는 영재가 연단 앞에 선다.  
노트북에서 준비된 슬라이드를 띄우고.  
긴장한 얼굴로 사람들 보면, 자신을 노려보는 광기의 시선 위로.

광기(E) 7년 동안 공시생 하다 들은 꼴통 새끼!  
영재 (헛기침하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나영재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전 그동안 수많은 게임을 해오면서 안타깝게 느껴온 게 있습니다.  
신입들 (영재를 집중해서 보는) ...  
영재 한물간 게임이 되면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아이템이 그대로 게임 속에 묻혀버리는 거죠. (화면은 각 게임 아이템, 게임머니 등으로 바뀌고)  
전 여깁는 제 사이버자산이 글케 아깝더라고요.  
신입들 (공감하듯 웃음)  
영재 그래서 이걸 바로 마케팅에 이용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모두들 진지하게 화면 보면 '게임 자산 환전소'라는 타이틀이 보인다.

영재 저는 한때 A게임 유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B게임을 합니다.  
이제 서비스 종료된 A게임의 머니와 아이템을 환전소를 통해 현재 하고 있는 B게임의 머니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신입들 (감탄하며) 오!  
영재 이름하여 바로 게임 자산 환전소!  
문 대표 (유독 눈을 빛내며 보는) !!!

영재 게임 자산 환전소를 통하면 신규 게임 런칭 업체는 기존에 히트 친 게임 유저를 신규 게임에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환전된 게임 자산을 어떤 비율로 가져올진 각 게임사가 합의하면 될 사항이구요!

신입들 (다들 웅성거리며 그럴듯한 아이디어에 감탄하는) 대박!

영재 아시겠지만, 게임은 원래 하던 사람이 이것저것 하죠. 한 번도 게임을 안 해본 사람보다, 이미 해본 사람을 데려오는 게 훨씬 쉽습니다.

문 대표 (고개 끄덕이는)

영재 게임 유저들은 문혔던 게임 자산을 신규 게임에 쓸 수 있게 되니 어떤 비율로 환전을 해도 동의할 겁니다!

문 대표 (곰곰이 생각하며 집중해서 듣는) ...

영재 게임 자산을 연결시켜주는 환전소! 이것이 제가 준비한 아이템입니다.

인사하는 영재에게 박수 쏟아지고... 문 대표가 휴대폰을 꺼내들고 밖으로 나간다. 예상치 못한 분위기에 당황하는 광기.

## #54. 몽타주. MVP 투표 및 개표(오후)

— 각자의 자리에서 MVP를 쪽지에 써서 투표함에 넣는 신입사원들.  
 — 각 조의 조장들이 나와서 투표함의 29표에 대해서 개표한 결과를 확인한다.  
 — 그 과정을 지켜보는 인물들의 다양한 컷 컷 컷.

고개를 숙인 채 양손을 깎지 겨 모은 조마조마한 얼굴의 영재.  
 초조한 얼굴의 상민. 할 만큼 했다는 듯 후련한 얼굴로 보고 있는 봉준.  
 멍하게 딴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태주. 팔짱 끼고 지켜보는 광기 일행.  
 전체 신입들의 긴장감 가득한 얼굴들.

## #55. 대강당 안(밤)

연단 위, 문 대표가 명단이 적힌 페이퍼를 들고 서 있다.

문 대표 자, 이제 여러분들이 투표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표가 분산되어 큰 차이가 없었지만 단 한 명은 독보적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MVP는... (크게) 나. 영. 재!  
 나와서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영재 (박수 받으며 연단에 나가고) 공시생 7년 동안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틈틈이 해온 게임이 이렇게 아이디어가 될 줄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저를 뽑아준 동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고)

문 대표 다음은... 최하위등수인 낙오자 발표입니다.

신입들 (일동 다시 긴장된 분위기...)

문 대표 가장 적은 표를 받은 사람은... 고봉준 님이네요.

영재 (모두의 시선 봉준에게 향하지만... 차마 봉준을 보지 못하고) ...

문 대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여러분! 오늘 밤은 꼴등이든 MVP든 그동안의 긴장을 다 내려놓고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문 대표가 뒤에 커튼을 걷자, 맥주와 치킨 등 다양한 안주들이 세팅된 테이블이 드러나고! 신나는 음악이 울려 나온다! 함성 터지며 표정 밝아지는 신입들, 모두가 자릴 잡고 소주와 맥주를 마시며 화기애애하게 주거리 받거리 한다.

## #56. 대표실 안(밤)

대표 자리에 앉아 태주에게 보고받는 광기.

태주 다들 먹고 마시느라 정신없습니다. 몇 시에 정리시킬까요?

광기 그냥 내비워, 중국 가는 배는 어차피 널 출발할 거니까.

태주 (당황) 넌이요? 이를 후에 출발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광기 (눈 치켜뜨며) 박태주, 너 요즘 자꾸 따진다?

태주 (당혹) 그게 아니...

광기 (O.L.) MVP 데려와.

태주 나영재...요?

광기 (보면)

태주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깎듯이 90도 인사 후 나가는)

### #57. 대표실 앞 복도(밤)

뒤이어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온 광기, 앞서 나간 태주가 주변을 요리조리 살피다 화장실로 들어가는 걸 보고 고개를 갸웃한다.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는 광기,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문자를 보내고.

### #58. 교차. 화장실 안+화장실 칸 안(밤)

칸칸마다 일일이 열어보고는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태주.  
청소함 안쪽 깊숙이 손을 집어넣더니 부욱— 뭔가를 뜯어내 꺼낸다.  
안쪽 벽에 박스 테이프로 붙어 있던 휴대폰!

전원을 켜면서 가장 마지막 칸으로 들어가 어딘가로 보낼 문자를 치고 있는데... 광—! 순간 문이 내동댕이쳐지며 찌그러지듯 열리고!  
놀란 태주의 휴대폰을 빼앗아 문자를 보는 광기!

INSERT  
휴대폰 속 메시지. ‘형사님, 배가 내일 출발ㅎ’  
메시지 창의 스크롤을 올려보면, 이전에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가 보인다!

몰래 칼을 꺼내려던 태주의 손을 제압하며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노려보는 광기!

### #59. 대표실 안(밤)

대표실 안에 영재와 함께 들어서는 문 대표, 안에 아무도 없자 가우뚱한다.

영재 (불안한 눈빛으로) ...대표님... 여긴 왜...  
문 대표 일단 기다려봐. (나가고)

CUT TO  
복도.

문 대표 (휴대폰 꺼내 전화하는) 데려오라고 해놓고 어딜 간 거야?

### #60. 화장실 칸 안(밤)

살벌한 얼굴의 광기가 격하게 태주의 목살을 잡는다!  
겁에 질린 태주, 하지만 이내 분노 가득한 눈빛으로 광기를 노려보고!

광기 (부들부들 핏발 선 눈빛으로 다시 목살 잡고) 어째서!!!  
태주 (입가에 피가 터진 채로) 한 달만... 한 달만 하면 보내준다고 했잖아!  
광기 그거야 빛을 다 갚았을 때 얘기지. 나가고 싶으면 빛을 갚았어야지!  
태주 3년이야! (울컥) 3년 동안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광기 사람 죽이는 거 빼곤 다 할 수 있으니 돈 벌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  
태주 (울분 터지는) 엄마...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잖아!  
광기 니 엄마가 병에 걸렸건 죽었건 내 알 바 아니고, 다시 중국 가고 싶어?

### #61. 대표실 안(밤)

복도의 문 대표가 사라지자 후다닥 대표실 문을 잠그고  
승강기 버튼을 누르는 영재!  
혹시나 무기가 될 만한 게 없나 주변을 살펴보다 테이블 위 문 대표의 대리석 명판을 들고 휘둘러보는데! 그때 덜컥— 도착한 승강기 문이 열린다!



## #62. 대강당 안(밤)

문 대표가 광기를 찾으러 들어와 보면 선배들과 신입들이 엉켜서 만취한 상태다. 선배2가 다가와 “오늘은 편하게 마셔도 된다고 형님이 허락했다”며 귓속말을 하고... 고개를 가로젓고 나가려는 문 대표에게 신입들이 다가와 한잔하자며 조른다!

## #63. 지하실 안(밤)

긴장한 얼굴의 영재가 명판을 휘두를 준비를 하고 승강기에서 내리지만 아무도 없다! 재빨리 안을 살피다가 출구로 다가가고... 철컹— 문을 여는데!

## #64. 몽타주. 과거. 태주의 시련

— 문을 열고 중국의 어두운 지하 룸에 들어선 태주와 동기들.  
여기가 5성급 호텔?  
당혹감이 스치는데, 선배1이 로커 수납장을 열쇠로 열자 겹겹이 쌓여 있던 수십 개의 구두들이 와르르 쏟아진다! 각목을 든 선배2가 태주와 일행들을 맞이하고 거실에는 스무 명가량의 20, 30대 남녀가 커다란 상을 놓고 식사 중. 태주와 일행들을 보고선 약속이라도 한 듯 기계적으로 동시에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후배님!”을 외친다.  
  
— 불 꺼진 합숙소 방 안에서 조용히 흘쩍거리는 소리와 한숨 소리 들리고. 밤새 잠 못 이루던 태주가 겨우 눈을 감았다 싶은 순간, 밖에서 요란한 비명 소리 들린다. “뭐야? 또 죽었어? 화장실 문 열어놓고 감시 안 했어?” 누군가를 쥐 잡듯 잡는 선배1이 일행들을 향해 소리친다.  
“죽은 놈 빛이 8천5백이다. 그놈 빛은 남은 놈들이 나눠 갖는다!”  
  
— 닭장 같은 투명 칸막이 테이블이 가득 찬 중국 콜센터 사무실.

테이블 위, 구형 전화기, 응대 스크립트라 쓰여 있는 페이퍼 보인다. 첫 문장은 ‘안녕하세요. 금감원 XXX 사무관입니다’로 상황별로 대답해야 할 멘트들이 가득 적혀 있다. 다른 한 장은 이름과 전화번호가 가득 채워진 연락처. 그만두겠다며 일어나는 태주에게 퍽! 퍽! 날아오는 광기의 각목! 연수원에서 진 빚을 갚으라며 겁박하는 광기.

— 태주를 포함한 신입들 가족들에게 수신되는 문자들.  
‘엄마, 저 다쳤어요. 돈 좀 보내주세요’, ‘당신 아들이 사고를 쳤어요’, ‘검찰입니다. 자녀분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등등. 수신된 스팸문자들을 보고 울먹이고 당황하는 가족들의 표정을 킷 킷 킷.

— 합숙소에서 희멀건 죽을 게걸스럽게 먹어치우는 태주와 동기들.  
자막 — ‘입사 1년 후’  
새로 들어온 신입들을 향해 큰 소리로 “환영합니다!”라고 맞이한다. 일행 중 낮이 익은 후배의 얼굴을 발견한 태주! “형한테 연락이 안 된다며 어머니가 서울역 근처에서 매번 전단지를 돌리셨는데... 하필...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 “집에 한 번만 보내주세요!” 매달리다가 얻어터지는 태주.  
“그동안 쌓인 빚 5억을 갚으면 나갈 수 있다!”는 응답.  
자막 — ‘입사 2년 후’  
능숙하게 보이스 피싱 통화에 성공해 보이는 태주. 신입이 전화 못 하겠다고 하자 먼저 나서서, 두들겨 패고 “나가고 싶으면 빚을 갚아야지!” 하며 광기가 했던 것처럼 교육시킨다.

— 인천공항에 도착한 태주와 광기 일행.  
자막 — ‘입사 3년 후’  
태주에게 “입사 때 냈던 등본에 니 집주소, 가족들 개인정보가 다 있다. 토끼면 가족들도 다 같이 죽는다고 생각해라!”라며 경고하는 광기. 뒤로 공항 내 커다란 멀티스크린 뉴스가 자막으로 보인다. ‘○○경찰서 형사팀 김동업 팀장, 지난해 보이스 피싱 수거책 등 16명을 검거하는 실적을 올려

2년 연속 베스트 형사팀에 선정'

— 공용 화장실, 식당, 배달 그릇 등 다양한 장소에 아무도 모르게 쪽지를 놓고 가는 태주의 컷 컷 컷. 쪽지 펴보는 식당 주인, 배달기사, 종업원 등 다양한 사람들의 컷 컷 컷. '○○경찰서 김동엽 형사님께 전해주세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월드닷컴 김용주' 앞 문장은 같고 뒤의 회사명과 사람 이름이 다른 메시지 컷 컷 컷.

광기(E) 너랑 연락하는 형사새끼가 누구야?

### #65. 현재. 대강당 앞 화장실 칸 안(밤)

피떡이 돼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태주.  
이미 박살이 난 휴대폰을 들어 버튼을 눌러보면 아무런 반응이 없다...  
짜증이 확 올라오는 광기, 기절한 태주를 힐끔 본다.

### #66. 지하실 밖(밤)

지하실 출입구 밖으로 뛰쳐나온 영재! 출입구에 아무도 없다!  
지키는 이가 없다! 외딴곳에 우뚝 서 있는 연수원 건물에서  
빠져나온 영재가 다다다 쏜살같이 뛰쳐나와 힘껏 내달리는데...  
거친 숨소리와 함께 떠오르는 목소리!

광기(E) 신입들은 어차피 우리 밥이야. 빗진 거 청산하려면 감금실에서 평생 전화해도 다 못 갚을걸?  
봉준(E) 나는 첩으로 제대로 된 일 해보는 거 같아가 좋더라.  
선배1(E) 지금 해외에 가뉘는 애들 여기 풀어노면 분명 다시 들을 겁니다.  
상민(E) 제가 여러 회사서 인턴만 5년 해봤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은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아요!

광기(E) 취직 한번 해보겠다고 똥인지 밥인지 구별 못 하고 뽑아준다니까 암 생각 없이 들은 것 아냐!

봉준(E) 고시원 월세 널라른 다시 알바 뛰야 카는데 여기 합격했다 케서 다 때려쳤다는 거 아잉겨!

광기(E) 애넌 그저 지들 받아줄 회사가 필요한 거야!  
주머니를 털든 아이디어를 털든, 최대한 애들한테 털어내라고!

상민(E) 나 돈 벌어야 돼! 학자금도 갚아야 되고, 아픈 가족도 돌봐야 돼!

미친 듯이 뛰어가던 영재가 스텝이 영킨 듯 제 발에 걸려 떼굴떼굴 굴러 넘어진다! 구르다가 펍—! 커다란 나무에 머리를 부딪치며 멈춰 서고!

### #67. 연수원 건물 근처(밤)

땅바닥에 나자빠진 상태로 씩씩거리는 영재.  
괴로운 듯 “젠장! 으아아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듯 몸부림을 치고...  
그러다 벌떡 일어나 획— 뒤돌아 연수원을 노려보면,

순간 원가를 발견한 듯 영재의 눈이 커진다! 화면 가득 보이는 ‘긴급전화’ 표지!  
전봇대 같은 기둥 아래에 노란 박스의 ‘SOS’라고 쓰인 긴급전화 박스가 보인다! 뛰쳐나올 때보다 더 빠르게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영재!

### #68. 지하실 안(밤)

지하실에 도착한 승강기. 지잉— 문이 열리자 광기가 태주의 뒷덜미를 잡고 승강기에서 끌어내린다. 의자에 태주를 앉히고는 익숙하게 장갑을 끼는 광기.

광기 어떤 새끼랑 연락하는지 말해. (고함) 어디까지 붙었어?

태주 옷을 뒤져 주머니칼을 찾아내고는 칼을 퍽— 꺼내든다.

태주의 흐릿한 시선으로 광기가 자신의 얼굴에 칼을 갖다 대려는 그 순간!!!  
 퍽—! 뒤에 나타난 영재가 그대로 대리석 명판을 광기의 머리에 내려친다!  
 칼을 떨어뜨리며 그대로 고꾸라지는 광기!

영재 (의식이 오가는 태주를 흔들며) 야! 박태주! 정신 차려!  
 광기 (비틀거리며 금세 다시 일어나는) 아 씨... 꼴통 새끼가 감히 누굴...  
 (바닥의 칼을 주우려는 순간) ...  
 영재 (당황하며 칼을 발로 차버리고)

열 받은 광기가 옆에 놓인 대리석 명판을 들고 영재를 향해 내리치려는데,  
 영재가 그 휘두르려는 손을 맞잡고 대등하게 막아선다! 이글이글 노력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영재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어붙이는 광기!

## #69. 대강당 안(밤)

봉준, 상민... 신입들 대부분 술에 취했거나, 모두 굶아떨어진 상태다.  
 그 가운데 비교적 멀쩡한 선배1이 그제야 광기 부재중전화 수십 통을  
 확인하고는 벌떡 일어난다. 순간 밖에서 들리는 경찰 사이렌 소리!

## #70. 지하실 안(밤)

광기가 영재의 목을 한 손으로 잡고 우악스럽게 벽으로 밀며, 다른 한 손으로는  
 명판을 내리치려고 한다! 양손으로 명판을 가로막지만 숨쉬기 힘들어  
 버거워하는 영재!

광기 (영재의 목을 힘주어 누르며) 야! 꼴통! 너 오늘 많이 놀래킨다!  
 영재 (광기의 눈을 노려본 채 명판에 힘주며 밀어붙이는데)  
 광기 (당황하며 꾀— 있는 힘을 다해서 제압하는) 어쭈! 니가 그래 봤자지.  
 (비실비실 웃으며) 회사 들어오고 싶대서 취직시켜줬더니.

(목을 더 조르며) 감사한 줄도 모르고.

영재 (헉헉... 숨쉬기 힘든 듯 헐떡거리며 얼굴 붉어지고...)  
 광기 칭찬 한번 해주니까 헬헬레 해가지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더니. 웬 반항이냐? 그냥 까라면 까! 그게 꼴통의 자세다.

순간 레이저를 쏘듯 매섭게 노려보는 영재! 열폭 하듯 목을 조르고 있는  
 광기 손아귀를 벗어나 온 힘을 다해 광기 머리를 쿡—! 자신의 머리로  
 들이박고! 예상치 못한 머리 공격에 아찔해하는 광기를 순식간에 벽으로  
 밀어붙이는 영재!

영재 (고함치며 쿡!) 그래! 나 칭찬받고 헬헬레 했다!  
 (다시 쿡!) 넌 그 대가리로 한다는 게 고작 취준생 등쳐먹는 거냐?  
 (또 쿡! 쿡!) 양아치 새끼들!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광기 (머리 충격이 크다... 손에서 명판 놓치고...)  
 영재 (다시 쿡!) 뭐? 효도할 찬스? (쿡!) 할인을 해줘?  
 (울분 터지고! 쿡!)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쿡! 쿡!) 이 새끼들아!  
 사기 칠 게 없어서 취준생을 사기 치냐!!! (미친 듯이 쿡! 쿡! 쿡!)  
 으아아아!!!!

이어서 몇 번이고 쿡쿡! 양팔로 제압하며 광기의 머리를 못 박듯 미친 듯이,  
 죽어라 쿡! 쿡! 쿡! 박는다! 이어서 짜앵— 하고 요란하게 들리는 화재 비상벨!

영재 (헐떡대는 가운데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흐르고) 헉... 헉... 어때!  
 나도... 50프로 깎아서... 반만 때렸다!

코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는 광기가 기절하듯 그대로 푹— 고꾸라지고,  
 그 뒤로 보이는 벽의 비상벨... 완전히 부서져 피범벅이 되어 있다.  
 쓰러진 태주를 벽에 기대 앉혀주며 마주 보는 영재,

영재 (앞에 주저앉으며 헉헉) ...다 끝났어... 집에 가자!  
 태주 (겨우 눈을 뜨고 쓰러진 광기를 보자 만감이 교차하며 울컥) ...집?

피와 눈물로 범벅된 태주가 복잡한 얼굴로 영재를 본다.  
다 안다는 듯 피식 웃는 영재. 지칠 대로 지친 두 사람, 벌러덩 드러눕는다.

## #71. 연수원 곳곳(밤)

땡—! 건물 전체에 요란하게 울리는 화재 비상벨,  
이미 들어온 경찰들과 형사들이 광기 일행들을 체포하는 가운데...  
대강당에서 술에 취해 얼떨떨한 얼굴로 무슨 일인가 하는 신입들,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마주 보는 상민과 봉준.  
상민은 좌절한 얼굴로 주저앉고, 봉준은 어리둥절하다.  
기숙 룸에서 잠결에 일어나 발을 동동 구르는 신입들...  
다들 혼란스러운 얼굴이다!

## #72. 몽타주. 다시 돌아온 일상

— 병실에서 누워 있는 50대 부친과  
눈이 마주치자 괜찮다는 듯 얇은 미소를 짓는  
상민, 고개 들어 착잡한 얼굴로 티브이 속 뉴스를 본다. 그 위로, 앵커 목소리.

앵커(E) 유령회사를 차려 신입사원 연수 명목으로 취준생들을 수일간  
감금하고 고액 대출과 물건을 강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 3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알바 사이트를 보고 있는 봉준.

앵커(E) 이들은 대부업을 운영해온 조직폭력배들로 연수 기간에  
신입사원들에게 빚을 지게 만든 후 해외로 보내 보이스 피싱 조직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경찰서에서 상처투성이 얼굴로 조서 작성 중인 태주, 작전을 함께했던

김동엽 형사가 휠체어에 탄 태주 모를 모시고 안으로 들어선다. 수감 찬 태주를  
보고 울음 터지는 태주 모, 죄인처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태주.  
“성공해서 돈 벌 줄 알았어... 엄마 미안해” 하며 서럽게 흐느낀다.

앵커(E) 10억 이상의 빚을 지고 폭력과 협박에 못 이겨 또래 신입사원을  
속여온 내부 고발자 박 모 씨와 비밀 수사 진행 중이던 이 사건은...  
—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커피를 계산하는 영재, 다영에게 전화 걸려오고.

앵커(E) 중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연수원을 탈출한 신입사원 나 모 씨의  
신고로 조직원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 #73. 편의점 앞(오후)

자막 — ‘6개월 후’  
“아니라니까, 다영아~ 진짜야. 금방 취직한다니까!” 통화 중인 영재,  
“여보세요?” 뚝 끊긴 전화 보고 한숨 내쉬며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는다.  
그때 교복 입은 고등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 수다를 떨고.  
“야, 이거 대박이지 않냐? 게임 자산 환전소가 생기다니 말이야!”, “진짜 이거  
만든 사람 천재야!” 아이들 말을 듣고 놀라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는 영재!

영재 (놀라서 벌떡 일어나며 고함) 이거야!!! 이거라고!!! 으아아아아!

## #74. 호프집 안(밤)

짠! 세 사람이 든 맥주잔이 서로 부딪친다.

친구1 야~ 뭐냐? 이런 식으로 뒤통수치기 있거나?

영재 (쓱스러운 듯) 뭘 또 뒤통수야...

친구2 내가 스타트업 하자고 할 땐 잘못되면 쪽박이라고 싫다던 애가 말야!  
친구1 야! 이건 쪽박이 아니라 대박이잖나! 영재가 그 껌 회사 찾아가서 게임  
자산 환전소가 지 아이디어라는 걸 증명했대잖아, 형사 도움 받아서!  
친구2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바로 그거야! 스카웃 제안 받았다고! 아이템  
대박 터져서 로열티까지 계약했는데, 회산 왜 안 들어갔어? 그래놓고  
탐정 사무실은 왜 차렸냐는 거지!  
영재 그게 말야, 환전소 아이템은 일종의 내 가능성을 확인한 셈인데... 회사  
들어가기엔 너~무 나 자신이 아깝더라고! 멀티 잡 시대에 말야.  
친구2 (야유하며) 뭐냐, 벌써부터 자백이냐!  
영재 (피식) 그 사건 겪고 나니 진짜 뭘 하고 싶은 건지, 뭘 해야 할지  
알겠더라고. 글고 의외로 내가 액션에 좀 강하더라 말이지!  
친구1 야야! 그럴 거면 차라리 경찰공무원을 하지 그랬어!  
영재 언제까지 공부만 하고 살 순 없잖나. 꼭 경찰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 어차피 영원한 직장도, 안정적인 회사도 없는  
거라면, 한 번쯤 과감하게 하고 싶은 걸 시도해볼 만도 하잖아?  
친구2 문젠 그 시도를 우릴 놔두고 누구랑 하고 있냐는 거지!

## #75. 공유 사무실 안(오후)

띠리링!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이 울리는 아담한 사무실.

상민 (전화 받으며) 네, 취사헌입니다. (사이) 네? 아뇨.  
저희는 불륜 조사는 안 하구요. 취업사기단 조사 전문입니다!

카메라, 사무실을 훑으면, 벽에는 나영재 이름의 PIA 민간 조사 자격증,  
취사헌 사업자 등록증이 걸려 있다.  
다른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봉준, 모니터 비추면

INSERT

카페명 '취업사기단 헌터'. '이 회사, 취업사기단인지 궁금해요!'라는 게시판

아래로... 다양한 아이디의 방문자들이 올린 질문들 목록 보이고,  
게시판에 올라온 수많은 질문에 답글 달고 있는 봉준.  
이때, 회의실에서 나오는 영재, 그리고 태주와 작전을 함께했던 김동업 형사.

김 형사 구속 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래저래 태주 씨 도움이 크네요.  
영재 취준생들한테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으쓱) 참고로 박태주, 저희 취. 사. 헌 직원입니다!  
김 형사 나 대표가 조사하고 증거자료 제대로 수집해서 알려주면 우리가  
긴급체포해서, 기소될 수 있도록 할게요. 대신 지난번처럼 흥분함 안  
돼요!  
상민 (통화 종료 후 오버하며 끼어들고) 김 형사님! 지금 우리 영재 형  
무시하는 거예요? (소매 걸으며 따지듯) 그건 제가 절대 못 봅니다!  
영재 (당황하며) 아이~ 쯤! 이제 그만하라니까! (형사에게) 죄송합니다.  
김 형사 그럴 리가 있나! 요즘 같은 세상에 나 대표만큼 의협심 강한 사람이  
어딴다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수고! (웃으며 나가고)  
봉준 (보다가 꺼들며) 차암, 이럴 때 보든 진짜 사람 무섭다 아이가.  
(상민에게) 그케 도끼눈으로 야리고 고자질까지 한 사람이!  
상민 (민망한 듯) 그거야... 오해였잖아요! 뭐... 나만 그랬습니까!  
봉준 다 필요업꼬, 행님 덕에 목숨 구하고 일자리카까지 얻었으니까네, 지는  
이 회사에 몸과 맘을 바쳐 충성을 다 하겠심더!  
영재 (고개 가로저으며) 노! 노! 최대한 경험해보고 진짜를 찾으라니까!  
그때까지 존버정신으로 오케이?  
상민·봉준 (고마워하는 얼굴로 화이팅 넘치게 동시에) 오케이! 존! 버!  
영재 (뿌듯한 얼굴로 바라보며) 그럼 존버를 위해 오늘 회식 콜?  
상민 (환호하며) 콜! 콜! 콜! 아싸!  
봉준 카하! 이기 진짜 직딩의 맛 아이가!

환하게 웃는 세 사람이 화면 가득 보이며.

끝.

## 작가 후기

이 정도면 고칠 것은 다 고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쏟았기에

작품을 더 수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떨어진다면 그건 심사위원들 취향과 맞지 않았을 가능성 때문이지,

작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당시 마음은 그랬습니다.

나머진 운에 달린 거라며 그렇게 공모전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당선이 되어 김지일 센터장님께 작품 피드백을 받고 놀랐습니다.

더 이상 손볼 데가 없다고 생각했던 제 작품은 너무도 모자란 작품이더군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수정 방향을 듣고 나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왜 그걸 생각 못 했지? 아! 그런 방법도 있었네! 그렇게 했어야 했구나!’

멘붕과 자책의 시간이 쓰나미처럼 몰려왔고,

열심히 붙잡고 고쳤던 작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걸 알고 진심 부끄러웠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작품 수정은 한계나 끝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체감했습니다.

미흡한 작품임에도 <신입사원 연수원>을 뽑아주신 오펜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는 작품집이기에

센터장님의 귀한 피드백이 최대한 반영된 양질의 대본이 실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원래의 버전을 보여드리는 것도

또 다른 의미로 공모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나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최소한의 수정을 거친 당선작 그대로를 옮겨봅니다.

## 기획의도

---

아빠 늘 입버릇처럼  
‘딸 결혼식에 손잡고 함께 입장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다.  
그건 딸을 가진 모든 아빠의 숙명이라고...  
슬프겠지만,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거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난 여전히 싱글이고,  
우리 아빠는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6년 전에 돌아가셨다.  
얼마 전 지인의 결혼식에서 아빠의 소원이 떠올랐고,  
만일 내가 결혼을 한다면 올 아빠가 얼마나 오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에 이 이야길 시작하게 됐다.

만약, 망자들이 삼도천을 건너기 전,  
이승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미래로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떨까?  
한 해를 마무리하며 받는 연말정산처럼 ‘인생정산 보너스’를  
받게 된다면 말이다!

여의도 증권가 속 망자들만 갈 수 있다는 ‘인생대출심사센터’에서  
최대한도 24시간! 환생권을 담보로 한 망자들의 인생대출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인생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이승에서 저질렀던 잘못으로 인해 시간은  
차감되는데... 과연 당신이 받을 보너스 타임은 얼마나 될까?

## 등장인물

---

### 김창욱(50세, 남)

딸 지연이의 행복만 보고 살던 싱글파파.  
창욱은 딸 결혼식에 손잡고 입장하는 것이 소원이었으나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된다.  
그러나 인생대출심사센터에서 미래로 갈 수 있단 말에  
딸의 결혼식 날로 가기로 한다.

### 김지연(32세, 여)

창옥의 단 하나뿐인 보물. 아빠를 잃고 혼자란 생각에 외롭다.  
아빠가 죽은 뒤에 만난 태민에게 의지하게 되고,  
남은 인생을 그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

### 사무원1055(미상, 남)

인생대출심사센터의 사무원.  
망자들이 미래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업무를 보고 있다.

### 주태민(33세, 남)

현재까지 지연의 남자친구, 오늘 지연의 남편이 된다.

### 이재훈(33세, 남)

태민의 친구로, 창옥은 재훈의 몸을 빌려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된다.

### 그 외

은지, 진희, 민식, 태민 모 등

하지만, 미래로 가려면 나와 주파수가 맞는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창옥과 주파수가 맞는 신랑 태민의 친구인 재훈의 몸에 빙의한다.

딸의 행복한 결혼을 꿈꾸며 미래에 온 창옥.  
하지만, 신랑 태민이 지연이 아닌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과연, 창옥은 딸의 행복한 결혼식을 무사히 볼 수 있을까?

## 줄거리

---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김창옥,  
죽자마자 저승이 아닌 '인생대출심사센터'에 들르게 된다.  
그곳에선 이승에서 가장 보고 싶어 하는 미래로 보내준다는데...

창옥은 부모 없이 홀로 결혼식을 치를  
딸, 지연이의 결혼식에 가기로 마음먹고,  
창옥이 살아온 인생과 다음 환생권을  
담보로 걸고 인생대출 보너스 타임을 받는다!

보너스 타임을 부여받고 2년 뒤 치러질 지연의 결혼식으로 가게 된 창옥.



## 보너스 타임 신희선

### #1. 도로(새벽)

어두운 새벽, 강변북로를 달리는 창욱의 차.

거래처(E) 사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납품기한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 #2. 차 안(새벽)

기름때가 묻은 거친 손과 지친 얼굴로 운전하고 있는 창욱.  
작업복 곳곳에 기름때가 묻어 있고, 가슴엔 ‘(주)대광정밀’이란 로고가 붙었다.  
블루투스로 전화 통화하는 창욱.

창욱 별말씀을요~ 사장님과 거래 뜬 지가 10년인데, 어려울 때 도와야죠.  
거래처(E) 죄송해요! 약속도 미루고 철야하셔서...  
창욱 괜찮습니다. 나중에 또 곤란한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끊고, ‘내 보물’이라 저장된 번호로 전화, 받지 않아 음성 남기는) 딸! 아직도 빠졌어? 아빠가 미안해!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먹자. 아빠가 쏜다.  
(웃으며 백미러에 걸린 지연과 창욱이 찍은 가족사진을 본다)

### #3. 도로(새벽)

창욱의 차선 뒤로 굉음을 내면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스포츠카,  
차선을 변경하다가 속도를 감당 못 하고 주변의 차와 창욱의 차를 박는다.

CUT TO

5중 추돌 교통사고 현장. 카메라, 처참한 잔해를 훑는다.  
반파된 창욱의 차. 도로로 튕겨 나온 창욱. 얼굴과 몸이 피투성이다.  
창욱, 힘겹게 눈만 깜빡깜빡하고, 시선이 향한 곳은 지연과 찍은 사진이다.

블랙으로 타이틀 — 〈보너스 타임〉

### #4. 인생대출심사센터 외경(낮)

높은 건물들이 빼곡한 여의도 증권가 빌딩 숲.  
빌딩 숲속에 화이트 톤의 우뚝 솟은 건물이 하나 보인다.

### #5. 인생대출심사센터 안(낮)

중앙에는 증권거래소처럼 큰 전광판에 ‘시간대출실시간현황’이라 쓰여 있고,  
어떤 이름 옆엔 ‘심사 중’, 어떤 이름 옆엔 숫자와 ‘대출 중’이란 글씨가 있다.  
전광판 왼쪽엔 수십 개의 창구가 있고, 창구마다 번호 화면판이 있다.  
창구를 사이에 두고 안에는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사무원이 앉아 있고,  
밖엔 사람들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창구 맞은편엔 벤치가 있고, 사람들이 번호표를 들고 앉아 있다.  
마치 은행과 비슷한 풍경이다.  
창욱, 병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는데, 사무원1055(이하 사무원) 다가온다.

사무원(E) 김창욱 씨, 김창욱 씨.  
창욱 (들리지 않는) ...  
사무원 (크게) 김창욱 씨!  
창욱 (깨는) 네? (사무원 보고, 다시 두리번) 여... 여기가 어디죠?  
사무원 이제 망자가 되셨으니 인생대출 받으셔야죠.  
창욱 (황당) 망... 망자라뇨? 제가 왜 죽어요!!

사무원 (보는)  
 창옥 그리고 대출? 요즘엔 노잣돈도 대출받습니까?  
 사무원 달리 말하면 인생정산이라고도 하죠.  
 창옥 인생정산이요? (가웃) 근데 누구시죠?  
 사무원 (명함을 건네며) 인생대출심사센터의 대출사무원입니다.  
 창옥 (받고) 대출사무원?  
 사무원 죽을 사에 속일 무! (화면 우측에 한자 CG 표시) 쉽게 설명하면 죽음을 속이는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창옥 (놀라) 죽음을 속인다고요? (화색) 그럼 저 다시 살아나는 겁니까?  
 사무원 비슷하죠. 죽기 전에 받는 인생정산 보너스 타임이니까요. 그럼 자세한 설명은 이쪽으로 가지죠.

사무원, 손짓으로 창옥을 안내하고 창옥, 사무원을 따라 걸어간다.

## #6. 인생대출심사센터/대기실 복도(낮)

대기실 앞 '신규망자대기실' 팻말이 걸려 있고,  
 사무원과 창옥 걸어와서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 #7. 인생대출심사센터/대기실 안(낮)

창옥, 사무원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앞에는 강의실처럼 칠판이 있고,  
 20명 남짓 사람들이 칠판을 쳐다보며 앉아 있다.  
 사무원은 칠판 앞 단상에, 창옥은 앞쪽의 빈자리에 가서 앉는다.  
 사람들, 사무원을 바라보고 멍-한 표정이다.

사무원 여긴, 인생대출심사센터, 흔히 시간은행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사람들 (의아) 시간은행?  
 사무원 망자가 되신 여러분들은 곧 삼도천을 건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이승에서 이걸 꼭 해봤어야 했는데...'란 생각 있으시죠?  
 사람들 (끄덕끄덕, 맞아 하고 호응하는 모습들)  
 사무원 망자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인생대출심사센터에선 여러분들이 이승으로 갈 수 있게 '보너스 타임'을 드립니다.  
 사람들 (신나서 웅성) 진짜요? 와!  
 사무원 단, 대출심사를 통해서 말이죠.  
 사람들 (놀라고, 웅성대고)  
 30대 남자 대출요? 그건 어떻게 받습니까?  
 사무원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통해 시간대출심사가 이뤄집니다. 최대한도는 24시간, 담보는 다음 환생권입니다.  
 50대 여자 담보?  
 사무원 규칙만 잘 지키시면 다음 환생은 그대로 보장되지만, 만약 규칙을 어긴다면 영원히 환생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들 (놀라고)  
 사무원 만약 싫으시다면, 대출 포기하셔도 됩니다.  
 사람들 ...  
 사무원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분 확인, 신용도를 책정하는 면접 및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다들 어디로 가실지 신중히 결정하세요.  
 60대 여자 (절실, 차분한 톤) 그럼 언제든, 아무 미래나 갈 수 있나요?  
 사무원 네. 내일이든, 1년 후든, 10년 후든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대출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창옥 (고민하다) 가고 싶은 미래...? (옆 사람에게) 어디로 갈지 정했어요?

## #8. 몽타주. 인생대출심사센터/상담창구(낮)

1번 상담창구에 앉아 있는 60대 여자.

60대 여자 우리 딸 출산일이요. 출산하면 친정엄마가 옆에 있어야죠. 고생한 딸한테 가서 미역국도 끓여주고, 수고했다고 안아줘야죠.

카메라 2번 상담창구로 PAN 하면, 11세 남학생 앉아 있다.

11세 남학생 동생 생일이요.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는데, 자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 자책할까 봐 네 탓 아니라고... 엄마 아빠랑 내 똥까지 잘 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3번 상담창구로 PAN 하면 뽕뽕이 안경을 낀 35세 남자가 있다.

35세 남자 (소곤소곤) 지금 당장 갈 수 있나요?  
누가 보기 전에 컴퓨터 야동을 지워야 하는데...

4번 상담창구로 PAN 하면 29세 여자 있다.

29세 여자 (울먹) 제 첫 제삿날이요. 남편에게 다른 사람 만나도 된다고...  
내 생각은 일 년에 한 번만 해주면 충분하다고 말하러 가고 싶어요.

5번 상담창구로 PAN 하면 창옥 앉아 있다.

사무원 어디로 갈지 결정하셨어요?

창옥 (끄덕이며) 딸 결혼식이요. 가서 같이 손잡고 입장도 하고 싶고, 그 행복한 날 부모 없이 외롭게 결혼할까 봐 마음이 걸리네요.

사무원 (태블릿PC를 들고) 우선 따님이 결혼하는지부터 알아봐야겠네요.  
(태블릿으로 '김지연 결혼식'을 검색하고)

창옥 (흥미) 그걸로 알 수 있어요? 우리 딸 언제 결혼합니까?

사무원 (검색된 지연의 청첩장을 창옥에게 보여주며) 따님 김지연 씨의 결혼식은 2023년 4월 2일이네요.

창옥 2년만 더 살걸... 근데, 신랑은 누구니까?

사무원 이름 주태민. 김지연 씨보단 한 살 연상이네요. 직업은 게임회사 해외사업부 팀장이고, 김창옥 씨가 세상 떠나고 만난 남잔데,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군요.

창옥 웬만한 남잔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새어 나오는 웃음) 그럼 전 시간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사무원 심사를 받아봐야죠. 저거 쓰세요.

사무원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엔 VR 기계 있고, 팻말로 '주마등' 적혀 있다.

창옥 이걸...

사무원 죽기 전에 본다는 바로 그 주마등입니다! 이걸 토대로 시간대출한도조회 시작하겠습니다. 써주세요.

창옥 (VR을 쓴다)

## #9. 인생대출심사센터/로비 전광판(낮)

로비의 큰 전광판에 다양한 이름이 있다.  
그 안에 김창옥 이름이 있고 옆엔 '심사 중'이란 글씨가 뜬다.

## #10. 몽타주. 창옥이 쓴 VR 속 영상

— 영상은 3가지 챗터로 분리되어 있고,  
'챗터 1. 유년(0~20세) 2. 청년(21~40세) 3. 중년(41~50세)'  
창옥과 사무원은 VR에 들어와 영상을 지켜보는 느낌으로 진행.

사무원 김창옥 님은 노년이 없어서 3챗터군요!  
보면서 대출한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① 김창옥의 '유년' 몽타주  
— 10살 김창옥 초등학교 친구들과 주먹다짐을 벌이고 있다.

사무원 친구에게 폭력행사를 하셨네요? 대출시간 차감 사유입니다.

창옥 절 부모 없다고 돌려대는 악질이었어요.

사무원 그렇다고 폭력이 정당화될 순 없습니다.

— 사복 입은 17세 창옥, 교복을 입은 학생과 나란히 걷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로 들어가고, 창옥은 학교를 지나 공장으로 들어간다.  
— 밤 골목길. 20살 창옥과 20살 여자, 손 잡고 걸어가다가 키스한다.

창옥 고등학교 대신 공장에 다녔어요. 공부보단 돈 벌어야겠다는 마음이 컸거든요. 그 후 대학생인 지연 엄마를 만나 행복한 결혼도 꿈꿨죠.

② 김창옥의 '청년' 몽타주  
— 21세 창옥의 품에 안겨 있는 갓난아이 지연. 창옥 눈물 글썽, 행복한 표정.  
— 창옥, 우는 지연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고  
테이블 위엔 검은 띠로 둘러 지연 엄마의 사진이 있다.

창옥 (기분 좋고) 내 새끼 처음 본 순간을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어요?  
그 행복은 말로 표현 못 하죠! 지연 엄마 떠나고 남자 혼자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 딸 고아로 만들고 싶지 않아 악착같이 키웠어요.

— 7세 지연, 달력에 자연농원 가는 날 적고 창옥과 새끼손가락 약속하고  
컷 튀면, 술 취해 자는 창옥 옆에서 울고 있는 지연이.

사무원 따님과 약속을 못 지키셨네요? 약속은 신뢰. 신뢰는 신용이죠.  
대출에서 신용도가 중요한 건 아니죠? 시간 차감입니다.

— 14세 지연의 종아리를 때리는 34세 창옥.

사무원 혼육이란 이유로 아이에게 매를 드셨네요?  
창옥 늦은 밤까지 안 들어오니까... 그래도 저 때 딱 한 번이었어요. 아직도  
미치게 후회하고 있다고요!  
사무원 아버님은 혼육이어도 매는 폭력입니다. 시간 차감 사웁니다.

③ 김창옥의 '중년' 몽타주  
— 운전 중인 창옥, 조수석에 지연 아픈 얼굴로 앉아 있다. 빨간불임에도  
과속으로 신호 위반하며 뺨 달리는 모습.  
— FLASH BACK #3 도로, 교통사고 나는 상황.

사무원 신호 위반도 하셨어요?  
창옥 그건 지연이 맹장이 터지는 바람에 급해서...  
사무원 그렇다 하더라도 내 자식 살리겠다고 위반했다가 사고라도 내면  
어쩔 뻔했어요?  
창옥 ...  
사무원 여기서 시간 많이 차감되셨네요.  
(사고 영상 보고) 김창옥 씨 영상은 여기까지네요.

## #11. 인생대출심사센터/상담창구(낮)

사무원, 창옥 마주 앉아 있고, 태블릿에서 알람음이 울린다.

사무원 (태블릿을 확인하고) 대출시간 나왔습니다.  
창옥 (기대하며) 얼마나 나왔나요?  
사무원 312분이니까 총 5시간 12분 대출받으셨습니다.  
창옥 고작 5시간이요?  
사무원 그래도 결혼식을 보기엔 충분한 시간이죠. 가시죠. (일어난다)  
창옥 (일어나며) 같이 가시는 겁니까?  
사무원 규칙 여기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서요. 만약 그렇게 되면 저도  
시말서 제출해야 하고, 제 인사과과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가시죠.

## #12. 여의도 환승센터(낮)

사람들 서 있고, 창옥과 사무원 걸어간다. 창옥, 사람과 부딪혀도 투과된다.

창옥 이승 사람들과 같은 정류장을 쓰는 겁니까?

사무원 네. 저 사람들 눈엔 우리도, 우리가 탈 버스도 보이지 않으니깐요.

창옥 버스요?

사무원 김지연 씨 결혼식이 2023년 4월 2일 오후 2시.  
그니까 2023번 버스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창옥 (설렌)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딸 결혼식은 보고 가네요.

사무원 먼저 보너스 타임 규칙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창옥 씨에게 주어진  
대출시간은 5시간 12분. 시간이 종료되면 보너스 타임은 끝나고,  
삼도천을 걸게 될 것입니다.

창옥 (다짐하듯) 네, 알고 있습니다.

사무원 김창옥 씨 이승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밝힐 수 없으며, 현실에  
관여해서 미래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이를 어긴다면 대출시간이  
소멸되고, 담보로 걸었던 환생권마저 뺏기게 됩니다.

창옥 네? 그럼 지연이한테 제가 아빠라고 밝힐 수 없는 건가요? 그럼 내 딸  
손은 어떻게 잡아줍니까?

사무원 포기하셔야죠. 어차피 당신 모습으로 갈 수 없는데...

창옥 (흥분) 네? 그건 또 무슨 소립니까?

사무원 이승의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 모습 그대로 간다면  
이승이 발각 뒤집히겠죠.

창옥 그럼 딸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보기만 하라고요?

사무원 아뇨. 이승에서 김창옥 님과 주파수가 맞는 분의 몸을 빌려야죠.

창옥 ...주 ...주파수요?

사무원 김창옥 님과 생일이 같은 분의 몸을 빌리는 겁니다. (태블릿 보며)  
운이 좋으시네요. 하객 중에 김창옥 님과 주파수 맞는 분이 있어요.  
신랑의 친구 이재훈 씨.

화면 우측에 이재훈의 사진과 신상이 CG로 뜬다.  
'생일 1991년 8월 4일'. '김창옥 생일 일치!' 자막이 뜬다.

사무원 이재훈 씨는 신랑 주태민 씨와 친구로 오늘 결혼식 사회부터 웨딩카  
운전까지 도맡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잘하면 대출시간 내내 같이

있을 수 있겠네요.

창옥 ...

사무원 명심하세요. 미래를 바꾸려고 하면, 시간이 소멸된다는 것을...  
저기 버스가 오네요.

창옥 (버스정류장에 들어오는 2023번 버스를 보는)

### #13. 버스 안(낮)

창옥, 사무원 나란히 앉아 있다.

창옥 (창밖을 응시하는)

사무원 (말 없는)

창옥 (안 믿기는 듯) 우리 딸이 결혼이라니... 아직 어린앤데...

사무원 ...

창옥 (아랑곳하지 않고) 지연이가 14살 때 갑자기 최강창민이랑  
결혼하겠다고 그 녀석 집 앞에서 기다린다고 집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무원 (뒀 소린가 창옥 보고)

창옥 그때 집에 안 들어왔다는 충격보다, 최강창민이랑  
결혼한다는 말이 더 충격이었죠. 커서 아빠랑 결혼한다더니...

사무원 (창옥을 물끄러미 본다)

창옥 언제 이렇게 컸는지... (사무원 손을 잡으며) 그래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연이 결혼식 보고 갈 수 있게 해줘서...

사무원 (창옥의 말에 마음이 살짝 몽글해지는)

안내방송(E) 이번 정류장은 2023년 4월 2일 정류장입니다.

사무원 (헛기침하며) 이제 내리시죠.

## #14. 미용실 외경(낮)

자막. '2023년 4월 2일 - 지연의 결혼식 당일'

## #15. 미용실/메이크업실(낮)

지연, 메이크업 받는 뒷모습. 문밖으로 태민이 걸어 나오며

태민 재훈이 도착했대.  
지연(E) 식 안 늦으려면 서둘러야 해. 알지?  
태민 응. (문 닫고 밖으로 나가는)

## #16. 미용실 밖(낮)

태민, 미용실에서 나오면 재훈이 웨딩카 앞에 서 있다.

재훈 (턱시도 입은 태민 보며, 간죽) 결혼을 하긴 하네?  
태민 그럼 안 할 줄 알았냐? (웃다, 사뭇 진지) 근데 부탁한 건?  
재훈 (끄덕이며) 응 했어. (넌지시) 근데, 너 진짜 괜찮겠냐?  
태민 (한숨 쉬며) 방법이 없다. 이것 말고...  
재훈 (보는)

## #17. 미용실 앞 버스정류장(낮)

사무원과 창옥, 멀리서 얘기하는 태민과 재훈을 본다.  
태민은 미용실로 들어가고, 웨딩카 장식을 하는 재훈.

사무원 (재훈을 가리키며) 저분이 이재훈 씨네요.  
창옥 (비장한 눈빛으로 재훈을 보는)

사무원 이제 보너스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이재훈 씨 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창옥 (비장한 모습) 네.

창옥, 크게 심호흡하고, 재훈에게 달려간다.  
창옥과 재훈의 몸이 포개지는 순간.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는 재훈.  
눈을 뜨면 재훈의 눈빛이 달라져 있다.

INSERT  
#9의 시간은행 로비 전광판.  
'김창옥' 이름 옆에 '심사 완'이 '대출 중'으로 체인지된다.

재훈 (일어나 몸을 살피며, 신기) 우와. 저 된 거죠? 그죠?  
사무원 (걸어와 5시간 12분 설정된 손목시계를 주며) 김창옥 님의 보너스 타임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규칙 명심하세요.  
재훈 네. 걱정 마세요. (웃으며 미용실로 들어가는)

## #18. 미용실/메이크업실+계단(낮)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는 재훈의 발걸음이 묘하다.  
한 계단씩 올라가면 열린 문으로 지연의 뒷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지연, 눈화장을 받고 있고, 태민은 그 뒤에 서 있다. 재훈 그대로 서서 돌을 보는

태민 (감격스러운 듯) 너무 예뻐.  
지연 (피식 웃는)  
태민 (다짐하듯) 나 진짜 잘할게. 너 행복하게 해줄게.  
지연 ...  
태민 (말 돌리듯) 아버님도 직접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지연 (슬픈) 그니까... (이내 감추고)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지.

재훈, 지연을 보는 눈에 눈물이 점점 차오른다.

지연 (재훈을 발견하고) 어? 오빠!  
 재훈 (지연의 어여쁜 모습에 말을 잊지 못하고 보는)  
 지연 오빠!  
 태민 (그제야 재훈이 들어온 것을 눈치채고) 왜 그래?  
 재훈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예... 예쁘다.  
 지연 (미소) 진짜요? 얼굴 좀 부은 것 같은데...  
 재훈 아냐. 붓긴 네가 누구 딸인데...  
 지연 ?  
 태민 뭐? 딸?  
 재훈 (정신 번쩍) 아... 아니... 오늘... 더... 예쁘다구!  
 지연 (활짝 웃으며) 고마워요!  
 태민 (소파에서 일어나 재훈에게 가며) 이재훈, 오늘부터 니 형수님이다.  
 잘 모셔라.  
 재훈 (들리지 않는) 지연아, 행복하지?  
 지연 그럼요. 내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재훈(창옥)(E) (뚫어지게 보며) 우리 딸이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해.  
 지연 오빠 왜 그렇게 뻔히 봐요? 사람 부끄럽게.  
 재훈 (당황) 어? 아... 아니 그게...  
 태민 (재훈의 등짝을 내리치며) 지연이 예쁜 거 이제 알았어?  
 재훈 그... 그녀가 눈부셔서... (진지) 너 지연이한테 잘해. 알았지? 지연이 울리면 내가 평생 너 저주할 거니까...  
 태민 (어이없는) 뭐래~?  
 직원 신부님, 이제 드레스 입으러 가지겠어요?  
 지연 오빠! 전에 출장 가서 나 드레스 입은 거 실제로 처음 보지?  
 태민 (아쉬운) 그러게. 그놈의 출장!  
 지연 그니까 오늘 놀래지 마! (메이크업실을 나간다)  
 태민 (핸드폰 Ding Dong 알람이 울리자 보고)  
 재훈 (지연이 나간 문 쪽을 계속 주시하고) 너 안 따라가?  
 태민 (핸드폰 보다 말고) 어? 어! (나가려는데 재훈이 따라오자) 너도 가?

재훈 (해맑게) 당연하지! 우리 친구니까

### #19. 미용실 외경(낮)

### #20. 미용실/드레스룸(낮)

중앙의 큰 커튼 안에 지연이 있고, 맞은편에 태민과 재훈 서 있다.

재훈(창옥)(E) (설레서 발 동동) 왜 내가 설레고 난리야? 침착하자! 침착!!  
 태민 (재훈의 설레는 모습 보다) 누가 보면 니가 신랑인 줄 알겠다?  
 재훈 지연이 예쁘겠지? 암... 예쁘겠지. 그럼... 누구 딸인데...  
 태민 ?  
 재훈 야~ 나도 설레는데, 신랑은 오죽하겠냐? 진짜 축하한다! 잘 살아!  
 지연(E) 오빠 나 나간다!  
 태민 (뭐지? 싶어 찡찡한)

커튼 열고, 지연의 드레스 입은 모습 보인다.  
그 모습을 보는 태민과 재훈. 재훈이 더 상기된 표정이다.

지연 (태민에게) 오빠 어때?  
 태민 (지연의 모습에 반한 듯) 예... 빠...  
 재훈 나 시력이 안 좋아진 것 같아.  
 태민-지연 ?  
 재훈 (씩 웃으며) 눈부셔서...  
 지연 뭐야~  
 태민 (찡찡함에 가웃하는)  
 재훈 여신이네, 최고야!! 뽀뽀가 아니라 이걸 뽀뽀 백 개 준다. 백뽀뽀!!!  
 태민 쌍팔년도냐? 뽀뽀가 뭐야 뽀뽀...  
 재훈 (아랑곳하지 않고 지연을 웃으며 보는)

지연 (웃으며) 맞아. 근데, 오빠도 백따봉이란 말 쓰네!  
 올 아빠 말고 쓰는 사람 처음 봤어.

직원 신랑신부님 이제 식당으로 출발할게요.

재훈 (넋 놓고 지연만 보고 있다)

태민 (재훈 보고) 뭐해? 우리 출발할 거야. 차 빼야지!

재훈 어어... (나가고)

## #21. 미용실 앞(낮)

재훈, 세차 미트로 반짝반짝 광택 나게 웨딩카를 닦고 있다.

재훈 (콧노래 부르다) 내가 딸내미는 진짜 잘 낳았지. 아~ 그냥 어릴 때  
 미스코리아 시킬 걸 미모가 너무 아깝네. (다시 닦으며 콧노래)

태민, 미용실에서 나오면 뒤이어 드레스 입은 지연이 나온다.

재훈 (소리에 돌아보면 태민과 지연 보이고) 잘 어울리네. (지그시 보는)

태민 재훈아 문 좀!

재훈 어어! (뒷좌석 문을 연다)

지연 (뒷자리에 타며) 오빠 고마워요!

태민 (지연이 탄 쪽의 문을 닫으며) 너 오늘 지연이 보는 눈빛이 좀~  
 그렇다~ 오늘 나랑 결혼하는 거 알지? (반대편 뒷좌석으로 간다)

재훈 어... 그럼 (태민이 타자) 으이그! 짜~식! 질투하기는!! 그래 내 딸  
 그렇게 끄찍~이 사랑해줘라!  
 (세차 미트를 트렁크에 넣고 운전석에 탄다)

## #22. 도로(낮)

디제이(E) 이번엔 기운 나는 노래 좀 들을까요? 김수철의 <젊은 그대>!!

## #23. 웨딩카 안(낮)

재훈,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은 손가락으로 튕기며 노래 박자를 맞추고  
 뒷자리에 앉은 지연을 백미러로 힐끔힐끔 본다.  
 지연은 창밖을 보고 있고, 태민은 핸드폰을 하고 있다.

재훈 (추임새 넣으며 따라 부르는) 거칠은 벌판으로 달려가자 으싸랴으싸

지연, 창밖을 보다 재훈의 노래에 놀라서 재훈을 바라본다.  
 그 순간 지연의 눈에 운전하는 사람이 창옥으로 보이고, 놀라는데...  
 다시 눈을 감았다 뜨면 다시 재훈이다. 생각에 잠기는 지연.

## #24. 회상. 옛날 창옥의 집 주방(낮)

30대 중반의 창옥이 라디오를 켜고 설거지를 하고 있다!  
 라디오에선 <젊은 그대>가 흘러나오고 있고, 추임새를 넣어가며 노래한다.  
 14세 지연, 부엌에 들어와 냉장고 문을 열어 물을 컵에 따른다.

창옥 젊음의 태양을 마시자! 으싸랴으싸 보석보다 찬란한... (찬란한~)

지연 (물 먹다 뽀뽀하며) 그게 뭐야? 노래를 왜 그렇게 불러?

창옥 원래 노래는 추임새를 넣어줘야 맛이야.

지연 (어이없다) 아빠 아저씨 같애.

창옥 그럼 내가 아줌마냐?

지연 아 재미없어. (주방을 나가고)

창옥 (계속 추임새를 넣으며 노래를 부른다)

## #25. 웨딩카 안(낮)

재훈, #23에 이어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고,



태민 우리 야구장 아니고 예식장 가는 거 알지?  
 재훈 그럼!! 당연히 알다마다.  
 태민 근데 왜 이렇게 신났어?  
 재훈 너가 결혼한다니까 좋아서 그러지. (이어서 노래 부르는데)  
 지연 (재훈을 쪽 보다) 재훈 오빠 내가 아는 사람이랑 비슷하게 부르네?  
 태민 누구?  
 지연 울 아빠.  
 재훈 (노래를 멈추고 당황해서 헛기침)  
 태민 오늘 아빠 생각 많이 나지?  
 지연 줌...  
 태민 (지연의 손을 잡고) 아버님 하늘에서 보고 우리 축복해주실 거야.  
 지연 울 아빠가 내 결혼식 보고 싶어 했는데... 울 아빠 소원이 내 결혼식에 손잡고 들어가는 거였거든...  
 재훈 (불쑥) 내가 손잡고 들어갈까?  
 태민 (황당) 야, 니 손을 왜 잡아?  
 재훈 (당황) 아... 아니 우리가 친구니까... 잡아줄까 했지.  
 태민 그게 말이 되냐? (지연에게) 지연아, 이따 내 손 꼭 잡아~ 아버님 뭉까지 꼭 잡아줄게! 알았지?  
 지연 (말없이 창밖을 바라본다)  
 재훈 (핸들을 꼭 잡으며, 혼잣말) 내가 잡아줘도 되는데...  
 태민 지연아, 오늘 기분도 안 좋은데, 신혼여행까지 못 가서 미안해.  
 재훈 (놀라 낄 서는) 뭐? 신혼여행을 안 간다고? 왜?  
 태민 (당황, 이 악물고) 야 내가 얘기했잖아~ 일 생겼다고...  
 지연 (계속 창밖을 주시) 괜찮아~ 다른 것도 아니고 일 때문인데 뭘~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 진짜 중요한 거라며...  
 재훈 (백미러로 지연의 얼굴 보다) 그럼 오늘 안 가면 언제 갈 건데?  
 태민 프로젝트 끝나면 가야지. 지연아 가고 싶은 곳 있어?  
 지연 (아! 얘기하려는데)  
 재훈 아이슬란드!  
 지연 (어떻게 알았지? 의아한 듯 재훈 보고)  
 재훈 지연이 소원이잖아. 오로라 보러 가는 거.

태민 (재훈의 대답을 듣고 신경 쓰여, 더듬) ...오... 로라?  
 지연 (의아) 재훈 오빠 어떻게 알았어요?  
 재훈 (당황) 아... 아니 전에 태민이한테 들었어.  
 태민 (생각나는 척) 아... 그랬지...  
 지연 (의아한)  
 태민 지연아, 오빠 프로젝트 끝나면 바로 오로라 보러 가자! 알았지?  
 지연 응. (재훈을 의아하게 보는)  
 재훈 (휴~ 넘어갔다)

## #26. 예식장 외경(낮)

## #27. 예식장 앞(낮)

웨딩카, 예식장 앞에 도착하면 직원 2명이 나와 지연을 보조하며 들어가고, 차에서 내린 태민과 재훈. 재훈은 지연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

태민 (화난) 너 내가 말했잖아.  
 재훈 뭘?  
 태민 오늘 은지 땀에 신혼여행 못 가는 거.  
 재훈 은지?  
 태민 근데, 거기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다 설명했잖아. 은지한테 발목 잡혔다고...  
 재훈 (똥 소리가 싶은)  
 태민 오늘 생일만 같이 있어주면 헤어져준댔어.  
 재훈 (황당한) 뭐?  
 직원 (나와서) 신랑분!  
 태민 네! (재훈에게) 그니까 제발 지연이 앞에서 말조심해. (들어가는)  
 재훈 (분노) 뭐야? 여자가 있어? 신혼여행을 그래서 안 가는 거야?  
 사무원 (어느새 옆에 온) 사람들한테 나 김창옥이다 광고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신은 김창옥이 아니라 이재훈...

재훈 분노로 차, 사무원의 먹살을 잡으면 그대로 사라지는 둘.

## #28. 예식장/옥상(낮)

재훈의 몸은 창옥으로 바뀌어 있다.

창옥 (먹살 잡은 채) 당신은 저 자식이 저러는 거 다 알았지? 그치?  
 사무원 김지연 씨가 선택한 분입니다.  
 창옥 뭐요? 우리 지연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저런 미친놈을 선택해!!  
 사무원 (먹살 푸는) 김창옥 씨 결혼식 보려고 보너스 타임을 받으신 겁니다.  
 딸이 좋은 남자를 선택했는지 아닌지는 그 소원 안에 없다가구요.  
 창옥 (홍분 상태로) 내가 지연일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 나 이 결혼 절대 못 시켜! (내려가려는데)  
 사무원 (창옥 앞을 막아서며) 보너스 타임 규칙 말씀드렸죠? 현실에 관여하면 시간이 소멸된다고... 설마 하시게요?  
 창옥 네! 해야죠. 딸이 저런 미친놈이랑 결혼한다는데...  
 당신이라면 그냥 둘 겁니까?  
 사무원 이걸 김지연 씨 선택입니다. 당신이 현실에 관여하는 순간, 시간은 소멸되고, 담보도 뺏기게 될 겁니다.  
 창옥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사무원 (차갑게) 과연 그걸로 끝일까요?  
 창옥 뭐?  
 사무원 당신의 성급한 선택으로 딸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창옥 ...  
 사무원 (냉정하게) 말로 경고하는 건 저도 여기까지입니다.

그때 시계의 알람이 울리고 시계 CLOSE UP. 남은 시간 3시간 59분이다.

## #29. 예식장/사파이어홀 로비(낮)

수십 개의 화환이 로비 양옆에 세워져 있다.

그 앞에는 지연과 태민의 웨딩사진이 걸려 있다.

태민과 한복을 입은 태민 모는 하객들을 맞이하면서 인사하고 악수하는데 재훈, 태민에게 다가온다.

재훈 잠깐 나 좀 봐. (재훈 돌아서서 가고)  
 태민 (의아) 왜? (재훈을 따라간다)

## #30. 예식장/비상계단(낮)

재훈이 서 있고, 태민이 문을 열고 비상계단으로 들어온다.

태민 아 왜? 지금 손님들 와서 바빠.  
 재훈 너 이 결혼 해야겠냐?  
 태민 뭐야 갑자기?  
 재훈 이대로 결혼하면 지연이 상처받을 거야. 그건 생각 안 해?  
 태민 지연이만 모르면 돼. 그럼 상처받을 일 없어.  
 재훈 (점점 버럭) 니가 끊어냈어야지. 결혼식 하기 전에!  
 태민 노력했어. 근데 은지가 오늘만 같이 있어주면 헤어져준다고!  
 재훈 뭐?  
 태민 (어쩔 수 없다는 듯) 은지가 내 첫사랑인 거 너도 알잖아.  
 재훈 그럼 지연이랑 왜 결혼하는데?  
 태민 사랑하니까...  
 재훈 (기가 막힌)  
 태민 나도 후회해. 은질 다시 만난 거. 근데 그땐 내 맘이 그랬다고...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재훈 지연이는 알아?  
 태민 모르지. 알면 결혼하겠어?

재훈 ...

태민 (이어서) 나 지연이 상처받는 거 싫어. 그래서 너한테만 몰래 부탁한 거야. 오늘 은지방 있을 호텔 잡아달라고...

재훈 (태민의 말, 들을수록 가관인데)

태민 재훈아, 나 지연이 없으면 안 돼. 은진 오늘 정리할 거야. 그니까 너만 조용히 하면 돼. 어? 제발... 부탁한다. (나가는)

재훈 (그대로 주저앉는)

사무원 (태블릿을 보며) 김창옥 씨 대출시간 1시간 소멸됐습니다.

재훈 네? (손목시계 보면 3시간 55분에서 2시간 55분으로 차감된다)

사무원 말했죠? 현실에 관여하면 당신의 시간이 소멸된다고...

재훈 내가 뭘 바꿨는데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잖아요!

사무원 바꾸려고 주태민 씨에게 협박하셨잖아요.

재훈 (답답하고 상황이 짜증 난)

사무원 (눈매가 매섭고) 잘 생각하세요. 어떤 게 딸에게 좋은지...

재훈 ...네? 답은 당신도 알잖아요.

사무원 그래서요? 파혼이라도 시키겠다는 겁니까?

재훈 네! 할 수 있다면 당장요.

사무원 (냉정하게) 이봐요! 김창옥 씨.

재훈 (보는)

사무원 보너스 타임이 끝나면 당신은 여기 없어요. 파혼시키고 난 뒷수습은 딸 김지연 씨가 감당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건가요?

재훈 ...

사무원 딸은 모르고 결혼해야 행복하지 않겠어요?

재훈 (그대로 망부석처럼 서 있다)

### #31. 예식장/신부대기실 앞(낮)

열린 문으로 지연의 웃는 얼굴이 보인다. 재훈 씩씩한 미소로 바라본다.  
 지연,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고, 친구들과 사진 찍으면서 행복해한다.  
 지연의 웃는 얼굴을 보는 재훈의 표정이 착잡하다.

그때 민식이 재훈의 어깨를 툭 치면서 말을 건넨다.

민식 야, 너 왜 이려고 있어?  
 재훈 어?  
 민식 지연 씨 봤냐? (지연을 힐끗 보고) 오~ 예쁘네!  
 재훈 응... (지연을 보고)  
 민식 인사 좀 해야겠다! (신부대기실로 들어간다)

### #32. 예식장/신부대기실(낮)

지연 앉아 있으면 민식과 재훈이 들어온다.

민식 (오버하며) 와~ 지연 씨 축하드려요!  
 지연 오셨어요~  
 민식 대박! 진짜 오늘 완전 예쁘시다!!  
 지연 감사해요~

그때, 진희가 호들갑스럽게 들어온다.

진희 야~ 니가 나보다 먼저 가기 있냐?  
 재훈 (순간 진희를 보며 반갑고) 어! 진희야! 왔구나~  
 진희 (재훈을 의아하게 보고) 아... 네~

### #33. 회상. 옛날 창옥의 집 거실(낮)

컴퓨터로 SES의 무대를 보며 14세 지연과 진희는 흰색 왕방울 끈으로 머리를 묶고 영상을 보면서 춤을 따라 추고 있다.  
 그때 창옥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둘이 춤추는 걸 보고 있다.

창욱 아이고~ 너네 가수할라고?  
 지연 (춤추면서) 어때? 우리 좀 잘하지? 팀명도 정했어! 지연.  
 진희 진희!  
 지연·진희 합쳐서 더블 제이! (서로 팔짱 끼어 크로스 포즈 취하고)  
 창욱 니들은 머리에 쥐방울 같은 거 달았으니까 쥐방울 자매 어때?  
 지연 그게 뭐야~ 아빠랑 말 안 통해! 됐어~ 방에 가서 하자! (들어가고)  
 창욱 (소파에 앉아 피식 웃는다)

### #34. 예식장/신부대기실(낮)

재훈 쥐방울 자매 붙어 있는 거 오랜만이네.  
 진희 (황당하고) 네?  
 지연 ?  
 민식 아는 사이야?  
 재훈 (아차) 아...니... 그...게... 너 태민인 만났어? (황급히 민식과 나간다)  
 진희 (어리둥절, 지연에게) 넌 내 애길 남편 친구한테도 말하고 다니냐?  
 지연 (놀랍고 당황스럽다) 아니... 나 말한 적 없는데...  
 진희 그럼 어떻게 알아? 쥐방울 자매는 너희 아빠가 붙여준 별명인데...  
 지연 (의아한 눈빛으로 재훈이 나간 문을 쳐다본다)

### #35. 예식장/신부대기실 앞(낮)

재훈, 민식을 끌고 신부대기실에서 나오고

민식 (어리둥절해서) 태민이랑 인사했다니까 왜 이래?  
 재훈 아니 그게 아니라...  
 민식 (친구들 무리를 보고) 저 자식들도 왔네! (재훈에게) 이따 봐! (가는)  
 재훈 (한숨) 큰일 날 뻔했네~

재훈의 시선에 태민이 화장실 가는 모습이 보인다. 따라가는 재훈.

### #36. 예식장/화장실(낮)

태민 화장실에서 통화하는

태민 (놀라) 여길 왔다고?  
 은지(F) 텍시도 입은 모습 보고 싶어서!  
 태민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은지(F) 결혼은 다른 사람이랑 하지만, 그래도 니 마음은 내 거라는 거 확인하고 싶으니까...  
 태민 뭐?  
 은지(F) 아니야? 마음도 그 여자 거니?  
 태민 (만류하듯)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재훈 (화장실로 들어와 손을 씻으며 태민을 힐끗 본다)  
 은지(F) 나 사랑한다며 아니야?  
 태민 ...나도 사랑해.  
 재훈 !!!  
 태민 그럼 잠깐 얼굴만 보고 호텔로 가. 지금 나갈게. (끊고, 나가려는데)  
 재훈 (태민을 막아서는) 여길 왔대?  
 태민 돌려보낼 거야. 비켜.  
 재훈 오늘 끝내는 거 아니었어? 사랑이야?  
 태민 (한숨) 너까지 나 짜증 나게 하지 마. 비켜. (나가려는데)  
 재훈 (날 선 눈빛으로 태민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는데, 태민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진다) 넌 지연이 우습게 만드는 게 좋냐?  
 태민 이거 안 봐?  
 재훈 넌 결혼하면 안 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결혼 막을 거야.  
 태민 니가 뭔데? (헛웃음) 설마. 너 지연이 좋아하냐?  
 재훈 (악에 받쳐) 그래! 내가 너보다 백배 천배 더 지연이 아끼고 좋아한다! 됐냐?

재훈, 그대로 태민을 화장실 청소도구함 칸으로 밀어 넣고 문을 잠근다.  
태민은 꼼짝없이 갇혀서 문 열라고 두드리고 아우성이다.

태민 (문을 두드리며) 야 너 안 열어? 미친놈아! 열라구!!!

재훈 (나오며) 너 같은 쓰레기한테 우리 지연이 안 보내!

(바닥에 떨어진 태민의 핸드폰과 청소 종이란 패널을 들고 나간다)

### #37. 예식장/화장실 앞(낮)

재훈, 청소 종이란 패널을 남자화장실 문 앞에 두자 사무원이 다가온다.

사무원 (무섭게) 김창옥 씨, 저 좀 보시죠! (재훈의 팔을 잡자 둘 사라진다)

### #38. 예식장/옥상(낮)

재훈의 팔을 잡은 채 사무원과 나타난다.

재훈은 창옥의 모습으로 변한다.

사무원 김창옥 씨 또 1시간 차감되었습니다.

재훈, 시계 보면 2시간 30분에서 1시간 30분으로 차감된다.

창옥 (버럭) 그럼 나더러 어찌라고!! (울컥) 이게 행복한 결혼입니까?

지연이가 바란 결혼이 맞냐고요!

사무원 사람은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도 있죠. 하지만 나쁜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창옥 아뇨. 난 절대 못 봐요. 내가 소멸된대도 나 이 결혼 못 시켜!

사무원 (창옥을 막아서며)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현실에 관여하면 당신이

담보로 건 환생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요.

창옥 내 딸이 지옥문으로 들어간다는데...

내 환생이 무슨 소용이야? (사무원의 팔을 뿌리치며 나간다)

### #39. 예식장/사파이어홀 로비(낮)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비상문이 열리고 씩씩대는 재훈 나온다.

그대로 신부대기실로 걸어간다.

### #40. 예식장/신부대기실(낮)

지연 앉아 있고, 직원이 드레스 구김 가지 않게 펼쳐주고 있다.

직원 신부님, 잠시 기다리시면, 곧 입장 준비할게요! (나가는)

재훈 (신부대기실로 걸어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지연 (황당) 오빠 지금 뭐 해요? (문으로 가려고 일어났다)

재훈 (지연의 양어깨를 잡으며) 지연아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지연 왜 이래요?

재훈 지금이라도 그만둬.

지연 뭘요?

재훈 (한숨 깊게 들이쉬고) 너 이 결혼하면 불행해질 거야. 태민이가 너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지연 (기가 차고 재훈에게 잡힌 어깨를 풀며) 둘이 친구 아니에요? (한숨)

하~ 태민 오빠가 알면 진짜 서운하겠다! (문으로 가고)

재훈 (지연을 막아서며) 너 태민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개가...

(E) 노크 소리.

지연 비켜요. (재훈을 비켜 문 앞으로 다가가고)

재훈 (지연을 잡고) 재가 어떤 앤지 넌 몰라!!! 재는 쓰레기야. 인간

말종이라고... 널 속이고 있다구!!

지연 (날카롭게 보며 차갑게) 그럼 오빠는?

재훈 (흔들리는 눈빛) 뭐?

지연 오빠도 같이 속였잖아요. (문을 여는데, 눈빛이 흔들린다)

은지 (신부대기실로 들어와서) 지연 씨, 축하해요!

지연 ... (아무 말 없이 눈빛만 흔들리는데...)

재훈 (은지를 보며) 누구?

은지 재훈아, 나 몰라보겠어? 나 은지잖아.

재훈 !!!

은지 하긴 고등학교 때 이후니까 몰라볼 만하다.

재훈 ... (은지를 내보내려는 듯) 가자. 우선 나가자!

은지 괜찮아. 지연 씨도 알아. 나랑 태민이 사이...

재훈 뭐? (지연을 보는데)

지연 (흔들리는 눈빛이다)

은지 태민이랑 내가 다시 만나는 거 알고도 결혼하는 거잖아요.

재훈 (은지의 말이 기가 막히는데) 허- 뭐?

지연 ...헤어진 거... 아니었어요?

은지 우리가 헤어진다고 칼처럼 끊어낼 수 있는 사인 아니라서...

지연 (눈물이 맺히는)

재훈 (버럭) 뭐야 다 아는데도 이 결혼을 하겠다고? 너 미쳤어!!! 따라와.  
(지연의 손을 잡고 신부대기실을 나간다)

#### #41. 예식장/화장실(낮)

변기를 밟고 칸막이를 넘어서 밖으로 나오는 태민,  
하얀 턱시도가 더러워졌다.

태민 (악에 받쳐) 이재훈! 어딴어! 어딴냐고!! (나가는)

#### #42. 예식장/사파이어홀 로비(낮)

태민 걸어 나오는데 태민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 몰려온다.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눈으로 재훈을 찾던 태민,  
재훈이 지연이를 데리고 비상계단으로 들어가는 걸 본다.

태민 이재훈 거기 안 서? (비상계단으로 가지만 문이 잠겼다)

#### #43. 예식장/옥상(낮)

재훈, 지연의 손을 잡아 옥상으로 올라오고 옥상 문을 잠근다.

재훈 (버럭) 다 알면서 이 결혼을 해? 내가 널 어떻게 키...

지연 (말 끊고) 그 사람이랑 태민 오빠 다시 만나게 해준 거 오빠잖아요.  
나한테 출장이라고 하고, 둘이 여행 가게 알리바이 짜준 사람도  
오빠였잖아요.

재훈 그건 내가 아니라...

지연 똑같이 속여놓고 왜 이제 와서 이래요?

재훈 (점점 목소리 커지며) 그래도 딱 여자 만나는 거 알면 헤어졌어야지  
그걸 알고도 이 결혼을 해?

지연 물랐으면 결혼해도 되고요?

재훈 (안타까운) 지연아 그런 말이 아니잖아.

지연 ...

재훈 (회유하듯) 니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놈이랑 결혼해?  
내가 너 이렇게 키웠어?

지연 ...?

재훈 (눈물이 맺혀) 내가 너 이런 결혼이나 하라고 아등바등 혼자 키운 거  
아니야. 응? 난 그때나 지금이나 니 행복밖에 바라는 거 없어.

지연 (뭐지? 싶은)

재훈 (눈물이 터지고, 분노) 근데 왜!!!! 왜 니가 이런 상처를 떠안으면서 이

결혼을 해! 응? 그 자식이 뭐라고!  
 지연 ... (낮게) 아빠 보내준 사람이니까...  
 재훈 뭐?  
 지연 (눈물 멧혀) 태민 오빠, 아빠가 보내준 사람이라고...

#### #44. 회상. 창옥의 집 거실(아침)

창옥, 작업복을 입고 전화를 받으면서 방에서 나온다.  
 지연,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거실로 나와 창옥의 통화 내용을 듣는다.

창옥 아 사장님~ 그러시구나 그럼 일정 맞춰드려야죠. 약속이요? (지연을 쳐다본다) 아 괜찮습니다! 오늘 철야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장님 그럼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연 뭐야~ 생일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해서 오늘 저녁 먹기로 했잖아.

창옥 (멋쩍게) 딸! 미안, 지연이도 알지? 거래처 백 사장님? 그분이 부탁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 밥은 내일 먹자! 우리 딸이 좋아하는 오리고기 풀코스 쏜다!!! 응?

지연 (뼈졌다) 아~ 몰라 아빤 하나밖에 없는 딸보다 일이 더 중요하지?

창옥 우리 딸이 1순위지! 생일은 꼭 아빠가 같이 보내줄게~ 알았지? 생일 노래는 아빠가 불러줘야지!

지연 아~ 그 이상한 생일 노래 불러줄 거면 됐어!

창옥 에이 좋아하면서... 그럼 아빠 바빠서 간다. (나가고)

지연 치— 이번에 아빠 위해서 이벤트도 준비했는데...

지연, 소파 옆에서 상자를 꺼낸다.  
 상자를 열면 '아버지 감사패'라고 쓰여 있는 감사패가 들어 있다.  
 (E) 교통사고 소리.

#### #45. 회상. 창옥의 사고 장면(밤)

FLASH BACK #3 도로(새벽)  
 — 창옥이 탄 차 사고 나고, 피투성이 된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창옥.

#### #46. 회상. 병원/장례식장(밤)

창옥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고 상복을 입은 지연이 얼이 빠진 채 서 있다.  
 영정사진을 보고 눈물도 흘리지 못하는 지연.  
 진희가 와서 지연을 토닥토닥 위로해준다.

#### #47. 회상. 병원/옥상(밤)

상복을 입고 핏기가 없는 지연이 옥상 난간 앞에서 서 있다.  
 오른쪽 다리에 깃스한 태민이, 커피를 마시면서 지연을 보고 있다.  
 지연, 옥상 난간을 잡고 울다가 갑자기 쓰러지는데 떨어질 듯 위태롭다.  
 태민 놀라서 지연에게 달려가 난간 앞에서 떼어놓는다.

태민 괜찮아요? 정신 차려봐요!  
 지연 (눈 희미하게 뜬다)  
 태민 떨어질 뻔했다고요! 떨어지면 죽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지연 (통곡)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아빠한테 못 해준 게 너무 많은데...  
 그날도 짜증만 냈다구요.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요!!  
 태민 진정해요. 진정하고... (지연을 꼭 안아준다)  
 지연 (태민의 품에 안겨서 운다)

CUT TO  
 지연 옥상 벤치에 앉아 있다. 많이 진정된 느낌.  
 태민이 커피를 건네고 자리에 앉는다.

태민      괜찮아졌어요?

지연      ...

태민, 커피를 마시는데, 12시가 되자 벤치 위의 지연 핸드폰에서 알람 울리고  
지연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계속되는 알람음에 태민이 알람을 끄려고  
핸드폰을 드는데, 이벤트 일정 '내 생일'이라고 뜬다.

태민      오늘 생일이예요? 오늘 같은 날 혼자 있음 위험한데... 안 되겠다!  
생일이니까 내가 흥 나는 생일 노래 불러줄게요! 원! 투!  
원 투 쓰리 포! ♪ 온 동네 떠나갈 듯 울어 짓히는 소리~

지연, 노래를 듣는데 눈빛이 흔들리고 태민의 모습에서 창욕이 디졸브된다.

## #48. 몽타주

① 태민 노래에서 이어지면서 창욕의 목소리로 바뀐다.

연령별로 '가람과 뒀'의 노래 <생일>을 불러주는 창욕의 몽타주 모습.

생일 케이크를 가운데 두고 지연과 창욕이 마주 앉아 있다.

3세, 7세, 12세, 17세, 23세, 34세 지연의 모습이 체인지되고,

창욕의 모습도 20대, 30대, 40대 창욕의 모습이 체인지된다.

② 지연에게 대시하는 태민의 모습.

— 장례식장. 낯 나간 표정의 지연, 목발을 짚고 온 태민이 초콜릿을 건넨다.

— 영화관.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관객은 웃고 있지만, 지연은 멍—한 표정.

태민 신경이 쓰이는지 지연을 슬쩍슬쩍 본다.

— 공원. 무표정한 지연, 깃스 풀고 함께 걸으며 밝게 얘기하는 태민.

태민 길에 떨어진 꽃을 자신의 머리에 꽂고 귀여운 표정을 짓자

표정 없이 걸던 지연, 태민을 보고 웃음 터뜨린다.

— 남산. 심야,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크게 소리치는 태민. 지연에게  
재촉하자, 처음엔 머뭇대던 지연도 크게 소리를 지른다.

소리를 지르면서 우울했던 지연의 표정에서 눈물이 흐른다.

태민이 지연을 감싸고 토닥토닥해준다.

— 지연과 태민 웃으며 데이트하는 장면들 SKETCH.

## #49. 예식장/옥상(낮)

지연      (울면서) 아빠가 갑자기 떠나고 고아처럼 버려진 내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어. 태민 오빠가 날 얼마나 아꼈는데... 잠깐 실수한  
거야.

재훈      실수? 바람피우는 게 실수겠어? 마음을 준 게 실수겠냐고!!

지연      ...

재훈      (달래며) 지연아, 잘 생각해봐. 만나던 여자 하나 제대로 정리 못 하고  
결국 이렇게 너한테 상처 줬어. 아빠가 그런 놈을 니 쪽으로 보내줬을  
것 같아?

지연      (말 없다 힘겹게) 그럼... 우리 애는?

재훈      뭐?

지연      아빠가 없어서 받을 애 상처는?

재훈      (놀란)

지연      (배에 손을 얹고) 이 아인 아빠 없는 애 만들고 싶지 않아.

재훈      ...

지연      오빠 모를 거야. 그 설움.

난 어렸을 때부터 엄마 없는 불쌍한 애로 지냈어.

재훈      !!!

지연      다들 날 챙겨준다고 했지만, 날 보는 눈빛은 똑같았어. '엄마 없는  
불쌍한 아이' 그 눈빛이 칼보다 더 아프더라.

재훈      (아프다) ...아빠한테 왜 말 안 했어?

지연      얘기하면 달라졌을까?

재훈      ... (지연을 아프게 보는)

지연      어릴 때 눈치 보고 크는 거, 돈 때문에 힘든 아빠한테 준비물 사달라는  
말도 못 하는 거, 엄마 손 잡고 가는 애들 보며 부러워하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난 우리 애한테 그렇게 하라고 못 해.

재훈 ...

지연 나 혼자 키운다고 아등바등해봤자 아빠 뭉까지 해줄 수 없어.  
그러니까 오빠는 참견 마. (문 쪽으로 가는)

재훈 ...몰라줘서 미안해.

지연 (그대로 멈춰 서서 재훈 돌아보는)

재훈 (눈물 맺힌 눈으로)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는데, 아픈 줄도 모르고...  
힘든 줄도 모르고... 자격이 없었네. 내가...

지연 (뭔가 싶은)

그때, 문이 열리고 분노로 가득 찬 태민과 뒤이어 민식이 들어온다.  
태민은 주먹으로 재훈의 얼굴을 가격, 나가떨어지는 재훈.

태민 미친놈! (민식, 태민을 말린다) 너 결혼식 망치려고 걱정했어?

재훈 (태민을 노려보는)

태민 언제부터 지연이 좋아했는데? 미친놈이 친구 와이프를 넘봐?  
왜 둘이 불륜이라도 하게?

지연 (태민을 말리며) 오빠 그런 거 아냐. 내려가.

민식 그래 식 얼마 안 남았어~ 내려가자.

태민 (깊은 한숨) 후- 너 내 눈에 띄기만 해. 확 죽어버릴 테니까!

재훈 (태민과 지연이 나가는 걸 쳐다보는데)

사무원 김창옥 님의 시간은 1시간 소멸되어 현재 남은 시간 15분입니다!

재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다)

## #50. 예식장/사파이어 홀(낮)

민식이 사회자 단상에 올라가 있고,  
사람들 몇 명은 의자에 앉아 있다.

민식 곧 신랑 주태민 군과 김지연 양의 결혼식이 시작될 예정이오니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 #51. 예식장/비상계단(낮)

태민과 은지 얘기하고 있다. 재훈 터덜터덜 내려오다가 태민을 발견하고  
반 층 위에 몸을 숨겨 태민과 은지 얘기를 엿듣는다.

은지 (옷깃 정리해주고) 재훈이 뭐야? 지연이 좋아한 거야?

태민 몰라 미친놈, 어디 친구 여자를 넘봐?

은지 그럼 지연 씨는 재훈이랑 만나라고 해. 넌 내가 가지면 되니까.

태민 (분노에 씩씩대고 있다)

은지 (태민을 안아주며) 잘 생각해봐. 난 너 놓치기 싫거든.  
(태민의 볼에 뽀뽀하고 나가고)

태민 (화가 나서 씩씩대고 있는데)

재훈, 천천히 걸어 내려와 태민과 마주친다.

태민 (재훈을 보며) 뒤통수를 이렇게 치냐?

재훈 니가 뒤통수 맞은 건 아프냐?

태민 뭐?

재훈 지연이 아픈 건 안중에도 없지?  
(분노로 가득한 눈빛으로 태민을 보는)

창옥(E) 그래, 너 같은 놈은 살 가치가 없어. 차라리 없어져.

재훈, 태민을 밀치려고 팔을 뻗는다.  
그 순간, 재훈의 팔을 붙잡는 사무원.  
바로 사무원과 재훈이 사라진다.

## #52. 예식장/옥상(낮)

재훈은 태민을 밀려고 손을 뻗은 자세로, 사무원은 재훈의 팔을 잡은 상태로 옥상으로 순간이동 했다.

재훈은 창옥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사무원 김창옥 씨 미쳤어요? 저 사람 죽이면 바로 소멸인 거 몰라요?  
재훈 (화를 억누르지 못해 포효하듯) 당신이 뭔데 방해를 해. 내가 재 죽이고 소멸되겠다고.  
사무원 어리석게 행동하지 마시고, 그냥 결혼식만 보면 되잖습니까?  
재훈 내가 저 결혼식 봐서 뭐 하는데, 저런 결혼 해서 내 딸이 평생 불행하게 살면 내가 좋겠어요?  
사무원 (단호하게) 김창옥 씨, 지금 이거 당신한테 진짜 중요한 보너스 타임이라고요. 근데 이러라고 준 줄 알아요?  
재훈 차라리 주질 말지. 뭐 하러 이런 걸 줘서 사람 힘들게 해요. 네?  
사무원 당신이 받은 이 보너스 타임은 김창옥 씨가 먹고사느라 어쩔 수 없이 놓친 딸과의 시간을 즐기라는 신의 배려라고요.  
재훈 ...뭐?  
사무원 7살 놀이동산 약속 당일, 거래처 부도나서 거래처 사장 쫓느라 지연 씨와의 약속을 못 지켰죠. 또 김지연 씨 대학 졸업식에 당신이 길 가다 쓰러진 할머니를 도와주면서 늦었던 거잖아요...  
재훈 ...  
사무원 당신 맘은 그게 아닌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을 못 지킨 당신이 안타까워서 이 시간을 준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리석게 보내실 건가요?  
재훈 ... (울컥한다)  
사무원 따님이 이 결혼을 원하잖아요. 따님이 그 남자를 선택했구요.  
재훈 ... (눈물이 차올라) 그럼 하나만 알려줘요... 당신은 미래를 볼 수 있으니까... 이 결혼 하면... 우리 지연이... 행복해집니까? 네?  
민식(E)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랑신부 입장!

## #53. 예식장/사파이어홀(낮)

태민과 지연 나란히 입장하고 사람들은 박수 치고 있다.

태민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지만, 지연의 표정은 밝지 않다.

## #54. 예식장/사파이어홀 로비(낮)

결혼식이 이뤄지는 홀을 지그시 쳐다보는 재훈.

옆엔 사무원이 서 있다. 재훈 뒤돌아 로비 문으로 향한다.

사무원 (재훈을 따라가며) 안 보실 겁니까?

재훈 ...

## #55. 예식장/사파이어홀(낮)

주례석 앞에 태민과 지연 마주 보고 서 있다.

민식 신랑신부의 혼인 서약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랑 주태민 군의 혼인 서약 낭독이 있겠습니다.

태민 (혼인선언문을 들고 마이크를 잡고 낭독) 저는 신부 김지연을 아내로 맞아 영원한 반려자로 맞이해 평생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민식 뒤이어 신부의 혼인 서약 낭독이 있겠습니다.

지연, 태민에게 마이크를 건네받고 한참을 머뭇거린다. 하객들 웅성대고.

태민 (지연을 바라보며 입 모양으로) 왜? 안 읽어?

민식 아~ 신부가 떨리나 보네요! 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박수 듣고) 다시 한번 신부의 혼인 서약 낭독이 있겠습니다.

## #56. 예식장/사파이어홀 로비(낮)

재훈과 사무원이 서 있는데, 재훈의 손목시계 알람이 울린다.  
시계를 보면 1분 남았다.

사무원 김창옥 씨! 진짜 이렇게 가실 겁니까?  
재훈 (힘없이) 불 자신이 없네요.  
사무원 ...  
재훈 저 사무원님 부탁 하나 해도 됩니까?  
사무원 (보는)

## #57. 예식장/사파이어홀(낮)

지연, 마이크를 잡은 채 혼인선언문만 쳐다보고 있다.  
그때, 직원복을 입은 여직원이 “잠시만요”를 외치며 들어온다.  
일제히 여직원을 보는 사람들. 사회자석으로 간 여직원.

여직원 축하 영상이 있었던 걸 깜빡했네요. 지금 틀어도 되죠?

직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파노라마 영상이 뜬다.  
지연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습, 창욱과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들이다.

창욱(E) 지연아...  
지연 (놀란)  
태민 (어리둥절, 두리번거리며) 뭐야?  
창욱(E) 내겐 기적과도 같은 아이. 언제나 내게 웃음과 살아갈 희망을 줬던 내 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내 보물.  
지연 아... 아빠?  
창욱(E) 미안해, 아빠랑 살면서 많이 힘들었지? 아빤 이 팍팍한 세상에서 악착같이 버텨내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야 너와 같이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하니 참 서투르고 미련했네.

지연 (눈물 차오르는)  
창욱(E) 더 옆에 있어줄걸, 더 지연이를 안아줄걸... 그러기엔 사는 게 급급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나 봐. 아빠도 어렸고, 처음이니까...  
지연 (눈물)  
창욱(E) 지연아, 넌 어릴 때부터 섬세하고 배려가 많았지. 야근하고 돌아온 내 어깨를 주물러주고, 아빠가 신경 쓸까 봐 뭐든 혼자 척척 해내던... 배려심 깊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던 아이. 근데 말야 아빤 이 말 하나는 꼭 하고 싶어.  
지연 (눈물이 멈추지 않고)  
창욱(E) 지연아, 가장 중요한 건 네 행복이야. 아빤 너가 행복하게 먼저야. 우리 딸이 행복하다면 아빤 더 바랄 게 없어... 지연아 오늘 행복해?  
지연 (다리가 풀리는지 휘청)  
태민 (지연을 부축한다)  
지연 (태민의 얼굴 쳐다보고)  
창욱(E) 지연아, 너만 생각하고 선택해. 수습은 아빠가 할게.  
지연 (태민이 부축한 손을 싸늘하게 툭 쳐낸다)  
태민 지... 지연아. (다시 지연의 손을 잡는)  
지연 그만하자. 우리. (더 싸늘하게 쳐내는)  
태민 (당황한) 너... 갑자기 왜 그래? (하객들 보면서 두리번)  
지연 아직 그 여자 못 잊었잖아.  
태민 아냐. 다 잊었어. 개는 그냥 호기심에 다시 만난 거야.  
은지 (벌떡 일어나 크게) 뭐? 호기심?  
하객들 (은지의 등장에 웅성거리는)  
은지 (태민에게 걸어가며) 어젯밤도 같이 보내놓고... 뭐 호기심이라고?  
태민 (은지를 보며) 너까지 왜 이래?  
은지 잘 됐다. 지금 선택해. 난지 앤지.  
태민 (지연을 보며) 지연아, 난 너밖에 없어. 애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은지 (헛웃음) 뭐 이 자식이...

은지, 태민의 뺨을 갈긴다. 민식, 은지를 데리고 내려간다.

태민 지연아 나 이번만 용서해줘. 그럼 잘할게. 응? 내 진심 알지?  
 지연 ...  
 태민 우리 애도 있잖아. 우리 둘이 잘 키워야지.  
 지연 ... (망설이는데)

그때, 재훈이 버진로드로 올라가 지연에게 걸어간다.

재훈 (지연의 앞에 서서) 같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이게  
 뭐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지연 ...?  
 재훈 나 최강창민이 와도 우리 딸 못 줘.  
 지연 !!!

### #58. 회상. 옛날 창욱의 집 거실(낮)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14세 지연과 34세 창욱.  
 TV에서는 동방신기 무대가 나오고 있다. 지연 좋아하는 표정으로 본다.

지연 (하트 뿡뿡 눈빛) 아빠, 나 창민 오빠랑 결혼할래!  
 창욱 뭐야~? 아빠랑 결혼한다며! 어릴 때 약속했잖아.  
 지연 (TV 계속 보며) 찻! 그건 어릴 때지! 난 창민 오빠랑 결혼할 거야!  
 창욱 저 기생오라비처럼 생긴 게 뭐가 좋냐?  
 지연 잘생겼지, 착하지, 멋있지, 남자답지 완벽남이잖아!  
 창욱 멋있긴 개뿔! 최강창민이 전 재산을 준대도 우리 딸 절대 안 보내!

### #59. 음식점/사파이어홀(낮)

재훈 아빤, 최강창민이 와도 내 딸 울리면 못 줘.

지연의 시선엔 재훈이 창욱으로 변한다. 지연 울컥한다.

지연 ...아...빠?  
 창욱 우리 딸 미안해. 너 혼자 외롭게 크게 해서...  
 지연 (눈물이 터진다)  
 창욱 (울먹이며) 아빤 오래 살 줄 알았어. 50살에 갈 줄 알았으면 너랑 더  
 같이 있었을 거야. 그날로 돌아간다면 아빤 일도 안 하고 우리 딸이랑  
 저녁 먹을 거야. (눈물) 미안해. 아빠가 오래오래 살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지연 정말... 아빠 맞아?  
 창욱 지연아, 아빤 꿈이 참 소박했어. 니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조금이나마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고, 좁은 어깨지만, 언제든지  
 편하게 기댈 수 있게 내어주고 싶었어.  
 지연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창욱 결혼식에 손잡고 들어가는 것도 우리 딸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사이) 지연아, 이 결혼 정말 행복한 거야?  
 지연 ... (땀 흘리다, 고개를 저으며) 아... 아니.  
 창욱 (지연에게 손을 내밀고) 그럼 가자! 아빠랑 행복한 길로 가자.  
 아빠가 데려다줄게.

지연, 창욱이 내민 손을 주춤하다가 잡고, 출입구를 향해 버진로드를 걷는다.  
 창욱과 지연 서로 눈물은 흘리지만, 미소가 번진다.

### #60. 음식점/사파이어 홀 밖(낮)

창욱과 지연 걸어 나와 서로 마주 본다.

창욱 우리 딸! 내 보물! 지연아! 내 딸로 태어나서 고마웠어.  
 지연 (눈물이 멈추지 않고) 아빠...  
 창욱 나중에 또 아빠 딸로 태어나줘. 그땐 약속도 잘 지킬게. 새벽에 절대

운전두 안 하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서 그때 진짜 네 손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갈게. 알았지?

지연 (울며) 아빠... 나 키우느라 힘들었지? 미안해.

창옥 응. 혼자 키우니까 당연히 힘들지. 근데 항상 힘든 것만은 아니었어.  
지연이 아빠로 살아온 인생은 힘들지만, 보람 있었거든.

지연 (흐느끼는)

창옥 우리 딸은 당차고, 섬세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탁월하니까 혼자  
키운대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지연 (울며) 아빠, 미안해. 나 때문에 올 아빠 청춘도 못 누리고, 장인어른도  
할아버지도 못 해보고 떠나게 해서 정말 미안해.

창옥 그래도 딸 바보는 하고 가잖아. (지연의 배를 향해) 아가야, 너  
태어나서 우리 딸 고생시키면 할아버지가 가만 안 둘 거야. 알았지?

지연 (울다가 피식 웃는)

창옥 (지연 보며) 아빠는 젊으니까 내일이 항상 있을 줄 알았지. 그래서  
계속 미웠는데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꼭 해야겠다! 우리 딸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지연 아빠 나도 사랑해. 나 꼭 행복하게 살 거야! 알았지?

창옥 (눈물 맺혀) 지연아, 나를 지연이 아빠로 살게 해줘서 고마워 안녕.

시계 00이 되고, 알람이 울리자 창옥은 사라진다.

지연, 그대로 주저앉아 펄펄 울고 앞에는 어리둥절한 재훈이 서 있다.

## #61. 인생대출심사센터/로비(낮)

로비의 전광판에 다양한 이름이 있다.

그 안에 김창옥 이름이 있고 옆엔 '대출 완료'란 글씨가 뜨고.

## #62. 에필로그. 여의도 환승센터(낮)

이승 사람들과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창옥, 사무원.

사무원 곧 저승행 버스가 올 겁니다! 종점에서 내리시면 삼도천 입구고요.

창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배려해주신 덕분에 소멸되지 않고  
삼도천을 건너게 됐네요.

사무원 ...

창옥 (힘없는 표정) 근데, 우리 딸 잘 살겠죠? 혼자 애 키우는 거 쉽지  
않은데, 결국 내가 걸어왔던 그 힘든 길을 딸에게 물려줬네요.

사무원 (창옥의 힘없는 표정 보다) 아... 이럼 안 되는데, (태블릿에 지연의  
가족사진 보여주며) 김지연 씨는 2025년, 2살 연하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아이와 행복하게 산다니까 기운 내세요.

창옥 (눈이 번쩍) 진짜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무원 이번 선택은 아주 신중하게... 바라만 봐도 행복한 사람과 했다니까  
아버님 걱정하지 마시래요.

창옥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다 사무원님 덕분입니다. 그때 제  
부탁 들어주시고, 영상 틀어주셨잖아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무원 (머뭇대다) 사실... 그 사람 지연이 어머님이셨습니다.

창옥 (놀라) 네?

사무원 어머님도 지연 씨 결혼식에 보너스 타임을 쓰셨거든요.

창옥 (눈물 글썽이며) 지연 엄마...

사무원 지연 씨 참 행복한 사람이네요.

창옥 (밝게 웃으며) 네 그렇네요. (들어오는 버스를 바라본다)

끝.

## 작가 후기

---

〈보너스 타임〉은 많은 사람의 도움과 조언으로 완성한 작품입니다.  
 처음 용기를 줬던 교육원 동기의 ‘되겠다’  
 학림다방에서 같이 얘길 나눴던 친구의 ‘재밌다’  
 센터장님과의 면담 때 들었던 캐릭터들의 개연성이 ‘아쉽다’  
 철 지난 타임슬립에 은행이란 시스템을 도입한 아이디어가 ‘괜찮다’

그리고 작가가 되고 싶다는 딸에게  
 ‘내 이야길 드라마로 쓰면 대박 난다’며 어필하던 우리 아빠.  
 네... 그래서 진짜 이렇게... 됐나 봅니다.

아낌없는 격려와 많은 조언을 해준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보 너스 타임을 수정할 수 있는 ‘보너스 타임’을 얻었습니다.  
 너 무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스 스로를 위로하려고 쓴 작품이지만,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길...  
 타 이밍은 인생에 한 번쯤 찾아올 겁니다.  
 임 팩트 있고, 보너스 같은 만남이...

## 기획의도

---

빛은 그저 비출 뿐이다.  
무엇을 변화시키거나, 무엇을 어찌해볼 힘을 갖지 않았다.  
그럼에도 빛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거나 응원이 된다.

‘채광이 좋다’는 것은 방을 구할 때 늘 장점으로 작용하는 말이다.  
그렇다고 옵션처럼 여겨지거나, 보증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광이 꼭 위로 같다고 생각했다.  
생색내지도, 구구절절 설명하지도 않지만 그저 비춰줄 뿐인 위로.  
생각지도 못한 상대로부터 받는 위로의 순간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 등장인물

---

### 차영운(20대 후반, 여) 작가지망생

끝내는 게 어려웠다. 글을 써도 엔딩이 쉽지 않아 평가받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연애도 끝내지 못하고 도망치듯 나와서 방을 얻었다.  
외롭지만 안락함을 느낄 무렵, 전 세입자의 자살 사실을 알고 다시 움츠러들던  
몸과 마음에 빛이 비친다. 빛을 다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에.

### 이경우(30대 초반, 남) 소방서 구급대원

끝났다고 생각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되기만 하면 뭐든 다 쉬울 줄 알았는데  
여전히 된 쪽보단 안 된 쪽에 더 마음이 간다. 자살 현장에서 강아지를 데려왔다.  
유서에 적혀 있던 다음 세입자에게 남긴 말을 꼭 전해주고 싶다. 그러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 선지혜(30대 중반, 여) 회사원

남들처럼, 남들만큼, 보통으로 하면 그냥 살아가는 줄 알았다.  
크게 다친 일도, 크게 절망할 일도 없었는데 서서히 빛이 꺼져갔다.  
누구의 탓도 아니지만, 자신의 탓도 아니길 바라며 생을 마감한다.

## 그 외

장승민, 공찬식, 방현순, 송혜민, 엄 작가 등

## 즐거리

---

### 1. 미납요금

영윤은 빗 같던 긴 연애를 파출소에 가서야 끝내고 짐을 챙겨 나온다.  
강제 독립이지만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을 얻게 된 것이 나쁘지 않았다.  
미납요금으로 전 세입자의 자살 사실을 알게 돼 그 공간이 무서워지기 전까지는.

### 2. 아이스박스

무서워진 영윤은 다시 찾아간 승민의 집 앞에서 자신의 상처와 마주한다.  
술에 취한 척하며 꿈을 접으라고 말하던 승민 앞에서 점점 꿈이 약점이 되어가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미안해져 돌아선다.

### 3. 커튼

수상한 사람을 보고 커튼을 달려다 발을 다치면서 고립되는 영윤은 누군가  
보내준 구급차로 응급실에 간다. 수상한 사람이 구급대원 경우인 걸 알고 묘한  
안도감을 느끼고, 동네 마켓에서 승민에게서 산 커튼으로 길 잃은 새끼고양이를  
구조하면서 영윤은 조금씩 공간의 공포를 잊어간다.

### 4. 초콜릿

새벽시간 방 안에 있기를 무서워하는 영윤에게 무서우면 전화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경우였다. 경우와의 통화로 위로를 받은 영윤은 경우가 고맙다, 늘 밖에서  
바라보기만 했던 고급 초콜릿을 주고 싶을 만큼. 초콜릿을 받은 경우는 힘들거나  
지칠 때 세탁기에 기대앉아보라는 주문 같은 말을 건넨다.

### 5. 세탁기

경우가 말한 대로 해보는데 자신의 발을 다독여주듯 드리우는 별이 꼭 잘 될  
거라는 부적처럼 느껴진다. 지는 노을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된 경우와 존경하던

사람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된 영윤은 서로 상대방 덕분에 힘을 얻는다.

## 6. 채광

드리우는 별처럼 자연스러운 것인 줄 알았던 경우의 호의를, 전 세입자가 남긴  
말을 전해야 하는 의무로 오해한 영윤은 다시 고립된다. 잔뜩 마음이 움츠러들던  
영윤은 지혜가 남긴 냉장고 속 비밀과 마주하고서야 깨닫는다. 채광처럼 그저  
비춰주기만 한 위로를 위로인 줄도 모르고 받아왔던 사실을.



## #1. 동네 파출소(밤)

어두운 골목 끝에 유일한 불빛인 파출소 창으로, 멍하니 앉은 영운 보인다.  
경찰 앞에 앉은 승민과 그 뒤로 앉은 영운, 피 같은 얼룩(반찬 얼룩)이 여기저기  
무늬처럼 묻은 커플 잠옷 차림이지만 상황은 커플이 아닌 상황이다.  
경찰들은 둘의 싸움이 좋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심드렁한 눈빛이고.  
영운, 자신의 발을 보는데 엄지발가락을 대충 감은 휴지에 피가 묻어난다.  
위라 하소연하는 승민의 말이 안 들리다 경찰이 부르는 소리로 깨어지는.

경찰 (영운 보며) 어떻게 다시 들어가셔도 괜찮겠어요?  
승민 (영운 보며) 내가 잘못했다니까! 실수라고!  
영운 (경찰에게 뭐라 말하려는데)  
승민 손에서 놓친 거라고.  
영운 (경찰 보며) 제가 짐 챙길 동안만 재 좀 여기서...  
경찰 붙들고 있어 달라고요?  
승민 뭐?  
영운 네.  
승민 야! 너 갈 데도 없잖아.  
영운 갈 데 있어!  
승민 어디?  
영운 (보면)  
승민 그냥... 내가 미안하다니까?  
영운 그냥?  
승민 아, 좀 그냥...  
영운 니가 그냥 미안하다 그러면 내가 갈 데가 없으니까 화해하자고?  
승민 찾김에 헤어지면 뭐 별수 있냐? 어떡할 건데.  
영운 니가 걱정을 해주는 거 같은데 나는 그게 하나도 걱정으로 안 들려.

승민 (보면)  
영운 그냥 헤어지자. 그냥.

영운, 일어나서 나가고 따라가려는 승민을 붙드는 경찰들.  
승민, 이 모든 상황이 짜증 나고 미치겠다.

## #2. 승민 오피스텔 안(새벽)

복층구조의 큰 창이 난 오피스텔이지만 해가 뜨기 전이라 어둡기만 하다.  
방 곳곳이 커플 사진과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로 꾸며져 있다.  
힘없이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들리고 들어오는 영운.  
현관 센서가 켜지고 전신거울에 비친 자신의 꼴이 한심하기만 하다.  
들어와 보면 아까 싸우다 어지럽힌 방 안이 고스란히 보이고,  
주방을 보면 여기저기 흩어진 반찬들과 반찬통이 나뒹굴고 있다.  
고무장갑을 끼고 그걸 다 치워 담은 영운, 울 것 같지만 울지 않는다.  
복층 계단 밑 수납장에서 캐리어를 꺼내 짐 챙기기 시작하는 영운.  
두 개 있는 칫솔, 두 개 있는 베개, 두 개 있는 머그컵...  
다 하나씩 자신의 것을 챙기다가 멈춰서는 손. 보면, 소형 빔 프로젝터다.

영운 반반 낸 건데...

그리고 보니 반반 지불한 물건들 몇 가지가 더 눈에 들어온다.  
커튼, 토스트기, 블루투스 스피커...  
영운, 그 물건들을 뒤로하고 캐리어를 꼭꼭 눌러 닫는다.  
현관에 서서 방 안을 한번 돌아보다 나간다.  
현관문을 닫고 나간 영운 뒤로 그제야 어슴푸레 뜨는 해의 빛이 비친다.

### #3. 24시간 카페(새벽)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받아서 창가를 보고 앉는 영윤,  
고개를 돌려보는데 구석 자리에 짐 가방을 옆에 두고 옆드려서 자고 있는  
노숙자와 자신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괜히 캐리어를 기둥 뒤로 감춰본다. 부동산 어플로 근처에서 집 찾기를  
해보는데 방보다 보증금 숫자가 보인다.

### #4. 부동산(아침)

실내용 퍼팅매트 앞에서 골프채 들고 연습하는 공 사장(50대, 남, 공찬식).  
골프공이 들어갈 듯 말 듯 애를 태우는 중이다.  
그 뒤로 꾸뻑대며 들어오는 영윤, 캐리어가 턱에 걸려 힘겹게 들어 올린다.

공 사장 방 구하시게?

영윤 네...

공 사장 (고갯짓) 저기 앉아요, 커피는 셀프.

영윤, 종이컵에 물 한 잔을 따라 마시고 한숨 돌리듯 테이블에 앉는다.  
그 앞으로 벽에 걸린 도로명주소가 뻑뻑한 지도를 막막하게 본다.

공 사장 직장인?

영윤 아뇨.

공 사장 대학생?

영윤 아뇨.

공 사장 아, 그럼 저기구나. 공무원 준비?

영윤 (뭐라 말하기 어려운데)

공 사장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셔?

영윤 보증금은 최대한...

공 사장 요새 집주인들 보증금 높은 거 안 좋아해. 이자 그거 얼마 된다고.

영윤 최대한 낮게요.

공 사장 낮게?

영윤 낮거나 없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이면 더 좋구요.

그제야 캐리어 하나에 급히 나온 듯한 행색을 발견하고 알겠다는 듯이 보는  
공사장. 영윤은 겸허히 그 눈빛을 감수하며 선량하게 웃어 보인다.

### #5. 오르막길(낮)

부동산 이름이 박힌 경차가 가파른 오르막길을 최선을 다해 올라간다.  
조수석에 앉아 차가 뒤집어지진 않을까 불안한 영윤은 손잡이를 꼭 잡는다.

공 사장 공무원 준비하고 그러면 운동할 시간도 없을 텐데,  
여기 살면 따로 운동할 필요가 없어.

영윤 (공무원 준비 아니지만, 어색한 미소)

공 사장 이 동네도 매물이 잘 안 나와, 공기가 좋잖아.

영윤 (기계적 끄덕임)

공 사장 급하게 나온 거라 보증금은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주인이 바로 들어올 사람 찾는다고 한 게 생각나서.

영윤 (보면)

공 사장 (괜히) 집주인들이야 월세만 바라보고 사니까.

보증금은 안 받아도 빈방 노는 걸 제일 싫어해요.

영윤 아...

영윤, 웬지 안도하게 되고 어딘지 알 수 없는 목적지를 찾듯 앞을 본다.

### #6. 202호(낮)

옵션 가구가 방의 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반에 몸을 누면 끝인 작은 방이다.

그래도 창 하나는 반듯하게 나서 별이 방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듯 비추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호들갑을 떠는 공 사장.

공 사장    별 드는 거 봐, 방에서도 선크림 바르고 살아야 돼.

영윤        (두리번)

공 사장    둘러봐도 여기만 한 방 잘 없어.

영윤        좀 좋아도 깨끗하네요.

공 사장    그럼! 전에 살던 사람도 아가씨라 깨끗하게 썼대.

영윤        (끄덕이고)

공 사장    여기 위로 올라가면 한 집 더 있긴 한데 다리만 아프지 뭐.

영윤, 꼼꼼히 살필 것도 없는 작은 방을 연신 살피듯 보다  
자신의 양말 위로 드리우는 별 줄기를 가만히 본다.

영윤        여기로 할게요.

시간 경과.

펼쳐지는 캐리어 안에서 마구잡이로 챙긴 짐들을 하나둘씩 꺼낸다.

두 개씩 있던 물건들 중에 하나씩 챙겨 온 짐이 옵션 가구 위로 놓인다.

텅 빈 캐리어를 다시 달아 한쪽에 세워두고 보면 제법 자신의 공간 같다.

## #7. 생활용품점(낮)

모든 게 다 있다는 생활용품점 안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고르는 영윤.

비슷한 물건이지만 천 원, 이천 원, 오천 원이라는 가격표 중에서

웬만하면 천 원을 고르다 어떤 건 큰맘 먹고 오천 원을 선택한다.

포스트잇에 적어 온 것들은 벌써 다 골랐지만, 공간을 꾸밀 생각에 예쁜 소품을

지나치지 못하는데 전화가 온다. 휴대폰 화면에 ‘승민 하트’라고 뜬다.

승민(F)    밥은 먹고 다니냐?

영윤        그게 왜 궁금한데.

승민(F)    그만큼 했음 됐어, 그냥 들어와.

영윤        너랑 헤어지니까 일이 막 풀릴 거 같애. 기분 좋은데 망치지 말고 끊자.  
니가 혹시 걱정 비슷한 거 할까 봐 전화는 받은 거야.

승민(F)    끄해야 24시간 카페 가서 죽치고 노트북 앞에서 멍 때렸겠지.

영윤        내가 그동안 대체 니 눈에 어떻게 보였던 거냐?

승민(F)    아니 솔직히, 내가 매달릴 입장은 아니지 않냐?

근데 이 정도 해주면 사람 성의를 봐서라도 (하는데)

영윤        (강조) 집에 할 일이 많아서 끊어야겠다. 다시 전화 안 해도 돼.

영윤, 보란 듯이 전화를 끊고 고민하던 예쁜 소품들을 찾기에 집어 담는다.

## #8. 골목길(밤)

영윤, 산 것들을 담은 봉투를 들고 걸어 올라오는데

저만치 원룸 옆 빌라에 구급차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인다.

구경하는 사람들 사이로 힐끗 보다가 웬지 무서워 그냥 들어가는 영윤.

그때 빌라에서 고령의 환자를 실어 데리고 나오는 구급대원 경우의 모습.

## #9. 구급차 안(밤)

경우, 차에 타서 뒷문을 닫으려는데 202호에 불이 켜지는 걸 본다.

순간 멈칫해서 보다 이내 문을 닫고 출발하는 구급차.

## #10. 202호/방+욕실(밤)

영윤, 사온 물건들을 채워 넣는다.

싱크대 선반에 접시 하나 놓는 방향도 이리저리 둘러보고,

주방 벽에 후크를 붙여서 가위나 집게 같은 것들을 걸어보면 뿌듯해진다.  
욕실에 가서 세면대에 그냥 놓여 있던 칫솔과 비누를 칫솔꽂이와  
비누받침 위에 두고, 녹이 쓴 휴지걸이 대신 새 휴지걸이를 부착해서  
새 휴지를 달아놓는다.  
돌아서다 욕실 문 안쪽에 옷을 걸어두는 후크가 떨어진 흔적을 본다.

영윤 저것도 사와야겠네.

그때 방에 둔 휴대폰이 울리고, 얼른 나가면서 불을 끄는 영윤.  
휴대폰 화면에 ‘승민 하트’라고 뜬다. 거절 누르고 ‘XXX’로 그의 이름을 바꾼다.  
마저 정리하려는데 다시 울리는 폰을 신경질적으로 보면, 모르는 번호다.

영윤 여보세요? (사이) 보조작가 면접이요?

영윤, 자연스레 시선이 책상 위 노트북으로 향하는데  
엔딩을 10신쯤 남긴 스타만 파일의 커서만 허공에서 깜박이는 게 보인다.

## #11. 원룸 우편함(낮)

단정하게 차려입은 영윤이 나와서 현관에 비친 모습을 확인한다.  
괜히 웃는 표정을 연습해보다가 안에서 사람이 나와 머쓱한,  
우편함을 보는 척하는데 202호 칸에 전기세 고지서가 있는 걸 본다.  
꺼내 보면 미납요금이 있는데, 마침 그때 나오던 주인할머니(방현순, 70대).

영윤 안녕하세요.

현순 네, 안녕하세요.

영윤 저 202호에 새로 이사 온 (하는데)

현순 (그제야 알고) 아, 알지 알지. 별일 없죠?

영윤 네? 아, 네. (고지서 보이며) 저 근데 미납요금이 있는 거 같아요.

현순 응? (고지서를 확인하며) 그르네. 이거는 신경 쓰지 마, 내가 낼게.

영윤 (혼쾌함에 고마워서) 아, 감사합니다.

현순 방 치우고 하느라 경황이 없어서 이것까진 신경 못 썼어.

영윤 (무슨 말인가 싶은데)

현순 사람 그렇게 나갔어도 사는 데 지장 하나도 없는데 그쵸?

영윤 네?

현순 응?

영윤 사람이... 어떻게 나갔는데요?

현순 부동산 공 씨가 말 안 해줬어?

영윤 (고개 저으면)

현순 그런 거 법적으로 미리 다 말해야 된다고 내가 언지를 쳤는데.

영윤 (보면)

현순 모르는 게 약이래도 나는 또 그게 도리가 아닌 사람이라.

전에 살던 아가씨가... 그게 좀 힘들었나 봐... 그래서 스스로...

영윤,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시야가 흐려지는 기분이다.  
딱하다는 현순의 말들이 귀에서 튕겨져나가 아득하게 들려온다.

## #12. 어느 작업실 안(낮)

통유리로 빛이 널찍하게 드리우는, 원룸의 열 배쯤 될 것 같은 공간.  
영윤이 긴장해서 앉아 있는데 무언가를 설명하는 작가(40대, 여)의 뒷모습.  
마주 앉아서 말을 주고받는데, 영윤은 자꾸만 그 생각이 떠올라 멍해진다.  
재차 영윤을 부르는 작가, 그때마다 다시 집중해보지만 표정이 좋지 않다.

## #13. 마포대교(낮)

영윤, 심란한 얼굴로 걷는다.

집으로 가는 시간을 늦추려고, 복잡한 마음을 떨쳐내보려고 걸어간다.

다리 곳곳에 보이는 자살을 우려하고 막으려는 노력들이 공허하게 보인다.

## #14. 부동산(밤)

영윤이 들어오면 연락을 받은 공 사장, 미안한 듯 본다.

공 사장 저기, 내가 일부러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영윤 이사 갈래요.  
 공 사장 당장? 당장은 매물이 (수첩 보는 척하는데)  
 영윤 조금만 올라가면 한 집 더 있다면서요.  
 공 사장 (그걸 기억하나 싶어 보면)  
 영윤 (거짓말이었구나 싶어) 다른 데라도 알아봐주세요.  
 공 사장 그 집이 가격 대비 깨끗하고, 집주인 할머니도 터치 안 하고.  
 영윤 다른 부동산 가도 되구요.  
 공 사장 에이, 무슨! (미련) 근데 보증금 없는 방,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영윤 (보면)  
 공 사장 찾아보면 있겠지, 나오는 대로 연락드릴게.

영윤, 인사하고 돌아서 나간다.

## #15. 원룸 앞(밤)

영윤, 걸어 올라오면서 서서히 보이는 원룸 건물을 본다.  
 건물 앞에서 202호 창문을 올려다보는데,  
 밤이라 어둡고 불도 꺼진 채라 괜히 더 우울하게 보이는 공간이다.

## #16. 202호/방+욕실(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자마자 얼른 불을 켜는 영윤.  
 무서운 마음에 집 안을 휘둘러보고 욕실 불까지 켜 뒤에야 들어간다.  
 아늑하고 따뜻했던 공간이 한순간 서늘하고 불편한 공간이 된 느낌이다.

옷을 갈아입으려고 창문을 닫는데 순간 들리는 낄, 마찰음에도 흠칫 놀라고  
 옷장에 옷을 걸면서도 옷걸이 너머의 빈공간을 괜히 확인해보게 된다.  
 냉장고를 열어 생수를 꺼내는데 무언가 녹아 굳은 얼룩이 눈에 거슬리고,  
 물을 마시면서도 주방 곳곳에 묻은 얼룩을 의심하듯 보는.  
 욕실에서 양치질을 하면서 거울에 비치는 모든 것을 의식하게 된다.  
 불을 끄고 나오다가 불현듯 떠오르는 무언가,  
 다시 불을 켜고 들어가 문 안쪽에 남은 후크의 흔적을 보고는 알 것 같다.  
 영윤, 이 공간이 두렵다. 무엇 하나 마음 편히 볼 수 없게 된 그 순간,  
 벨소리가 울리고 그것마저 공포인데 휴대폰 화면에 'XXX'라고 뜬다.

## #17. 승민 오피스텔 복도(밤)

영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내릴까 말까를 잠시 고민하다 내린다.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승민에게 톡을 썼다 지웠다 하며 가는데,  
 저만치 승민의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몇 개 쌓여 있는 게 보이고,  
 그것들을 받치고 있는 하얀 아이스박스 택배가 눈에 들어온다.  
 영윤, 그걸 보자 휴대폰 든 손이 톡 떨어지듯 힘이 빠진다.

## #18. 과거. 승민 오피스텔 안(밤)

아이스박스 택배를 뜯는 영윤, 열어보면 반찬통들이 커커이 쌓여 있다.  
 하나씩 꺼내 열어보는데 멸치볶음, 오징어채, 콩자반, 장조림, 감자볶음.  
 끝도 없이 나오고 파, 양파, 마늘, 손질된 야채까지 들어 있다.  
 그리고 랩에 꽂꽂 싸인 흰 봉투를 뜯어서 열어보면 현금이다.  
 영윤, 그 마음이 고맙고 미안해서 울컥하는데 도어록 누르는 소리.  
 영윤은 웃으면서 승민을 보는데 승민의 손에 치킨이 들려져 있다.

승민 (당황) 뭐야, 어머님이 또 반찬 보내셨어?  
 영윤 응. 치킨 사왔어?

승민 몰랐지.  
영운 괜찮아, 반찬은 됐다 먹으면 되니까.  
  
영운, 반찬들 뚜껑을 닫아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는다.  
냉장고가 든든하게 채워져 있는 모습을 사진 찍는 영운.

## #19. 과거. 승민 오피스텔 안(낮)

영운, 노트북으로 글을 쓰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꺼내놓은 반찬을 먹을 틈 없이 라면을 먹고 다시 집중하는.  
메일로 파일을 보낸 뒤에 그제야 나와 있던 반찬을 보고  
냉장고 문을 여는데 가득 쌓인 반찬통 앞으로 먹다 남은 배달음식들이 막고  
있는 게 보인다. 끼워 넣으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 짜증 나는데 전화가 온다.  
  
영운 응.  
승민(F) (들떠서) 저녁 밖에서 먹자.  
영운 오늘? 집에 먹을 거 많은데.  
승민(F) 일 잘했다고 보너스 받았어, 크게 쓴다 내가!  
  
영운, 손에 든 반찬을 보면서 고민 되는데 승민의 기분을 맞춰주고 싶다.  
  
영운 비싼 거 사주냐?

## #20. 과거. 동네 골목길(밤)

영운, 편의점에 들어간 승민을 기다리는데 맞은편에 예쁜 가게를 본다.  
보석가게 같은 내부 인테리어에 고급스러운 수제 초콜릿을 진열해둔 가게.  
영운이 이끌리듯 그 가게 앞으로 가서 진열된 초콜릿들을 보는데,  
누가 뒤에서 다리를 툭 쳐서 돌아보면 캔 맥주와 간식을 든 승민이 웃는다.

승민 다 샀어, 가자.  
영운 오늘 발렌타인데이라고 치고 초콜릿 좀 사주라.  
승민 초콜릿 먹고 싶어?  
영운 응.  
  
승민,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봉지 안에서 초콜릿 과자를 꺼내 보인다.

승민 아, 우리가 이렇게 잘 통한다 영운아. 자, 오다 주웠다.  
영운 이거 너 먹으려고 맨날 사는 거잖아.  
승민 이게 제일로 맛있어.  
영운 나도 저렇게 상자에 포장해주는 초콜릿 먹어보고 싶어.  
승민 야, 저거 다 상술이야. 비싸기만 비싸고 맨 포장 값이러니까?  
영운 (보면)  
승민 너는 꼭 저런 거에 속더라? 나는 니가 드라마작가 되겠다는 것도,  
그게 화려해 보이고 있어 보이니까 흑한 것도 있는 거 같애.  
영운 (열 받는) 무슨 얘기가 그리로 가? 그리고 나 그래서 드라마작가 되고  
싶은 거 아닌데? 물어본 적 없잖아. 왜 니 맘대로 오해하는데.  
승민 가슴에 손을 얹고?  
영운 (어이없는)  
승민 말해봐 그럼, 왜 되고 싶은 건데.  
  
그때 다른 커플이 초콜릿 가게 앞을 막고 서 있는 두 사람을 비켜달란 듯 본다.  
승민, 영운의 팔을 끌어 비키게 하는데 이런 상황이 짜증 나는 영운,  
그대로 가버리고 승민은 익숙한 듯 쫓아가며 달란다.

## #21. 과거. 오피스텔 분리수거장(낮)

영운, 음식물 쓰레기통에 상한 반찬통 몇 개를 가져와서 버린다.  
거의 손도 못 댄 듯 반찬통 가득 담긴 반찬을 쏟아보는데 속상하다.  
그때 엄마에게 전화가 오고, 애써 밝게 받는 영운.

영윤        여보세요.

영윤 모(F)    영윤아, 반찬 많이 비었제?

영윤        어? 어... 둘이 먹으니까 금방 먹네.

영윤 모(F)    승민이 입맛에 맞나 모르겠다, 요새는 간도 모르겠고.

영윤        맛있대. 개 아무거나 잘 먹어서 다 맛있대.

영윤 모(F)    니 학원 다니는 동안만 신세 지는 줄 알았지, 이래 오래 얹혀살아도  
                  괜찮은가 모르겠다.

영윤        괜찮아...

영윤 모(F)    먹고 싶은 반찬 있는가 물어봐라. 엄마가 그런 거라도 해줘야지.

영윤, 속상해서 눈물이 날 것 같은 걸 참는다.

## #22. 과거. 승민 오피스텔 안(밤)

(#1과 같은) 잠옷 차림으로 밥을 차리는 영윤.

남은 반찬을 하나도 빼지 않고 접시에 담아 차리는데  
                  똑같은 잠옷을 입고 욕실에서 나오는 승민, 별생각 없이 냉장고로 간다.  
승민, 그 안에서 먹다 남은 배달음식을 같이 먹으려고 꺼내는데

영윤        그거 먹을 거야?

승민        어? 어... 이것도 먹고 치워야지. 냉장고에 자리가 없다, 야.

영윤        (예민) 배달음식 계속 시키니까 그렇지.

승민        (눈치) 혼자 먹었나...

영윤, 화나지만 누른 채 반찬 뚜껑 찾으려 돌아서고  
승민, 전자레인지에 남은 음식 돌리고 하느라 좁은 주방에 부대끼는.  
                  그러다 식탁 기트머리에 있던 김치통이 떨어지는데 그걸 잡으려는 승민.  
                  하지만 영윤의 발을 짚듯이 그 위로 떨어지고 김치국물이 사방으로 튀다.  
                  두 사람의 몸에도 잔뜩 흩뿌려진 빨건 자국.

승민        (영윤 발을 보며) 괜찮아?

영윤        (손 치며) 치워.

승민        야, 내가 일부러 그랬냐.

영윤        내가 어떻게 알아.

승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영윤        내가 말을 왜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해봐, 그럼 알겠지.

영윤, 무시하고 떨어진 김치를 주우려는데 열 받는 승민.

승민        내가 언제까지 내 집에서 니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냐?

영윤        (멈칫) 뭐?

승민        너 요즘 예민한 거 장난 아냐. 너는 모르지?

영윤        내가 왜 예민해졌을까 생각해본 적은 있고?

승민        그런 것까지 해줘야 되냐?

영윤        너한테 얹혀사는 것만도 고마워해야지, 그런 것까진 바라면 안 돼?

승민        됐다, 그만하자.

영윤        뭘 그만해, 계속해. 조금만 더 하면 나가라 소리 나올 거 같은데.

승민        (고함) 아 진짜! (경고하듯) 그만해?

승민, 돌아서는데 영윤이 막듯 팔을 잡아당기다 김치를 밟고 미끄러진다.  
영윤을 잡아주려다 승민의 팔이 다른 반찬까지 떨어뜨리고 만다.  
                  또 떨어지는 반찬을 보고 열 받는 영윤, 빈 반찬통을 던지고 그걸 맞은 승민은  
                  억울해서 보는데 다시 던지는 영윤을 보고 같이 던지며 난장판 되는.  
                  그 위로 아득히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 소리.

## #23. 승민 오피스텔 복도(밤)

아이스박스를 내려다보는 영윤.  
                  여기를 제 발로 다시 찾아온 자신이 한심하다.  
영윤, 승민의 택배들을 바닥에 치우듯이 놓고

아이스박스를 드는데 너무 무거워 꿈쩍도 안 한다.  
그 목직한 것들이 다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 사력을 다해 든다.  
그 박스를 안고 복도를 지나 걸어 나오는 영윤의 모습.

## #24. 오르막길/원룸 앞(밤)

영윤, 몇 번이나 박스를 놓고 쉬었다 다시 들고를 반복하며 올라간다.  
들 때마다 힘을 하도 쥐서 스티로폼 알갱이들이 흩날리듯 떨어진다.  
거의 허리를 숙인 채 온몸으로 들듯이 올라가는데,  
그 시야에 원룸을 올려다보고 있는 어떤 남자(경우)와 강아지 보인다.  
영윤, 킁킁대면서도 경계하듯 그 옆을 지나치는데 웬지 202호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힐끗 보다 눈이 마주치자 얼른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 #25. 202호(밤)

문 열고 들어오는 영윤, 박스를 내려놓고 불을 켜다가 밖에서 불까 봐 끄는.  
어두운 방 안을 가로질러 창문 쪽으로 가서 틈새로 밖을 살피는데  
아직도 그대로 서 있는 경우를 보고 얼른 숨듯이 앉는다.  
영윤, 손을 뻗어서 창문을 달아도 흰히 들여다보이는 게 걱정된다.  
휴대폰으로 커튼을 사려고 보는데 드릴로 뚫어야 설치 가능하다는 안내,  
가능한가 싶어 일어나 창문 틀 위를 확인하려는데 너무 높다.  
의자를 가져와 밟고 올라가서 살피보는데 구멍을 뚫으려고 한 흔적만 있다.

영윤      이게 안 되나 보네...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고 놀라서 의자와 같이 넘어지는 영윤.  
떨어지면서 발을 접질린 영윤이 발목을 붙들며 겁먹은 얼굴로 현관을 본다.  
다시 노크하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리자, 방금 본 남자다 싶은.

경우(E)      괜찮으세요?  
영윤      누구신데요.  
경우(E)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가 해서요.  
영윤      (이상한 사람 같아서 경계하는)  
경우(E)      놀라셨다면 죄송해요, 실례했습니다.

영윤, 뭐야 싶다가 일어나려 발을 디더보는데 힘이 안 들어간다.  
재차 해봐도 일어날 수 없이 아프기만 하다.  
휴대폰을 보며 어딘가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 싶지만 승민에게 할 수 없다.  
막막해지는 영윤, 119를 누르지만 오버 같아서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방 안을 보는데 문득 아무도 모르게 발을 다쳐 주저앉은 상황이  
무서워지는 영윤, 눈물이 난다. 저만치 현관 앞에 놓인 아이스박스를 보자 엄마  
생각에 더 서러운 눈물이 나는데 그때, 구급차 소리가 들린다.  
영윤, 설마 싶은데 원룸 앞에 멈춰 선 구급차의 붉은 불빛이 방 안을 비춘다.

## #26. 원룸 앞(밤)

영윤, 들것에 누워 실려 나오는데 뭔가 민망하다.  
영윤의 시야에 근처 원룸 창문에서 내다보는 사람들, 구경하려 갈 길을 멈추고  
보는 사람들의 시선까지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순간인 걸 체험한다.  
구급차에 실려 문이 닫히고서야 그 시선들이 사라지고 안도한다.

## #27. 구급차 안(밤)

구급대원(송혜민, 20대, 여)과 단둘이 가는 영윤.  
그런 상황이 처음이라 미안하고 민망하기만 하다.

영윤      저...  
혜민      네, 어디 불편하세요?



영윤 아뇨, 혹시 누가 신고를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헤민 어...

헤민, 받아 온 접수증을 보면 신고경위가 나와 있다.

헤민 지나가는 행인이 신고했다는데요?  
영윤 (황당) 네?

그때 차가 차선을 바꾸면서 몸이 한쪽으로 치우쳐지고 그런 영윤을 보호하듯 붙잡아주는 헤민. 영윤은 낮선 구급차 안에서 이상한 안도감이 든다.

## #28. 응급실(밤)

여기저기 다쳐서 들어온 응급환자들로 시끌벅적한 풍경.  
영윤의 다리에 붕대를 감아주는 의사(30대, 여).

의사 살짝 뻐 거라서 응급조치만 하고요,  
붓기 좀 빠지면 다시 볼게요.  
영윤 감사합니다.

의사는 다른 환자를 보러 가고 저만치 돌아가는 구급대원들을 본다.  
영윤, 등을 기대 한숨 돌리면서 휴대폰을 켜보는데  
아까 보던 커튼 쇼핑 창이 그대로 켜져 있다.  
그걸 달고 동네 마켓에 들어가 다른 방식으로 설치하는 커튼을 찾는데,  
쪽 내려 보다 자신이 전에 샀던 커튼과 같은 걸 발견한다.

영윤 (혼잣말) 이거 정가 십오만 원인데, 삼만 원에 판다고?

영윤, 열린 채팅 버튼을 누르면 닉네임 '그냥' 님과의 대화방이 열린다.

영윤(E) 판매하시나요?

그냥 님(E) 네.

영윤(E) 구매하고 싶은데요.

그냥 님(E) 내일 저녁시간 가능합니다.

영윤(E) 편하신 장소 말씀해주시면 찾아갈게요.

그냥 님(E) 시간제과점 앞, 8시요.

영윤(E) 네, 알겠습니다.

영윤, 그제야 자신의 발의 붕대가 눈에 들어오지만 관찰을 것 같다.

## #29. 소방서 사무실(아침)

경우, 출근해서 들어오는데 교대일지를 작성하고 있던 헤민이 인사한다.

헤민 나오셨어요.

경우 어제 출동 많았어요?

헤민 별로 힘든 건 없었어요.

경우, 고덕이다 헤민이 작성하는 일지 중에 202호 숫자를 본다.

경우 이 건은 어떻게 됐어요.

헤민 아, 집 안에서 골절상이었는데요.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었어요.

경우 (안도하며) 다행이네요.

헤민 (보다가) 선배님이 혹시 지나가는 행인이셨어요?

경우 네? 나 아니에요.

경우, 괜히 서류를 가지고 나가고 그런 경우를 이상하게 보는 헤민.

### #30. 소방서 지하(아침)

구급상황 대비훈련용 물품들이 있는 공간이다.  
 머리와 목까지 있는 마네킹을 두고 기도 삽관 훈련을 하는 경우.  
 잠시 후 삽관이 성공하면 연결된 호스를 따라 혈액이 나가는 걸 확인한다.

헤민 누가 찾아오셨는데요?  
 경우 나를요?

### #31. 소방서 앞(아침)

경우, 나오는데 붕대 감은 발로 음료수를 들고 있는 영윤이 서 있다.  
 영윤은 경우인 줄 모르고 왔는데 알아보고 흠칫 놀라고, 경우도 당황한다.

영윤 혹시 어제 신고해주셨어요?  
 경우 아, 그게... 다치신 건가 해서요.  
 영윤 그러면 구급대원이라서 저희 집 문 두드리신 건가요?  
 경우 어, 그건 아닌데 (하다가 말이 이상해지자) 괜찮으시죠?  
 영윤 덕분에요, 감사합니다. (음료수를 건네면)  
 경우 이런 건 못 받는데.  
 영윤 (그 말에 흠칫) 아.  
 경우 (붕대 보며) 심각한 건 아니래도 많이 걸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영윤 네, 그럼.

영윤, 음료수를 그대로 들고 째뚝이며 가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영윤 근데요.  
 경우 (들어가려다 보면)  
 영윤 그 전부터 집 쪽을 계속 보고 계셨죠?  
 경우 (당황)

영윤 그래도 구급대원이시니까, 제가 겁먹을 필요 없는 거죠?  
 경우 (끄덕이고)  
 영윤 (안도, 다시 인사하는) 수고하세요.

영윤, 인사하고 가고 영윤의 뒷모습을 보는 경우.

### #32. 202호(밤)

영윤, 책상에 노트북을 앞에 두고 밥을 먹는다.  
 엄마가 보내준 반찬들을 골고루 먹으면서 한 줄씩 써보는데 잘 안 된다.  
 반찬은 쓱쓱 잘도 줄어드는데, 글은 쓱쓱 써지지 않는다.  
 다 먹고 남은 걸 냉장고에 다시 넣는데 자리가 부족하다.  
 혹시나 해서 밑에 있는 서랍을 열어보면 여유 공간이 있다.  
 영윤, 거기다 반찬통을 넣고 닫는데 숨겨져 있던 투명 칸이 열린다.  
 그걸 못 보고 갑자기 아차 싶어 시계를 보면 8시 1분 전이다.

영윤 아, 커튼!

그대로 냉장고 문을 닫고 급히 나가는.

### #33. 시간제과점 앞(밤)

영윤, 시계를 보면서 붕대 감은 발로 서둘러 째뚝이며 간다.  
 저만치 커튼을 들고 있는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어딘가 낯익다.  
 그때 휴대폰으로 시간을 보면서 돌아보는 사람, 승민이다. 서로 어이없는.

승민 커튼 얼마 달게?  
 영윤 방 구했어.  
 승민 돈 있었어?

영윤      그래, 돈 있으면서도 너한테 빌붙어 살았다. 억울해?  
 승민      그게 아니라. 고시원? 고시원은 커튼 필요 없잖아.  
 영윤      됐고. 커튼 안 사. 거래 취소. (돌아서는데)  
 승민      발은 또 왜 그래.  
 영윤      내 발등 찍었어. 왜 그러고 살았나 한심해서.  
 승민      야, 너 진짜.  
 영윤      근데 내가 이걸 얼마 주고 샀는데, 그 값에 니 맘대로 팔아.  
 승민      반명한 거잖아.  
 영윤      말로는 돌아와라 미안하다 그러더니, 정리 참 빠르다?

영윤, 그대로 돌아서 가는데 커튼을 들고 쫓아가는 승민.  
 커튼이 풀려 바닥에 끌리는 걸 연신 주우면서 쫓아간다.

### #34. 골목길(밤)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는 영윤과 그 뒤를 쫓는 승민.  
 중간중간 센서 등이 있는 건물 앞에서만 불이 켜졌다 꺼지곤 한다.

승민      얘기 좀 해!  
 영윤      무슨 얘기.  
 승민      우리.  
 영윤      꼭 너는 아닌데 내가 일방적으로 끝낸 것처럼 말하지 좀 마!  
 승민      나는 아니라니까? 헤어지고 싶은 마음 없었어.  
 영윤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 그럼 내가 찬 걸로 해. 됐지?  
 승민      너는 그럼 마음이 좀 낫냐? 같은 시간이 얼마인데 그렇게 냉정해.

영윤과 승민, 말없이 서로를 노려보고만 있는데  
 움직임이 없어 센서 등이 꺼지고 그럼에도 지기 싫어 눈싸움을 이어간다.  
 그러다 지나가는 사람 때문에 불이 켜지는데  
 둘을 보고 깜짝 놀라 “악!” 소리를 지르는 행인.

영윤과 승민,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한다.

승민      이려고 끝내도 진짜 괜찮아?  
 영윤      어. 니 옆에서 시들어가는 거보단 낫겠어.  
 승민      시들어? 내가 너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말을 그렇게 하나.  
 영윤      고마워, 신세졌어.  
 승민      차영윤 진짜 너...  
 영윤      근데, 나는 그게 다 니 마음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빗지면서 산  
 거더라. 나는 내가 빌린 적도 없는 빗 값은 느낌으로 살았고.  
 승민      걱정이 돼서 그랬어. 니가 언제까지고 꿈만 보면서 살까 봐, 나라도  
 현실을 좀 깨우쳐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거지.  
 영윤      그럴 때마다 내가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알아?  
 승민      (보면)  
 영윤      내 꿈이 나만 한심한 것도 나한테 미안한데,  
 이렇게 살다가는 꿈이 내 약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승민      야, 뭘 또 그렇게까지 (하는데)  
 영윤      그냥 가, 승민아. 이제 보지 말자. 볼 만큼 봤잖아, 서로 못 볼 꼴.  
 승민      (할 말이 없다)

영윤, 먼저 돌아서서 가고 그 모습을 보고만 있는 승민.

승민      영윤아.  
 영윤      왜.  
 승민      이거 갖고 가.

영윤, 잠깐 고민하다가 준비해 왔던 돈을 주고 커튼을 받는다.  
 승민, 그 돈을 받고 돌아서서 가고 영윤은 반대쪽으로 간다.  
 커튼을 주섬주섬 챙기면서 가는 영윤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실린다.

### #35. 과거. 승민 오피스텔 안(밤)

스탠드를 켜놓고 노트북으로 글을 쓰고 있는 영운.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 들어오지 않는 승민이 걱정돼 휴대폰을 본다.

승민에게 전화를 하려다 마는 영운, 창밖으로 뭔가를 봤다.

잠시 후 도어록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술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승민.

승민, 침대로 엎어지듯이 드러눕고 영운은 양말을 벗겨주려 한다.

승민 글 썼어?

영운 그냥.

승민 언제 끝나?

영운 글썸, 다음 주까진 끝내야 수업할 때(하는데)

승민 아니어... 언제 끝나냐고...

영운 (보면)

승민 끝이 나긴 해? 언제까지 내가... 너... (깊은 한숨)

승민, 술김에 말은 했지만 뻗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린다.

영운, 승민의 양말을 대충 벗겨주고 책상으로 가서 스탠드를 끈다.

노트북에 비친 영운의 눈빛이 흔들리고, 승민 역시 눈을 뜬 채다.

### #36. 원룸 앞(밤)

영운, 그 생각에 착잡한 얼굴로 커튼을 다시 쥐며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어디선가 힘없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서 두리번거리며 봐도 안 보인다.

점점 힘없이 줄어드는 울음소리가 신경 쓰여 주차된 차량 밑을 본다.

휴대폰 불빛을 비춰보면 자동차 하부에 갇혀서 못 나오는 새끼고양이.

영운, 놀라서 보다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건다.

영운 (전화에) 저, 죄송한데요. 이런 일에도 출동해주실 수 있나요?

### #37. 원룸 주차장(밤)

경우와 동료(40대, 남)가 간단한 구조장비를 두고 차 밑을 보고 있다.

그 옆에서 커튼을 들고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영운.

경우, 타이르듯이 손짓하며 유인하는데 겁을 먹은 고양이는 울기만 한다.

동료 저러다 더 안으로 들어가면 답도 없는데...

경우 살충제 뿌리겠습니다.

경우, 살충제를 뿌려서 유인하고, 동료는 포획 망으로 잡을 준비를 한다.

영운, 걱정되어 조금 더 다가가 휴대폰 불빛을 비춰주는데

그 순간 거짓말처럼 튀어나오는 고양이에 놀란 동료는 망을 놓치고

경우가 “어어!” 하는데 순간 자신의 커튼을 던져 고양이를 잡는 영운.

커튼 속에서 겁먹은 새끼고양이를 달래주면서도 놀란 영운을 보며 경우와

동료는 그 상황이 웃기다. 영운도 그제야 잘 된 거구나 싶어 편하게 웃는.

### #38. 코인 빨래방(새벽)

영운, 커튼을 세탁하고 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노트북으로 작가교육원 취업게시판을 보면서

여기저기 지원해보고 있다. 몇 군데에서나 연락이 올까 막막해지는.

고개를 들어 밖을 보는데 어두운 길에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는 경우.

영운, 순간 아는 척하고 싶은 자신이 어이없는데 경우가 영운을 본다.

경우가 먼저 인사를 하면 영운도 덩달아 목례를 한다.

영운 (문을 열고) 고양이는요?

경우 아, 동물보호소에 갔는데 임보처가 바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영운 다행이네요.

경우 잘 잡으신 덕분입니다.

영운 (웃음) 근데 이 시간에 강아지를 산책 시키세요?

경우 교대 시간 따라서 남는 시간에 해야 해서요, 밤낮이 없습니다.  
 영운 아...  
 영운, 강아지를 내려다보는데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

경우 왜 이 시간에 빨래를 하십니까?  
 영운 어... 이 시간이 잠도 잘 안 오고, 방에 있기도 좀 그래서요.  
 경우 (그 말에 보는)  
 영운 저기요, 혹시 말인데요.  
 경우 네.  
 영운 구급대원이시니까 그런 현장도 가시나요?  
 경우 그런 현장이요?  
 영운 (조심스러운) 그... 사람이 죽거나 그런...  
 경우 무슨 일 있으십니까?  
 영운 그냥 제가 사는 곳도 오셨을까... (하다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때 영운의 빨래가 끝난 알림음 울리고 인사를 하고 들어가려는데

경우 저...  
 영운 (돌아보고)  
 경우 혹시 무서우시거나, 잠이 안 오면 전화... 하세요.  
 영운 네?  
 경우 (명함을 주며) 비상연락망이라고 생각하고 전화하세요.

영운, 열결에 명함을 받고 보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급히 돌아서 가는 경우의 당황한 것 같은 뒷모습.

### #39. 202호(밤)

스탠드 불빛 아래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글을 띄워놓고 있는 영운.

영운, 몇 글자를 썼다 지웠다 반복하다 순간 한기가 느껴져 뒤를 본다.  
 아무도 없는데 괜히 자꾸 보게 되는 마음에 일어나서 방의 불을 켜다.  
 그리고 다시 앉는 영운, 한쪽 벽에 걸린 커튼이 살랑이자 생각이 난다.  
 명함을 보고 전화하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도록 안 받아 끊으려고 하는데.

경우(F) 여보세요?

### #40. 교차. 소방서 휴게실+202호(밤)

휴게실로 들어오며 전화를 받는 경우와  
 책상에 앉은 영운이 나란히 보인다.

영운 저... 통화 괜찮으세요?  
 경우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출동이 생기면 바로 끊어야 합니다.  
 영운 아, 몇 시까지 근무신데요?  
 경우 오늘은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합니다.  
 영운 강아지가 내일은 해를 보면서 산책하겠네요.  
 경우 (웃음) 그렇습니다.  
 영운 저는 글을 쓰는데요, 덕분에 구급대원 취재하는 기분도 좀 드네요.  
 경우 아, 취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영운 그러면 더 귀찮게 할지도 모르는데요.  
 경우 괜찮습니다.  
 영운 (그런 호의가 싫지 않은데)  
 경우 괜찮으십니까?  
 영운 뭐가요?  
 경우 방이요.  
 영운 아무것도 몰랐을 땐 이 방이 참 아늑했거든요?  
 저한테는 처음이라 감사하기까지 했는데, 몰랐던 사실 하나 알았다고 다르게 느껴지는 게 참 이상하네요. 감사한 거 같기도 하고...

경우 (듣다) 괜찮아지실 겁니다.  
영윤 제가요?  
경우 방이요.  
영윤 그쵸, 방은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대로 그냥...  
경우 그러니까 그 방을 너무 다르게는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윤 (방을 보는)  
경우 방은 잘못이 없으니까요.  
영윤 가본 적 있으세요? 그런 선택...의 현상이요.  
경우 한 번, 있었습니다. 발령받고 얼마 안 됐을 때라 정신이 없었는데...  
괜찮진 않았습시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은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영윤 씨도 괜찮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 경과.

영윤은 어느새 이부자리에 누워서 통화하고

경우는 잠을 깨려 커피를 마시면서 걸으며 통화한다.

영윤 공무원 시험은 몇 번이나 떨어지셨어요?  
경우 7년 동안 떨어지다 8년째 붙었습니다. 몇 번인지 모르겠네요.  
영윤 좋으셨겠네요, 합격한 거 알았을 때.  
경우 엄청 좋았습니다.  
영윤 부모님도 좋아하셨죠?  
경우 동네에 현수막 건다고 하셨죠.  
영윤 부럽습니다, 자랑스러운 자식이 돼본 거잖아요.  
경우 공부하는 내내는 염치없는 자식이었는데, 다행이죠.  
영윤 씨는 드라마작가가 원래 꿈이었습니까?

어느새 잠이 든 영윤, 경우는 전화가 끊긴 건가 확인하고  
다시 전화를 귀에 갖다 대보는데 잠들었구나 싶어 그대로 끊는다.  
그 덕분에 영윤은 편하게 잠든 모습에서.

## #41. 동네 골목길(낮)

영윤, 노트북을 들고 가는데 문자가 오고 보면 경우다.

경우(E) 오늘 산책은 한강 갈 건데, 혹시 운동이 필요하시면 같이 가요.

영윤, 그 문자를 보고 답장을 찍는다.

영윤(E) 면접 보고 그리로 가겠습니다.

영윤, 휴대폰을 넣고 가는데 그 시야에 초콜릿 가게가 보인다.  
다시 멈춰서 보다 큰맘 먹고 문을 열고 들어간다.

## #42. 초콜릿 가게 안(낮)

영윤, 진열대 앞에서 보고서야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가격.

최대한 당황하지 않은 척... 좀 더싼 게 없나 고민하다가

선물 포장 상자 중에 제일 작은 게 4구 상자인 걸 본다.

## #43. 염 작가 작업실(낮)

커다란 창을 회의용 화이트보드로 가려서 빛이 가려진 작업실이다.

회의의 복잡한 흔적들을 보면서 머리가 멍해지는 영윤, 정신을 차린다.

안에서 나오는 염 작가(40대, 여), 영윤이 보낸 이력서와 습작을 들고 있다.

염 작가 보낸 습작에 엔딩을 못 낸 이유가 있어요?

영윤 엔딩을... 아직 못 정했습니다.

염 작가 왜요?

영윤 좀 어려워서요.

염 작가 글 쓰는 게요?  
영윤 끝내는 거요. 이렇게 내 맘대로 끝내도 주인공한테 괜찮을까...  
염 작가 본인 인생도 아닌데 일단 끝내보고 고치는 게 어때요?  
영윤 아...  
염 작가 글이 아무리 인생이라도 맘대로 고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  
영윤 그쵸.  
염 작가 핑계인 거 같아, 끝이 어렵다는 것도. 뭐든 해봐야 끝도 나는 건데.

영윤, 또 떨어졌겠구나 생각하고 앉아 있다.

#### #44. 엘리베이터 안(낮)

영윤, 힘없이 1층을 누르고 닫히는 문을 보는데 누군가 다급히 여는 손.  
다시 열림 버튼을 누르고 보면, 초췌한 물골의 40대 여성이다.  
영윤, 그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고 신기함과 존경심으로 보는데  
비몽사몽 정신없는 여성은 엘리베이터 벽에 기댄 채 간신히 서 있다.  
영윤의 시야에 대충 구겨 신은 신발에 반쯤 튀어나온 발이 들어온다.  
1층에서 내린 여성은 카페로 가고 그 모습을 복잡한 마음으로 보는 영윤.

#### #45. 한강 공원 입구(낮)

영윤, 의기소침해져서 걸어오는데 기다리고 있는 경우와 강아지가 보인다.  
경우가 영윤에게 손을 들어 보이는데, 영윤은 어색하게 목례로 답하는.  
그런 영윤을 보다가 대뜸 강아지의 목줄을 손에 쥐어주는 경우.  
영윤, 당황하는데 경우가 영윤의 가방을 받아들자 냅다 뛰는 강아지.

#### #46. 한강 공원(낮)

강아지의 줄을 잡고 끌려가듯 억지로 뛰는 영윤.  
경우, 자전거를 타고 그 옆으로 가면서 보면  
영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상쾌한 기분에 멈추지 않고 달린다.  
그 모습이 얼핏 보면 행복해 보이기도 하는 얼굴이다.

#### #47. 한강 공원 일각(낮)

잔디 위에 쓰러지듯 주저앉는 영윤.  
강아지의 줄을 고정시키고 생수를 건네는 경우.

영윤 (생수 들이켜고) 이게 무슨 운동이예요... 극기 훈련이지...  
경우 운동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영윤 강아지 맡기고 편하게 자전거 타려고 연락한 거 아니예요?  
경우 그래도 좋지 않았습니까?  
영윤 잠깐 아무 생각도 안 드는 효과는 있네요.  
경우 예전에 시험 계속 떨어지고 답답해서 제주도에 간 적이 있는데, 밥 먹으러 간 식당 주인분이 요리 준비할 동안 자기 개 산책을 좀 시키고 오라고 하더라구요.  
영윤 손님한테요?  
경우 네, 이상한데 거절하기도 뭐해서 처음 보는 개랑 동네를 걸었거든요. 그 개는 맨날 거기를 도니까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서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개한테 끌려가면서 동네 구석구석을 보는데 그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들구요.  
영윤 (경우의 마음을 알 것 같아, 보다가) 고맙습니다.

영윤과 경우, 잠깐 말없이 각자 한강을 본다.

영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을 방금 실제로 봤는데요.

경우 좋으셨겠네요.  
영운 제 롤모델인 작가님인데, 정말 하나도 안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경우 왜요?  
영운 방송 중이라 힘드시겠죠, 지금의 저는 상상도 못 할 만큼.  
경우 (끄덕이고)  
영운 그래서 마음이 좀 복잡했는데, 이공이 덕분에 잠시 잊었네요.  
경우 이공이가 도움이 돼서 다행입니다.

엎드린 채 쉬고 있는 강아지를 괜히 쓰다듬는 경우.  
강아지는 다시 가자는 말인 줄 알고 털을 털며 일어난다.

#### #48. 한강 공원(해 질 녘)

붉은 노을이 한강 위를 불태우듯이 타고 있다.  
경우와 영운, 강아지를 데리고 걷는다.

영운 왜 이름이 이공이에요?  
경우 아, 제 이름이랑 자음을 맞췄습니다. 저는 이경우, 애는 이공이.  
영운 (놀리듯) 아, 그렇게 깊은 뜻이...

영운, 자신의 발과 나란히 같이 걷는 경우의 발을 본다.

경우 노랑진에 있을 때는 저 노을이 참 초조했었는데.  
영운 왜요, 하루가 다 간 거 같아서요?  
경우 네, 그리고 노을은 지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희망이 안 보이는데...  
영운 근데 되고 보니까 다르게 보여요?  
경우 얼마 전까지도 사실 똑같았는데, 이제 좀 예뻐 보이기도 합니다.  
영운 (농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더니.  
경우 그 작가님도 아마 그런 시기를 지나고 계신 게 아닐까요.  
영운 지는 시기요?

경우 본인이 제일 큰 빛을 발휘하고 있는 걸 본인만 모르는 시기요.  
영운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 속에선 힘든 것만 보이고 온통 고통뿐이라, 세상이 자기를 이렇게 멋있게 보는 건 모를 수도 있겠네요, 정말.  
경우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영운 갑자기요?  
경우 힘은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내야 되더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강아지가 냄새를 맡으며 경우를 끄는 바람에 경우가 앞서가고  
그런 경우한테 살짝 감동한 영운은 경우의 뒷모습을 노을과 함께 본다.

#### #49. 한강 편의점 안(밤)

라면과 맥주를 꺼내 계산대로 가려던 경우가  
김밥 냉장고 앞에 한참을 서 있는 영운을 본다.  
영운 옆으로 가서 보면 다양한 맛 중에서 하나를 고르느라 고심하는 얼굴.

경우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영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경우 (보면)  
영운 제가 제일 꿈꾸는 순간이에요. (웃음)

영운, 김밥을 골라 들고 계산대로 가면 그런 영운을 보고 웃는 경우.

#### #50. 한강 편의점 앞(밤)

야외 테이블에 앉아 라면과 삼각김밥, 캔 맥주를 먹는 영운과 경우.  
피곤한 강아지는 테이블 아래 묶인 채 졸고 있다.  
경우, 맥주를 들어 건배하면 영운도 맥주를 부딪치며 건배한다.



영윤 좋아하는 드라마 있어요?  
 경우 없습니다.  
 영윤 드라마 안 좋아하세요?  
 경우 볼 시간이 없습니다.  
 영윤 아...  
 경우 영윤 씨 드라마가 나오면 꼭 볼게요.  
 영윤 그런 말 이제 듣기도 민망해요.  
 경우 왜요.  
 영윤 예전엔 그런 말 들으면 막 상상됐거든요?  
 근데 상상도 이 삼각김밥처럼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상상이 유통기한이 지난 느낌이 들어서... 쓴맛만 남아요.  
 경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영윤 드라마도 정답이 있어서 맞추는 거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경우 왜요?  
 영윤 자꾸 떨어지니까 그냥 정답이라도 있으면 덜 억울할 거 같아서요.  
 경우 저는 드라마를 잘 모르지만,  
 오답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드라마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왜요?  
 경우 드라마니까요.  
 영윤 드라마는 뺑쳐도 되니까요?  
 경우 드라마는 그래줘도 되니까요.  
 영윤 그럴게요. 나한테 기회가 오면 오답대잔치 같은 드라마 쓸게요.  
 아무도 안 봐주면 경우 씨가 봐주세요.  
 경우 기다리겠습니다.  
 영윤 고맙습니다.

영윤과 경우, 웃으며 맥주를 마시고 밤은 어둡지만 둘은 빛나는 느낌이다.

## #51. 오르막길/원룸 앞(밤)

경우가 영윤을 바라다준다.

경우 원래는 어디 살았습니까?  
 영윤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경우 (끄덕이면)  
 영윤 없혀살았어요.  
 경우 (보는)  
 영윤 매달 월세를 내면 매달 힘들긴 해도 자존감은 지켜질 거 같거든요?  
 근데 없혀사는 동안은 그 걱정은 없어도 자존감이 사라진 줄도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나한테 딴 건 못해줘도, 내가 하찮게는 안 느껴지게 살게 해주려고요.  
 경우 잘 모르지만, 잘하셨습니다.  
 영윤 (웃음) 아, 그런 저를 도와주신 기념으로 제가 선물을 하나.

영윤, 가방에서 아까 산 초콜릿 상자를 꺼내서 준다.

영윤 저의 새 출발을 저 혼자 기념하는 기념품입니다.  
 경우 초콜릿이요?  
 영윤 아뇨, 이 초콜릿 상자가요. (들어가려는데)  
 경우 그럼 저도 팁을 하나 드릴게요.  
 영윤 (보면서) 팁이요?  
 경우 지치거나 너무 힘이 드실 때, 세탁기에... 한번 기대앉아 보세요.  
 영윤 세탁기요?  
 경우 두 시쯤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영윤, 농담인가 싶어서 웃으면서 들어가고 그대로 서 있는 경우.  
 잠시 후 불이 켜지는 202호를 보는데 지난번이 떠오른다.

## #52. 회상. 원룸 앞(밤)

#25와 같은 상황, 경우의 시점.

경우, 강아지를 데리고 202호를 본다.

불이 켜졌다 다급히 꺼지고 창문을 닫는 손.

그러다 창가에서 무언가를 밟고 올라서는 그림자가 죽으려는 듯 보인다.

순간적으로 철렁하는 경우, 다급히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간다.

## #53. 회상. 202호 밖(밤)

202호 문 앞에 서서 다급히 문을 두드리는 경우의 표정 심각하다.

그때 안에서 뭔가 넘어지면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고 조용한.

경우      괜찮으세요?

영윤(E)    누구신데요.

경우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가 해서요. (대답 없자) 놀라셨다면 죄송해요,  
실례했습니다.

경우, 돌아서려는데 익숙한 냄새를 맡듯 202호 문에 코를 박는 강아지.

그런 강아지를 보자 걱정이 되는 경우는 전화기를 꺼내 119를 누른다.

## #54. 원룸 앞(밤)

경우, 돌아서서 가고 그 뒤로 창문을 열고 내다보는 영윤.

영윤은 돌아서 가는 경우의 뒷모습을 본다.

## #55. 202호(밤)

컴퓨터 앞에 앉은 영윤, 제자리걸음이던 자신의 글을 본다.

그 위로 경우의 말이 떠오른다.

경우(E)    오답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드라마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이) 드라마는 그래줘도 되니까요.

영윤, 그 말에 힘을 얻듯이 쓰기 시작한다.

깜빡이던 커서가 더듬더듬 글자를 만들어내는데, 그때 문자가 도착한다.

옆 작가(E)    내일 5시까지 출근하세요.

영윤, 그 문자를 보고 너무 좋아서 방방 뿜다.

이제 무섭지 않은지 방 안 곳곳을 뛰어다니며 좋아한다.

## #56. 소방서 차고(아침)

출근한 경우가 출동을 대비해서 구급차에 필요한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그때 메시지가 오고, 보면 영윤이다.

영윤(E)    취직 기념으로 저녁을 사겠습니다.

경우, 그 문자를 보고 웃다가 뭔가 마음에 걸리는 듯 본다.

## #57. 202호(낮)

— 영윤, 세탁기를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마친다.

— 영윤, 씻고 나와서 젖은 머리를 드라이기로 말린다.

— 영윤, 시계를 확인하는데 2시다. 경우의 말이 떠오른다.  
— 영윤, 긴가민가하며 세탁기에 기대앉아 보는데 자신의 발 앞으로 별이 널찍하게 드리운다. 놀라는 영윤, 그게 꼭 잘 될 거라는 응원의 부적 같다.

## #58. 원룸 앞(밤)

경우, 강아지를 데리고 서서 영윤을 기다린다.  
그때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현순이 경우와 강아지를 알아본다.

## #59. 오르막길(밤)

노트북을 든 채 걸어오는 영윤, 경우와 강아지가 서 있는 게 보인다.  
그 모습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환하게 웃음이 난다.  
영윤, 서둘러 경우에게로 가려고 걸음을 내딛는데,  
현순이 강아지를 만지며 반가운 체를 하고 있는 걸 그제야 본다.  
영윤은 그 장면이 의아한데 가까이 갈수록 들리는 현순의 목소리.

현순 아이구... 그래도 좋은 주인 만나서 니가 그래그래...  
떠난 주인은 잊고 새 주인하고 좋은 기억만 갖고 살어...  
동물도 다 안다 그러데, 자기 주인이 무슨 선택을 했는지...

경우 (끄덕이고)

현순 그때 총각이 거뒀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애도...

영윤, 그 말을 고스란히 듣고 서 있다 보니 상황을 알 것 같다.  
바닥에 누워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와 그 강아지를 거둔 경우,  
영윤은 자신에 대한 경우의 호의가 꼭 그 강아지에게 내민 손같이 느껴진다.  
그래서 더 다가가지 못하고 걸음이 조금씩 뒤로 물러나지는 영윤.  
그때 경우가 영윤을 발견하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데  
영윤, 그 경우의 눈빛이 전과 다르게 느껴진다.

영윤, 그대로 뒤돌아서 뛰어가고 난감한 얼굴로 보는 경우.

## #60. 골목길(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뛰는 영윤을 어느새 쫓아와 붙잡는 경우.  
영윤, 반사적으로 손을 뿌리치는데 경우는 그런 영윤을 다시 붙잡는다.

영윤 이유 없이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이상한 사람인가... 의심도 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좋은 사람이구나, 그랬는데...

경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영윤 (보면)

경우 말하려고도 했는데,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영윤 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해보세요.

경우 (멈칫)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간 건 맞지만.

영윤 (보다가) 그게 싫어요. 시작이 그런 이유인 게... 그게 싫어요.

경우, 더 뭐라 말을 못 하고 서 있고 영윤은 그대로 간다.

## #61. 202호(밤+아침)

영윤은 멍하니 창문 아래 구석 벽에 기대앉아 있다.  
취객들의 허세 어린 고향과 욕설이 배경처럼 지나가고  
고된 신음처럼 등장한 쓰레기 수거차 역시 자연스럽게 퇴장하지만  
영윤은 조용한 새벽이 되도록 움직이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방을 본다.  
이 공간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의중을 문듯 보는.  
아침 해가 뜨고 정신 차리듯 일어나는데 창밖으로 경찰차와 구급차 보인다.  
누군가를 부르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두려워지는데, 잠시 후 들것에 실려  
나오는 사람의 손목이 툭 떨어지는 게 보인다.

그리고 그 환자를 실어서 가는 경우와 헤민을 본다.  
영운 그 순간 주변을 보면, 모두가 창문 뒤에 숨어서 구경한다.  
그 모습이 불편해지는 영운은 창문을 닫아버리고 만다.  
영운, 다시 그 공간에 고립되듯 두려워진다.

## #62. 원룸 앞(낮)

경우가 영운에게 전화하는데 받지 않는다.  
그 앞으로 멈춰 서는 차에서 공 사장이 손님을 데리고 내린다.

공 사장      여기가 깨끗하고 별이 좋아요. 2층이라 다니기도 안 힘들고.

경우, 그 말에 영운이 이사를 간다고 생각한다.

## #63. 오르막길(밤)

영운,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경우와 만난다.  
경우가 영운을 보고 다가서는데 시선을 피하는 영운.

영운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

경우      꼭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영운      죽은 사람이 부탁이라도 했어요?

경우      네, 근데 부탁한 말은 다 했어요. 영운 씨가 혹시 힘들어하면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전해달란 말은 다 전했어요.

영운      (멈칫)

경우      내 눈에는 영운 씨가 처음부터 빛나 보였어요. 무거운 상자를 힘들게  
들고 가는 걸 봤을 때도, 봉대 감은 발로 음료수 들고 찾아왔을 때도,  
무섭다고 새벽에 세탁하러 나와 있을 때도 전부 다요. 그래서였어요.  
영운 씨가 거기 사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요.

영운      (그 말에 흔들린다)

경우      지금 영운 씨, 영운 씨가 봤다던 그 작가님 같이 보여요.  
자기가 빛나는 줄도 모르고 힘들어만 하고 있지는 마요.

경우, 돌아서서 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영운.

## #64. 202호(밤)

영운, 들어와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하나 남은 캔 맥주가 보인다.

그걸 꺼내고 문을 닫으려는데 뭐가 툭 걸린다.

다시 열어보면 지난번에 서랍에 딸려 열렸던 투명 칸이 보인다.

그게 문인지도 몰랐던 영운은 닫으려고 하다가, 멈칫한다.

비밀 공간 같은 그 안에 들어 있는 작은 상자가 낯익다.

꺼내서 보면, 자신이 샀던 초콜릿 가게의 상자다.

상자를 열어보면 6개짜리 초콜릿 상자에 4개가 남아 있는 게 보인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은 영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터진다.

주저앉아 엉엉 우는 영운은 얼굴도 이름도 모를 그 사람이

힘내라고 남겨준 초콜릿 같아서 그걸 붙잡고 하염없이 운다.

## #65. 과거. 초콜릿 가게 앞(낮)

영운이 그 안을 들여다보는 옆으로 지혜가 그 가게를 들여다보고,

그냥 지나친 영운과 달리 안으로 들어가는 지혜.

지혜, 고민하다 6개짜리 초콜릿 상자를 고른다.

## #66. 과거. 202호(낮)

— 세탁기에 기대앉아 책 읽는 지혜, 발 위로 드리우는 벌을 사진 찍는다.

— 냉장고 비밀 칸에서 초콜릿 상자를 꺼내 하나를 먹는 지혜, 기분이 좋다.  
— 커튼을 달려고 구멍을 뚫으려는 지혜, 힘을 쥐서 구멍을 내려는데 창밖에  
뭔가를 보고는 뛰어나간다. 길 잃은 강아지(이공이)가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려고 하는 걸 못 먹게 하면서 강아지를 안아주는 지혜의 모습.

## #67. 과거. 한강 공원(낮)

지혜가 매일같이 강아지 산책을 시켜주는 모습.  
그 산책은 지혜 자신을 위한다는 의지도 크게 작용한다.  
가끔 강아지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무표정의 시간이 길다.

## #68. 과거. 202호(낮)

별이 고스란히 드리운 방 안.  
바깥에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구급대원들.  
베테랑들의 익숙한 대처 속에 얼떨떨한 표정의 경우.  
욕실 문에 서 있는 듯한 지혜의 얼굴은 차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시신을 눕히는 과정에서 욕실 문에 걸려 있던 후크가 함께 떨어진다.  
경우, 킁킁거리며 방 한가운데 엎드려 있는 강아지를 본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유서를 보는데 가족에게 짝막한 인사를 남긴 뒤,  
그 끝에 적혀 있는 ‘다음 세입자 분께’라는 글자에 시선이 멈춘다.

지혜(E) 다음 세입자 분께.  
혹시라도 저 때문에 이 공간이 불편해지거나,  
이 공간을 싫어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공간은 저에게 힘을 주었지만,  
제가 그것과는 상관없이 힘을 잃었어요.  
방은 작지만 구조가 나쁘지 않아 꾸미기도 좋았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좋아요, 바람도 잘 들구요.

가끔 지치실 때 세탁기에 기대앉아보세요. 2시쯤이 제일 좋아요.

그걸 읽는 경우, 자신의 발에 닿는 어떤 느낌에 보면,  
강아지가 경우의 양말 끝을 물고 있다.

FADE OUT

## #69. 소방서 사무실(아침)

FADE IN

경우의 컴퓨터 화면.

출동일지를 입력하다 ‘출동 당시 심정지’라는 글자를 치고 한참을 본다.

## #70. 부동산 앞(낮)

영윤, 부동산에서 인사를 하고 나온다.

그리고 갈 곳이 있는 듯 서둘러 가는 모습이다.

## #71. 초콜릿 가게 앞(낮)

경우, 영윤 생각으로 복잡한 얼굴로 건다가 뭔가를 보고 멍청한다.

초콜릿 가게 안에서 고민 중인 영윤의 뒷모습이 보인다.

## #72. 초콜릿 가게 안(낮)

영윤, 심각하게 비교하며 자신만의 토너먼트를 하느라 집중하고 있다.

그 뒤로 어느새 들어온 경우.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영운 (놀라서 보면)  
 경우 이런 순간도 한 번쯤 괜찮지 않습니까?  
 영운 아니 그게...

직원, 커다란 상자에 초콜릿을 담아준다.  
 영운, 그 상자를 보는데 여러 감정이 교차한다.

### #73. 초콜릿 가게 앞(낮)

영운, 초콜릿 상자를 들고 나오는데 복잡한 표정이다.

영운 대신 내주면 어떡해요, 경우 씨 주려고 고르던 거였는데.  
 경우 영운 씨 새 출발을 의미하는 기념품이라면서요, 이 상자야.  
 영운 (멈칫)  
 경우 이사... 가십니까?  
 영운 (보는)  
 경우 어제 영운 씨 기다리다가 방 보러 오시는 분 봤습니다.  
 영운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경우 (의아히 보는)

### #74. 202호(낮)

현관문을 열고 경우에게 들어오란 듯 손짓하면  
 경우, 아무래도 조심스럽지만 들어간다.  
 영운, 시계를 보고는 세탁기 앞에 방석을 놔준다.  
 경우, 그걸 보다가 그 자리에 앉아본다.  
 그러면 거짓말처럼 발 앞으로 별이 드리운다.  
 영운은 그 위로를 다 받았다는 듯이 경우를 본다.

두 사람은 한 줄기 별을 나눠 찢며 오후의 한때를 보낸다.

### #75. 한강 공원(밤)

강아지와 걷는 영운, 그 옆을 걷는 경우.

영운 매일 걸을까요.  
 경우 매일 걸으면 좋죠.  
 영운 같이요.  
 경우 좋아요.  
 영운 그러면 탄생각이 안 들 거 같아서요.  
 경우 탄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영운 틀려도 괜찮기로 했으니까요?  
 경우 (끄덕이고) 제가 틀려도 좀 봐주세요.  
 영운 (웃는데)

그때 강아지가 속력을 내서 달리고 그 바람에 같이 달리는 영운과 경우.

### #76. 어느 카페(낮)

빔 프로젝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는 승민.  
 그 앞에 와서 앉는 영운, 물건을 살피듯이 본다.

승민 돈이 어디서 나서 빔을 사. 쓰야 볼 때나 있고?  
 영운 (돈을 꺼내놓는다)  
 승민 알바 구했냐?  
 영운 고맙웠다, 승민아.  
 승민 뭐?  
 영운 너 아니었으면 서울 올라올 용기도 없었을 거고

너 아니었으면 누가 나를 그렇게 먹여 살려줬겠어.  
 승민 갑자기 왜 이래... (보다가) 깎아달라고?  
 영윤 고마운 건 고마운 거니까 인사하는 거야.  
 승민 야, 다신 안 볼 사람처럼 왜 이래.  
 영윤 잘 살아, 나도 잘 살게.  
 승민 너 사는 데 어디야, 이상한 데 막 어... 그런 데서 사는 거 아니야?  
 영윤 보증금 없는 집이라 들어갔는데, 전에 살던 사람이 죽었대 거기서.  
 승민 헐,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  
 영윤 살아, 살 거야.  
 승민 왜, 보증금 없어서? 내가 빌려줄 테니까 (하는데)  
 영윤 아니야, 그 집 괜찮아.  
 승민 펍도 괜찮겠다.  
 영윤 좋아, 채광이 참 좋아.

## #77. 원룸 앞(낮)

영윤이 걸어오다 자신의 집을 바깥에서 바라본다.  
 작은 한 칸이지만 저만큼은 자신만의 공간이다.  
 그곳으로 별이 드리워져 있는 걸 뿌듯하게 본다.  
 그리고 보면 각각의 칸마다 별이 공평하게 드리우는 것 같다.  
 영윤, 안으로 들어간다.

잠시 후 강아지를 데리고, 영윤이 서 있던 자리에서 영윤의 집을 보는 경우.  
 영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 자신을 기다리는 경우가 보인다.  
 영윤의 얼굴 위로 별이 그대로 드리워지며 빛나듯 보이고,  
 그런 빛이 경우와 강아지에게로 반사되면서 빛나는 순간처럼 보인다.

끝.

## 작가 후기

〈채광이 좋아서〉는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제일 막막해졌을 때, 마음 가는 대로 한번 써보자 하고 쓴 단막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공부하고 배워온 작법들보다 제 마음이 앞선 글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쓰고 나서 당선은 못 될 것 같았는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면 됐다, 그렇게 닫아둔 파일을 당선이 된 후 다시 열었습니다. 당선 버전에는 제 마음만 가득했고, 수정 버전에는 제 고민만 가득합니다. 정답이 있을 리 없는 글쓰기에 정답 찾기를 포기하고, 제가 〈채광이 좋아서〉라는 글을 쓰고 싶어 낙서하던 때의 마음과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담아서 수정 버전을 완성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받는 위로의 힘을 체감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로 하는 흔한 설문조사 같은 통화에서 저에게 힘을 주신 상담원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때 이 작품을 떠올린 건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위로의 힘이 크다는 걸 덕분에 배웠으니까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하고 평범한 일들 속에서 드라마틱한 순간을 찾아내 공유하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윤과 경우가 서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는 대화 장면을 제일 먼저 떠올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펜에 당선되면 대본 속 한 구절을 넣어 엽서로 만들어주는데, 저는 그 대화 속 한마디가 들어갔으리라 예상했지만 막상 받아본 엽서에는 내가 이걸 썼던가 싶은 지문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걸 오펜 덕분에 배웠습니다. 센터장님의 냉철한 코멘트가 당선 버전의 게으름을 지워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말 다 빼고라도, 이런 순간이 오면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긴 작가지망생의 시간 동안 한 번도 제 꿈을 의심하지 않아준 아버지, 엄마, 언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글을 쓰는 작가가 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는 강력한 그 믿음이 저를 이 출발선에 세워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 지금도 각자의 202호 안에서 한 줄기 빛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께, 안녕하셨으면 좋겠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2021 오픈 작품집 단막 상

초판 발행.

2021년 12월 15일

글. 구소연, 김진아, 박경화, 백진영  
송순화, 신희선, 왕두리

제작. 오픈

디자인. 권수진

교정 및 교열. 박은경

인쇄. 책공감

발행처. (주)씨제이이엔엠

발행인. 강호성

등록번호. 제 2015-000016호

등록일자. 2015년 1월 13일

주소. 서울시 서초구 과천대로 870-13, 1층

전화. 02-371-9211

ISBN 979-11-972691-2-7 (03680)

© CJ ENM, 2021

이 책의 모든 내용은 CJ ENM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ISBN 979-11-972691-3-4 (03680)**